

- ☐ 국어문학회 제57회 정기 학술대회
-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

- ▣ 일시: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10:00~ 18:00)**
- ▣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 주최: 국어문학회
- ▣ 후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학교

- ☐ 국어문학회 제57회 정기 학술대회
-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

- ▣ 일시: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10:00~ 18:00)**
- ▣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 주최: 국어문학회
- ▣ 후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학교

초대의 글



새로움의 강박에 들린 디지털 문명이 대로를 활보하는 최근 들어 아날로그는 디지털의 행랑채에서 드난을 살며 고단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통 또한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나 철지난 유행가쯤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은 모래의 어제입니다. 그리고 실재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방위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구분하고 가르치는 방위의 언어 기호인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고 분절하는 모든 차이와 구분은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언어 기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개념과 기호의 운명이자 팔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과 전통 또한 서울과 모던의 변방이나 그늘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과 전통은 서울과 모던의 변방이나 그늘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작동 원리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과 전통은 서울과 모던의 기원이자 뿌리이며, 서울과 모던의 그림자를 되비치는 반성적인 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근대 이후 지역과 전통은 끊임없이 서울과 모던의 부정적인 변종이나 열등한 타자로 식민화되고 영토화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과 전통은 서울과 모던의 중심성이나 헤게모니를 내면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충실한 사도가 되거나 심지어 그것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식민주의의 헤르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과 서울, 전통과 모던은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 빛과 그림자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역과 서울, 전통과 모던은 서로 결코 트는 대화적 관계 속에서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어문화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제57회 국어문화회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왕림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내실과 규모를 두루 갖춘 성대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문동신 군산 시장님과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12일

국어문화회 회장 공 종 구

축 사



봄을 맞이하는 2월에 근대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국어문학회의 제5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어문학회가 민족문화와 지역발전에 노력하고자 오늘 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공종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디지털시대의 '지역'과 '전통'」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국문학 연구의 선구적인 구심점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대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산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더 많이 알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학계의 연구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어문학회의 제57회 정기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군 산 시 장 문 동 신

축 사



국어문학회의 57회 정기학술대회를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어국문학 대가들께서 군산에 모여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을 주제로 심도 깊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듯도 싶습니다.

군산은 전통과 근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스며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 근대역사 박물관은 군산만의 독특한 정수(精髓)가 보관된 뜻 깊은 장소입니다. 아날로그적 향수와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 융합된 디지로그적 정서가 깃든 이곳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에 대해 논의할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를 정도로 디지털적 환경이 사회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잖게 나타나면서 어느 사이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오감의 문화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에 향수를 느낄 정도로 중앙집중화와 현대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문학회가 아날로그적 감성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지역과 전통에서 찾고 있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군산지역에는 채옹 채만식을 비롯해서 민족시인 고은, 국내 최고(最古) 빵집인 이성당, 근대문화의 자취, 마한과 가야시대의 유물 등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온고지신의 미덕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여러 가지 유무형의 유물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군산지역의 전통에 대한 아날로그적 성찰을 통해 우리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국어문학회가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해서 국어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거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군산대학교 총장 나 의 군

국어문학회 제57회 정기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지역’과 ‘전통’

- ▣ 일 시 : 2015년 2월 12일 (목) 10:00~18:00
- ▣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 주 최 : 국어문학회
- ▣ 후 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대학교

[학술대회 전체 일정]

10:00~10:30	학술대회 참가 접수			
	개 회 식 (장소 : 장미공연장)			
10:30~11:00	▪ 개회사 : 공중구 (국어문학회장) ▪ 축 사 : 문동신 (군산시장) ▪ 축 사 :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			
11:00~12:20	주제발표 1 (장소 : 장미공연장)			
12:20~14:00	오 찬			
14:00~17:00	주제발표 2	분과발표 1 국어학/국어교육/한국어교육	분과발표 2 고전문학/한문학	분과발표 3 현대문학
	장미공연장	규장각실(2층)	세미나1실(3층)	세미나실(2층)
17:00~17:10	휴 식			
17:10~18:00	연구윤리 교육 및 정기총회 (장소 : 장미공연장)			
18:00~	폐회 및 만찬			

[학술대회 세부 일정]

제1부 개회 및 주제 발표

【개회】 사회: 남기혁(군산대) 장소: 장미공연장

시 간	내 용
10:00~10:30	학술대회 참가 접수
10:3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공종구 (국어문학회 회장) ▪ 축 사 : 문동신 (군산시장) ▪ 축 사 :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1】 좌장: 송준호(우석대) 장소: 장미공연장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토 론	소 속
11:00~11:40	◎ 세계문학으로서의 高銀	유성호	한양대	남기혁	군산대
11:40~12:20	◎ 채만식(蔡萬植) 문학과 고전(古典)의 패러디-심봉사」 3부작을 중심으로-	임명진	전북대	김승중	전주대
12:20~14:00	오 찬				

【주제발표 2】 좌장: 전흥남(한려대) 장소: 장미공연장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토 론	소 속
14:00~14:40	◎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황태목	순천향대	김민영	군산대
14:40~15:20	◎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이성당 70년 -이성당에 대한 대중의 상상과 현실	구단비	국립민속 박물관	오세미나	전북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 한국에서의 지역의 박물관 보기	김인덕	청암대	정기문	군산대
16:20~17:00	◎ 현 사회에서의 방언 연구 방법	임석규	원광대	채현식	군산대

제2부 분과별 발표회

【국어학/국어교육/한국어교육 분과】 좌장: 박시균(군산대) 장소: 규장각실(2층)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토 론	소 속
14:00~14:40	●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1923)에 반영된 20세기 초엽 서울 방언의 음운론과 음라우트의 공시성	최전승	전북대	양영희	전남대
14:40~15:20	●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를 중심으로	하채현	전주대	박미엽	전북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 양적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능력 측정 변항 추출 - 중등학교 학생의 언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서형국	전북대	진대연	호원대
16:20~17:00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교수법 사례 연구 -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을 중심으로	곽상인	공주대	손혜숙	중앙대

【고전문학/한문학 분과】 좌장: 한창훈(전북대) 장소: 세미나1실(3층)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토 론	소 속
14:00~14:40	● 조선 중기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	장봉수	전남대	김영봉	전북대
14:40~15:20	● 매창 한시에 나타난 지역성 - 부안·변산권 한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	손앵화	전북대	정 훈	군산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 진훤전설의 신화성과 변이	조성훈	우송대	윤태식	서울시립대

【현대문학 분과】

좌장: 송기섭(충남대)

장소: 세미나실(2층)

시 간	내 용	발 표	소 속	토 론	소 속
14:00~14:40	◎ 죽음을 현재화하는 글쓰기-「바다의 편지」를 중심으로	강소희	전남대	한순미	조선대
14:40~15:20	◎ 잔류과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	김미향	인천대	윤영옥	전북대
15:20~15:40	휴 식				
15:40~16:20	◎ 신채호 유고 「백두산도중」과 근대 문학	조경덕	고려대	최성윤	상지대
16:20~17:00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	장창영	전북대	노용무	호원대

제3부 연구윤리 교육 및 정기총회

【연구윤리 교육 및 정기총회】

사회: 남기혁(군산대)

장소 : 장미공연장

시 간	내 용	비 고
17:10-18:00	◎ 연구윤리 교육 및 정기총회, 폐회 - 공종구 (국어문학회 회장)	

* 【오찬 장소】 아리랑식당 (063-442-1207), [행사장에서 220m, 도보 3분 거리]



* 【만찬 장소】 예촌 (063-446-0222), [행사장에서 500m, 도보 8분 거리]



목 차

【제1부 주제발표 (1)】

01. 세계문학으로서의 高銀: 유성호(한양대) 1
 ▫ 토론: 남기혁(군산대) 11
02. 채만식(蔡萬植) 문학과 고전(古典)의 패러디 -
 「심봉사」 3부작을 중심으로 -: 임명진(전북대) 13
 ▫ 토론: 김승중(전주대) (별지)··· 25

【제1부 주제발표 (2)】

03.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황태목(순천향대) 29
 ▫ 토론: 김민영(군산대) 38
04.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이성당 70년 -
 이성당에 대한 대중의 상상과 현실: 구단비(국립민속박물관) 41
 ▫ 토론: 오세미나(전북대) 51
05. 한국에서의 지역의 박물관 보기: 김인덕(청암대) 53
 ▫ 토론: 정기문(군산대) 63
06. 현 사회에서의 방언 연구 방법: 임석규(원광대) (별지)··· 65
 ▫ 토론: 채현식(군산대) (별지)··· 66

【제2부 분과별 발표: 국어학/국어교육/한국어교육】

07. Eckardt의 『조선어교재문전』(1923)에 반영된
 20세기 초엽 서울 방언의 음운론과 음라우트의 공시성: 최전승(전북대) 69
 ▫ 토론: 양영희(전남대) 102
08.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를 중심으로: 하채현(전주대) 103
 ▫ 토론: 박미엽(전북대) (별지)··· 118

09. 양적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능력 측정 변항 추출 -
 중등학교 학생의 언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서형국(전북대) 119
 ▫ 토론: 진대연(호원대) 148
10.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교수법 사례 연구 -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에서 '카타오류' 활용을 중심으로: 곽상인(공주대) 151
 ▫ 토론: 손혜숙(중앙대) 170

【제2부 분과별 발표: 고전문학/한문학】

11. 조선 중기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 장봉수(전남대) 173
 ▫ 토론: 김영봉(전북대) 189
12. 매창 한시에 나타난 지역성 -
 부안·변산권 한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손영화(전북대) 191
 ▫ 토론: 정 훈(군산대) (별지)··· 198
13. 진훤전설의 신화성과 변이: 조성훈(우송대) (별지)··· 199
 ▫ 토론: 윤태식(서울시립대) (별지)··· 200

【제2부 분과별 발표: 현대문학】

14. 죽음을 현재화하는 글쓰기-「바다의 편지」를 중심으로: 강소희(전남대) 203
 ▫ 토론: 한순미(조선대) 214
15. 잔류과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 김미향(인천대) 219
 ▫ 토론: 윤영옥(전북대) 232
16. 신채호 유고 「백두산도중」과 근대 문학: 조경덕(고려대) 233
 ▫ 토론: 최성윤(상지대) 242
17.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 장창영(전북대) 243
 ▫ 토론: 노용무(호원대) 256

【제3부 연구윤리 교육: 국어문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 국어문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261

제 1 부

【주제 발표 (1)】

세계문학으로서의 高銀

유성호(한양대)

1.

고은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우뚝하고도 이채로운 존재 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그의 정력적 다작은 범인으로서의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열정의 결실이었고, 장르 사이의 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거침없는 언어 역시 다른 이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그만의 개성적 역량이자 영역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미학적이든 정치적이든 언제나 실천적 전위에서 있었던 그의 행동적 에너지야말로, 그를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는 핵심적 자질이 되어주었다. 남들은 현역에서 물러나 인생을 정리하고 여생을 관조할 노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왕성한 현역이다. 아니 오히려 또 한 번의 생의 전성기를 누리리라도 하듯, 그는 한 해의 절반가량을 해외에 나가 시 낭송도 하고 외국 문인들과 폭 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노(老)시인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툭툭 언어를 던져도 시가 되는 경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는, 아마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젊은 시인’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은은 다른 이들의 범접을 허락지 않는 문학사적 권역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은의 초기 시편은 허무주의의 세례를 받은 탐미적 세계로 출발한다. 그러다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른바 ‘정치적 상상력’을 통한 일종의 시적 전회를 감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모순된 현실에 대한 투쟁 의지를 드러낸 그의 중기 시편들이 펼쳐진다. 그러다가 후기에 이르러 그는 상상력이나 형식의 제한이 없는 활달함으로 자유로운 시편들을 쏟아낸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그의 시를 불교의 계승(偈頌)이나 선시(禪詩)의 전통과 닿게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고은 시의 간단치 않은 변모 과정은 한국 문학사 전체의 진폭을 자신의 시적 운산으로 수행해온 그의 커다란 스케일과 넘치는 열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행동적 에너지로 가득찬 고은의 시적 생애를 조감하면서, 그의 시적 이력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것의 세계문학적 보편성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독자적이고 우뚝한 음역을 지닌 한 시인을 뚜렷하게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문학’이라는 용어와 ‘세계문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대비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국민문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 국민국가의 고유한 민족성을 드러낸 문학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세계문학’은 인류 공유의 문화 개념으로서 초시대적, 인류적으로 보편타당한 사상이나 정서를 담고 있는 문학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문학이 사실상 국민문학의

결실 가운데 보편성을 획득한 것들이 확장적으로 획득한 개념임이 역사적으로 발견되면서, 세계문학은 사실상 존재 개념이 아니라 가치 개념임이 유력하게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문학이 국민국가의 언어로 씌어진 문학으로서, 서구에서 르네상스 이후 중세적 보편주의를 극복하고 근대적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각 민족어가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 문학 일체를 뜻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과 가운데 세계문학의 성좌로 편입한 실례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神曲)』은 중세 유럽의 공통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문학’의 선구적 성취로 꼽힌다. 프랑스에서는 빅토르 위고, 영국에서는 찰스 디킨스, 독일에서는 괴테, 러시아에서는 푸시킨 등이 이러한 선구자들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취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세계문학으로 가치 평가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그 점에서 ‘세계어’라는 가상의 실체로 씌어진 ‘세계문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문학’으로 구성되거나 소통된 실체들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계문학으로 공유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따라서 고은의 세계문학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 그것은 고은 문학의 국민문학적 성과를 살피고 그것이 잘된 번역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사의 전개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특별히 문학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근대는 국민국가의 결여 형식에서 출발하고 완성된 어떤 것이었다. 순조로운 근대의 구성과 해체를 내적으로 겪었던 서구와는 토양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초유의 근대 결여 상태를 한 세기 가깝게 겪은 터라, 이렇다 할 ‘국민문학’으로서의 표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세기 동안 펼쳐진 문학적 유산을 평가하는 시선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혼쾌하게 합의될 만한 공통의 전범(典範)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가령 우리는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두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충돌을 경험했으며, 식민지 말기에는 친일이라는 집단적 광기와 마주쳤다. 분단 이후에는 좌와 우의 이념적 갈등을 겪었고, 중국에는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는 특수한 분단 경험을 가졌다. 또한 분단된 조국에서는 권력을 상대로 한 ‘친체제/저항’이라는 이분법까지 생겨나서, 우리의 지식 사회에서는 한결같이 분파적 견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 어느 누가 ‘민족주의/사회주의’, ‘좌/우’, ‘친체제/저항’의 균열을 넘어선 보편타당한 표상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있다면 미완의 캐릭터들 예컨대 생의 절정에서 숨을 멈춘 운동주나 정치적 이상의 좌절을 보여준 백범(白凡) 같은 사람들만 훼손 없는 채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점에서 우리 문학인 중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 임화, 이태준 그리고 해방 후의 김동리, 서정주, 황순원, 박경리, 최인훈, 황석영, 조정래 등 쟁쟁한 문호들의 작품도 이 같은 이념적, 방법적 갈등을 겪은 우리 근대사 때문에, ‘국민문학’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어졌던 것이다. 고은 시편도 이러한 프리즘에서는 마찬가지로 불구적 위상에 놓인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국가 전 구성원의 심정적 동의를 얻는 그러한 계량적 보편성에서 떠나서, 민족의 심층적 언어와 심의와 경험을 담은 우리 작품 가운데 ‘번역’이라는 장치를 통해 세계적 보편성으로 점진적 확장을 해갈 언어적 실체로서 그 세계문학적 속성을 한정해야 한다. 이때 고은 시편은 가장 적정한 세계문학적 가능성의 실례로 다가올 것이다. 근원적 허무에서 시작하여 민족적 특수성을 거쳐 이제 가장 보편적인 생의 근원으로 확장적 회귀를 거듭하는 시인의 시작 과정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구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고은의 초기 시편은 생에 대한 근원적 허무와 죽음 충동, 그리고 탐미적 시풍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허무와 죽음 충동이 곧바로 비관적인 생 의식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의 근원을 응시하고 그것을 인간적 성숙의 한 과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인의 긍정적 시선이 역설적으로 구현된 방법적 언술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세계는, 시집으로 말하자면 『彼岸感性』(1960)으로부터 『入山』(1977)에 걸친 20여 년의 시기의 작품들에서 줄곧 나타난다.

누님이 와서 이마말에 앉고,
외로운 파스 하이드라짓드병 속에
들어있는 情緒를 쪼개보고 있다.
뜨락의 木蓮이 쪼개어지고 있다.
한 번의 기인 호흡이 창외 하늘로 삭아가버린다.
오늘 하루의 이 午後
筋脛에서 두근거리는 체온의 되풀이
머나먼 곳으로 간다.
지금은 틀거울에 담은 기도와
아래 얼굴,
모든 것은 이렇게 두려웁고나.
기침은 누님의 간음,
언제나 실크빛 연애나
나의 시달리는 흠이불의 일요일을
누님이 보고 있다.
누님이 치마끝을 매만지며
화장 얼굴의 땀을 닦아 내린다.

— 「肺結核」 중에서

고은의 실질적 등단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고은 초기 시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서 화자는 따스한 봄날에 폐결핵이라는 질병과 씨름하며 외로이 방 안에 누워 있다. 이때 누님이 화자의 고통과 함께 하고 있지만, 화자는 오히려 누님과 교감에 대한 상상에 시달린다.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예감과 근친상간적 분위기가 점증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 시편은 ‘방’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허무의 깊이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방’은 유폐된 채 스스로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공간이 되며, 질병과 근친상간의 이미지는 그러한 성숙을 예비하는 고통과 허무의 감각적 등가물이 된다. 이처럼 고립된 상황과 예비된 죽음은 그의 초기 시편을 강렬하게 수놓는 이미지군(群)이다. 특히 질병 이미지와 폐쇄 공간이 결합되면서 구성하는 시적 분위기를 통해, 그의 초기 시편들은 탐미적인 죽음 충동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 작품은 그 같은 허무와 탐미의 늪을 건너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드러내준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눈길」 전문

이 작품은 지난날의 방향과 고뇌의 시간을 거친 후 눈이 포근히 내린 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성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종의 성장 시편이다. 1960년대에 씌어진 작품으로서, 고은의 내면적 성숙의 한 모습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 '눈'이라는 소재는 지난날을 차분히 정리하고 성찰하며 동시에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고, 포근히 대지를 덮음으로써 그 자체로 시인의 지난날을 포용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온갖 물질적 세계를 초극한 내면의 어둠 속에서 성숙의 과정을 발견하는 시편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무와 죽음 충동 그리고 탐미적 분위기와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줄곧 보여준 그의 초기 시세계는 1970년대 이후 커다란 전회를 맞게 된다. 그 세계는 '유신'이라는 강력한 가부장적 통치 체제와 전태일 분신 사건을 동시에 마주한 그의 이른바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분출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초기 시편의 낭만적 허무 시편들을 민중의 역량과 지식인의 역사적 실천 가능성을 신뢰하는 시편들로 바꾸어낸 결실이다. 이로부터 민족 공동체의 특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람살이에 대한 지극한 간찰과 사랑을 통해 모순된 현실과 싸우는 고은 중기 시편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4.

우리가 잘 알듯이, 1960년대의 문학적 인식과 형상화가 4월 혁명이 마련한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결정(結晶)되었다면, 1970년대의 시적 상상력은 '유신(維新)'이라고 하는 강력한 가부장적 통치 체제와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그 형식과 내용이 시작된다. 이 두 가지 축은 당시의 시인들로 하여금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민중에 대한 문학적 관심의 본격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 욕망의 팽배, 사회적 의무감과 도덕적, 낭만적 열정이 뒤섞인 한 시대의 문학적 개화를 가져다준다. 이 시기의 시인들은 한편으로는 민중 지향적 의식으로 당대 민중들의 삶과 정서를 형상화하면서 그를 둘러싼 여러 역학 관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을 형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독재 체제에 결핍되고 박탈당했던 자유와 내면의 가치를 옹호하는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같은 전문지들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이루면서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귀중한 축적을 이룬다. 이때 시사적 주류로 떠오른 이른바 '민중적 서정시'는 개발 독재 체제가 빚은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민중의 일방적 피해, 그리고 분단 고착 등에 대한 비판적 형상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는 역설적인 것이지만, 억압적인 정치 풍토가 저항과 민중 지향의 시적 수원(水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간된 『文義마을에 가서』(1974)는 고은 시가 근본적으로 지향했던 허무의 늪에서 민중의 대지로 나오는 귀중한 분기점이 되는 시집이다. 고은 초기 시편에서 보이던 낭만적이고 탐미적인 허무의 시편들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민중의 역량과 지식인의 역사적 실천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며 현저한 변화를 이루어간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신성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소백산맥(小白山脈) 쪽으로 뺏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고 서서 참으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꼭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 참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지난여름의 부용꽃인 듯
 준엄한 정의(正義)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

— 「문의(文義)마을에 가서」 전문

시집 표제작이기도 한 이 작품에서는, 시인의 ‘죽음’을 둘러싼 해석과 반응이 초기시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난다. 문의마을은 충북(忠北) 청원군(淸原郡)의 한 마을로서 지금은 대청(大淸)댐에 가라앉아 있다. 당시 문의에 살던 신동문(辛東門) 시인의 모친상에 들렀다가 착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오랫동안 잠식했던 생래적 허무와 죽음 충동에서 비로소 벗어나고, 한편으로는 시의 사사적(私事的) 집착에서 훌쩍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삶’에 눈을 뜨게 된다. 가령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라는 강렬한 선언은 그 자체로 고은 특유의 결단의 어조를 반영하면서, 그러한 개안(開眼) 과정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을 구성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시인은 문의에까지 다다른 ‘길’이 다시 몇 갈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풍경과 죽음만큼 신성한 ‘길’들이 저마다 추운 곳으로 뺏어가는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때 시인은 추운 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곧 “빈부에 젖은 삶”을 자신의 실존 안쪽으로 안아 들인다. 그리고 ‘눈’이 죽음을 덮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질문을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라는 질문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는 결국 겨울 문의에 내리는 ‘눈’도 죽음은 덮을 수 있지만 우리들

'삶'까지 다 덮을 수는 없다는 발견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환청처럼 들리는 미당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미당은 「무등을 보며」에서 '가난'을 두고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여름 산 같은/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라고 노래한 바 있다. 혹독한 '가난'도 우리들 살결과 마음씨까지는 가리지 못한다고 노래한 미당의 목소리와 겨울 문의에 내리는 '눈'도 이 세상의 춥고 낮은 삶까지는 다 덮지 못한다고 노래하는 고은의 목소리는 어조와 표현에서 매우 닮아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과 죽음의 등가적 육체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고은만의 차별적 진경(進境)이 미당의 목소리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이 구절은 그래서 미당과 고은의 만남과 결별을 보여주는 듯하다. 바로 그 맥락에서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이 세상 인기척을 듣고 있는 풍경, 그리고 준엄한 정의(正義)처럼 돌을 던져도 가 닿지 않는 '죽음'의 풍경에 시인은 눈을 뜨게 된다. 여기서 '문의(文義)'라는 구체적 지명은, 글[文]을 쓰는 이가 다다른 준엄한 정의[義]처럼, 시인에게 걱정적 호흡의 연쇄를 통해 '삶/죽음'이라는 한 몸의 심층에 내려앉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 준다. 이처럼 삶과 죽음의 선명한 대비에서 시작하여 삶과 죽음의 불가분리성을 통과하고 삶에 대한 궁극적 긍정으로 나아가는 이 시편은, 시인이 오래도록 탐구해온 '죽음'의 구체적 육체와 조우하면서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다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 다다른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물론 고은 시편은 단일한 의미로는 결코 파악되지 않는다. 그 특유의 시적 비문(非文/秘文)과 과장과 잉여가 원활한 패러프레이즈를 방해할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시편에서도 비문과 과장과 잉여가 발생하면서 고은 특유의 의미 지연과 착종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러한 속성이 또한 고은의 개성이요 사유의 복합성을 일러주는 파생적 지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지표의 흐름 속에 「문의(文義)마을에 가서」가 가파르게 놓여 있는 것이다.

5.

그의 중기 시편은 『文義마을에 가서』로부터 『새벽길』(1978)을 거쳐 『내 눈동자』(1988)에 이르는 시간을 함의한다. 그가 '정치적 상상력'의 선봉에서 부른 투쟁의 노래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창작된다. 그가 역사로 투신하게 되는 전환점에서 쓴 절창 「자작나무숲으로 가서」, 혁명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노래한 대표작 「화살」 등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 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

얼마 만이나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벽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알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중에서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든 시인이 느끼는 대자연의 경건성과 그로 하여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하는 삶의 역정은 고은의 탐미주의적 성격과 역사적 의지의 결연함을 동시에 입증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단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시적 지향은 「화살」이라는 알몸의 육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던가
 뭣이라던가
 그런 것 다 녀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영령이여!

— 「화살」 전문

이 시편은 1970년대 유신 정권의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시인의 민주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화살’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투쟁했던 사람, 즉 민주화 투쟁의 전위를 상징한다. 시인은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가진 것’, ‘누린 것’, ‘쌓은 것’이라는 부와 명예뿐 아니라 ‘행복’도 녀마처럼 버리자고 한다. 나아가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고 반복해서 외침으로써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다. 또한, ‘박힌 아픔과 함께 썩’겠다, ‘피를 흘리’겠다는 다짐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순국(殉國)의 의지로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만 만인을 먹이는 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와 상통한다. ‘캄캄한 대낮’으로 표상되는 폭압의 현실

속으로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겠다'는 시인의 대 사회적 선언은 마침내 그를 허무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멀고도 험한 민중, 민족, 통일 문학의 금자탑으로 우뚝 서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시편들과 더불어 고은은 장편 연작시 『萬人譜』나 『白頭山』 등의 서사 시편들을 정력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한다.

너와 나 사이 태어나는
순간이여 거기에 가장 먼 별이 뜬다
부여땅 몇천 리
마한 신네 나라 마을마다
만남이여
그 이래 하나의 조국인 만남이여
이 오랜 땅에서
서로 헤어진다는 것은 확대이다
어느 누구도 저 혼자일 수 없는
끝없는 삶의 행렬이여 내일이여

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다 세계이다

- 「만인보 서시」 전문

고은은 자신의 연작시 「萬人譜」를 1980년 여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제7호 특별 감방에서 구상했다. 그해 5월17일 자정을 기해 발효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동시에 체포된 시인은 김재규가 사형 직전까지 머물렀던 방에 갇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운명의 발자국 소리를 하릴없이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손바닥만 한 창 하나 없이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그 무덤과 같은 방에서 그의 의식은 옛일의 회고와 추억을 탈출구로 삼았다. 만일 살아서 나간다면 지나간 삶의 구비에서 마주친 이들을 시로써 되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그로부터 6년 뒤에야 실현된다. 그 사이 시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뒤 사면, 석방되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의 「萬人譜」 연작에는 이처럼 “너와 나 사이 태어나는/순간”에 대한 놀라운 집중성과 “부여땅 몇천 리/마한 신네 나라 마을마다/만남이여/그 이래 하나의 조국인 만남이여” 같은 민중적 서정이 녹아 흐르게 된다.

강 건너 내포 일대
대전장 예산장 서산장
아무리 고달픈 길 걸어도
아버지는 사뭇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면 두 손으로 비 받으며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아버지」 전문

시집 『萬人譜』에 실린 이 작품에는, 시인의 기억과 경험 속에 있는 혈육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 의해 한 인물이 재현되고 있다. 이 시편은 그의 아버지가 곤고한 삶과 떠돌이 의식 그리고 낙관적인 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그의 후기 시편은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1990년대 초반의 작업이 담겨 있는데, 「아리랑」, 「우리 나라 음유시인」 등의 겨레 사랑 시편이나, 불교적 상상력과 어법을 통해 종횡무진 세계의 본질을 만행(萬行)하고 있는 단형 시편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다가 『아직 가지 않은 길』(1993) 이후 최근까지 행하고 있는 정신적 모험과 해외여행의 편력이 녹아

있게 된다. 특히 여기서는 그의 체질화된 유목민적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의 독특한 정신적 진경(進境)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1990년대에 씌어진 시편이다.

한 점 눈송이 기다린 몇십 년
내 몸은 숯불 이글이글거리다
다 꺼졌다

따라서 매미 쓰르라미 소리 있다 없어졌구나

- 「감회」 전문

끊임없이 피어올랐던 자신의 욕망은 잦아들었다. 기다리던 “한 점 눈송이”는 결국 오지 않고 “숯불”만 타오르다 궁극적으로 “무(無)”만 남았다. 이때 비로소 시인은 적막한 세계를 응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독특한 내구성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20세기 한 거장(巨匠)의 편력을 이러한 흐름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은의 시는 단색(單色)의 어조로는 결코 파악되지 않는다. 그의 시는 비유컨대 세상의 속내들에 대한 친근한 연가(戀歌)이다가, 생에 대한 열렬한 찬가(讚歌)이다가, 소멸해가는 사물들에 대한 안쓰러운 비가(悲歌)이다가, 언어 자체를 넘어서는 침묵이다가, 스스로를 다그치는 죽비의 소리가 되기도 하는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개개의 시편들이 개인의 주술로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고은처럼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을 던졌던 치열한 영혼을 간직하는 일도 드문 축복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의 밑그림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고은 시편의 역정이라 할 것이다.

6.

고은의 고회를 기념하여 『어느 바람』(창작과비평사, 2002)이라는 시선집이 출간된 바 있다. 이 작품집은 고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추려 펴낸 게 아니라, 후배 시인인 김승희, 안도현, 고희열, 이시영이 고은의 작품들 가운데 좋은 시편들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백낙청 교수가 그 가운데 150편을 뽑아 선배 시인에게 헌정한 결과였다. 이 시선집은 그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력(詩歷)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워낙 방대한 양 때문에 미처 그의 시를 따라 읽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알맞은 조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선집의 제호인 ‘어느 바람’은 고은의 생애 그 자체를 가장 적실하게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끝없는 유목민 의식과 천형(天刑)으로서의 시인 의식은, 시집 『시여, 날아가라』의 서문에서 그가 절규한 “시여 시여 날아가라. 이 시집의 역제로부터”라는 구절이나, 이 시선집의 「시인의 말」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세상을 좀 넓히려다. 훨훨! 이승에만 갇혀 있지 않으려다.”는 구절과 통하면서, 그가 누리는 시공간이 태초부터 미래까지, 이승(삶, 역사)으로부터 저승(죽음, 초월)까지 두루 걸쳐져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의 언어가 그것들의 경계를 ‘바람’처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음을 실감으로 목도하게 된다.

결국 고은은, 최근 우리 문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성 편향, 개인주의, 사적 감성으로의 침잠, ‘기억’으로의 회귀 경향 등에 미학적으로 저항할 때 언제나 살아 있는 참조점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그의 현실 감각과 역사적 원근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로

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그는 근원적 허무에서 발원하여 민중의 대지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시적 형상을 넘어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담아내는 시적 장인으로서의 성취를 보여왔고, 우리는 국민문학으로서의 가장 깊은 성취가 전지구적 보편성으로 확장해가는 흐름으로 그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도 15년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근대사를 휘감아온 이념적, 방법적 균열과 상처를 딛고 우리는 민족 화해와 국민 통합의 길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경우, 그동안 '국민국가'의 결여 형식에 대한 문학적 응전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문학은, 그 방향을 좀 더 보편적이고 심원한 인간 실존의 문제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된다. 이때 고은 시편들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실존 의식으로부터 참여한 역사의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남기혁(군산대)

유성호 선생님의 “세계문학으로서의 高銀” 에 대한 토론문

이 논문은 ‘국민문학’적 성취와 ‘세계문학’적 성취 간의 관련성에 입각하여, 고은 문학이 지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논거는 고은 문학이 “민족적 특수성을 거쳐 이제 가장 보편적인 생의 근원으로 확장적 회귀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발표자의 이런 연구 관점에 동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잘 알고 계시듯이, 고은 문학의 기원이자 원동력으로서 ‘군산’의 로컬리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문학이 온전히 ‘군산’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산의 지역적 정체성 혹은 이곳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떠나 고은의 문학적 성취-가령 [만인보] 같은-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께서는 고은 문학이 성취한 군산의 지역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그리고 군산의 지역성이 선생님께서 말하는 ‘국민문학’적 성취-더 나아가 ‘세계문학’적 성취-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고은이 이루어낸 ‘국민문학’적 성취 혹은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군산) 지역의 시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군산에서는 고은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군산 내부의 시각에 사로잡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고은 선생의 고향이 군산이라는 것, 그의 문학 속에 군산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할 때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국민문학적, 세계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고은 선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때, 우리 군산 지역에서 유념해야 할 점, 혹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3)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발표문에 인용된 [문의마을에 가서]는 1980년대 이후에 개작된 텍스트입니다. 발표문 전체의 논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970년대 고은 시의 변모과정을 논의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채만식(蔡萬植) 문학과 고전(古典)의 패러디

- 「심봉사」 3부작을 중심으로 -

임명진(전북대)

<목차>

1. 머리말
2. 채만식 문학 속의 고전 패러디 양상
3. 『심봉사』3부작의 거리
4. 안맹(眼盲)의 중층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채만식 문학과 전통과의 관련성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 전통서사의 문체와 구성의 변용 차원, ② 역사소설에 나타난 시대인식 문제, ③ 고전의 패러디 차원이 그것이다.

위 ①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천이두(1973) 이후 방민호(200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찍이 천이두(1973)에서 판소리의 서술 방식과 문체와의 연관성이 암시적으로 지적되었고, 그 뒤에 김성수(1984), 나병철(1990), 우한용(1991), 임명진(1994), 방민호(2002)에서 그 관련양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 이 결과로 『태평천하』와 『탁류』 등의 문체와 구성이 판소리계 소설의 전통을 적실하게 계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②의 차원에서는 최원식(1982)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향날』(1937), 『어머니』(1943), 『옥랑사』(1948), 『역사』(1949)로 이어지는 채만식의 역사소설을 “개화기의 역사적 실패 앞에서 결국 분단 시대로 귀결되는 해방 직후사의 실패까지 예견하고 있”(최원식, 1982 : 153)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③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는 신상철(1983), 송현호(1992), 김재용(1999), 방민호(2002)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성격과 주제도 고전소설의 그것과 상관성을 맺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채만식 문학과 전통과의 상관성은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 걸쳐 이제 매우 다양하게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연구들 대부분이 형식주의적 작품론에 흐르고 있고, 일부 ‘내용’ 측면에서 접근한 논구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화소(話素)의 모티프를 해명해내고는 있으나, 그것도 고전의 그것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고전과의 상관성이 작가의 가치관이나 주제 형성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라는 변혁기를 살아온 작가 채만식은 그저 단순하게 전통적 서사를 차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예술의 수법과 문체를 어떤 의도와 전략 아래

어떻게 활용”(이선영, 1999 : 11)하기 위하여 현대적으로 변용했다면, 고전의 주제나 미학은 작가의 가치관과 매우 예민한 접점에서 만나 상호 절충과 혼성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절충과 혼성이 때로는 변성과 결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방과 수용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심봉사』를 중심으로, 고전 『심청전』이 채만식 문학에 어떻게 수용·차용·변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그런 고전의 패러디가 작가 채만식의 주제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2. 채만식 문학 속의 고전 패러디 양상

채만식문학에 동·서양 고전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대로다. 채만식의 고전의 차용은 신소설이나 한국 고전소설에 그치지 않고 서양 작가 푸르케네프, 입센, 발작 등의 작품까지 넓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채만식이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평론·수필 등 장르를 넘어서 문학 전반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든지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든지, 또한 풍부한 어휘와 방언을 두루 차용한 점 등이 푸르케네프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입센의 영향은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채만식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 속편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상관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이 생애 최초의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런 영향관계가 그의 창작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잖은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은 작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고전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그의 역사소설을 제외하고 한국 고전과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작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장편소설 : 『배비장』(1943), 『심봉사』(1944)

중편소설 : 『허생전』(1946)

단편소설 : 『보리방아』(1936), 『동화』(1939), 『홍보씨』(1939), 『병이 낫거든』(1941)

7막희곡 : 『심봉사』(1936)

3막희곡 : 『심봉사』(1947)

이 밖에 전래 설화와 상관되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팔려간 몸』(1933), 『소복 입은 영혼』(1936), 『두 순정』(1938) 등을 찾을 수 있어, 채만식 문학과 고전과의 영향관계는 다양하고 광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문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시골서 붉은 딱지 책(傳冊, 또는 신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십전 짜리의 『춘향전』, 『심청전』, 『추월색』, 『홍길동전』 따위들)을 읽음으로 해서 소설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탓으로 …중략… 내가 오늘날 소설가가 된 것은 붉은 딱지책의 은덕이라 할 것입니다. 즉 붉은 딱지 책은 나에게 있어서 소학교 훈도라 할 수 있지요.²⁾

1) 이 글에서 ‘패러디’는 범박하게 ‘기존 작품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질적인 주제나 내용을 삽입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Margart A. Rose(1980) 및 Linda Hutcheon(1985) 참조.

2) 박계주, 『채만식과 신소설』, 『여원』 1963년 5월호 291-3쪽 참조.

이 박계주의 회고에 의하면, 채만식은 소년 시절 일명 ‘딱지본’ 소설을 광범하게 섭렵하였고, 그 스스로도 “幼年 少年 적에는 春香傳, 九雲夢, 秋月色, 長恨夢 등 新舊小說과 三國志, 水湖志, 東漢演義, 西漢演義, 등 안 읽은 게 別로 없고”³⁾라 고백하기도 하였다. 채만식의 소시적 독서가 그의 창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후에 ‘고전의 패러디’라는 자연스러운 그 소설의 한 줄기 되었던 것이다.⁴⁾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채만식이 패러디의 대상으로 가장 주목한 고전소설은 『심청전』과 『흥부전』이다. 『흥부전』의 패러디 양상은 흥부와 놀부의 모티프들이 여러 작품에 산포되어 있어서 그 전모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놀부 모티프를 선명하게 차용하여 성공한 작품으로 대표작 『태평천하』를 꼽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⁵⁾

『심청전』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작품으로는 7막 희곡 『심봉사』(1936), 미완성 소설 『심봉사』(1944), 그리고 3막 희곡 『심봉사』(1947)가 있다. 그 밖에 『심청전』을 모티프로 변용한 작품으로는 소설 「보리방아」, 「童話」, 「病이 낫거든」 등이 있으며, 이 소설의 화소(話素)들을 빌린 작품으로는 『탁류』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 가운데 『심봉사』 3부작을 중심으로 고전 『심청전』의 패러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심봉사』 3부작의 거리

채만식은 생전에 ‘심봉사’란 제목으로 희곡 두 편과 소설 한 편을 집필하였다. 7막 희곡 『심봉사』(이하 ‘7심’으로 표기), 미완성 소설 『심봉사』(이하 ‘소심’으로 표기), 그리고 3막 희곡 『심봉사』(이하 ‘3심’으로 표기)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소심’은 1944년 『新世代』에 4회 연재되다 중단되었다. 당시 발표된 분량이 200자 원고지 기준 약 200매 가량이지만, 그 내용이 심학규의 집안 내력, 장님이 된 과정, 심청의 탄생에 그치고 있어, 작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본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발표된 앞부분에서나마 ‘7심’과 ‘3심’의 그것과 견주어볼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본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7심’은 『심봉사』 3부작 가운데 가장 분량도 많을뿐더러 원작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등장하고, 마지막 대단원 이전까지 구성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대단원에 이르는 과정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대로 전개되고 있어서 극적 전개도 완만하면서도 큰 굴곡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종막(終幕)은 원작과 매우 다르게 마감된다. 여기에서는 심청이 재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심봉사의 처지를 공황히 여긴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궁녀로 하여금 심청 역할을 하도록 꾸미고 심봉사에게 거짓으로 심청이 살아돌아왔다고 말한다. 궁녀 김씨가 심봉사를 아버지라 부르자 심봉사는 심청의 생환소식에 기꺼워하다가 눈을 뜨지만 이내 이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진다.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가…… 자세 들으시오. 죽지 않고

심봉사 : 심청이가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아 있대요?

3) 채만식, 「作家短篇 自敘傳」, 『三千里文學』 1938년 1월호, 256쪽.

4) 채만식 문학의 기원, 고전과의 상관성 등을 상호텍스트성 차원에서 논구한 것으로는 방민호(2002)를 주목할 만하다. 이 논저의 한 장인 「상호텍스트성의 의식적 수용과 조선 근대문학의 독자적 형식 모색」에서 방민호는, 채만식이 이런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한국문학의 독자성을 모색하였음을 부각하고 있다.

5) 이 방면의 대표적 연구로는 신상철(1983)이 있다.

장승상 부인 : 네 살아 있어요.

심봉사 : 그러면 그렇지. (벌떡 일어나서 춤을 덩성덩실 추며) 어허 좋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심청이가 죽다니 뭘말인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심청이가 우리 딸 심청이가 출천대호 내 딸 심청이가 죽대서야 천도가 무심하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어쩐지 어데 가서 살아 있는 것만 같더라 말이야.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런데…… 장승상 부인 그래 그애가 지금 있기는 어데 가 있답디까? 그건 모르시나요?

장승상 부인 :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애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이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 영? (또 한 번 달리 놀라) 영?

궁녀 김씨 :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궁녀 김씨 : 어이구머니 송축해라! (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니 눈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심봉사 얼떨떨해서 멍하니 섰다가 전후 좌우와 위 아래로 둘러본다.

(특히 관객에게 눈 뜬 것이 보이도록) 장승상 부인과 왕후는 궁녀 김씨가 실패한 것을 당황하다가 심봉사가 눈 뜬 것을 알고 기뻐한다.

장승상 부인 : 어찌면! (심봉사를 들여다보며) 정말 눈을 떴구려! 원 이런 신통한 도리가 다 있을까?

심봉사 : 내 하도 반가워서 그냥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승상 부인 : 원 어찌면 몽은사 부처님의 영험이 인제야 발현했나 보우. 그것도 심청이가 다 죽은 정성이지요.

심봉사 : 네? 심청이가 또 죽었어?

장승상 부인 : 네. 아니 아이구 이걸 어찌나! 내가 입이 방정이야. 또 아니라 하고 달여났지!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왕후 : 할 수 없지요. 일희일비라니. 눈 뜬 것이나 다행한 일이니 바른 대로 발해 주시오.

장승상 부인 : 여보 심생원! 그런 게 아니라 심청이는, 정말 심청이는 저 임당수에서……

심봉사 : 네. 임당수에서? 아니 아까 그건?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여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심청이는 임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엎드려진다) 아이구 이놈의 눈구멍! 딸을 잡아 먹은 놈의 눈구멍! 아주 눈 알맹이째 빠져 버려라. (마디 마디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 아이구우 아이구우.

무대 뒤에서 단소로 시나위를 아주 얇게 분다. 장승상 부인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흘린다. 다른 인물들도 추렸이 보고 있다.

심봉사 :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하수로 걸어간다. 눈은 눈알이 빠져서 아주 움푹 들어가고 피가 흐른다) 아이구 아이구우 아이구우. 가자 가자야 망녀대로 찾아가야 망녀대로 가자야.(9권 : 100~1쪽)⁶⁾

‘7심’이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심청이 살아돌아오지 못한 것과, 심봉사가 개안(開眼)한 눈을 스스로 찢어 다시 장님이 되는 부분이다. 원작에서 수궁을 거쳐 환생한 심청과 개안한 심학규가 상봉하고, 또 맹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장님들이 함께 눈을 떠서 모두가 해피엔딩에 이르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대단원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작이 가진 불교적 세계관이나 초월적 구조가 투입하지 못한다. 망자는 재생할 수 없다는 근대적 사유, 그리고 결말을 비극적으로 처리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난 셈이다.

‘3심’은 ‘7심’보다 11년 뒤 해방기 때 산출되었다. 그 사이에 ‘소심’을 기획하여 일부 발표하였으나 마감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3심’은 『심봉사』 삼부작의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결산작’답게 ‘7심’에 비하면 그 극적 구조가 더욱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 분량상으로는 ‘7심’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구성적 밀도가 높고 사건 전개가 자연스럽다. 심봉사의 황궁행차라는 거추장스런 사건을 생략하는 대신 심청·송달·홍녀 사이의 삼각관계를 끼워 넣고, 또 심봉사의 개안 때까지 심청의 죽음을 감춤으로써 대단원의 반전 처리의 개연성을 높인 것 등이 그 좋은 사례이다.

6) 채만식, 『채만식 전집 권』, 창작과비평사. 1987, 쪽. 앞으로 텍스트의 인용은 (7권 : 000) 형식으로 표기한다.

송달 : 짐짓 가쁘고 긴장한 음성으로) 어르신네!
 심봉사 : 누구냐? 달이나?
 송달 : 어르신네, 너무 놀라시지 마시구, 제 말씀 차근히 들으세요.
 심봉사 : 들으나마나, 우리 청이가 죽었는데, 인제야 하늘이 무너지면 더 놀라겠느냐?
 송달 : 아네요 저어, 청이가요.
 심봉사 : 청이가, 죽은 청이가, 그래서!
 송달 : 죽은 것이 아니라.
 심봉사 : 무어? 아니 죽어?
 송달 : 네.
 심봉사 : 너 그게 정말이나? 날 속이느라구 허는 소리 아니냐?
 송달 : 아네요. 죽었다고 소문이 나구, 저두 그래서 끝이를 들었드니, 고연한 낭설예요.
 심봉사 : 낭설인 줄은 어떻게 알았드냐?
 송달 : 배랑 선인들이랑 돌아온걸요.
 심봉사 : 배랑 선인들이랑? (송달의 팔을 움켜잡으면서) 그럼, 청이는?
 송달 : 청이두 오구요.
 심봉사 : 왔어? 어디?
 흥녀 : 아버지! (심봉사에게로 달려든다.)
 심봉사 : 오, 내 새끼.
 흥녀 : (심봉사의 팔을 잡으면서) 청이가 살아왔어요, 아버지.
 심봉사 :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디보자 내 새끼.
 (순간, 심봉사 눈동자의 백태가 벗어지면서, 번쩍 눈을 뜬다)
 심봉사 : 아, 눈이! (부시어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펄쩍 주저앉으면서)
 송달 : 뜨셨어요?
 심봉사 : 떴다! 떴다! 살아온 내 새끼, 우리 청이를 보라구. (일어서서 둘러본다) 어디? 청이 어딴냐?
 송달 : (달려들어 심봉사를 부여잡고, 눈을 들여다 보면서) 뜨셨군요?
 심봉사 : 떴지!
 송달 : 뜨셨습니다!
 심봉사 : 네가 달이드냐? 잘 생겼다. 그러구 우리 청이는? (둘러보다 흥녀를 발견하고, 의심스러이) 네가 청이라고?
 흥녀 : (머뭇거리면서) 저어.
 심봉사 : 음성이 벌써 아닌데? 우리 청이가 이렇게 늙었어? 마마자국이 다 있구, 아니지? 우리 청이 아니지
 흥녀 : 아따 그런 게 아니라.
 송달 : (가로타고 나서면서) 어르신네!
 심봉사 : 응? 살아 왔다든 우리 청이는 어디 있느냐?
 송달 : 청이의 극진한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의 먼 눈을 뜨시게 허자구, 임당수 제속으루 몸을 팔아 (울면서) 공양미 3백 석 시주를 헌 그 정성 그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하세요. 하늘이 무심혈 리가 없지요. 만약, 눈을 못 뜨셨다면 부처님이 야속허지요. 청이는 죽은 혼백이라두 인제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어르신네, 그 뜨신 눈으로 이 밝은 광명을 맘껏 보세요. 자, 싫도록 보세요, 그대지두 뜨시구퍼 허시든 눈을 뜨시잖았어요? 청이가 그대지두 뜨시게 해드리구 싶어 허든 눈을 뜨시잖았어요?
 심봉사 : (허탈되어) 그럼, 그럼, 우리 청이는 영영 죽구?
 송달 : 죽었어두 살었으나 다름없습니다. 만대나 살 효성 아네요?
 흥녀 : 지가 대신 따님 노릇 해 드리께요, 네?
 심봉사 : (매렬히)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청이가 죽어? 이 늙어빠진, 송장 다 된, 아무 소용도 없는 애비 하나 눈 떠주자구, 그래 (광적으로) 우리 청이가 죽어? 임당수 제속으루 공양미 3백 석에 몸을 팔구서, 생주검을 했어? 응응? 응응? (손가락 두 개를 벌려, 두 눈을 가르키면서)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을 죽여? 천하를 주어도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청이를 생으로 죽여? 응응. (이를 뽀도독, 가르키던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다)
 (송달과 흥녀, 놀라 달려들었으나 미급하였고)
 심봉사 : (계속하여) 이 눈구멍 하나 뜨자구? (얼굴이 온통 유희, 피묻은 눈동자를 움켜, 태질을 치면서) 이 원수의 눈구멍(땅바닥에 가 쓰러진다) 원수의 눈구멍. (송달과 흥녀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키려 애를 쓰고 급히 막) (9권 : 194-6쪽)

‘3심’의 대단원도 심청의 죽음을 인지한 심봉사가 개안한 눈을 스스로 찢러 다시 맹인이 되는 장면으로 마감된다는 점에서는 ‘7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심봉사의 이런 돌

발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7심'에서는 심청이 심봉사와 하직할 때 임당수 제수로 팔려간다는 점을 밝히지만, '3심'에서는 남경장사를 따라 갔다가 녀 달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3심'에서 심봉사는 녀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심청을 기다리며 혹시 그 사이에 변고가 있을까 하여 노심초사하기는 하지만 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다.(뽕덕어멈에 의해 심청이가 정녕 죽었을 거라는 발고가 있기는 하지만, 심봉사는 꼭 돌아오겠노라는 심청이의 말을 믿으려 한다.) 이런 차이는 대단원에서 심봉사의 '자해 행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심청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낙심하고 한탄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딸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한 '7심'의 심봉사의 경우와, 딸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은 '3심'의 심봉사 경우에서 그런 거짓의 충격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즉 '3심'의 심봉사가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3심'은 심봉사의 자해 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하여 고쳐 쓰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4. 안맹(眼盲)의 중층적 의미

채만식은 『심봉사』 삼부작을 통해 왜 자해행위의 개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일까? 이 삼부작에서 각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눈을 뜨면 과거에 급제하여 세속적으로 출세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심봉사의 개안 욕망이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다시 자해하여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에 대해 방민호는 “근대적 인간의 욕망 타락 퇴폐 파멸의 이미지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2002 : 188), 또는 “자기의 부질없는 욕망에 대한 회한”(2002 : 190)이라는 답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을 주목하면 이를 단순하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금세 간파하게 된다.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 첫째 「심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란 저류(低流)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특히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막을 지은 것 등에 대해서 필자로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둔다.(9권 : 101쪽)

위 인용문은 '7심'의 말미에 있는 “附記”이다. 이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다시 맹인이 되는 식의 대단원 처리에 대한 해명을 언젠가 하겠다는 것과 그런 방식의 처리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채만식은 전자에 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기'를 통해 채만식은 심봉사의 자해행위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이런 '의미 부여'에 접근하는 단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심봉사와 심청'이라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작가의 주제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① 수오(羞惡)지심의 윤리적 각성

원작 『심청전』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효(孝)이다. 심청은 아버지 심학규

이전에 한 맹인인 심학규에게 기본적으로 측은(惻隱)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측은지심은 귀덕 어미나 장승상부인 등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청전』과 『심봉사』 삼부작의 바탕에 광범하게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지단(仁之端)으로서의 측은지심은 원작과 각색을 막론하고 심청 효심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여기에 심청은 심봉사가 부처님과 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는 의지단(義之端)으로서의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예지단(禮之端)으로서의 사양지심(辭讓之心)이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보면 심청의 희생적 효는 측은지심과 수오지심과 사양지심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봉사의 경우, 어린 심청이를 측은지심으로 길러내기는 하지만, 그 후 자신의 개인 욕망에 흔들려 시비(是非)지심이 무너지고 결국 이는 심청을 희생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원작과 '7심'에서 자신의 개인욕망에 대해 회오(悔悟)하기는 하지만, 딸의 목숨을 구해낼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는 못한다. 이는 곧 아버지로 수오지심과 사양지심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원작의 경우 심청의 재생과 부귀영화로 대단원에서 이런 부족분이 보충되기는 하지만, 자식의 목숨 값으로 연명하는 그 이전의 과정에서는 부끄러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작에서 심봉사는 그런 부끄러움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 뽕덕어미의 패덕에 골몰하고 그녀의 출분(出奔)을 애석해하는 그에게서 딸의 죽음에 대한 수오지심을 찾기는 쉽지 않다.

채만식은 이런 심봉사에게 수오지심을 부여하고자 원작을 패로디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로 딸의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것은 심봉사 자신에게 항상 가장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심봉사 : (독백) 눈을 뜬다? 눈을 떠? ㅎㅎ 근 사십 년 앞을 못 보고 고생하던 눈을 다시 뜬다. 눈을 뜨고 광명을 다시 본다. ㅎㅎㅎㅎ. 어이구 인제는 살았다. 우리 어여쁜 심청이도 볼 수 있으려다. 시방처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뜬 눈으로 본단 말이지. ㅎㅎ 가만 있자. 내가 그 해에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려다가 눈병이 나서 못 가고는 영영 눈이 멀었겠다. 음 그러면 눈을 떠가지고 다시 과거를 본단 말이지 과거를 보아서 장원 급제를 해서 귀히 되어 가지고 우리 딸 심청이도 호강을 시켜주고 오웁지 울지 불쌍하게 죽은 우리 마누라 무덤 앞에 비도 해 세우고. 그리고 이 동리 사람들한테는 모다 제각기 소원대로 무얼 시켜주어야지. 응응 눈을 뜨게 될거야. (9권 : 59쪽)

(눈을 떠, 과거를 보아. 급제. 벼슬. 승차. 몸의 영달과 빛나는 가문. 네 대만에 풀리는 유한 지하에서 안심하는 선영 제위……)

이것이 오로지 눈 하나 번쩍 뜨고 못 뜨고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었었다.

사람은 어떠한 원년을 지나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골몰하였느라면, 어느덧 그것이 신념화(信念)하는 수가 있는 법이었다. 심학규의 눈 도로 떴으면 하는 원념도 그리하여 이십 년이나 두고

(눈을 제발, 어서 떴으면 제발 어서 떴으면……) 하는 동안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뜨느니라. 쉬이 뜨는 날이 있느니라)

하는 확신=신념이 되고 말았다. ㄱ)

심봉사 : (신이 나서) ㅎㅎ 눈을 뜬단 말이려다. 눈을, 수십 년 만에 눈을 도로 뜬단 말이려다. ㅎㅎ. 번쩍 눈을 떠 광명천지르를 다시 보아 ㅎㅎ.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해 벼슬을 해. 늦게나마 영광을 누리. 조상과 가문을 빛내어 ㅎㅎ. (어깨를 들쭉들쭉) 열씨구 좋다. ㅎㅎ. 우리 청이가 조음 기뻐하며 마누라두 지하에서나마 오죽 기뻐허리. (9권 : 177쪽)

위 인용문은 차례대로 '7심'과 '소심'과 '3심'에서 일부 따온 것인데, 공히 심봉사의 가장 강한 욕망이 곧 개안(開眼)이고 또 개안의 목표는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심봉사』 삼부작에서 공히 개안 욕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수오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심봉사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심청이 죽게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각성 후에 수오지심이 크게 작동하여 개안을 저주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심봉사의 '자해행위'를 외디푸스 신화와 관련시켜 검토할 수도 있다. 채만식이 서양문학과 신화 전반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는 점, 또 다른 작품에서 서양문학과 영향관계가 발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접근 방식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앞서 이에 관한 검토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를 '그리스 신화로부터의 모티프 차용'(윤영옥, 1997 : 143, 방민호, 2002 : 190)이라 해명하였거니와,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일말의 부정도 필요치 않다. 다만 여기에 그런 '차용'이 왜 필요했는지, 또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부연할 필요는 있다.

우선, 채만식은 외디푸스의 '자해'가 함축하는 충격적 효과에 주목하여 그 모티프를 차용한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자기 눈을 자해하는 것은 자살 못지않은 자기 저주의 효력을 발산한다. 암흑 속에서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저주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채만식도 이런 '효력'의 재생산에 착목하여 이를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외디푸스의 '자해'와 심봉사의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 전자가 '운명'에 대한 저주의 결과라면, 후자는 윤리적 저주에 가깝기 때문이다. 외디푸스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이 저주의 대상이지 그의 인격이 저주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심봉사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일시적인 개안욕망으로 딸이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또는 거의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는 일관되게 세속적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런 그의 무의식 저변에는 청의 죽음 값으로 개안을 해야한다는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것은 개안의 순간까지 증폭되어 왔다. 하지만 개안으로 그 무의식적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심학규는 전에 없던 윤리적 갈등에 빠져든다. 딸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다는 자각이 그로 하여 수오지심을 끌어오르도록 자극한 것이다. 결국 그는 윤리적 회한에 침몰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자해'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심봉사』에서 심학규는 두 번에 걸쳐 눈이 멀게 된다. 첫번째 안맹(眼盲)은 자의와는 무관하면서 운명적인 것이고, 두 번째 안맹은 자의적이면서 윤리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외디푸스의 경우와 대비할 것은 두 번째 안맹이다. 외디푸스의 안맹이 자의적이면서 운명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심학규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외디푸스와 심학규는 공히 자의적으로 자해를 감행하지만, 안맹의 경험이 없는 외디푸스와 수십년간의 안맹의 경험이 있는 심학규와의 사이에는 그 결행의 자세와 입장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외디푸스로서는 자신에게 닥친 저주스런 운명을 마주칠 수 없어 그걸 외면하려고 안맹을 감행하지만, 심학규로서는 수십 년 간 욕망한 것이 달성되는 순간 수오지심이 끌어오르고 그 원인이 자신의 개안된 눈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제거하여 부끄러움을 잠재우고자 안맹을 감행한 것이다.⁸⁾

이런 심학규의 안맹에 결부된 윤리성은 다소 문제적이다. 거기에는 부녀(父女) 사의의 천륜의 문제와 세대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이다. 원작 『심청전』에서는 심학규와 심청 사이의 천륜을 효의 관점에서 부각하고 있지만, 『심봉사』에서는 여기에 세대의 문제를 결부시켜 윤리성을 보강한다.

8) 하지만, 수십 년 간 장애인인 불편과 설움을 몸소 겪어본 심학규가 서슴없이 안맹을 결행한 점은, 그 이전의 심봉사의 성격에 견주어보면 아무래도 개연성이 충분치 못하다.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개안에 성공한 심학규로서는 이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수십 년간 꿈꾸어오던 세속적 욕망(과거 급제와 부귀영화 등)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인데 아무런 주저 없이 자해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조급한 결막처리는 극작술 차원에서 지적될만한 문제일수도 있다.

② 세대 단절에 대한 신랄한 부정

채만식 문학에서 기성세대와 후속세대, 또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탁류』, 『태평천하』, 『제향날』, 「소년은 자란다」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과도기」, 『어머니』, 『당랑의 전설』, 『아름다운 새벽』 등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또한 『옥랑사』, 「홍보씨」, 「역사」 등에도 세대 문제는 주요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봉사』 삼부작의 안맹(眼盲) 모티프로 세대 문제를 패러디 형식으로 접근하고자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세대 문제가 여러 작품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는 조선적 정체성이 세대간에 계승되는가 단절되는가 하는 양면으로 대별된다. 계승의 가능성을 암시적이거나 계시적으로 열어놓은 경우는 「레디메이드 인생」, 『제향날』, 「소년은 자란다」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작품에서는 세대간의 단절이나 구세대의 몰락이 선명하게 등장한다. 이 점을 가장 전범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채만식의 대표작 『태평천하』이다. 여기에는 제1세대와 제2·3세대와의 단절이 자본의 불균형과 이념의 간극을 통해 심각하게 부각되어 있다. 윤직원의 아들이나 손자 중 희망적 전망을 보여주는 인물은 없다.⁹⁾ 「치숙」의 ‘나’도, 『탁류』에서의 정주사의 자녀들도, 『당랑의 전설』에서의 세 아들들도, 그리고 『옥랑사』의 ‘불명’도 모두 세대계승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서는 ‘계승 가능성’과 ‘계승 불가능성’이 혼재/혼성된 경우도 있다. 「레디메이드 인생」과 「낙조」가 그러하고, 또 『탁류』의 제2세대들이 또한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채만식 문학에서 세대문제는 계승과 단절이 착종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서도 세대 계승은 암시적이거나 계시적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세대 단절’은 매우 선명하게 제시되거나 매우 신랄한 풍자의 대상으로 부각한다는 점에서, 작가 채만식은 궁극적으로 ‘세대단절’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도 비약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심봉사』 삼부작에서는 어떠한가? 원작과 달리 심청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곧 세대단절의 강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채만식이 여타 작품에서 늘 강조해마지 않은 ‘세대단절’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또한 자신이 자주 애용했던 신랄한 풍자 방식을 여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했을까?

심학규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죽어 세대단절이 되었으므로, 그가 그 개안을 다시 거부한 것은 곧 세대단절을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 차원에 머물고 만다. 그는 다시 맹인이 됨으로써 수오지심에서 유출되기 시작한 심리적 정확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세대단절이 더욱 공고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원작을 패러디하여 거둔 효과 중의 하나는 물리적 환경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세대단절을 심리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신랄함에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9) 말미에 윤직원의 둘째 손자 윤중학이 사회주의자로 소개되지만, 그가 당대 식민지 모순에 대항할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첩의 소생인 태식의 추한 모습에서 윤씨의 세대단절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이상 다량의 작품을 남긴 작가의 세계관이나 그 작품세계를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작품세계가 다양하고, 또 작가의 세계관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만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처럼 그 평가의 진폭이 큰 작가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채만식과 그의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 중 그 일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친일작가(임종국)
 민족주의자(장양수)
 비판적 리얼리스트(이재선, 이선영)
 공상적 진보주의자(김윤식)
 자기방어적인 현실주의자(황국명)
 사회개혁의지의 실천(장성수)
 회의적인 역사인식(한형구)
 부정의 변증법(이주형)
 전통서사의 계승(전이두, 임명진, 김성수, 신상철, 나병철)
 허무주의자(정호응)
 탈식민의 전망 획득(송현호)
 리얼리즘과 리힐리즘의 갈등(최원식)
 풍자기법의 확산과 세련화 (홍기삼, 구중서, 윤영옥)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과 수립(방민호)

이렇듯 채만식과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또는 찬사와 비난 사이를 오가며 큰 격차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그런 양극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런 평가의 근거들이 그의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옥랑사』와 『제향날』에서는 민족주의자의 색채를 강하게 피력하였다가도 『여인천가』에서는 황도문학의 기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태평천하』에서 신랄한 풍자로 비판적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발휘하다가도 「상경반절기」에서는 극심한 허무주의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며,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는 진보적 여성상을 표상하다가, 『아름다운 새벽』에서는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여성상을 그리기도 한다.

채만식 작품에 나타난 성격·제재·주제 상의 큰 차이를 두고도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작가로서 어느 한 쪽에 안주하거나 몰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항상 상황 인식에 민감한 그로서는 그런 다양한 제재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혹한 시대를 살아간 주제적 작가로서 독서대중들에게 시대문제를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역사성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적잖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만식의 작가의식이나 세계관도 큰 ‘차이’나 ‘격차’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의 이념이나 역사성을 파악하기도 난망하다. 여기에서 작가 채만식이 일제강점기나 해방기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채만식의 작가적 풍모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사소설이나 지식인소설 외에 작품 전반에 예의 ‘격차’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곧 그런 단서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¹⁰⁾

10) 대체로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에 근접한 존재를 작품에 투영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어느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포작가일 수도 있다. 채만식 문학은 다양한 서사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존재 양상도 작품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의 지식인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대체로 작가의 세계에 근접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 논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최현식 : 1999, 또는 방민호 : 2002). 따라서 채만식의 지식인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나 내포작가를 통해 그의 작가의식이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작품군의 서술자나 내포작가는 뚜렷한 주관이나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레

이와 관련,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관통해서 살아온 채만식은 매우 복잡한 작가의식을 형성해온 것으로 보인다. 몰락한 잔반(殘班)의 후예로서의 혼란스런 계급성, 조선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동경,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이중성, 친일전력에 따른 죄의식 등이 그의 작가로서 주체를 세우는데 끊임없는 길항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실한 작가적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보냈고, 그 결과로 예의 '격차'와 '차이'가 많은 작품을 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는 동안 줄곧 확실하게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작가로서 자기점검으로서의 글쓰기를 시도할만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심봉사』 삼부작은 작가 채만식에게 이런 자기점검의 계기라 할만하다. 심봉사는 작가와는 시대적으로는 몇 세기의 거리가 있지만, 몰락한 잔반(殘班)이라는 점, 가부장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점, 세대 전승에 실패했다는 점 등에서 그런 '점검 작업'에 잘 부합하였던 것이다.

채만식은 심봉사가 개안하여 온전한 안목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줄곧 온전한 안목으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무력한 지식인이었다는 회한, 또 해방을 맞았지만 자신에게나 민족의 앞날에 명일(明日)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 이런 비극적 세계관이 곧 심봉사의 눈(안목)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수(1984) :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김재용(1999) :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나병철(1990) :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방민호(2002) :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사.
 변화영(1997) : 「인물 패러디와 서사구조」, 국어문학회 편, 『채만식 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송현호(1992) : 「채만식의 탈식민적 경향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1992.
 신상철(1983) : 「놀부의 현대적 수용과 그 변용」,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우찬제(1992) : 「현대 장편소설의 욕망시학적 연구 - 주체의 성격에 따른 욕망현시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우한용(1991) : 「채만식 소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유화수(1996) : 「채만식 소설 연구 - 서사전통과의 연계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논문.
 윤영옥(1999) : 「채만식 풍자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이경훈(1999) : 「근대 주체의 좌절과 초극」,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이선영(1999) :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디메이드 인생, 「명일」, 「치숙」, 「소망」, 「패배자의 무덤」, 「냉동어」, 「모색」 등의 서술자나 내포작가는 공통적으로 식민지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응할만한 자기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허무적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임명진(1994) : 「한국근대소설에 있어서의 '엮음'에 관한 연구(1) -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집.

정호웅(1989) :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 『외국문학』 18호.

천이두(1973) : 「프로메테우스의 언어들 - 채만식의 문장」, 『문학사상』, 1973. 12월호.

최원식(1982) : 「채만식의 고전소설 패로디에 대하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최현식(1999) :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Linda Hutcheon(1985) : 김상구.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Margart A. Rose(1980) : "Parody : Difying Parody", *Southern Review* vol.XIII. no. 1.

<토론문>

김승중(전주대)

[별지 첨부]

제 1 부

【주제 발표 (2)】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황태목(순천향대)

<목차>

1. 들어가며
2. 지역학의 개념과 국내 지역학의 동향
3. 지역학으로서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
4. 군산학 정립을 위한 과제와 역할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역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서 지역학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의 이름을 딴 학(學)들이 앞다투어 생기고 있는 것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군산학 정립에 기여하는 흐름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군산대학교 새만금개발연구원에서는 2014년 10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투자협력, 생태, 관광과 인재양성을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고, 군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정기 학술세미나 주제로서 <군산의 문인>을 선택하여 군산학에 대한 관심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 근대역사도시, 영화의 도시, 맛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현재의 군산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면서 이를 하나의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군산학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군산학이 무엇을 담아내야 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모색의 단계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제까지의 지역학 논의를 정리해보고 그 위에서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과 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역학으로서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검토하는 이러한 작업은 군산학의 본격적인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2. 지역학의 개념과 국내 지역학의 동향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은 특정 지역의 언어나 문화,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실제와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¹⁾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대상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그 지역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학은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태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역 단위에 학(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²⁾ 즉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시립대학 내 '서울학연구소'에서 '서울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지역에 대한 학문의 출발점으로 작용한 서울학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학 연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 인천학, 부산학, 전북학, 제주학, 충북학, 강원학, 춘천학, 아산학, 전주학, 수원학, 울산학, 천안학, 안양학 등 여러 도시의 명칭을 사용한 지역학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³⁾

국내의 대학에서 지역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⁴⁾ 이런 배경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세계화의 진전을 들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이기도 한 지방자치제가 1991년부터 부분적이거나 시행되면서 지방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 나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지역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1) 박용구,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6, 15면.
- 2) 지역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향적 관심에 따라 진행된 국제 지역학으로 미국학, 중국학, 일본학, 러시아학, 유럽학, 동남아시아학, 한국학 등을 일컫는다. 다른 하나는 국내 지역에 대한 내향적 관심에 따라 진행된 국가 내부의 지역 단위의 지역학으로 서울학, 인천학, 울산학, 제주학, 천안학 등을 일컫는다.
- 3) 국내 지역학 연구 현황 및 기관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서울학연구소(1993,서울시립대) http://campus.uos.ac.kr/iss/ [서울학]
인천학연구원(2002,인천대) http://www.isi.or.kr/study/main/index.php [인천학]
부산학연구센터(2002,신라대) http://brc.cafe24.com/ [부산학]
울산학연구센터(2006) http://ulsanhak.udi.re.kr/index.php [울산학]
경남학연구센터(2006) http://home.changwon.ac.kr/cgs/index.htm [경남학]
안양학연구소(2000,성결대) http://sky.sungkyul.edu/anyang/ [안양학]
수원학연구소(2004,수원문화원) http://www.suwonsarang.com/2006/ [수원학]
(재)충북개발연구원(1999) http://cblab.cbdi.re.kr/sub01_01.html [충북학]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2007) http://www.cihc.or.kr/index.jsp [충청학]
전주역사박물관 http://www.jeonjumuseum.org/ [전주학]
용인발전연구원(2004, 강남대-용인시) [용인학]
메지연구소(1998,연세대 원주캠퍼스) [원주학]
제주도연구회(1978), [제주학]
강원발전연구원(1994) http://kdri.re.kr/main/index.php [강원학]
전라문화연구소(1983) http://culture.cbnu.edu/ [전북학]
호남학연구원(1963,전남대) http://www.homun.or.kr/ [호남학]
영남문화연구원(2000,경북대) http://www.ynculture.or.kr/index.aspx [영남학]
대덕학연구소(2001,한남대) [대덕학]
천안발전연구원(2008) http://www.cheonanhak.org [천안학]

- 4) 국내에서 지역 연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은 제주이다. 제주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연구회>가 설립된 1978년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에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다. 가령, <대구지방사회연구회>(1985)와 <광주전남사회연구회>(1988), <전주호남사회연구회>(1988)와 <부산지역사회연구회>(1988) 등의 연구는 학의 이름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지역 자체를 학문적 관점에서 논의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종합적이고 범학문적 연구가 아닌 지역의 사회문화나 역사 연구 등 향토사 차원의 개별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역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1990년대 들어와 본격화하기 시작한 세계화의 진전이다. 세계화는 전 세계가 국가 공동체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의 사회처럼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으로 국가(중앙정부)의 경계와 역할이 약화된 것과 달리, 지역은 세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세계의 각 지역과 자매도시를 직접 체결하거나 초 광역적 통합을 모색하는 것도 세계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학마다 지역 연구와 지역학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학이 대두되는 시기는 이처럼 지방자치제와 세계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지역학 분야는 대체적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나 논문집 발간 등의 연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탐색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지역학에 대한 인식은 지역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역의 정체성 확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지역학 연구에서 다루어진 지역의 정체성 확립 분야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	세부 내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 현장, 유적, 유물, 민주화 운동
문화정체성	언어,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콘텐츠
생활정체성	생활사, 생활정치, 생활공간, 생활양식, 생활세계, 생활환경, 여가, 종교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체험과 이미지, 생태환경
산업정체성	경제, 산업,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시민정체성	개성, 인성, 성향, 집단성, 사회성, 참여성, 애향심, 공동체 의식
공공정체성	교육기관, 공공시설, 대중매체, 네트워크, 다양한 제도적 요소
도시정체성	도시화, 도시브랜드, 도시행정, 도시생태, 도시특성, 인구, 개발, 미래 발전

<표1>5)

위의 <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도시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구성요인과 관련이 있다. 즉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역사, 전통, 축제, 문화유산, 자연경관, 문화콘텐츠, 생태환경, 공공시설 등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도시와 지역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 생활, 경관, 산업, 시민, 공공, 도시 등 다양한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로 지방정부의 지역학 연구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는 전문연구기관들이 시립대학이나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에 설립 운영됨에 따라 지역학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며 성과물들을 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5) <표1>의 내용은 계기석·천인숙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생활정체성, 시민정체성, 공공정체성, 도시정체성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계기석·천인숙,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개발원, 2001, 24면 참조.

진행된 지역학 연구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관련 분야 연구에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이들을 DB화하거나 총서 형태로 간행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진행되어 왔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가 펴낸 『서울학 모노그래피』시리즈(2009)와 신라대 부산학연구센터가 출간한 『부산학총서』⁶⁾, 그리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2001), 계명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한 『계명영남학총서』시리즈(2006-200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이 펴낸 『호남학 연구총서』(2005-200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가 펴낸 『인천학총서 1-2』(2003), 광주문화재단이 펴낸 『광주학 총서』시리즈, 제주대학교출판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번갈아 펴낸 『제주학총서 1-13』(2005-2013), 전주역사박물관이 펴낸 『전주학 총서 24』 등은 그 대표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역사, 문화, 민속, 문학 등의 분야 연구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을 재발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찾으려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체성의 강조이다. 즉, 지역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개성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자는 목표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천착을 통해 지역관을 바로 세우고 지역 발전의 원천을 구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학의 개념은 서울학⁷⁾을 비롯해 전주학⁸⁾, 강원학⁹⁾, 원주학¹⁰⁾에 대한 정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학문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지역학 연구들은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천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형성 과정과 정체성의 확인을 토대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필요가 지역학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한 시각은 부산학¹¹⁾, 제주학¹²⁾, 안양학¹³⁾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6) 총 3권으로 기획된 『서울학 모노그래피』시리즈의 1권은 『한강의 섬』, 2권은 『보이는 용산 보이지 않는 용산』, 3권은 『청계천 청계고가를 기억하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산학총서1-5』는 각각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부산의 구조변동과 정체성', '부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1세기 동북아 해양거점도시의 발전전망', '사상구 개척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 테마로 한 연구 성과를 묶어 발간되었다.

7) "서울학의 학문적 관심은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지만, 그 실천적 관심은 현재의 서울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다." 안두순,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안두순 편, 『강서우락연구 서설』, 서울학연구소, 1994, 3면.

8) "강원학은 강원도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동안 적층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들을 대상으로, 강원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민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새로운 정신의 발전적 틀을 만들기 위한 정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정룡, 「강원 문화 연구의 과제와 전망」,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세미나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9) "전주학이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정치·경제·사회·지리·환경·생활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전주의 정신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주의 발전 방향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이다."(전주역사박물관)

10) "원주학은 원주의 현상적인 문제해결만이 우선이 아닌,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원주의 깊은 내면 세계까지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영교, 「원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릉학보』, 강릉학회, 2004, 23면.

11) "부산학이란 부산의 역사적 형성 과정 및 현재적 과제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미래의 부산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산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성국, 「부산학과 부산의 이해」, 『부산학시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12) "제주학은 지역적인 단위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제주인이 중심이 되어 제주인에 의해 제주 지역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조성윤,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세미나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13) "안양은 현재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산업 공동화, 인재 유출, 지역간 격차, 침상도시화의 진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 기존의 단일 학문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

넷째, 지역의 커뮤니티 주체와 소통을 강조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학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들 지역학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역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충족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방안으로, 지역학 관련 강좌를 대학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천안학이 있다.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천안학은 2014년 현재 천안 지역의 7개 대학에서 1, 2학기 교양과목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매학기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강좌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¹⁴⁾ 이외에 용인학과 아산학(2010년), 수원학(2011년), 홍성학(2012년), 화성학과 안성학(2012) 등이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역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학 연구의 공통적 과제로 지역의 정체성 확인과 경쟁력 강화가 어디에서나 지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내 지역학의 연구 동향을 유형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지역학
연구체계형	공통
발전모색형	제주학· 서울학· 전주학· 강원학· 호남학· 영남학· 원주학· 인천학· 광주학· 부산학
해결과제형	제주학· 부산학· 강원학· 인천학· 안양학· 원주학· 전주학· 서울학
교육연계형	천안학· 아산학· 용인학· 수원학· 홍성학· 충남학· 안성학· 화성학

<표2> 국내의 지역학 유형

3. 지역학으로서의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지역학들은 1990년대 초반 하나의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등장한 이후 적지 않은 성과들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군산지역에서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군산대학에 교수로 총원된 소장 교수들과 대학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이 이뤄지면서 해마다 많은 연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군산대학 내 인문과학연구소,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¹⁵⁾ 등을 통해 군산 지역 역사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지속적으

는 복합적인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안양학의 정립이 필요해진 것이다.(…중략…) 안양학은 안양 지역 시민들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과제에 대해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얻은 하나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추진과정이며 독특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원식, 『안양학의 정향과 과제』, 『강원학의 개념과 정립방향』세미나자료집, 강원개발연구원, 1999, 참조.

14) 심재권· 김선명, 『삶이 평안한 천안학』, 살림터, 2014. 천안학 강의에 대해서는 2장 2절의 ‘천안학 강의’ 참조.

15) 군산대 인문과학연구소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산 역사 속의 인물들>과 <군산의 문인>이라는 주제로 군산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생애와 역사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군산문화총서로 『근대군산기사색인집』(1898-1910)과 『군산근현대신문기사색인집』(1898-1945)를 발간하는 등 군산을 의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에서는 매년 ‘환황해 새만금 연구 총서’를 기획 총서로 발간하며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군산의 지역적 특성을

로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연구는 ‘군산학’ 정립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군산지역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군산’을 주제로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검색된 단행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부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단행본은 84권이, 논문은 381편이 군산관련 자료로 정리됐다.¹⁶⁾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적 영역		단행본· 논문 발표 연도 및 편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단행본							
인문과학	(구비)문학·민속		1	4	1	3	9권
	언어(방언)					1	1권
	역사			1	2	2	5권
	지리(명)			1	2		3권
	유물(적)		2	2	11		15권
사회과학	정치행정		1	1	1		3권
	경제·사회·상공·산업·물류·무역		2	1	5	1	9권
	행정		1				1권
공학	도시			1			1권
	건축				2		2권
해양과학	수산·항만·해양		2	1	4		7권
농업과학					1		1권
기타		1	3	5	13	5	27권
총계		1	12	17	40	12	84권
논문							
인문과학		3	3	4	14	21	45편
사회과학		5	17	21	40	15	98편
자연과학		2	2	2	9	5	20편
공학		1	1	12	23	19	56편
해양과학		11	14	37	14	5	81편
예술문화					3	5	8편
농업과학				4	3	3	10편
기타		7	12	12	17	15	63편
총계		29	49	92	123	88	381편

<표3> 군산 관련 학문적 영역별 연구 현황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현재 ‘환황해 새만금 연구 총서’ 발간은 18권까지 이루어졌다. 16) 논문검색 사이트가 더 있으나 동일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검색한 단행본과 논문만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군산지역의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군산’으로 검색한 후 제목에 ‘군산’지역이 직접 표기된 경우, 군산지역을 포괄하는 단어(예, 새만금)가 나온 경우만 검색 후 분류하고 정리해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단행본이 3,814권, 논문이 1,810편 검색되었다. 학위논문도 다루려고 시도했으나 검색해야 할 목록이 많아서 여기에는 제시하지 못했다.

군산지역 연구를 보면, 단행본의 경우 인문과학 분야는 33권(39%), 사회과학 분야는 13권(16%), 공학 분야는 3권(4%), 해양과학 분야는 7권(8%), 농업과학 분야는 1권(1%), 기타 27권(32%)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논문의 경우에는 인문과학 분야가 45편(12%), 사회과학 분야는 98편(26%), 자연과학 분야는 20편(5%), 공학 분야는 56편(15%), 해양과학 분야는 81편(21%), 예술문화 분야는 8편(2%), 농업과학 분야는 10편(3%), 기타 63편(16%)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 보듯이 군산지역 관련 단행본과 논문 편수는 연대별로 증가하면서 2000년대로 오면 급격히 많아진다. 이는 연구자의 증가에 따른 원인으로 보인다.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고고학 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사상, 종교, 인문지리, 언어 분야는 부진한 실정이며, 예술 분야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침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과학의 논문 편수는 2000년대로 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해양과학의 논문 편수는 2000년대로 오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즉 지역경제, 산업, 군산항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었지만 해양과학 분야는 연구 성과가 확대 재생산되기 보다는 일회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는 정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지역에 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의 전공 영역이나 관심, 문제의식에 따라서 성과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분야별, 주제별 쏠림 현상을 문제로 남기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묶어서 간행한 단행본의 경우에도 필자들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구현해내기 보다는 단지 연구자 개인의 개별적인 작업을 모아 놓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새로운 차원의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군산 관련 연구들이 개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의 논의도 일회적 작업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앞으로 군산지역 연구의 학문적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분과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식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 연구가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통섭학을 통한 군산학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학은 '군산 지역의 언어나 문화,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산학의 목적은 그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의 형성과정을 탐색하여 군산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근간으로 군산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지역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군산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모델제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군산학을 지방학이 아니라 지역학이며, 종속학이 아니라 독립학이며, 분과학이 아니라 종합학문으로 파악하는 일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산학 연구는 군산에 관한 총체적인 실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군산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군산지역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학문적 체계로 수렴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통의 인식론과 문제의식에 기초한 학제적 연구는 토론과 비판의 활성화를 통해 폭 넓은 학제 간 대화와 교류의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분과의 연구자 및 학문들은 지역학의 틀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연구 역량과 각

기간관의 유기적인 정보구축, 공동연구 등을 통한 연구업적의 축적 등은 군산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중심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도 군산학의 정립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 발전의 동인 및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군산학의 체계화와 위상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군산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자체나 연구자 집단의 의견만이 반영되었을 뿐 실제로 군산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관점이나 의견을 기초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군산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역민들조차도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야말로 군산학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군산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군산학을 왜 하는 지에 대한 공동체적 공감대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실로 막대하다. 우선 지역민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 내의 갈등 상황과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산학 정립을 위한 과제와 역할

백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군산은 개항 이전까지 서해안 해상 무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던 군사지역이었으나 1899년 개항과 함께 빠르게 근대 도시로 성장하게 된 곳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지방화 등 한국사회 격변기를 거치면서 크고 작은 사회문화적 변동과 함께 지리적 경계의 확장에 따른 인구 변동을 겪으며 현재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군산은 이렇듯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지리적·역사적·문화적·이질적 환경을 거쳐 형성되어 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한 국가의 수도로서, 제주도는 독자적인 섬으로, 안동이나 인천 그리고 전주 등은 전통이 오래된 지역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군산은 이질적인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산의 인문사회 현상에 각 분과의 일반 이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따르고, 현재의 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학은 연구대상인 군산 그 자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현실과 특성과는 거리가 먼 불분명한 연구 성과들이 양산될 소지가 있고 그러한 낭비와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군산학 정립을 위한 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산학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서울학 연구소나 부산학 연구를 위한 지역대학 연구기관인 부산학 연구센터,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와 같은 군산학 연구소가 대학 내에 설립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과 연구 여건의 부재는 학문 후속 세대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군산이라는 공동체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

역학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가칭 ‘군산학’ 등의 학술지를 간행하는 일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축적된 지역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문헌 자료의 수합 및 정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마도 군산대학교 내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작업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개별적인 성과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묶이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기초 자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산학 기초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작업은 군산학의 목표아래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군산학 총서’를 개발하고 발간하여 학제적 연구를 통한 군산학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일이다. 군산의 문화 예술에 대한 결과물을 출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군산의 역사, 인물, 유적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축제, 교육, 건축, 해양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하는 일부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일이 병행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 좋은 방안은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연구의 관점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인 연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향토 전문가들의 관점이지만, 동시에 향토 전문가들의 축적된 지식을 간단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군산학 총서는 지역 학습자들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단계 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산학의 연구 성과들을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군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군산과 같이 지방 중소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기를 원하며, 주변 시민들과 공동체적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산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 역시 2011년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지역문화콘텐츠 전공’을 개설하고, 교양강좌인 <지역의 문화와 역사>¹⁷⁾를 진행하여 군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군산학> 강좌와 ‘지역문화콘텐츠 전공’은 군산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곳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역사와 문화> 강좌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만 운영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군산학의 대중화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권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지방의 문화와 역사> 강좌는 군산대학교 사학과에서 진행하였는데, 2012학년도에만 개설되었다.

<토론문>

김민영(군산대)

황태묵 선생님의 “군산학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1. 토론을 시작하며

근래 ‘서울학’, ‘부산학’, ‘대구경북학’, ‘인천학’, ‘제주학’, ‘전북학’, ‘충남학’, ‘경남학’, ‘호남학’ 등은 물론, ‘천안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강좌가 개설된 이후 인천학, 용인학, 수원학, 아산학, 홍성학, 김해학, 안성학 등 여러 자치단체가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성과 공유와 상호교류는 물론 방법론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그 지향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군산에서도 ‘제4회 군산학 강좌’를 마쳤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동안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학술세미나 역시 정례화와 체계화가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국어문학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지역’을 주제로 행사를 기획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또한 뜻 깊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역학의 전반적인 동향과 군산학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황태묵 선생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이 글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함께 몇 가지 질문 겸 향후의 과제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고자 한다.

2. 왜 지역학인가 : 개념, 범주, 시기구분

발표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학의 태동과 확산이 1940년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서울학을 필두로 지역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 배경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세계화의 진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범주 역시 국제지역학, 국내지역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국내 지역연구의 태동 시기를 막연히 1990년대 이후 서울학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시기를 더 소급하여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단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지역학으로서의 군산학 : 정체성, 성과와 내용

발표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군산’이라는 주제어를 검색하여 그 주요 연구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양적인 동향이며 정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각주 16)에서 밝히고 있듯이 단행본과 논문 이외의 잡지 기사 등을 포함하고 또한 주제어를 확장시키는 것은 향

후의 과제라 생각된다. 양적인 파악을 넘어 실제 다루고 있는 내용 분석을 포함한 성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주요 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 더 많은 천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군산대 지역개발연구소, 군산지역연구논저목록, 2004).

4. 군산학 정립의 과제와 역할 : 시간과 공간과 인간, 정체성(identity)

어느 지역이나 시간(時間)의 흐름 가운데 변화하는 공간(空間)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人間)이 만들어 낸 정체성(identity)을 밝히는 것은 지역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 특히 군산학의 정립을 위해서도 전근대와 근대,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측면과 금강과 만경강 및 60여개의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공간의 변모는 물론 사람들의 활동, 즉 삶의 모습들은 주요한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산학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군산학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군산학의 주체와 전담기구는 물론 성과의 공유와 확산 역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오늘의 이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군산학, 정례적이고 체계화된 추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선진지역의 성과 공유 및 상호교류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군산지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 기관인 군산대학교의 역할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향토사 등의 성과도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군산대학교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되며 추진되고 있는 군산새만금(지역)연구가 가칭 ‘군산새만금지역학’ 등으로 꽃 피워지기를 지역민이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이성당 70년¹⁾

- 이성당에 대한 대중의 상상과 현실

구단비(국립민속박물관)

<목차>

1. 서론
2. 이즈모야와 이성당의 역사
 - 1) 일본에서의 빵 유입
 - 2) '이즈모야'의 역사
 - 3) 이성당의 역사
3. 군산 시민에게서 멀어진 이성당
4. 외지인들의 기대: 진짜, 오리지널, 원조
5. 과도기에 위치한 이성당

1. 서론

200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변화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2년 군산에서는 일제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제시기 대표적 항구도시였던 군산에는 2015년 현재까지 히로쓰 가옥, 동국사를 비롯한 일제시기의 건축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과거의 건축물을 수리해 문화 관광 사업에 활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제시기 중심가였던 군산의 구도심지는 계획된 도시 형태로 반듯하게 구획·정렬되어 있다.

조금은 오래된 듯한 도시의 외관에서 일제 시기의 군산 혹은 한국을 상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군산이 20대에서 70,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과거를 경험 혹은 회상하는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대중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며 옛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가 아닌 일제시기의 중심가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국적이고 독특한 외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몫을 더해 군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성당을 포함한 군산의 맛집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이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먹는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음식을 단순히 살기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재료와 나은 맛을 즐기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맛집 탐방은 하나의 트렌드로

1) 본 원고는 2014년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저자가 출간한 대중서 <우리는 왜 군산으로 가는가?>의 글을 편집·수정한 것이다. 일러스트작가와 사진작가까지 모두 20~30대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저자는 군산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시대의 시선을 기록하고자 했다. 같은 세대임에도 모두 다른 시선을 표현하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대해 우리시대가 가진 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리 잡아 지역에 상관없이 유명 맛집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늘고 있다. 군산은 과거 건축물과 역사에 관심을 둔 사람들과 맛집 여행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이성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맛있는 빵집으로 복합적인 의미의 관심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은 1945년에 개업하여 2015년 올해 일흔의 나이를 맞이한다. 오랜 역사가 쌓인 만큼 빵의 가짓수만 해도 4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몇몇의 빵은 엄청난 인기를 얻어, 맛을 보려면 수십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은 기다려야만 한다. 가게 안은 늘 손님과 종업원으로 바쁜 복새통을 이룬다.

이곳에서 빵을 사려면 영업시간 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게 앞에 줄을 서야한다. 인기가 많은 빵은 진열대에서 급식을 나눠주듯, 종업원이 직접 개수를 헤아려 나눠준다. 사람들은 진열대를 따라 일렬로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줄은 가게 밖으로 이어지고, 그 줄이 더 길어지면 가게를 감싸고 옆 가게로까지 뻗어 나아간다. 이러한 풍경은 ‘빵 나오는 시간’을 전후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된다.

가게 안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여자 친구와 그녀의 손끝을 쫓아 다른 빵을 쟁반에 담은 남자친구,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 정해진 개수를 무시하고 무작정 많이 담으려고 하는 아주머니, 아내의 빵 타령에 지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비집고 다니는 종업원과 빵 수레까지 한 바탕 ‘빵 전쟁’이 벌어진다.

가게 바깥 모습도 인상적이다. 꼬리에 꼬리를 문 줄 꿈무늬에는 방금 도착한 사람들이 자석처럼 붙어 선다. 개중에는 이 줄이 무슨 줄인지도 모른 채 서 있는 사람도 있다. 줄이 밖으로 나올 정도면 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무작정 서보는 것이다. 특정 빵을 살 것이 아니라면 줄 옆의 문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알려줘도 별로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구보다 먼저 줄을 서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이런 줄을 보며 울상으로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마냥 신나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다. 가게 앞 주차 금지구역에는 끊임없이 차들이 정차해 있고, 가게를 둘러싼 길목은 기다리는 차들의 행렬로 꽉 막혔다.

위 글은 이성당 내.외부를 참여관찰한 후의 인상을 작성한 것이다. 70년 전 작은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이성당이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성당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성당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 이와 같은 의문으로 군산과 이성당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빵의 맛과 건강한 재료가 이성당 인기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음식점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맛과 재료를 내세우는 빵집은 이성당 외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성당 만큼의 명성을 갖고 있는 빵집은 찾기 어렵다.

맛만큼 중요한 것은 오래된 빵집이 가진 이야기와 개인이 만들어낸 공간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국에 거의 유사한 공간과 맛을 구현한다. 이러한 점이 대중에게 편리하고 익숙함을 주며 맛의 평준화로 인한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 개인 사업자의 빵집은 점차 줄어들었다. ‘동네 빵집’은 대기업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빵집은 기존의 개인 빵집 자리에 이들을 밀어내고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성당도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유사한 위기를 겪었으나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덕분에 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갔다. 메뉴를 변경하고 실내디자인을 수정하며 한 자리를 지켰다.

국내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남기까지 고비를 넘기면서 이성당의 바탕이 단단해졌다. 이성당의 시작은 일제시기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이즈모야’라는 빵집과 연관된다. ‘이즈모야’와 ‘이성당’의 연결점은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업종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직접 가게를 넘겨주고 간 것은 아니지만 이성당이 유사한 계통을 이어왔고 초기 일본식 빵을 계속해서 판매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성당 70년 역사에 이즈모야 30년의 역사를 더하면 약 백년의 시간이 연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빵이 유입되던 때부터 현재까지 이성당이 시간과 공간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즈모야와 이성당의 역사

1) 일본에서의 빵 유입²⁾

이즈모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빵이 어떻게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내에 빵이 들어오게 된 경로는 보통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선교사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제빵사에 의해 제빵 기술과 더 많은 종류의 빵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빵의 유입은 한국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850년대 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에는 빵이 없었다.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한 일본이 빵을 동양세계에 들여 놓았다. 일본이 개항 이후 다양한 서양물자를 접하던 중 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군사식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벼워서 운반하기 편리하다는 점, 휴대하기 쉽고 보존이 잘된다는 점, 전쟁터에서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연기가 안 나고 걸어가면서도 먹기 좋다는 등의 장점 때문에 빵을 군대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군 식량으로 먹기 시작한 것이 ‘동양 빵 역사’의 출발점이다.

일본인들은 이스트 냄새 때문에 유입 초기에는 빵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빵을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미빵, 과자빵 등 간식으로만 판매되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빵맛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킨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일본 빵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무사 출신의 기무라 야스베(木村安兵衛)라는 자이다.

그는 메이지유신 때 무사의 직을 잃었다. 그리고 다른 일거리를 찾기 위해 직업훈련소에 다니다가 네덜란드인 요리사를 만나면서 서양 빵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는 이 음식을 먹어본 후 이전에 먹었던 찌빵이나 만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본에서 인기를 얻을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서양 빵을 일본인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작업에 도전했다. 도전 끝에 기무라는 이스트가 아닌 술로 반죽을 발효하는 방법을 고안해 6년 만에 ‘일본식 빵’을 개발해냈다. 일본식 빵을 창시한 기무라는 일본에서 ‘빵 과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그가 긴자에 개업한 ‘기무라야(木村屋, きむらや)’는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인기리에 영업 중이다.

이후 일본 내에서 수많은 빵집이 생겨나고, 기무라야가 아닌 다른 상점에서도 단팥빵을 비롯한 친숙한 빵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빵들이 개발되면서 주식으로 빵을 먹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다. 이렇게 일본의 제과제빵이 성장하던 시기, 조선에서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생겨났다.

2) ‘이즈모야’의 역사³⁾

2) 정하미의 저서<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2005, 살림)과 권삼윤의 저서<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문명기행>(2007, 이가서)의 내용을 참고했다.

3) 오카다데쓰의 저서 <국수와 빵의 문화사-고소하고 쫄깃한 분식의 유혹>(2006, 뿌리와 이파리)와 오세미나의 논문 <군산지역의 제과점을 통해 본 근대의 맛과 공간의 탄생>(2012, 전북대 문화인류학과)을 참고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이성당이 있던 자리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있었다. 히로세 야스타로가 1910년경 개업한 이즈모야(出雲屋)이다. 그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아 본래의 성인 ‘엔조’를 ‘히로세’로 바꾸고 1906년 군산으로 이주해왔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조선에 오기 전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시(松江市)와 이즈모시(出雲市)에 거주하면서 제분, 면, 찹쌀과자 등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이 지역들은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과자 생산지이다. 가게이름도 거주지였던 이즈모시의 지명을 따라 지은 것이다. 이즈모야가 개업한 같은 해, 조선에서는 한일합방이 체결되었다.

<이즈모야>는 초기 아라레あられ를 파는 과자점이었다. 아라레는 찹쌀과자로 찹쌀을 절구에 빻거나 잘게 썰어 곱게 만든 후 약한 불에 데치거나 기름에 튀긴 것이다. 이것을 동그란 캔에 담아 판매했다. 당시 군산 시내 일본인 사이에서 이즈모야의 아라레는 인기가 높았다. 히로세는 점차 가짓수를 늘려 모찌, 화과자 등의 다양한 일본식 과자를 판매했다.

사업이 커지자 아들들이 대를 이어 과자점을 크게 성장시켰다. 첫째아들 히로세 켄이치는 동경으로 돌아가 제과기술을 배워왔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단팥빵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유명세를 탄 이즈모야는 1920년에 현재 위치인 중앙로 1가로 확장 이전을 했다. 아버지의 전통과자 제조기술과 아들들의 양과자 기술이 더해져 제과점은 꾸준히 번창했다.

이 당시 단팥빵을 비롯한 다양한 빵의 유입은 군산의 음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재료가 넉넉하지 않고 기술자도 적었기 때문에 빵의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었다. 빵을 먹는 것은 일본의 신식문화를 향유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고, 동시에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즈모야는 군산 시내 일본인들의 고급 레스토랑이자 사교장이었다.

아들들이 제과·제빵 재료를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이즈모야는 재료상의 역할까지 담당했다. 밀가루는 군산에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설탕, 향료, 버터, 치즈, 크림은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웠다. 이 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해 조선에 판매하는 중간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좋은 재료와 더불어 일본의 신식 조리도구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즈모야는 193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들은 1940년대 초반까지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 재료상은 점차 커졌고 둘째 아들은 군산의 다른 지역에 분점을 냈다. 하지만 1945년 한국이 해방을 하며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이들은 이즈모야를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첫째아들 켄이치는 혼자 남아서라도 사업을 계속 하겠다며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일가가 모두 일본 사가현(켄이치 부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3) 이성당의 역사⁴⁾

이성당의 초대 사업주는 이석우이다. 이석우는 남원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생활고를 못 견뎌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홋카이도 광산에서 일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 다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해방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석우의 가족은 고향인 남원으로 가지 않고 임시로 군산의 천막 수용소에 머물렀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이씨의 가족은 다시 어려운 생활에 처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이석우는 동창의 아버지인 ‘대동사이다’ 사장에게 부탁해 자금을 마련했다. 당시의 대동사이다는 군산 내

4) 오세미나의 논문 <군산지역의 제과점을 통해 본 근대의 맛과 공간의 탄생>(2012, 전북대 문화인류학과)을 참고했다.

에서 손에 꼽히는 큰 기업이었다. 이석우는 그 돈으로 조그마한 하꼬방(판잣집)을 빌리고 밀가루와 설탕을 사서 과자 장사를 시작했다.

이석우가 만든 과자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다. 가족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다. 그러던 중 이석우는 이즈모야가 적산가옥으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본인 재산에 은행 대출을 더해 가옥의 절반을 불하받아 이즈모야를 인수했다. 그리고 ‘이(李)씨 성(姓)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堂)’이란 뜻의 이성당을 개업했다.

초기 이성당은 생과자와 전병, 사탕을 주로 팔았다. 틀이 다양하고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과자의 맛과 모양이 여러 가지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인 제과업자로부터 기술을 배운 기술자를 들이면서 단팥빵, 케이크, 크림빵까지 팔기 시작했다. 그는 이즈모야의 명성을 잇는 제과점을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기술을 배운 기술자를 고용하고 이즈모야 자리에 무리해서 가게를 개업했을 것이다. 기술이 안정되고 빵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성당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195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성당의 인기는 급속도로 퍼져 나아갔다. 제빵사들이 하루 종일 빵을 만들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직원들은 통금 사이렌이 울리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다시 사이렌이 울리는 밤 11시까지 빵과 과자를 만들었다.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던 당시에도 이성당의 빵은 최고의 간식이자 선물로 통했다.

제과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군산 지역의 제과업자들이 모여 삼영상사를 만들었다. 재료를 쉽게 구하고 제과점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씨는 그 중에서 나이가 젊고 셈이 빨라 이 조직에서 이사직을 맡았다. 모임은 유대관계를 중요시해서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조언을 해주는 등 이 지역 제과업자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현재는 이성당만 남았지만 과거 군산에는 미성당, 순옥제과, 유성당, 군산당, 조화당, 태극당 등 수많은 제과점이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이성당에도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1970년대 빵 판매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운영이 힘들어지자 이성당은 기존 빵의 변화를 시도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게 해 준 것은 ‘야채빵’이었다. 여느 빵집과 같이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들어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구워 만든 빵 속의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야채 소는 이성당의 전매특허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성장하자 이성당은 두 번째 위기에 몰렸다. 이번 위기는 단팥빵에 들어가는 쌀가루의 힘으로 넘을 수 있었다. 기존의 밀가루 반죽을 벗어나 100% 쌀가루로 만든 반죽을 개발했다. 이후 쌀가루는 이성당이 새로운 명성을 얻게 해준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야채빵과 쌀가루가 들어간 양금빵은 이제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으로 손꼽히고 있다.⁵⁾

과거 이성당이 군산에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고급 제과점이었다면, 지금은 오랜 전통을 지닌 ‘추억을 떠올리는 빵집’으로 통하고 있다. 동네를 벗어나 전국, 해외까지 소문이 번져가면서 이 빵집은 옛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전국 5대 빵집”이란 문구는 이성당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말하는 이성당은 예전 ‘그 때의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빵집이었다. 가장 흔하고 익숙했던, 그리고 유행에 비켜서 있던 단팥빵은 이제 이성당이라는 브랜드를 입게 되면서 신기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희소적 가치를 지닌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 이성당은 ‘1945’라는 약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맛의 퇴보가 아닌 맛의 재발견으로 다가서게

5) 파티시에, <대한민국 골동과자점5>, 2012

되었다.

3. 군산 시민에게서 멀어진 이성당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성당은 군산시민에게 특별한 곳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이성당 현 사장의 윗대인 오 씨가 사망한 날 군산시민들은 함께 슬퍼했다. 군산의 한 지역 신문에서는 “군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애통한 분위기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 정도로 군산 시민에게 이성당은 동네빵집 이상의 친밀감을 가진 의미 깊은 장소였다.

이성당은 개업초기 군산 사람들 모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여서 빈부 격차가 심하고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밥이 주식이고 빵은 간식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때의 빵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사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서양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맛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당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옛날에는 이성당에 아무나 못 다녔어. 고등학생 아래로는 입장도 못하던 곳이었다 말야. 그때 우리 집이 잘살았는데 아버지뻘이나 되는 어른들만 가던 데야. 어린애들은 밖에서 구경이나 하고 그랬지.”

- 78세, 명산시장 상인, 여

빵을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한 1950~60년대에도 여전히 빵의 재료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성당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급제과점으로 통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빵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1970년대 이후이다. 동네 빵집이 군산 곳곳에 생겨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본격적으로 빵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성당의 빵은 맛이 좋고 종류도 다양해서 더욱 큰 인기를 얻었다. 군산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항상 이성당을 찾을 만큼 이곳을 좋아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게의 모습과 빵 맛에서 어떤 향수를 느끼고 있었다.

“어렸을 때 빵 먹고 싶으면 아버지가 (이성당에서) 사다주셨어. 예전에도 잘됐는데 지금처럼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 50대, 군산 내 카페 운영, 여

중년 세대에게 이성당은 미팅과 데이트를 나누었던, 젊은 날의 연애시절을 떠올리는 장소이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추억의 장소가 남아 있는 곳은 낭만적인 여행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군산 시민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군산시민은 인터뷰에서 안 가는 것보다는 못 가는 것에 더 가깝다고 했다. 이성당이 매스컴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빵집은 순식간에 외지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결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빵집과 더욱 멀어지게 된 것이다.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도 빵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성당은 군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옛 추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였다.

“이제 이성당 빵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렇게 줄이 긴데 어떻게 가서 사먹어. 빵 먹고 싶으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사먹어요.”

- 50대, 카페운영, 여

옛 생각을 하며 느긋이 찾아가면 빵은 보기 힘들고 동네 빵집 분위기는 벌써 사라져 여유롭게 회상할 틈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이성당은 군산시민에게 오히려 낯선 곳이 되고 말았다. 처음 군산을 방문했을 당시 택시기사와의 대화에서 군산시민이 이성당에게 느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가씨들 이성당 왔죠? 내가 딱 보면 알아. 근데 군산 사람들은 거기서 빵 안 사먹어. 타지사람들이나 대단하다고 먹지. 가족들이 사오래도 뭐 줄이 길어서 사갈 수가 있어야지. 안간지 오래됐어.”

- 50대, 택시기사, 남

4. 외지인들의 기대: 진짜, 오리지널, 원조

매스컴을 통해 이성당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방송에서 비춰지는 이성당은 연륜이 느껴지는 오래된 빵집이다. 그리고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대는 숨겨진 맛집이다. 결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도 이성당은 가족이 꾸준히 대를 이어온 곳이라는 특성에 맞게 독특한 그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성당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제과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맛도 균일하게 정제되었고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빵과 똑같은 외형을 갖춘 익숙한 장소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오래된 것, 불편한 것보다 새롭고 편한 것을 선호했고 맛이 검증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를 즐겨 이용했다. 이렇게 대형회사가 전국 제과상권을 점령하면서 동네빵집은 서서히 사라졌다. 서울 중심가에서 50년을 유지하던 빵집도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대형 의류 전문점이 생겼다.

이런 획일화된 제과점에 점점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갔다. 똑같아지는 것에 대해 서서히 흥미가 떨어졌다. 보다 개성 있는 것,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웰빙’이 붐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인공적인 맛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보다는 이전 본래의 맛을 찾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리지널, 원조를 찾는 것이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국 각지에 퍼져 나아가는 가운데 이성당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외부의 흐름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똑심 있게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다. 휴머니즘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 70년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그리고 우리네 정서를 듬뿍 담은 ‘단팥빵’을 구워내는 이성당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빵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음식 좀 먹어봤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성당은 가보지 않으면 안 될 필수 맛집 코스가 되었다. 빵을 기다리는 줄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줄은 지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성취할 것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장치이다. 붐비는 만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이다. 종업원은 바쁘게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닌다. 이곳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종종 서비스나 길어지는 줄에 대해 불평한다.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만큼 인터넷상에서의 평가도 활발하다.

바쁜 것이 일상일 정도로 이곳이 붐비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진짜’ 빵의 진가가 군산에 와서 먹을 때 비로소 발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국각지로 배송이 가능한 택

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먼 길 찾아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빵을 쟁반에 담아 보아야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맛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다.

이성당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성당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빵이 아니다. ‘긴 줄’이다. 왜 그곳에 줄을 서있는가라는 생각에서부터 호기심이 커진다. 빠르고 편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즐기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성당의 빵맛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SNS)나 블로그를 통해 남긴 외지인들의 방문 후기는 극과 극이라고 여겨질 만큼 다르다. 기대 끝에 먹은 빵맛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빵이 얇고 속이 짙은 단팥빵과 야채의 식감이 살아있는 구운 야채빵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개성 있는 빵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일반 제과점의 빵의 맛과 수준을 놓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단팥빵과 야채빵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익숙한 빵이기 때문에 상상을 뛰어넘는 맛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관광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획일화된 것에 대한 지겨움, 색다른 것에 대한 갈증을 이성당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이 ‘진짜’를 찾아와 본래의 맛을 가진 빵을 먹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를 경험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로 인해 받는 시선을 즐기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성당에서 빵을 먹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섭취한다’를 넘어서 ‘과거의 근대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들이 상상하는 옛날 빵집에 이성당을 맞추고 단팥빵 맛에서 예전의 느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찾으려는 신선한 예스러움은 단지 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침침한 군산 시가지의 풍경에서부터 이성당의 간판, 내부에 걸린 사진, 끝도 없이 늘어선 긴 줄, 이성당 빵에 대한 군산 주민들의 이러저러한 추억까지 다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다.

이성당에서 얻어가는 것은 진짜 빵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상상인지도 모르겠다. ‘옛날 빵집’, ‘70년을 유지한 맛’에 대한 기대가 매스컴의 영향으로 과장되어 있다. 그런 상상력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지만 현실은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진 못했다. 이성당은 70년의 예전 모습 그대로를 똑같이 남겨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변화해온 빵집이다. 가족이 운영해 지역특유의 색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여건에 맞게 꾸준히 진화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상상과 이성당의 현실에는 분명 괴리가 있다. 빵을 사고 돌아가는 어떤 이들은 “한동안은 안 올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성당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5. 과도기에 위치한 이성당

이성당의 연매출은 수십억을 넘어섰고 택배 주문량은 몇 달째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성당의 전국적인 인기는 곧 백화점과 대형회사의 주목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분점을 낼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고 이성당은 하나의 절충안으로써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일주일간 특별 행사로 이성당의 빵을 판매하기로 했다. 임시 행사는 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행사가 보여준 매출은 백화점의 구미를 더욱 당겼다. 그래서 백화점 식품분야 관리자는 군산 이성당에 30회 이상 방문하며 분점을 낼 것을 부탁했고 대표는 2014년 5

월 잠실 롯데백화점에 최초로 270㎡(81평) 규모의 분점을 열었다. 이성당 대표 김현주는 초기의 신념에 따라 분점을 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다. 현재 군산 이성당에서의 주문량과 매일의 판매량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분점을 만들 경우 제품의 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요청과 어려움에도 오랜 시간 한 장소를 고집해 왔던 것이다.⁶⁾

이성당은 사람들의 관심과 추억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성당도 이러한 기억의 힘을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최근 옛 빵집을 찾는 것이 인기를 얻으며 짧은 기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인기가 빵집 한 곳에 일제히 쏠리게 되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소소한 추억을 쌓아온 지역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이성당을 다시 찾지 않게 되고 외부의 관광객들은 추억의 공간을 되짚기는커녕 황급히 빵만 사두고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추억의 빵집에 담긴 '진짜 추억'이 서서히 퇴색하고 있다. 이성당은 성장의 바탕이었던 추억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적인 브랜드의 명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서울의 분점은 군산 분점에 못지않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군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빵 나오는 시간에 사람들은 대기하고 줄을 선다. 이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오래된 빵집이 백화점과의 협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내 디자인과 분위기도 본점과 유사하게 혹은 본점의 이미지와 부합되게 한다. 이러한 선택이 매출에 확실한 이익을 주었다. 하지만 본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역사적인 깊이를 담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던 빵이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근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안에서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며 이제는 전국적인 '추억의 맛집'으로 거듭났다. 이곳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달렸다. 급격한 유행에 따라, 그리고 다소 허구적인 상상의 맛에 따라 때를 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권삼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문명기행』, 이가서, 2007.
- 오카다데쓰, 『국수와 빵의 문화사-고소하고 쫄깃한 분식의 유혹』, 뿌리와이파리, 2006.
- 이병진, 『맛있는 빵집』, 달, 2010.
- 정하미,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살림, 2005
- 조승환, 『한국 빵 과자문화사』, 대한제과협회, 2004.
- 파티시에, 『대한민국 골동과자점5』, 2012.

6) 한국경제, “백화점 ‘한입의 사치’ 대전② -롯데, 이성당에 잠실점 대형 매장 뒤편...”, 2014.06.19
내용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91178g>)

<논문>

- 배영동, 「문화경계가 약화되는 오늘날의 음식문화」, 『실천민속학』제11호, 2008.
- 오세미나, 「군산지역의 제과점을 통해 본 근대의 맛과 공간의 탄생」,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2012.
- 오세미나, 「일제시기 빵의 전래와 수용에 대한 연구: 군산의 근대 제과점 이즈모야[出雲屋]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No.1, 2012.
- 주영하, 「음식과 식민주의: 외래문화가 음식민속에 끼친 영향」, 『실천민속학』제4권, 2003.
- 한경구, 「어떤 음식은 생각하기에 좋다: 김치와 한국민족성의 정수」,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잡지 및 기사>

- 조선일보, 「[전국의 '빵名家'를 성지순례 하듯 빵지순례](상)」, 2013-02-21.
- 한국경제, 「代를 잇는 家業- 2세가 된다 (150) : 이성당, 쌀빵으로 67년 전통 잇는 '제빵왕' 며느리」, 2012-10-04.
- 아시아경제, 「[양재찬 칼럼]리치몬드 과자점과 이성당 빵집」, 2012-02-08.
- 오마이뉴스, 「빵 나오면 '쟁탈전' 최고령 빵집 군산 '이성당」, 2011-08-05.
- 한국경제, 「백화점 '한입의 사치' 대전② 롯데, 이성당에 잠실점 대형 매장 뒀더니」

<영상자료>

- KBS, 「한국인의 밥상 59회- 일제강점기, 그때 그 밥상 그리고 지금」, 2012.
- KBS, 「100년의 가게 61회- 기획 특집 '100년의 꿈' 한국의 가게, 100년을 향하여」, 2013.
- MBN, 「대박의 비밀 4회- '춤추는 불고기, 동네 빵집의 대박 신화」, 2012.

<토론문>

오세미나(전북대)

구단비 선생님의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이성당 70년 - 이성당에 대한 대중의 상상과 현실” 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70년 전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한 이성당이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 이성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이성당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은 이성당에 역사와 추억,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것에 기대를 하고 찾고 있으나, 그것은 ‘허구적인 상상으로 맛’으로 상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성당은 70년의 역사와 브랜드의 명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향후 이성당의 방향에 대한 물음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가을 군산에 오래된 제과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군산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성당의 안주인이었던 오남례 할머니와 만날 수 있었고, 그날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제과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과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고, 빵과 이를 둘러싼 문화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가 빵과 빵 문화의 생산과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발표자는 현재 빵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연구 대상이 같아 참으로 반가웠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빵의 소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발표자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왜 군산으로 가는가?’의 글을 편집·수정한 것으로, 소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야 가능한 본 연구이기에 더욱 값진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함께 했기에 발표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짧은 글 안에 충분히 모두 담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발표가 더욱 치밀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 대상에 관한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현대 이성당의 소비에 관한 연구로, 사람들이 이성당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성당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논의를 진행해야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민들의 구술이 언급되고 있지만, 글을 읽는 내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헌자료나 뉴스, 블로그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둘째, 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잘못된 정보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의 내용에서 연구자가 만난 소비자들이 실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 고정된 정보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두 사이에서 오는 혼동은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 집니다. 예를 들어 군산 지역민에게 멀어진 빵집이라는 부분에서 그 문제가 보여 지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이성당에는 관광객들만이 드나드는 곳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주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빵을 사는데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방문하게 되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친구분들과 모여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때를 지어 드나들곤 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손을 잡고 방문하여 봉지 가득 빵을 사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성당은 여전히 7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맛있는 빵이 있는 지역의 명소이며,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발표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셋째, '이성당은 성장의 바탕이었던 추억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적인 브랜드의 명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과도기에 처해있다'(p.9) 과도기에 위치한 이성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도기라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도기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도기라기보다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장을 제 논문을 요약 정리했는데, 논문을 쓴 이후 몇 차례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현재 수정된 부분이 다소 있기에 발표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빵의 유입 부분에서 기무라야 제과점이 단팥빵을 처음 만들었다고 소개합니다.(p.3) 지난 3월 역사가 깊은 동경지역의 제과점 몇 군데를 방문했고, 그들에게 단팥빵의 원조가 기무라야 제과점이라고 했을 때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단팥빵이 만들어질 당시 양금을 쓴 빵은 어느 제과점에서나 볼 수 있는 빵으로 어느 특정한 제과점을 지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국수와 빵와 문화사> 내지 <돈가츠의 탄생> 등의 책의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이성당에 관한 유래부분입니다.(p.4) 이씨가 하는 집이 번성한다는 의미에서 李盛堂입니다. 3)일본인 제과업자로부터 기술을 배운 기술자를 들이면서 다양한 빵을 판매했다고 소개합니다.(p.5) 해방 이후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가 조사를 했고, 이때 이성당에 있던 제과기술자는 이석우와 이석우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제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제과 기술을 재현한 사람들입니다. 4)1970년대의 위기와 2000년대 위기에 대응하는 이성당 부분에는 조사를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서는 위기를 설명하지만, 이성당은 위기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파리바게트, 프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제과점이 등장하면서 동네빵집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유일하게 대형 프렌차이즈 제과점이 문을 닫았던 곳이 군산지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역의 박물관 보기

김인덕(청암대)

<목차>

1. 서
2. 지역박물관 건립과 운영
3. 지역박물관의 여러 경우
4. 효과적인 지역박물관 만들기
5. 결

1. 서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의 전통을 지키는 중심공간이다. 박물관이 단순히 단체장의 상징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 적극적인 답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본고는 지역박물관 만들어 보기를 위한 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박물관의 모습, 기능, 최근 박물관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모습과 상을 살펴 보고 간단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역의 박물관은 에코형, 돈과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은 박물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하면서 본 발표를 한다.¹⁾

2. 지역박물관 건립과 운영

1) 지역박물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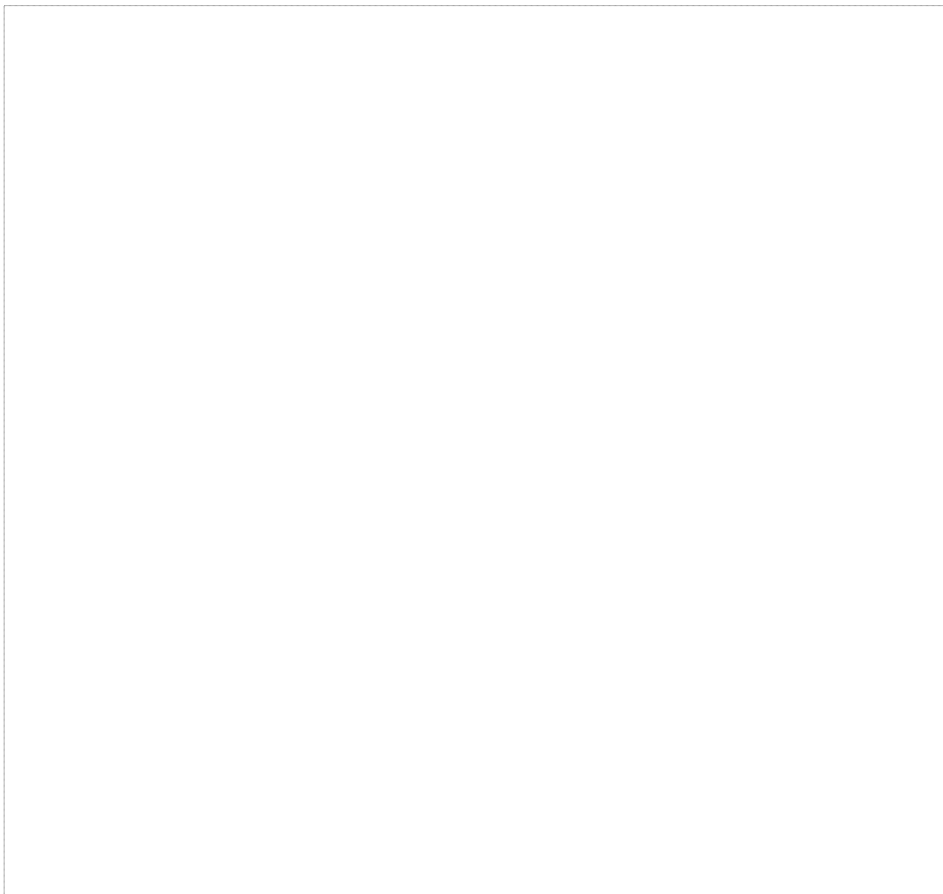
한국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이 아닌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예산의 절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소규모 예산을 통해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바르다.

서구의 경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자체가 예술품인 경우가 많다. 베르사이유궁, 윈저궁을 비롯해, 게티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과 달리 근대 이후에는 여러 형태의 박물관이 새롭게 건축되었다.

1) 본고는 필자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재구성되어 인용을 삼가합니다.



<게티미술관: J. P.게티는 1930년대부터 예술품을 수집해 자신의 저택에 전시하다가 1970년대 중반 약 1,200만 달러를 들여 현재의 미술관을 지었다. 리처드 마이어(Richard Maier) 설계>



가장 선진적인 정신을 가지고 건축을 진화시키는데 박물관 건축은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²⁾ 즉 어느 건축의 유형보다도 박물관 건축은 작가와 사회 간에 가장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리드하여 왔다.

실제로 세계적인 경향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박물관의 내재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전혀 다른 체계로 변환되고 있는데 비해, 박물관 건축은 아직도 초기 모더니즘의 양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경우 박물관 건축계획을 위해서는 몇 요소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³⁾ 첫째, 에코 지역 박물관의 모델로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⁴⁾ 아직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옮겨지지 않았다.⁵⁾ 둘째, 행위 유형과 소요 공간의 측면이다. 박물관은 역사의 유산인 컬렉션과 관람객의 만남의 장이고, 조사, 연구를 통해 컬렉션의 체계를 확립하는 학예원과 컬렉션의 만남의 장이며, 이용자가 학예원과 만나고, 이용자끼리 서로 만나 대화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기능적 측면이다. 신축하려는 박물관의 기본성격과 목표에 따라 소요시설과 기능이 결정되는데, 중추적인 요소는 전시 공간, 아카데미, 정보자료 센터 등 사회교육 활동 공간이다. 특히 전시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은 상설전시 대 기획전시 공간이 3 : 1 정도가 좋다. 전시공간의 폭은 6-7.2m 정도, 천장고는 4.5m 내외가 일반적이다.

넷째, 영역과 시설적 측면이다. 그것은 박물관의 규모와 기획 내용에 따라 다른데 기능과 수용력을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시설을 구성하고 설치해야 한다.⁶⁾

다섯째, 면적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관람행태라고 할 수 있는 단위 관람시간을 90분대로 보고, 전시길이는 300m 내외 정도가 될 경우 면적 배분비는 전시와 보급, 수장과 연구, 관리와 기타의 비율을 잘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지역박물관의 전시

전시는 원래 의도적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역사 전시에도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역사 전시 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술 전시나 과학 전시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간단히 말해, 미술 전시라면 작품을 진열해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 전시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의 원리 같은 것을 전시 한다’, ‘보급 한다’는 것이다.

지역박물관의 역사 전시는 방법적으로 개별 편년 전시법, 통사 전시법, 문화재 전시법, 복원 전시법, 융합 전시법, 행동 전시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 이러한 전시 방법에서 고민하는 것은 역사 전시는 자료 그 자체를 보이기 위한 전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⁸⁾ 물론 역사 전시의 기본적인 요소는 역사 자료이다. 역사 자료는 미술품과 달리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것이 많고, 물건 하나를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2) 이하의 주요 내용은 별도의 주가 없으면 다음의 책을 참조한다. 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 공간 국립박물관』, 국학자료원, 2007, 참조.

3) 徐商雨,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76-80쪽.

4) 大原一興, 김현정 옮김,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에코뮤지엄 기행-』, 아르케, 2008, 참조.

5) 일본의 경우 야마가타현(山形縣) 아사히마치(朝日町)(<http://asahi-ecom.jp/>)와 치바현(千葉縣) 도미우라마치(富浦町), 이와테현(岩手縣) 도와초(東和町)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일본 에코뮤지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jecom.s.jp/>)

6) 박길룡, 「박물관 건축공간의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조형논총(제16집)』, 1997, 60-69쪽.

7) 村上義彦, 『博物館の歴史展示の實際』, 雄山閣, 1992, 7-24쪽.

8) 小島道裕, 「歴史展示をつくるとは」, 『歴史展示とは何か』, UM, 2003, 참조.

가 있다.

첫째, 전시 내용에 관객이 자신과의 관계성이라든지 현대와의 관계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중에도 여행 도구의 전시가 전시기법으로는 어떤 변용도 없는 종래 형의 케이스 전시이지만 평가가 높았던 것처럼, 무엇인가 현재 생활과의 연결이 보이는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많은 해설이다. 해설문은 문장을 알기 쉽게 쓰는 것, 실물 자료를 나열한 것만으로는 곤란하다. 내용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보이지 않는 물건을 형상화하는 설명 수단으로서 모형을 사용하는 것도 절실하다. 9)

3) 지역박물관의 운영

지역박물관도 조직을 통해 운영된다. 박물관 직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인상이 다소 둔하고 성실하며 안경을 끼고, 소심하고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통상적이다. 이들이 박물관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박물관은 아마추어를 위한 안식처는 아니다. 기술과 교육을 통해 전문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박물관에서는 일하고 있다.¹⁰⁾ 주요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의 관장이 있다. 관장은 박물관의 최고위 행정가로, 박물관 운영의 책임자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박물관의 대표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박물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책 입안과 자원 조성, 계획, 조직, 충원, 지도 그리고 인력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책임진다. 물론 관장은 수집, 보존, 조사, 연구, 해석, 전시 등 전문적인 실무에 책임을 지며, 재무관리에도 책임이 있다. 모든 업무는 관장의 지도로 진행된다.¹¹⁾ 일반 행정직 보다는 학문적인 소양이나 연구자의 경험이 있으면 박물관의 운영이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큐레이터인 학예직이 있다. 이들이 박물관 일의 실제적인 중심이다. 큐레이터는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하여 특정한 학술 분야의 전문가이다. 소장품 뿐만 아니라 대여물의 관리, 학술적인 해석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집, 폐기 처분, 귀속, 진위 확인(감정), 소장품에 대한 조사, 연구, 연구물의 출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큐레이터는 행정, 전시 기획에 관여하며,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¹²⁾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가 있다. 이들 교육담당자는 일반 관람객들의 박물관 이용률을 높이고,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 감독한다.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사용된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지식, 실연, 강의, 영화, 투어, 강연, 특별행사, 워크샵, 교사 연구 프로그램, 학교 또는 다른 기관과의 관외 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교육 담당자는 행정적인 책임도 일정하게는 담당한다.¹³⁾

넷째, 박물관에는 유물에 대한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레지스트라(registrar), 유물관리 담당자가 존재한다.¹⁴⁾ 이들은 유물의 수집, 취득, 목록 작성, 대여, 포장, 운송, 총 목록 작성, 보

9) 竹内有理, 『観客から見た歴博』, 『歴史展示とは何か』, UM, 2003, 참조.

10) 이하 박물관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가 없으면 다음의 책을 참조.(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이난영, 『개정신판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2001..조지 엘리스 비코 지음 양지연 옮김,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11) 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공간 국립박물관』, 국학자료원, 2007, 165쪽.

12) 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공간 국립박물관』, 국학자료원, 2007, 166쪽.

13) 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공간 국립박물관』, 국학자료원, 2007, 166-167쪽.

14)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운영의 이론과 실제』, 국립중앙박물관, 2000, 참조.

험, 소장품의 지속적인 관리, 보관, 통제하는 업무에 관련된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서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조직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레지스트라는 유물을 다루고 또는 포장하는 일, 보험 담보 협정, 보험금 지불 요구, 작품 운송 절차, 안전 대비에 대한 절차, 통관 절차, 유물의 대여와 관련된 반입, 반출, 저작권과 복제에 관한 유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직, 문서화하고 조정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학예연구원이 하기도 한다.

다섯째, 보존처리사가 박물관에는 있다. 보존처리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물을 조사하고, 훼손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고 복원하기도 한다.¹⁵⁾ 보존처리사는 수장고의 적절한 방온, 항습을 유지하고 공해나 조명의 밝기나 파장으로부터 유물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존처리사는 일반적으로 회화류, 조각, 섬유류, 도자류, 유리류, 금속류, 가구와 목조류, 종이류, 서지류 등의 특정 유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박물관 내부의 보존 연구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유물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전시기획자나 소장품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국내의 경우는 학예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정규 조직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체 관람 안내, 기념품의 판매, 회원 가입 안내 등의 일을 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박물관은 행정부서와 연구부서로 크게 2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연구부서는 주로 전문 연구자 출신이 전통적으로 담당한다.¹⁶⁾

지역의 박물관은 성격에 걸맞게 조직이 구성되어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준비 단계부터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박물관 건축을 완결짓고, 전시안을 마련하는 단계가 되면 이미 그 박물관은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지역박물관의 여러 경우

1) 일본의 지역 테마박물관

어떤 나라보다 테마박물관적 성격의 지역박물관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두 곳의 테마 박물관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운영의 이론과 실제』, 국립중앙박물관, 2000, 참조.

16) 이인숙, 『박물관과 문화산책』, 집문당, 2005, 233쪽.

일본 사례 (1) : 히라즈카시(平塚市)박물관¹⁷⁾



일본 내 중규모 지역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등의 중앙지향형 및 관광객 목적의 관광지향형에 대립하는 박물관상으로, '지역박물관'을 목표로 한 일본 내 최초의 박물관으로 테마박물관의 한 예이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神奈川県 平塚市 浅間町12-41이다.

'히라즈카시(平塚市)박물관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그 제2조에는 '사가미가와(相模川)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명시하여, 지역지향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물관 활동의 대상을 '사가미가와(相模川)의 자연과 문화'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활동의 영역을 이토록 명확하게 규정짓고, 공적인 수준의 '조례'를 만든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히라즈카시(平塚市)박물관의 전시실을 보면, 1층의 테마는「사가미(相模)평야와 인간」이다. 정면에는 히라즈카(平塚)의 항공사진이 있다. 전시실에 들어가 보면, 사가미가와(相模川) 지역의 돌이 상자 안에 들어 있다. 돌 표면에는 페인트로 번호가 적혀져 있다. 해설문에서 그 번호를 찾아 설명을 읽으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동해 온 어떤 종류의 암석인지 알 수 있다. 시내에 있는 패총으로부터 죠몬인(縄文人)의 생활을 복원했고, 인형으로 전시한 코너도 있다.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민가 일부를 옮겨놓은 코너에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기둥의 두께 등을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해 놓았다.

2층의 테마는「지역을 탐방하다」이다. 이 중「민들레는 말한다」코너에서는 시민의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재래종과 외래종의 분포와 외래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과 시가지화의 진행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수질오염의 정도와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등과의 상관도도 보인다. 낚시도구, 농기구, 닌교쥬루리(人形淨瑠璃)의 인형, 부적이 있다. 지리학, 생물학, 고

17) 히라즈카시박물관 홈페이지(<http://www.hirahaku.jp/>), 이토 토시로(伊藤壽朗), 『열린 박물관』, 岩波文庫, 1989, 제2장, 참조.

고학, 민속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총동원되고, 또한 이들이 하나를 이루면서 히라즈카라는 지역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었다.

3층은 플라네타륨(Planetarium)이다. 지역과 밀접한 천문정보 등의 코너가 있다. 「히라즈카(平塚)에서 본 일식」같은 것이 그 예이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하단에「이 프로그램은 ○○씨가 제작하였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온다. 보통의 박물관이라면 업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것이나, 이 프로그램은 천문에 관심이 있는 고교생, 또는 대학생이 만든 것이다. 과거 일식 테마나, 하늘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의 태양이 보이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일본 사례 (2) : 나고(名護)박물관¹⁸⁾



일본 내 소규모 테마 박물관이다. 오키나와현(沖縄県)의 나고(名護市)는 인구 5만 명으로 나고박물관은 소규모의 자치체 박물관의 대표이다. 위치는 다음과 같다. 沖縄県 名護市 東江一丁目8番11号이다.

「나고.안바루의 생활과 자연」을 테마로 하고, 지역의 식문화를 중심으로 부모시대의 생활문화사를 따라가며 체험하는 것을 전시의 축으로 삼고 있다.

『나고박물관 전시기본 계획서』는 이 박물관의 존재형태가 이변임을 말해준다. 손으로 쓴 팜플렛에는, 「박물관의 전시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해설.보존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선조의 지혜를 발견하고 다양하게 보면서 균일화를 향해 가고 있는 현대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을 수집할까하고 고민할 때, 박물관의 눈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탐구심에 넘쳐나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 편안하게 출입하고, 특별전.상설교실.강연회의 기회에 방문한 사람들의 화제가 상설 전시의 핵심으로 자연히 유발되는 곳이야

18) 나고교육위원회 나고박물관 홈페이지(<http://www.city.nago.okinawa.jp/4/3282.html>), 이토 토시로(伊藤壽朗), 『열린 박물관』, 岩波文庫, 1989, 제2장 참조.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가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등의 표현이 실려 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건립의 과정과 내용을 채워가는 동안 지역민이 직접 관여한 점이다. 즉, 박물관을 세우는 단계에서 유아, 중학생, 주부, 교사, 농민, 설계사 등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무보수로 참가하였다. 전시표본으로서의 염소, 돼지, 닭 등의 박제, 골격표본을 만들기 위한 표면 벗기기, 석고형 뜨기, 세정 등의 많은 작업을 지역민이 맡아서 수행했다.

2) 이사부박물관 건립 제안

한국의 경우 지역의 테마박물관은 지역사에 기초한 역사성과 소장 유물과 전시 자료의 집합, 교육적 필요, 지역 문화의 구심체 개발 등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사부박물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일이다.

이사부박물관은 첫째, 이사부박물관은 한국사 속의 이사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기초하여, 삼천시립박물관, 동굴박물관 등과 연계한 테마박물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역의 다른 박물관과의 중복 전시를 피하면서 동시에 연계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해양시대에 맞이하여 동해안지역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 홍보성을 극대화 시키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해양시대는 바로 동해를 통해 한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삼척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해양시대의 출발점으로 이사부라는 해양인이 존재했던 곳이다. 따라서 해양 테마 박물관으로 이사부박물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민의 건립에 대한 열망을 모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의 건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박물관은 유물을 입수하고 그 유물에 기초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박물관이 마치 유물 수장고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테마 박물관인 이사부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민이 박물관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담당 지자체가 여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사부박물관은 건축적 요소와 함께 전시가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시는 유물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는 정보 발신의 한 형태이다. 이것에 입력된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정리하여 분석과 고찰을 한 최신의 학문적인 성과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박물관의 전시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원점은 전시 시나리오이다.

역사박물관인 이사부박물관은 역사전시를 주로 시도하는 공간이다. 실제로 전시란 보여주는 기술로 역사를 어떻게 전시로 표현할 것인가를 역사 전시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면 역사 전시란 무엇인가. 역사 전시는 지난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현상 등을 전시 공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역사 전시에서는 '정사(正史)'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인식 아래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관을 투영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에 따라 때때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모습으로 정리되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²¹⁾ 이른바 역사상의 구성을 기존의 역사 전시는 우선적인 목표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²²⁾ 이사부박물관은 개인사에 기초한 지역사를 정

19) 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 공간 국립박물관』, 국학자료원, 2007, 116-117쪽, 참조.

20) 村上義彦, 『博物館の歴史展示の實際』, 雄山閣, 1992, 1쪽.

21) 金子淳, 「歴史展示の政治性」, 『歴史展示とは何か』, UM, 2003, 참조.

22) 이러한 경향성은 역사박물관 전시의 내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시나리오 구성 시 사관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의

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다른 박물관과 차별성에 있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효과적인 지역박물관 만들기

1) 시민이 주도하는 박물관 만들기

한국의 경우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박물관이 건립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작은 규모의 몇 개의 진열장을 두고, 기관의 공간을 활용한 홍보용 공간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정 규모의 박물관을 만들 필요를 느끼고 공감대를 조성해 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의 박물관을 만드는 운동은 패전 직후부터 있었다.²³⁾ 먼저「향토의 확실한 문화」를 목표로 뜻있는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던 시대가 있었다. 나가노현(長野縣)의 후지무라(藤村)기념관, 아이치현(愛知縣)의 도요바시무카야마(豊橋向山)천문대가 그 대표이다. 다음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지자체의 의미를 시민이 자각하기 시작하던 시대로 문화재 관련자가 행정기구에 요구하여 역사 박물관을 만들게 했다. 전형은 동경의 하치오지시(八王子市)향토자료관, 시즈오카현(静岡縣)의 미시마시(三島市)향토관 정도가 그 대표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시민 학습의 권리라고 하는 사상이 확산됨과 동시에 권리로서의 박물관 요구운동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주부였다. 하지만 다수의 운동은 행정력에 압도되어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면 스스로 목표한 박물관의 내용까지는 보지 않고 끝났다. 성공의 열쇠는 상자로서의 박물관을 만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까지 행정기구, 특히 담당 직원과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자세이다.

이사부박물관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지역민이 선도하는 한국 최초의 시민형 테마 역사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시민 사회가 무관심하다면 그 필요성을 내용물 갖고 설명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의 중심인 청소년이 여기에 적극 개입하도록 그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줄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민운동에는 지역의 언론사와 대학이 적극 개입하여 의견을 선도해 갈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각종 회의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요구된다.

2) 시민이 운영하는 교육 중심의 박물관

현대 및 미래의 박물관은 교육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 박물관은 적절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식을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박물관이 일반인들에게 꾸준히 관심 받고 이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교육활동의 전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물관의 교육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박물관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근

구성은 불가피하나 이를 전면적으로 전시 공간에 투영하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박물관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사관의 확립에 두기도 한다.(加藤有次 等 編, 『博物館學概論』, 雄山閣, 平成12, 242 쪽.)

23) 이토 토시로(伊藤壽朗), 『열린 박물관』, 岩波文庫, 1989, 제3장 참조.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시민운동을 통한 박물관의 건립 경험은 그리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본적으로 그 박물관이 자리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실생활의 향상, 나아가 학교교육을 원조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활동형태를 분류해 보면, 첫째, 성인에 대한 교육활동, 둘째, 학교교육에의 원조 또는 협력 활동, 셋째, 전문적인 조사 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성인 교육활동으로는 교양.조사연구.레크리에이션 등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비롯해서 각종 공개 강연회 . 강습회 . 시사회 . 제작 실습 . 특별 전시회 및 도서관의 이용 등이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활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일치하는 자료의 전시, 학습의 견학, 제작 실습지도, 자료의 대출, 채집여행 및 그룹 활동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조사연구의 협력 활동으로는 실험실 또는 연구실의 개방, 전문적 출판물의 간행, 조사연구의 지도상담, 연구자료 이용의 편의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실생활의 개선 및 산업의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지역박물관의 경우 교육적 기능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공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지역민을 위한 교육 공간이 아닌 참가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교육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역의 교육기관, 시민단체, 행정기구 등과 함께 사회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다.

5. 결

새로운 지역박물관은 에코형을 제안해 본다. 지역의 전통을 지키는 중심공간으로 박물관이 단순히 단체장의 상징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반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적극적인 사고에 기초해 지역민과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지역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을 재구성하기도 시도해 봄직하다. 기존의 건립된 박물관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절감이 그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시민이 참가하는 박물관 운영이 절실하다. 사람이 찾는 박물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소수자가 함께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성인을 비롯해, 실버세대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역박물관의 박물관은 이제는 24시간 공개되어야 한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는 박물관이어야 한다.

<토론문>

정기문(군산대)

김인덕 선생님의 “한국에서의 지역의 박물관 보기” 에 대한 토론문

한국 지역 박물관 활성화 방안

김인덕 선생님의 “한국에서의 지역의 박물관 보기”는 지역 박물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박물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발표에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연구는 경제적 여건과 시민의 문화 의식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발달되어 있습니다. 역사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사례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 연구자와 한국의 박물관 운영자들은 그동안 이 작업을 충실하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일본에서 1970년대 여러 지역에서 박물관 건립 시민 운동이 있었으며, 시민들이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역 박물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런 외국의 사례를 많이 제시하면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도 좀 더 언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역 박물관이 테마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주제를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생태와 천문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웠습니다. 원래 근대 서양에서 학문이 탄생할 때 ‘박물’은 역사에 중심이 둔 인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생물, 천문, 물리와 같은 과학적인 지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박물관학이 역사학의 보조학문이 되면서 그 주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에 역사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원, 자연사 박물관, 해양 박물관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은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역사 유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런 종합화가 어렵다면 여러 주제의 박물관과 전시관을 집적하여 관람자들이 한번에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도 이사부 박물관이라는 테마형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또한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을 시민 만남의 장, 시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단순히 유물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이나 학문 전문에 관한 연구나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박물관의 주요 역할을 ‘시민

교육'이나 '생활 교육'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박물관 연합회는 박물관이 '시민인문학'이나 '청소년 교육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런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박물관 인력은 여전히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 사, 철은 물론 기초 과학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문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육성을 필요한 것이지요. 대학에서도 이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 학과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전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움직이려면 정부나 사회에서 문화 전문가 육성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 전문가의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사회적 수요를 늘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인데요. 지역 박물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누구나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설립 이후 거의 방치된 박물관이 많습니다. 사실 박물관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박물관 가운데서도 1년에 관람객 수가 수백 명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언론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사회에 지역 문화 진흥책을 요구하는 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지역 박물관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호응도가 낮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에코형 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은 박물관'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사회에서의 방언 연구 방법

임석규(원광대)

[별지 첨부]

<토론문>

채현식(군산대)

[별지 첨부]

제2부 분과별 발표

【국어학/국어교육/한국어교육】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1923)에 반영된 20세기 초엽 서울 방언의 음운론과 움라우트의 공시성

최전승(전북대)

<목차>

1. 서론
2. Eckardt(1923)에 반영된 음운 현상과 형태 통사적 특징
3. 움라우트의 실현 유형과 공시적 변이현상
4. $V^i \infty V_i$ 과 전설화의 원리 및 20세기 초엽 움라우트 현상의 분포
5. 20세기 초엽 서울말과 경기도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의 확산
6. 결론과 논의

1. 서론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독일인 신부 안드레아스 에카르트(P. Andreas Eckardt, 한국명: 玉樂安, 1884-1974)가 저술한 『조선어교제문전』(*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1923)의 텍스트에 반영된 20세기 초엽의 서울 대중말, 또는 경기방언에 해당되는 음운론적 양상 및 움라우트 현상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검증하려고 한다.¹⁾

이 문법서는 Eckardt가 1909년 12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주재 성 베네딕트 교단에서 기독교 선교와 교육 사역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간행한 독일어권 최초의 본격적인 한국어 문법서 겸 학습서이다. Eckardt(1923)는 제1부의 텍스트와, 독자적인 서문과 체제를 갖춘 제2부 『附 註解』편으로 구성되어 있다.²⁾ 각 과의 텍스트 본문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문법 항목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단어 모음>이 배정되어 본문에서 예시된 한국어 예문과 이어서 연속되는 한글 <읽을거리>(Lesestück)에 나오는 개별 어휘를 수록하여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독일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제>(Aufgabe) 항목과, 이 문법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한국어 <대화>(Unterhaltung)가 뒤따르는 짜임새 있

1) 이병근/ 박경래(1992)는 경기방언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그 기술 대상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주변지역의 방언”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방언학사전』(2000:41)의 <경기도 방언> 항목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쓰이는 중부방언에 속하는 하위방언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이 문법서는 저자의 서문과 독일의 비교언어학자 Müller 교수의 추천사, 그리고 제1과에서부터 제45과까지의 텍스트 본문과 부록(§322 자연음의 묘사, §323 頭韻法이라는 표제가 붙은 상징부사 부류, §324 한문 서적 『大學』을 대상으로 새김을 통해서 독해하는 실제, §325 전국에서 수집한 특이한 방언 일부)으로 구성되어 있다(pp. v-422). 제2부에서는 제1부의 텍스트 가운데 로마자로 작성된 한글 <읽기교재>(Lesestück)를 당시의 고전적인 한글 표기(조선언문 터역)로 옮긴 다음에, 이어서 독일어 번역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제1부의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독일어 문장 <연습>(Aufgabe)이 제2부에서 한글 표기 방식으로 번역된 다음에(Übersetzung; 연습), 여기에 다시 로마자 표기로 작성되었다.

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³⁾

본 텍스트의 한국어 <대화> 부분은 甲과 乙이라는 가상의 화자와 청자 둘 사이에 오고 가는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높임법의 등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대화의 주제는 한국의 역사와 풍습, 민담과 전설 등을 효과적으로 포함하여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민담의 경우는 Eckardt 자신이 직접 수집한 것이며, 자료 제공인, 기타 출처를 일일이 밝혔다.

문법서의 본문 가운데, 한국어 문법 항목들의 설명과, <과제>(Aufgabe) 항목은 독일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고딕 인쇄체는 그 당시와 1960년대에까지 이르는 독일의 전형적인 관용적인 방식이었다. 그 반면에, 본문에서 사용된 한국어의 문장과 단어는 로마자 표기로 작성하여 고딕체로 인쇄된 독일어와 구분하였다.

Eckardt(1923)는 1923년에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원고가 이미 작성되어 1914년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Heiderberg, Julius Groos 출판사에 보내어져 인쇄가 시작되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Vorwort, x). 그리하여 이 문법서는 그가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1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고초와 노력을 요하는 오랜 인내의 결실이었다. 따라서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집하여 제시한 이 문법서의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는 대략 1910년대에서부터 1920년대 초반에 이르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 인근의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였던 口語이었을 것이다.

Eckardt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이 문법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종래의 다른 문법서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 여기서 구사된 전사표기의 방식, 독특한 구성과 체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글 자모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감, 세종이 창제한 신문자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조선 太宗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50년이나 앞서서 동활자를 발명한 사실, 끝으로 오래 지연되었고 험난했던 책의 인쇄와 교정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⁴⁾

그는 자신의 문법서는 최초의 독일어-한국어 대조 문법에 해당되는 것이며, 앞선 시대에 이루어진 Underwood의 영어-한국어 문법서(초판 1895와 개정판 1914)와, 프랑스 신부들의 *Grammaire Coréenne*(1880) 부류와는 많은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⁵⁾ 그리고

3) 고영근(1983)에서 “외국인의 국어문법 연구”는 3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았다. 즉, 제1기(1832-1882), 제2기(1883-1938), 제 3기(1939-). 이 가운데 이 글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에카르트의 문법서(1923)는 제2기에 포함된다. 제2기에 속하는 문법연구를 관통하는 특질은 “국어의 구조에 바탕을 둔 실용적 연구”로 고영근(1983:10-18)은 규정하였다.

4) 이 책의 성격을 대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Eckardt(1923, Vorwort: v-x)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ㄱ) 프랑스와 영국 및 러시아인들은 그 동안 문법서와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과 한국어를 정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한국어 연구의 길을 개척하여 온 반면에, 독일어로 작성된 그러한 체계적인 문법서는 아직까지 없었다. (ㄴ) 한국에 체류하는 지난 14년 동안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한국어와 한국의 언어 정신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으며, 혼란과 난잡한 한국어의 문법 형태들로부터 일정한 문법 규칙들을 추출하여 언어의 구조를 밝히려고 했다.

(ㄷ) 문자와 언어로 한 민족의 문화적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 민족에 속할 것이 틀림없다. (ㄹ) 한글 자모는 단순하고 그 내용이 풍부해도, 독특한 문법 형태와 동사의 다양한 어미로 표현되며, 특히 문장의 구두점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음절과 단어, 문장의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 초학자들에게 어려워서 한글자모는 로마자 표기 원칙을 따라 전사하였다. (ㅁ) 복잡한 한국어 동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분석 체계는 저자가 1913년 서울에서 간행한 숭실학교 강의용 『조선어문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ㅂ) 본서의 각주를 이용하여 주로 단어를 중심으로 언어 비교를, 첫째 한국어의 계통적 귀속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둘째 한국어와 일본어는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했다.

5) Miller 교수는 추천사에서 Eckardt(1923)의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ㄱ) 한국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음절 연속 구조를 쉽게 기억해 내기 위하여, 로마자 전사 방식을 이용

Underwood의 문법서는 원래 한국어 문장을 수집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Eckardt 1923: Vorwort, IX). 그는 자신의 문법서에 실린 제1과에서부터 45과까지에서 한국어 문법을 규칙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보기를 예시하면서 연습 항목을 배정했으며, 한국어 대화문을 덧붙였다고 해설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읽을거리>(Lesestück)와, <대화>(Unterhaltung)는 대부분 한국의 정서와 생활, 그리고 풍습, 민담, 한국의 역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텍스트에서 한국어 독본은 전부 독창적인 이야기인데, 단지 4, 10, 및 11과에 실린 내용은 경향 각지의 신문에서 선택하여 여기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전제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각 과마다 살려있는 한국어 대화 연습은 본 문법서를 위해서 새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한국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쓴이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Eckardt(1923)가 보유하고 있는 일차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체계적인 문법 기술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자료 제공자들로부터 수집한 그 당시의 민담 자료와, 사실적인 <대화>를 로마자로 정밀하게 전사하여 제시한 언어 자료에 있다.⁶⁾ 그의 문법서가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는 일반 대중들 속에서 그들이 구사하는 일상적 구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대상인 당시의 언어는 종래의 다른 문법서들이 대상으로 했던 격식적인 표준어가 아니라, 대중들이 구사하였던 서울말 중심의 살아 있는 구어(vernacular) 중심이었다. 따라서 Eckardt(1923)의 텍스트 본문에 실린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20세기 초엽의 중부방언의 음운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을 제공한다.

Eckardt의 문법서 가운데 다른 문법서 계열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은 텍스트에 출현하는 한국어 단어들을 비교 언어학의 관점에서 대조하려고 시도한 점이다. 그는 한국어와 인구어와의 친족관계 연관 가능성을 주로 단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ckardt는 한국어와 주위의 언어 일본어 및 인구어 어족의 단어들의 단어들과의 형태상의 유사점들을 20여 가지 항목에 걸쳐 상호 대조하여 본문의 텍스트에서 각주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그는 본 문법서의 자매편인 제2부 『조선어교재문전 부 주해』(*Schlüssel zur Koreanischen Konversations Grammatik*)의 서문에서 한국어와 인구어와의 27여 가지의 어휘 항목들을 일목요연한 도표로 비교 대조한 다음,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이미 한국어와 인구어 어족과의 흥미 있는 관계가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929년 고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한국어와 인구어와의 비교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여, 그 성과를 단행본 Eckardt(1966)로 간행한 바 있다.⁷⁾

하였다, (ㄴ) 복잡한 동사 부분을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습득하기 편리하게 기술하였다, (ㄷ)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하고 살아있는 대화를 도입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ㄸ) 각주에서 제시된 언어 대조와 비교는 비교 언어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서는 독일에서 지금까지 소홀한 분야로 남아있는 한국어 연구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다.

6) 예를 들면, 제21과 <읽을거리>(Lesestück)인 “한라산 신선 이야기”(덕역 21, 163-162)에 대해서 그는 미리내에 있는 강 신부로부터 들은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1923:242). 그리고 제 27과 “님군이 피란홈이라”(덕역 27, 146-145)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김봉제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첨부했다. 또한, 제37과 <읽을거리> “견우 직녀성 이야기”(덕역 37, 135-134)에 대한 본문의 각주에서 그는 “나의 스승, 김봉제의 구술인데,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유명하다.”(1923:241)와 같이 출처를 제시하였다.

7) Eckardt(1966: iii)는 그 책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한국민족이 인도 게르만 어족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는 처음으로 내가 『조선어교재문전』(1923)에서 제기한 바 있다. 내가 그 문법서를 저술할 때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과 전문 서적들이 그 당시 전무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동부 아시아 언어들과의 상세한 비교를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문법서의 각주와 부록에 실린 간단한 개관에서 한국어 단어의 어근과 인도 게르만어의 어근 사이에 개재된 현저한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나는 1929년 한국에서 귀국한 후, 저명

위에서 글쓰기가 개략적으로 기술한 Eckardt(1923)의 성격과, 상대적 가치 및 그 내용상의 개요는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 왔다(정희준 1938; 小倉進平 1964; 이승녕 1965; 고영근 1977, 1983). 1970년대 후반에는 <역대한국문법대계>(김민수 외 편, 제2부 제8책)에 수록되어 비록 영인본이지만, 그 실물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다.⁸⁾ 그리고 최근에 특히 독일어 전공 학자들 중심으로 교재 평가론의 관점에서 이 문법서에 대한 한국어 교재 또는 학습서로서의 구조적 특징과 체재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이은정 2008; 원윤희/고예진 2012; 고예진 2013). 그 반면에, 이 문법서의 텍스트에 반영된 20세기 초엽의 순수한 언어 자료를 추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관찰은 이번에 발표된 정인호(2014)의 음운론적 연구를 제외하면, 쉽게 찾을 수 없다.

1.2 정인호(2014)는 Eckardt의 문법서에 나타난 언어만 단독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고,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의 틀에서 이 시기에 출현하였던 주로 외국 선교사들의 여러 문법서와 대역사전에 드러난 국어의 음운목록과 음가, 음운론적 과정을 몇 가지 선정하여 기술하고, 그 의미를 검증한 논문이었다.⁹⁾ 국어사에서 근대 단계의 종료와 현대국어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개화기로 칭하는데, 대략 1890-1910년까지의 시대적 공간을 아우른다고 한다(『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9).

특히 정인호(2014:116-118)가 Eckardt(1923)에서 주된 관찰의 대상으로 삼은 음운론적 과정은 이 텍스트에 부단히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일부의 움라우트('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이었다.¹⁰⁾ 형태소 내부와 그 경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움라우트에서 형성된 피동화 모음은 주로 V^i 와 같은 표기 방식을 이 문법서의 텍스트는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예를 우선 간단하게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다.

- (1) ㄱ. san koka^{ki}(꼭대기, 404), toyatji ko^{ki}(고기, 357), u^{pho}(우표, 138),
 ㄴ. solsol punan para^{mi}(바람-이, 417), 등등.

그리하여 정인호(2014)는 후설계열의 피동화 모음이 일반적으로 전설계열로 전설화하는 현대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원리에 견주어, 예의 피동화음 V^i 의 본질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3 가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한 언어학자 W. K. Miller 교수와 한국어의 친족 관계, 특히 동부 아시아 여러 언어들과의 관련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나는 Miller 교수에게 한국어가 인도 게르만 어족의 한 성원이라는 나의 가설을 설명하였다. 그는 거의 40여 년 동안이나 나를 늘 격려해 왔으며 이 문제를 더 규명해 보라고 권장하였다.”
- 그리하여 그는 Eckardt(1966)에서 (ㄱ)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설들을 무효화시키며, (ㄴ) 한국어는 인도 게르만 어족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증거들을 고고학적인 증거, 민족 간의 상호 교섭, 그리고 음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제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8) 일찍이 小倉進平(1940:89)은 이 문법서를 소개하면서, 한국어 동사의 활용어미를 17 종류로 분류하여 한국어의 속성을 복잡하게 기술하였다는 비평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어와 여타의 인구어들과의 20여개의 단어 비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9) 정 교수는 그 논문(2014)에서 근대에서 현대국어로 계승되는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중부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문법서와 사전 1 종류를 주요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즉, (ㄱ) *Grammaire Coréenne*(『한어문법』, Ridel 1880), (ㄴ)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한영문법』, Underwood 1890), (ㄷ) *English-Korean Dictionary*(Scott 1891), (ㄹ)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조선어교재문법』, Eckardt 1923).
- 10) 정인호(2014:116)는 이 텍스트에서 움라우트의 실현 예들에 대한 관찰을 제25과(p.200)에까지만 한정하였다. 제1부의 텍스트 전체는 제45까지(p.422)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하여,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대부분 완료된 이 시기의 서울말에서 V^i 의 표기를 과연 이중모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 둘째, 현대국어 음라우트의 성격 규정, 즉 기제와 관련하여, 피동화음으로 실현된 표기 V^i 의 정확한 음가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 셋째, Eckardt(1923)의 텍스트에 제시된 한국어는 대부분 그 당시의 서울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여기에 생산적으로 반영된 음라우트 현상의 보기들은 예외적으로 방언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글쓴이는 Eckardt(1923)에서 음라우트 현상의 피동화음으로 전사된 표기 형식 V^i 에 대해서 정인호(2014)가 관찰하여 위에서 제시한 3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전부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미 예전에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구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음라우트 현상에서 피동화 모음은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이중모음화 과정(으→의[iy]; 우→위[uy>wi]) 일부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논의한 바가 있다(최전승 1986, 1987). 그리하여 19세기 후기 일부 지역방언의 음라우트 현상에서 보이는 피동화 모음의 전설화는 역사적으로 두 개의 음운론적 과정(㉞ $V \rightarrow Vy$; ㉟ $Vy \rightarrow$ 전설모음화)을 거쳐 축약(telescoping)된 단계를 보여준다는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였다.

Eckardt(1923)에 반영된 20세기 초엽의 서울방언의 음라우트 현상에 실현되는 $V \rightarrow V^i$, 또는 $V \rightarrow Vi$ 와 같은 로마자 표기 방식은 이러한 통합적 과정의 제1단계의 모습을 여전히 공식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Eckardt(1923)에서의 음라우트 피동화음 V^i 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이와 동일한 음성 조건에서 실현되었던 Vy 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글쓴이는 정인호(2014)에서 부분적으로 정리된 음라우트 현상의 유형을 텍스트 전체(제1부와 제2부)로 확대하여 다시 추출하여 점검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끌어낸 결과와 그 공식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Eckardt(1923)에 반영된 몇 가지 통합적 음운론적 과정과 형태 통사적 성격을 20세기 초엽 서울말의 특질과 연관시켜 관찰하려고 한다. 글쓴이의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면, Eckardt(1923)의 텍스트에 반영된 1910-1920년대 서울 또는 경기도 인근 지역방언에서의 $V \rightarrow V^i$, 또는 $V \rightarrow Vi$ (변모음)와 같은 생산적인 음운론적 과정이 음라우트 현상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종래에 갖고 있었던 언어적 편견(예를 들면, “南濃北稀” 등과 같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Eckardt(1923)에 반영된 음운 현상과 형태 통사적 특질

2.1 Eckardt(1923)의 텍스트의 구어적 성격;

2.1.1 문자 표기와 발음간의 차이

Eckardt(1923)가 한글을 로마자로 전사해서 제시한 “읽을거리”(Lesestück 31, p.282)와, 이 책의 제2부 별책에서 한글로 표기된 대역 “테삼십일 디역: 물품 운전호난 기계”(1. 140-139)를 대조하여 문자 표기와 발음상의 차이를 측정해 보기로 한다.

도선 사름의(Tyosön saramë) 일용스에 지고, 니고(niko), 메고, 썩논(ginan) 것이 잇스니(idsüni) 메는 것은 ㅎ(hühütüri)들이 옛모판을 메히고(mehiko) 「옛 안쇠(1) 옛 안쇠」(yödansöi)라 ㅎ는 소리(hanasoräi)로 사라 ㅎ느니라. 청근장스(tjangsaka)가 무를 (muurül=mürül) 질머지고 골목으로 돈니며 (ta'nimyö)(2) 「무드롱 사오(3), 무드롱 사오」(mutüröng sao) ㅎ는 소리로 사라 ㅎ느니라. 옹기장스가 옹기를 질머지고 고리로(koriro) 돈니며 「옹기사리」(4) ㅎ는 말노 사라 ㅎ며(ha'myö) 녁마톡박이(nöngma thukpa'ki)를 지고 돈니며(ta'nimyö)(2) 「녕마톡박이」 ㅎ는 말노(mallo) 사라 ㅎ느니라(미완).

각주: (1)→“옛 아니 사랴오”(yöd ani saryao)하는 외침.

(2)→ tannita=tangkita는 ta'nnita=ta'ngkita로 발음된다.¹¹⁾

(3) (시골말), mu(u)tül하는 말을 길게 늘임.¹²⁾

(4) “옹기 사랴오?”(ongüi saryao).

참고) 오늘 날이 도소(련습, 110)=onal nari tjoso(12). 도선 사름이오(련습 110)=tjosön saram(11),

2.1.2 텍스트의 구어성과 방언

<대화>(Unterhaltung) 40:373

갑: 나는 저 장사에(tjansaë) 소래를 당취(tangtchöe) 알아들을 수 읍소(üpsö).

을: 내 역시 그런 소래를 알아듣지 못 하오. 그러면 저 장사를 불러 무삼 말인지 물어봅시다.

갑: 여보, 여보, 이 장사, 이리 좀 와!

장사: 우에(ue) 오라노?²⁾ (‘오라고 하나/하오’의 방언.)

갑: 장사에 사라하난 소래를 알아듣지 못하니, 살 수 인나?

무삼 소래지 불기(pälki) 알아야 아니 사겐나?

장사: 알면, 사시라우(sasir'au)?³⁾ (‘사시랴오’의 방언.)

갑: 알아 들어야 사지.

장사: “무드롱(mutüröng) 사라우”란 말은 “무우를 아니 사시랴오?”란 말이오.

갑: 그러면 이 무우(각주: mü와 같이 발음한다) 한 단에 갑시 얼마요?

장사: 네, 이 무우는 매우 조코 연한(yönhan) 무우니 다른 무우보다 갑시 더 만소.

갑: 그러면 얼마란(ölmaran) 말이오?

장사: 이 무우 한 묶음(=한 단)은 갑시 숙양(sük /yang) 받아야 가겐소.

갑: 예, 너무 비싸서 살 수 읍소.

장사: 그러면 짚 무를 사 보오!

방언의 관심: Anmerkung.

1. “-는 고사하고“ 구문의 예 ”일이 잘 되길랑 고사하고 못 되기가 쉽소(341)“. “-tökillang”[Dialekt],
2. naryökata(나려가다, 292, 방언으로 na'rikata). näryökasó(나려가서, 314),
3. <대화 5>의 갑과 을의 대화 가운데(45), “갑: 조흔 말삼이오. 또 뵈시다. 편안이 가시오!”에서 “편안이 땡겨 읍시오!”와 “편안이 가시기오!”를 소개하면서, 후자는 “방언”이라고 표시하였다.
4. -nigantoro: 방언에서 원인(darum, deshalb)의 접속어미 ‘-니, -니까’ 대신으로 자주 사용된다. (85),
5. 후치사 -sö(-서)는 동사어간에 연결되면 자주 인과적 의미를 갖게 된다. 방언에서 ‘-서’는 ‘-설랑’으로 쓰이며, ‘-서는’형태는 방언에서 ‘-설랑은’으로 길어지게 된다. ‘해서→해설랑, 해설랑은’(64).

2.2 음운론적 특징

11) 텅기다, 텅겨(行) Gale 1897:195), cf. 든기다, 든니다(동. 645).

12) 강신항(“아직도 귀에 쟁쟁한 ‘사렁!’”, 15-19. 『서울말 연구』 1, 200). 17쪽.

“이육교 왕십리에서 왔다는 무와 배추장수가 ‘무 사려영! 배추 사리영!’ 하면서 긴 여음을 남기면서 지나갔다. ‘사리영!’은 ‘사렁! 사려영!’으로도 들렸는데, 이 소리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송기중(“1940년대 후반 서울 중산층 주택가 골목의 풍경과 말”, 7-16, 『서울말 연구』 2, 2002).

10-11쪽: “날이 밝으면서...채소장수들이 돌아다녔는데 무엇이냐고 외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자라서 어느 책에 무 장수가 ”무드렁 사려“라고 외쳤다고 쓴 것을 보았고, 강신항 선생님께서 본지 창간호에 ”무 사려영! 배추 사렁!“으로 기억하셨다”.

‘칩- (寒)>츄- (과도교정)>츄- (원순성의 동화)’?;

Eckardt(1923:260)는 명사파생 접사 ‘-위’(-ui)의 유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칩다(‘츄다’로 발음)→치위, 더웁다→더위’ 등의 보기를 열거하였다. 용언 ‘칩-’(寒)에 대한 20세기 초엽 당시 서울말의 구어에서 화자들의 실제 발음이 [츄-]이었다는 증언이 주목된다.¹³⁾

tchipta(gespr. tchüpta)→tchiui(260), tchipta(칩다, 122),
töuota(더웁다)→töui(더위). 으스스 tchipkito hamyö(칩기도 하며, 356),
날이 너무 tchiuni 일 하기가 오직 tchiulga(치우니, 치울까, 377).¹⁴⁾

사정한 「표준말 모음」(1936)의 “<우>와 <이>의 통용” 항목에서 그 당시 서울말과 경기도 인근에서 통용되었던 다섯 가지 이형태 ‘칩다, 치웁다, 추웁다, 츄다, 츄다’ 형이 나열되었는데, 여기서 ‘츄다’형이 표준어로 선정되었다(p.30). 이 표준어의 선택에서 우선 ‘칩->츄-’으로의 급진적인 변화와, 표준어에서 제외된 공시적으로 다양한 이형태들이 주목된다. 「표준말 모음」에서 예시된 동일한 5 가지의 이형태들은 그대로 총독부 편 『조선어사전』(1920)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¹⁵⁾

- (1) 칩다(p.851, 치위, 치운), (2) 츄다(p.843, 츄위, 츄운), (3) 추웁다(p.833, 추위, 추운),
(4) 츄다(p.833, 추위, 추운), (5) 치웁다(p.847, 치위, 치운), cf. 치위, 추위(p. 833).

2.3 형태 통사적 특징: ‘- 게되면→- 거드면’; Eckardt(1923:82-353)는 독일어 문장의 ‘-dass’ 구문과 연관된 한국어 조건문 어미들의 유형을 기술하면서 ‘gesetzt den Fall, dass..; für den Fall, dass...; angenommen dass...’ 등의 표현은 한국어의 어미 ‘-면’이 참여하는 구문으로

- 13) 1) 맞은→마진; matjin djak/tjip/paraiki(맞인 짝, 집, 바래이), 300, matjin(=matj?n, 맞은, 300),
얏은>안진; antjin(=antj?n, 49), nune antjin pharir?l(눈에 안진 파리를, 51),
2) 솟다→솟다; t?dki siltha(듣기 실타, 49), t?dki s?ltha(50), 일하기 s?ltha(=siltha, 50),
s?iltha(솟다, 257), 암만해도 공부하기 s?ils?mnita(설쌌니다) oder s?iry?yo(sireyo로 발음, 257),
cf. s?ltha, m?kki s?lso(237), s?ltha, s?rhy?(슬혀, 74),
보기 실트록 키크오(Underwood 1890:372),
3) -올습니다→-올십니다; tangsin malsami *olsimnita*(-올십니다, 266),
4) 씹쌌어>씹쌌어; 식구는 만코 ss?msimi manhas? 여가가 읍고라(씹쌌어, 235),
5) 츄>츄, 칩; tchim, tch?m(唾, 354),
오즘누다, 오즘께(국한회어.582), cf. 칩, 칩 배앗다(涎, 동. 311),
츄 맞고 오즘 누기 흐며, 츄 맞으며(상감응편도설언해 1. 9ㄴ),
우러러 츄 맞트면 제 듯치 느려지느니라(재간 교린수지 4. 2ㄱ).
6) 벼슬>벼실; py?sal(=pesil), 벼슬. 182.
7) 기츄→기츄→기츄; kidtchim(긴칩, 356), kidtchim 아니하려고 하여도(353),
8) 가슴→가심; kasim(가슴, 48),
9) 거즐→그질; k?tjad=k?tjid(128).
14) 「독립신문」(1896): 치우에 썬지라(1권 107호), 치운밤(1권 108호), 칩지 안케호고(1권 116호), 치운 겨울에(1권 58호), 겨울에는 칩고 여름에는 더웁게 호야(1권 76호), 치워서 어는 자(1권 61호).
15) 『한불조언』(1880)에서부터 표제어로 ‘츄-’이 보수형 ‘칩-’과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칩다: 치 위, 치운(p.603); 츄다: 추위, 추운(p.609). 사전의 표제어로서 이러한 ‘칩-’과 ‘츄-’이 공존하는 상황이 거의 20년 후에 간행된 Gale의 『한영조언』(1987)에 그대로 지속되었다.
(ㄱ) 칩다(寒, 치위; 치운, 815), 츄다(寒, 추어; 춘, 823).
(ㄴ) 치운 데 나가 든니면 감기들가 넘려호노니(Gale의 사과지남, 1894:44)^o
츄운 것도 견디고(동:226).

옮겨지게 된다고 예시하였다. ‘-면’; -하게 되면, --할 것 같으면, --할 지경이면, --할진댄’.

이어서 그는 아래와 같은 예문 하나를 제시하였다.

예; 만일 비가 오거드면(=올 지경이면) 울타리에 는(nün) 빨래가 다 결단 나겔소
=Für den Fall, dass es regnet,

그는 예문에 등장하는 조건문어미 ‘-오거드면’에 대해서 본문의 각주에서 이것은 ‘오게 되면’(oke tōmyōn)에서 절단된(Verstrümmelung) 형태라고 지적하였다.¹⁶⁾ 여기서 그의 ‘거드면’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과, 그가 제시한 하나의 예문이 특히 주목된다. 우선, 이 예문은 이로부터 16년 후에 간행된 Ramstedt의 *A Korean Grammar*(1939:103)에 그대로 출현한다. Ramstedt는 조건 부동사 ‘-면’과 가정 부동사 ‘-거든’의 의미 영역과 그 쓰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거드면’형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을 복합어미(combined ending)로 분석하면서, Erkardt(1923:353)에서의 예문 그대로를 차용하였다. “비가 오거드면 울안에 는 빨래가 다 결단 하겔소.”

특히 인용문 ‘울타리에 는(nün) 빨래가.’에서 ‘널다’의 관형사형 ‘년’은 Erkardt가 전사한 그대로 표기체계만 그의 방식대로 바뀌어서 ‘는’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 예문 후반부 종속문의 ‘결단 나겔소’ 부분이 여기서 ‘결단 하겔소’로 잘못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¹⁷⁾

19세기 후기 『독립신문』에서 사용된 ‘-거드면’과 ‘-게드면/케드면’ 그리고 또 다른 형태 ‘-거든면’의 출현 빈도수; 1)-거드면: 총 941회, 2)-게드면: 6회, 3)-케드면: 5회.¹⁸⁾

1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에서 이본에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에 대한 이표기의 형태;

- ㄱ. 타국에서 왔다^ㅎ고 천디을 헝게드면 그 안니 절통^ㅎ요(완판, 퇴.14ㄱ),
- ㄴ. 타국의셔 왔다^ㅎ고 천디을 헝거드면 그 안니 절통^ㅎ오(판, 퇴.294),
- ㄷ. 타국에서 왔다^ㅎ고 천대를 허거드면 원통헌 일이 아니겔오(박인수본 창본 수궁가.59).

1. 다른 아회 갖게되면 난하게 니르런만(고대본 필사본 춘향전,312),
그러할 것 갖게되면 뒤 아들리 걱정하건년야(상동.352),
스랑가로 놀게되면 정영 직효되련마는(상동.316),
2. 우리 둘이 스랑타가 헝번 앓차 죽게되면 後生期約 서로 헝자(신소설 옥중화.486),
춘향은 여 속에 안쳐 가게되면 남들이 보기에 신주든 줄 알지(옥중화.486),
너 하나를 잊게되면 내가 잊지 편^ㅎ소냐(옥중화.486),
3. 시름상사 급히 든 병 웁통히 죽게되면 그 안니 불상하오(창본 춘향가.22),
상사로 병이 들러 이통^ㅎ다 죽거되면 이 너 신세 뒤를 밟고 사잔말고(수절가,상.39ㄱ),
4. 백발리 장차 오게되면 소연풍도는 거들 수(창본 춘향가.22),
백발리 장차 오거드면 소연풍도 견을 수(한국의 판소리, 춘향가.243).
5. 낙화낙엽 되거드면 어느 나무 다시 올라(수절가,상.40ㄱ),
낙엽이 낙화가 된덜 언의 나무가 도라오면(장자백 창본, 춘향가.49).

17) Ramstedt는 *A Korean Grammar*(1939) 서문에서 일본 동경에 체류하면서 1924-1926년 동안에 한국 학생 유진걸 씨를 스승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들이 작성한 한국어 문법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참고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크게 도움을 받은 문법서로 그는 세 가지와, 러시아 카잔에서 펴낸 북부방언 중심의 한 편의 소사전을 언급하였다. 그가 참고한 문법서 가운데 Erkardt(192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드면’의 예문이 차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 (ㄱ) ‘-게 되면’:

1. 나라히 다시 평안케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큰 공신이요(독립신문,1896.8.6㉠),
2. 병정을 갖다가 진정케 헝게 되면 그 새는 장교와 판포군도 잇서 쓸디 업는지라
(상동.1896.5.23㉠),
3. 그 나무들이 다 자라 쓸만 헝게 되면 히마다 얼마식 베퍼 파라(상동.1896. 8.11),
4. 권이 잇서 덩부 일을 헝게 되면 우리는 나라와 빅성을 위 헝야(상동.1896.8.18㉠),

(ㄴ) ‘게드면’:

3. 음라우트의 실현 유형과 공시적 변이현상

3.1 공시적 변이와 생산성

Eckardt(1923)는 본문 제1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한국어의 음운과 실제의 발음 및 음운 현상의 일단을 조감하는 <음운규칙>(Ausspracheregeln, pp. 1-6)을 모음과 자음 별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제 20항의 발음 규칙에서 바로 음라우트 현상(‘이’모음 역행동화)가 실현되는 원리를 그는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술하였는데, 국어의 음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가 갖고 있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1). <발음규칙> 20: 뒤따라오는 i 또는 y는 정말로 자주(oft schon) 앞선 음절(의 모음)에서 들리며 (Vorschlag), 이것은 쉽게 변모음(Umlaut)을 거친 단모음으로 바뀌진다.¹⁹⁾
 예: sarāmi=sarā’mi(사람-이), pōpi=pō’pi(법-이), tjukyo=tjūkyo(주교), syotjyu=sōitju(소주)’ (1923:6-7).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의 가정을 먼저 전제로 한다. 하나는 Eckardt가 위의 발음규칙에서 기술한 음운규칙은 1910-1920년대의 서울말 또는 경기도 인근 지역방언의 구어에서 생산적으로 일어났던 음라우트 현상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현상을 수용한 피동화 모음은 Eckardt가 정확하게 전사한 바와 같이 화자들의 말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시적으로 Vi (즉, 후설모음+윗첨자: Vorschlag), 또는 해당되는 전설 단모음(Vi: Umlaute)으로 전환되었다.²⁰⁾ 이러한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글쓴이가 다음 장에서 논의하려고 한다.²¹⁾

1. 조곰치라도 사샤료이 말게드면 밋는 사름이 스스로 칭길터이요(상동.1896.8.18①),
2. 선긋과 짐을 실코 상향에 닷게드면 그 열도 회상에서(상동.1897.5.13②),
3. 회사 관원들의게 못게드면 자셔흔 스연도 알터이요(상동.1897. 6. 12①),
4. 김씨쪽 일과 참호 흥여 보게드면 양편 꼭 직을 응당 분별 홀 듯(1897.6.29④),
5. 스롱공상이 흥 흥게드면 부요롭고 강 흥것은 즈연히 싹를터이라(1898.3.3).

19) “Nachfolgendes i oder y ist oft schon in der vorhergehenden Silbe h̄rbar(Vorschlag) und ver?ndert leicht den einfachen Vokal in einem Umlaute.”(Eckart 1923:5). 원문과 번역문에서 밑줄은 글쓴이가 작성.

20) 독일어에서 원래 음라우트(Umlaut)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變音”을 뜻한다.

Eckardt(1923:viii)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한국어의 전설모음 계열에 대하여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즉, 변모음(음라우트)는 해당 후설모음에 -i를 붙여서 표기에 사용한다. 즉, ai(=?), oi(=?), ui(=?). 그런데 변모음으로 ?i(의)도 포함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i(=ui, ?i, 자주 짧은 -i로, 속격첨사로 쓰일 때에는 짧은 e로 발음된다.). 또한 그는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발음규칙 2 가지를 설정하였다.

<발음규칙> 9: 독일어 변모음(umlaute) ?, ?, ?는 한국어에서는 해당되는 모음 뒤에 오는 i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예: k?i(개, k?로 발음); m?i(매); s?i(새); n?i(늑, n?로 발음), t?i(뒤, t?로 발음). 이와 마찬가지로, y?i=y?, y?i=y?, y?i=y?, o?i=o?로 발음된다.

<발음규칙> 10: ?i(에)는 독일어에서 e와 같이, 그리고 y?i는 ye와 같이 발음된다. 한국어의 e는 변모음(Umlaut)이다. 우리는 언제나 e, ye로 전사한다.

21) Eckardt(1923)에서 형태소 내부에 실현된 ‘이’ 모음 역행동화의 예로 제시된 tjukyo=tj?ikyo(주교→쥬교), sy otjyu=s?itju(소주→쇠주)에 대하여 정인호(2014)는 현대음운론의 관점에서 음라우트와 별개의 음운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쇼쥬(燒酒)→쇠주’의 예들은 오늘날의 서울말과 경기도 방언에서도 지속되어 있으며(\$4를 참조), 지역방언에

Eckardt(1923)에 뒤이어 13년 후에 출간된 P. L. Roth(1936)도 1930년대 서울말의 음운론(pp.7-24)을 기술하면서, 그 당시 출현하고 있었던 음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 (2). 모음 ‘이’는 구어(in der Umgangssprache)에서 선행하는 모음에 자주(oft)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선행하는) ‘아는 ’애’와 같이; ’어’는 ’에’와 같이; ’오’는 ’외’와 같이; ’우’는 ’위’와 같이 발음된다. 예: 죽이다→꺾이다; 버히다→베히다(1936:8, 밑줄은 글쓴이가 작성).

Roth(1936:8)에서 열거된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 ‘아→애, ’어→에, 오→외, 우→위’에서 각각의 피동화음 ‘애, 에, 외, 위’의 음가는 전설단모음 [ä, e, ö, 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Eckardt(1923)에서 전사된 피동화음 Vⁱ 부류와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반면에, Roth(1936:8)의 텍스트에 전적으로 구사된 한글 표기에는 이러한 ‘이’ 모음 역행동화의 실현 예들이 전연 등장하지 않는 점에서 Eckardt(1923)와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두 문법서 간의 중요한 음운론적 차이는 당시 한국어의 문법과 어휘를 기술하면서 Roth(1936:8)는 서울말의 규범적인 문어(글말)를 대상으로 한 반면에, Eckardt(1923)는 대중들의 구어(입말)를 텍스트의 언어로 선정한 태도에 기인되는 것이다.

Eckardt(1923)가 작성한 모든 텍스트에서 출현하고 있는 생산적인 음라우트 유형을 조감해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추출된다.

첫째, 로마자로 전사된 제1부 텍스트(pp.1-422)에 등장하는 음라우트 실현형들은 한글 표기로 다시 작성된 제2부 『조선어교재문전 부 주해』(pp. 1-204; 디역, 연습)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실현형들로 교체되어 있다. 이러한 로마자 전사와 한글 표기와의 불일치는 비단 음라우트 현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다. 텍스트 자체의 로마자 전사는 현실적인 구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제2부에서 대역 자료 등에 사용된 한글 표기는 당시의 규범적인 표기 전통을 준수했던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예들을 대조하여 일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1. --tjukün hue sini tōiyō ryōngha'mi idta hamūro(264)
= 디역 29:142; 이것은 죽은 후에 신이 되어 령훈이 있다 흠으로,
2. ha'ngyong marhakirül(332)=디역 138; 홍용 말하기를,
3. narahi mangha'myōn Tjongmyo-satjiki ūpsōtjinta hatjio(333)
=디역:138; 나라히 망하면 종묘사직이 업서진다 하시오,
4. tcham küika ma'khō tjukkedne(363)=디역 40:130; 춤 기가 막혀 죽겐네,
tcham küika ma'khin kōsi(363)=디역 40:130; 춤 기가 막힌 것이,
5. manil kütjō naryōka'myōn(363)=디역 40:129; 만일 그져 느려가면,
6. nongpuē kūie tāihiko malsamhasitāi(372)=디역 40:129, 농부의 귀에 다히고 말숨 하시디.
7. phuldō'ki māiu ssatōn kōsini(174)=디역 19:166; 풀떡이 매우 싸던 거시니.
8. tchorye tchōngūro nao'myōn(118)=디역 13:182; 醜禮廳으로 나오면,
9. hok san kirō'kina hok namuro mandan kirō'kirū hongpoe ssasō anko(110)
=디역 12:183; 혹 산 기력이나 혹 나모로 만단 기력을 홍보에 싸서 안고,
10. totjōk no'mi ryukhyōlphorūl katjintjira(25)=디역 3:195; 그 도적놈이 륙혈포를 가진지라.

둘째, 제1부의 텍스트에는 음라우트 과정을 수용한 실현형과, 그렇지 않은 비실현형들과의 수의적인 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²²⁾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이 서

서는 19세기 후기의 자료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예인 ‘主教→꺾교’와 같은 보기는 음라우트 현상과 관련하여 매우 유평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다른 음운론적 과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2) 그 반면에, 음라우트를 수용한 형태만으로 텍스트에 반영된 예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실현형들은 소위 “변모

울말을 구사하는 화자나, 말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는 화자가 대화를 운용할 때에 구사하는 화용론적인 상황에 따라서 동화가 실현되거나, 억제되었을 공시적 사회언어학적 교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²³⁾ 먼저 이러한 동화작용에 의한 ‘아→애’의 용례들이 그 비실현형들과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출현하는 예들을 형태소 내부와 그 경계(주격조사 ‘-이’와의 통합과정)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1) 형태소 내부: ‘아→애’(äi↔a);²⁴⁾

- 4.1.1). 단초↔덴초; tantcho(209)↔taintcho(209)↔täintchu(213),
 4.1.2). 도깨비↔도까비; tokkaⁱpi(210)↔tokkapi에게 흘려고나(211),
 4.1.3). 손잡이↔손잡이; sontjaⁱpi(201)↔sontjapi(260),
 4.1.4). 아비↔애비; api, apötji(116), hamtjin api(109)↔hamtjin aⁱpira purümyö(110),
 4.1.5). 소내기↔소나기; sonaki(68)↔sonaⁱki(127),
 4.1.6). 꼭대기↔꼭다기; Halla-san goktakie(191)↔san goktäik를 보고(191)↔goktaⁱki(190),
 4.1.7). 호랑이↔호랭이; horangi(püm, 57)↔horaⁱngi안테 물러가도(394),

(4.2) 형태소 경계: ‘아→애’(äi↔a);²⁵⁾

- 4.2.1). 기가 막혀↔기가 맥혀; küika ma^khyö(251), küika ma^khyö tjukedta(412)↔küika

음”(Umlaute)만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피동화음 ‘아→애(?i=?)에 한정되어 있다.

- (1). tchⁱ?ik?l pⁱ?ikilltcharo(책을 뵈길차로, 238), (2). sⁱ?iki(=Junge, 새끼, 261), koyangi sⁱ?iki(고양이 새끼), sⁱ?i sⁱ?iki(새 새끼, 261), (3). aiki(애기, 24), ?iki(아기, 24), (4). odbⁱ?imi(은뻐미, 57), (5). talphⁱ?ingi(달팡이, 57), (6). sⁱ?idki(쌔기, Seil, Strick 76), (7). nⁱ?iki 하기를(내기, 50), (8). 그 농부에 귀에 tⁱ?iko(대히고, 372).

23) Eckardt(1923)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음라우트 현상의 실현 예들에 비추어, 이러한 과정을 수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예들이 보수적인 비실현 형태로만 열거된 유형들도 존재한다.

- (ㄱ). sontjapi(손잡이, 260), tolmangi(돌망이, 261), momtongi(몸동이, 261), ?onsu(원수, 315), kⁱ?angi(광이, 83), buraki, buri(뿌락이, 67),
 (ㄴ). 세상을 버리신 후(떡역 25:151=parisin hu(224),
 으히를 다려다가(떡역 25:151=taryⁱ?taka(224),
 mod pakhy?(십자가에 못 박혀, 229),
 tjamky?, tjamkita(잡기-, 잡겨, 229).

24) 앞으로의 논의에서 Eckardt(1923)의 텍스트에서 음라우트 실현과 관련하여 로마자로 전사된 피동화음 Vⁱ는 한글로 적절하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후설모음에서 역행동화에 의한 전설화가 수행된 형태로 간주하기로 한다.

25) 20세기 초엽 Eckardt(1923)에서 관찰된 V→Vⁱ와 같은 음라우트의 실현 예들은 1980년대 중반 한국정신문화원의 『한국방언자료집』(충남과 충북 편)에 실릴 방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광충구 교수(당시 충북대)가 형태소 경계에서 수행된 음라우트 실현형을 음성 전사한 V^y과 어느 정도 일치할 보인다. 아래의 자료는 1985년 여름에 글쓴이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일부의 피동화모음이 V→Vy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현지 방언 조사를 하고 있는 광충구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을 적에 보내준 것이다.

이 자료는 최전승(1986:162)에서 각주의 형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이용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충남의 연기군과 보령군에서만 수집된 피동화음 V^y의 예를 중심으로 추려서 일부 제시하기로 한다. 자료의 음성 전사는 광충구 교수가 한 것인데, 음라우트를 거친 피동화음 V^y의 위첨자 y는 하향 이중모음의 활음이 약하게 청취되는 반면에, Vy에서 y는 명확한 발음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ㄱ) 충남 연기군;

1. h^y?fm-i(흙+이), 2. t^y?g-i(떡+이), 3. So^yg-i(속+이), 4. komko^ym-i(곰곰히),
 5. po^ykida(볶이다), 6. o^ygi-(오기 싫다).

(ㄴ) 충남 보령군;

1. k^y?m-i(곰+이), 2. h^y?m-i(흙+이), 3. s^y?m-i(섬+이), 4. ku^yg-i(국+이), 5. po^yg-i(福+이),
 6. ko^y?ko^ymi(곰곰히), 7. ?^yphinda(업힌다), 8. so^yginda(속인다), 9. p^yo^yphinda(뽀힌다),
 10. po^yk^yinda(들볶인다), 11. no^yp^y?ra(늘혀라), 12. o^ygi-(오기 싫다), 13. s o^yk^yi, (속기 쉽다),
 14. kuy^y?gi-(끓기도 했다).

- makhyō(254), kūika ma'khyō amo malto(77)↗kūika makhita(76),
 4.2.2. 그렇게 하면↗그렇게 해면; kūrōkhe ha'myōn(254)↗kūrōkhe hamyōn(248),
 4.2.3. 허락-이↗허락-이; hōra'ki idsüllantji(247)↗hōraki idsūka(247),
 4.2.4. 바람-이↗바람-이; para'mi 불기도 하고(335), 술술 부난 para'mi(417)
 ↗parami 자기도 하고(333), param이 자난대(188), param이 부난대(188),
 4.2.5. 사람-이↗사람-이; han sarāmi...kū sarāmi..., kū midtchin sarāmi(18)↗
 그 sarami 아니 왈소?(125),
 4.2.6. 박혀↗백혀; mod pakhyō(229)↗pāikhita(백히다, 110),
 배가 모래에 pāikhyōdsūni(백혔스니, 112),
 4.2.7. -가면↗-개면; 어대로 ka'myōn 조승닐까?(130), 집에 들어 ka'myōn(110)
 ↗구경을 kamyōn(가면, 131).

위의 보기들을 살펴보면, 형태소 내부와 그 경계에서 음라우트 현상을 수용한 피동화음 ‘아→애’의 예들이 Eckardt(1923)의 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이 가운데 (4.2.5) ‘사람-이→사람-이’와 같은 용례들이 특히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리하여 ‘사람’(人)의 곡용형태를 예시하는 문법 기술에서도 주격조사 ‘-이’ 앞에서 역행동화가 실현되어 있다. sara'mi↗saramēke↗saramūke↗saranūn(10).

위의 예 가운데, (4.1.1) ‘단초↗덴초/추’(紐子)는 이 동화작용의 실현 위계의 측면에서 개재자음 [+설정성](anterior)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형태가 수행한 ‘단초→덴초/추’와 같은 음라우트는 20세기 초엽의 단계에서 불투명하게 표면으로 등장하지만, 기원적으로 ‘단초↗덴초↗덴추>덴초↗덴추’와 같은 통시적 과정을 전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덴추’의 형성은 이미 19세기 후기의 서울말에서도 등록되어 있으며, 1930년의 국어사전 부류에서도 지속되어 나타난다.

- (5)ㄱ. 단초, tan-tcho, bouton, 한불저언, 1880:457);
 단초, 紐子 a botton(Underwood의 한영저언, 1890:144),
 紐子 단추, 糸口子 슈단추(광재물, 宮室, 3ㄴ),
 ㄴ. 덴추, 紐子 (덴추-*뉴) (아들-*즈); a botton(Gale의 한영저언 1897:644),
 ㄷ. 단초↗덴추↗단추(문세영의 조선어사전 1938:37, 326).

그렇기 때문에, 1910-1920년대의 서울말을 반영하는 Eckardt(1923)의 텍스트에 ‘덴초, 덴추’형이 등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음으로 여타의 피동화음 ‘어, 오, 우’가 ‘이’ 모음 역행동화를 수의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억제하고 있는 단어와 구문들의 공시적 교체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 (6.1). ‘어→애’;
 풀떡-이↗풀떡이; phuldō'ki 매우 싸던 것이니(174)↗phuldōki 수건에 말라붙고(174),
 그러면↗그레면; Kūrō'myōn 모양이 조케 하여주시오(213)↗Kūrōmyōn(203),
 법(法)-이↗법-이; pōpi=pō'pi(법-이, 5),
 먹이-↗멕이-; phurūl mō'kyō nōūmyōn(235)↗phul mōkita(229),
 형용(形容)동사→행용동사; hya'ngyongtongsa(295)↗hyōngyongtongsa(34),
 (6.2). ‘오→외’;
 노흐며↗노희며; 수건을 내여 nohū'myō 하난 말이(74)↗상 우에 nohūmyō(111),
 무릎-이↗무릎-이; murūp—murū'pi—murūphi(15),
 (6.3.1). 형태소 내부: ‘오→외’;
 소주↗쇠주: syotjyu=sōitju(燒酒, 5).
 (ㄱ). sotju→sotju han tjane(345),
 (ㄴ). sōitju→mul kōa sōitju ōa(341),
 (ㄷ) sō'tju→sō'itju tjangsa(283), sō'tjurūl koadtōni(283),

sõ'tjurül kōni(283), sõ'tjuka(283).

(ㄹ) so'tju→so'tjumisü(쇠주 밀을, 283), so'tjumasi(쇠주 맛이, 283),
고기∞괴기; ko'ki nakta(152), ko'ki tjapta(152), mul ko'ki도 서너 마리(180),
toyatji ko'ki(357)∞mulkoki(57), 술과 koki를 가지고(119),
모밀∞메밀; momil∞memil(222),

(6.3.2). 형태소 경계: '오→외';

숙이-∞쇠이-; so'kita(190), 한 번 so'kyöpörira(191)∞sokita(152),
쫓기-→쫓기-; tjo'kyökata(293)∞djodkita, djodkyö(229),
도적놈-이∞도적놈-이; 네가 totjöknomi 아니냐?∞totjökno'mi 육혈포를 가진지라(25),
미련한 totjökno'mi säingkak üpsi(26)

(6.4). '우→위';

수혜자∞쉬혜자; suhyetja(水鞋子, 109)∞suihyetja(110),
우표∞위표; uphyo(郵票, 165)∞u'pho(138),
죽이-∞죽이-; tju'kita(219)∞tjukita(204), 말까지 tjukiki 쉽다(99).

위의 예들 가운데, 연결어미 '-으며' 또는 '-면'이 용언어간 후설계열의 모음을 전설화하는 음라우트의 유형들은 여기서는 수의적 교체 현상만 먼저 제시한 다음에, 나중에 §3.4에서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고 한다. Eckardt(1923)에는 '오→외'(ü→ü'∞üi)와 같은 '오' 피동 화음이 역행동화를 수행한 예들은 다른 피동화 모음들의 경우에 비하여 출현 빈도가 낮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드리-(獻)→더리-' 등과 같이 용이하게 역행동화가 예측되는 통상적인 예들도 비실현형으로 나타난다. türita(드리다, 99), türyöyatji(드려야지, 101), cf. 더리다: "더리다"에 보라(문세영 1938:426).

그 반면에, 적극적인 '오→외'(o→o'∞öi)의 동화작용에서, (6.3.1)의 '소주(燒酒)→쇠주'와 같은 음라우트 실현형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전사 방식도 sõ'tju∞sõitju∞so'tju와 같이 세 가지로 출현한다. 이 가운데 sõitju형은 Eckardt(1923)에 따르면, 피동화음 '외'가 완전히 전설 단모음으로 변모음을 거친 단계인 [sö-ɕu]를 전사한 것이다.²⁶⁾ '소주'에서 '이' 모음 역행동화를 수용한 '쇠주'형은 오늘날 서울 토박이 한상숙 노인(조사 당시 74세)이 구사하는 구술 담화 가운데에서도 통상적인 다른 동화 실현형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²⁷⁾ '쇠주'(소주, 43), '덴추'(단추, 108), 따라서 예문 (5)의 '단쵸(紐子)→딘쵸→딘쵸→딘추'의 경우에서나, (6.3.1)의 '쇼쵸(燒酒)→쇠쵸→쇠주'의 예들은 당시의 대중들이 구사하는 높은 사용 빈도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친숙도와 같은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26) 방언형 '쇠주'(燒酒)에 대하여 최명옥(1989/1998: 190, 각주 18)은 '쇼쵸→쇠쵸→쇠주'와 같은 음라우트 과정을 거쳐 왔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이보다 약한 음라우트 실현 제약을 가진 '가지'(나무), '고치'(누에), '가지-'(携), '다치-'(傷) 등도 동화작용을 전연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최명옥(1989/1988)은 '쇼쵸→쇠쵸'의 변화는 첫 음절의 모음이 갖고 있는 음성 환경 '쇼-' 자체에 내재된 원리에 의했을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소주→쇠주'의 변화보다 더 개재자음의 위계가 높은 '단쵸→딘쵸→딘쵸'와 같은 변화 과정은 어떻게 파악하여야 될까. 이와 유사한 음성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또 다른 예들, 즉 '투정(투정)→튀정', '투전→튀전' 등의 변화도 이미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ㄱ). 투정>튀정: 저 아회가 밭 구르고 밭 튀정한다(재간 교린수지 4.7ㄱ),

붓드막에 안저서 밭 튀정하다가 죽었다네(조선일보, 1934년 3월 23일 4면),

cf. 잠투세, 잠튀정(김태균 1986, 함북방언사전, p. 423),

(ㄴ). 투전>튀전: 우리가 노름 흥겨시 아니라 쇼일노 튀전을 하여 보았다고(독립신문 1권 42호),

튀전 흥는 사름 잇스면(상동).

위의 예에서 (ㄱ) '튀전'형은 오늘날 경기도 방언에서도 '덴추', '웬수', '쥐정'(酒醞), '쇠주' 등과 더불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김계곤 2001).

27) 서울 토박이 화자 한상숙 노인의 서울말은 목수현 씨가 편집한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18. 서울 토박이 부인 한상숙 한평생>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면 빨래허라』(1992, 뿌리깊은 나무사)를 이용하였다. 한상숙 노인의 한평생에 대한 구술은 그녀의 조카인 목수현씨가 꼼꼼이 옮겨 받아 정리했다고 한다.

strengthening)를 거쳐서 움라우트를 억제하는 개재자음의 제약을 일찍이 극복한 형태로 간주된다.

또한, ‘고기(魚)→괴기’형들은 동화의 비실현형들보다 출현 빈도가 높다. Eckardt(1923)의 텍스트에 간혹 koki로 로마자 전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ko'ki로 발음된다는 설명이 예외 없이 첨가되어 있다. 예: mulkoki(물고기, kōiki로 발음, 128), sokoki(소고기, kōiki로 발음, 128).

- (7). salko'ki, ko'ki(살피기, 49),
tatjin ko'ki(다진 괴기), kuūn ko'ki(구운 괴기), salmūn ko'ki(삶은 괴기, 127).
ko'ki nakta, ko'ki tjapta(152),
mulko'kirūl 막 먹다가(287), totatji ko'kina, soko'kina 굽게 그라(316).

위의 (6.3.1)에서 ‘모밀∞메밀’의 경우는 ‘이’ 역행동화를 수용한 ‘모밀→뫼밀’의 단계에서 첫째 음절의 ‘외’-모음에 원순성이 제거되어버린 상황(뫼밀→메밀)을 반영하고 있다. ‘오→외’의 역행동화와 관련하여, 이 텍스트에 출현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인 ‘도배(塗槽)→뫼배’와 같은 유형이 주목된다. tōipāi(뫼배, Tapete, 98), tōipāihata(tapezieren, 뫼배하다, 98).²⁸⁾

피동화음 ‘우→위’의 예들에서 한자어 ‘수혜자(水鞋子)→쉬혜자’와 ‘우표(郵票)→위표’와 같은 움라우트의 형태들은 매우 특이한 유형에 속한다. Eckardt(1923)에 등장하는 이러한 동화작용의 실현형과 비실현형간의 부단한 수의적 교체는 당시 서울말 또는 경기지역의 방언에서 이 현상의 적극적인 생산성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해되는 것이다.

3.2 전설화의 진행 과정과 역행동화의 단독 실현형

Eckardt(1923)의 관찰에 따르면, 움라우트를 수용한 피동화 모음은 후속하는 전설계열의 모음의 조음상의 영향을 받아서 V^i 로 바뀌거나, 또는 이어서 쉽게 변모음(Umlaute)인 전설 단모음 ä, e, ö, ü로 전환된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엽에 역행동화가 일어날 때에 먼저 $V \rightarrow V^i$ 와 같은 조음상의 조정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곧 이어서 $V^i \rightarrow Vi$ (변모음, 즉 $a \rightarrow \hat{a}i$; $o \rightarrow \hat{o}i$; $u \rightarrow \hat{u}i$)로 전환되는 두 가지의 음운론적 단계를 실현시키고 있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움라우트 과정은 단계적으로 (1) Vorschag→(2)Umlaute의 순서를 밟아 진행되어 온 현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이 글의 §4.1을 참조).

따라서 Eckardt(1923)의 텍스트에서 움라우트를 수용한 실현형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형태에서 전설화의 단계에 따른 $V^i \in Vi$ 와의 교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 (8).1. 이야기(談); ori niāiki(5), iāiki(17)∞ia'ki(50), nia'ki(344), ia'kiro marha'myōn(360),
2. 괴기(魚); kōiki(128)∞ko'ki(49, 131),
3. 땡기-(行); 편안이 tāngkyō opsio(45)∞ta'ngkita(21, 145),
4. 소내기; sonāiki(32)∞sona'ki(68, 소나기),
5. 기레기(雁); kirō'ki(109)∞kirōiki(57),
6. 주교(主教); tjūkyo(6)∞tjū'kyo(Bischof, 332), hongūi tjū'kyo(cardinal, 332),
7. 꼭대기(頂); san goktāiki(191)∞gokta'ki(190), san kokta'ki(293, 404),

28) 김계곤(2001)에 의하면, ‘도배(塗槽)→뫼배’와 같은 전설화를 수행한 형태는 경기도 일산, 화성, 남양주 인천, 파주 등의 거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 방언에서 이러한 유형은 ‘고추→괴추’(남양주군, P.401), 노동(勞動)→뇌동(화성군 팔탄면, P.362), 자주(頻)→재주(시흥군, P.574), 나중(後)→내중(인천 중구, P.596), 창포(菖蒲)→챙포(인천 소래, P.638), 자전거→재전거’(일산, 시흥, 파주 문산읍, P.499, 572, 577) 등이다.

māin gokta'ke(맨 꼭대기에, 296),

위의 보기들 가운데, Eckardt(1923)의 텍스트에서 ‘꼭대기’(頂)와 ‘기러기’(雁)와 같은 어휘들은 동화의 비실현형과, 실현형 및 전설화의 단계에 따른 피동화음 V^i 과 V_i 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의 공시적 변이가 반영되어 있다. (ㄱ). 꼭대기 ∞ 꼭다기; Halla-san goktakie(191) ∞ san goktāik를 보고(191) ∞ gokta'ki(190, 404); (ㄴ). 기러기 ∞ 기러기; kirō'ki(109) ∞ kirōiki(57) ∞ 그 kirōki를 받아 들여가며(118). (8)3의 ‘당기(行) \rightarrow 당기-’에서 텍스트의 로마자 전사에 ‘이’ 모음 역행동화를 반영하지 않은 예들도 출현하고 있으나, 본문의 각주에서 실제의 발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유의어 ‘다니-(行) \rightarrow 대니-’도 포함된다.

- (9). 다니 \rightarrow 대니-/당기 \rightarrow 당기-; tannita=tangkita(각주: 이 말은 ta'nnita=ta'ngita로 발음된다. 282),
골목으로 ta'nnimyō(대니며, 282), sarami ta'ngkitji malkōsio(당기지, 277),
잘 ta'ngkyō 오너라(당겨, 62), 발로 ta'ngita(21).

그 반면에, 텍스트 자체에서 음라우트를 수행하여 피동화음에 첫 단계인 V^i 의 상태만을 반영하고 있는 고정된 예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동화의 단독 실현형들은 비실현형들과의 교체의 단계를 통과하여 개신형들로 이미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동화음 ‘아 \rightarrow 애’(aⁱ)를 중심으로 형태소 내부와 경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0).1. 형태소 내부; ‘아 \rightarrow 애’

tjina'ki(지내기, 242); kompha'ngi(곰팡이, 173), tcham tjamiidta(재밋다, 410, 412), tjami sūrōun(재미스러운, 245), tjami(재미, 50), 술 먹고 취해야 tjami가 인지, 무슨 tjami가 인나?(345), 비가 와서 tjami 읊겐소(85); ora'pi, oraponi(오래비, 297); a'pi(애비, 11); turuma'ki(두루매기, 209, 220), tcha'yang(遮陽 \rightarrow 채양, 98), mōitchira'ki(메추래기, 57), ha'ngyong 말하기를(행용, 332, 뒤역; 흥용(恒用) 말하기를, 138); kaptja'ki(갑제기, 413); tjakta'ki(작대기, 149); sa'kki(새끼, 173), tangnakui sa'kkika(175); tjakil(昨日 \rightarrow 책임, 327); aiki(24), āiki(얘기, 116); nāirita(내리다, 110), nāirisio(내리시오, 112).

(10).2. 형태소 경계;

--함-이 \rightarrow 햄-이; 신이 되어 ryōngha'mi 인다 하므로(264),
대답-이 \rightarrow 대답-이; ahāi tāita'pi, 두 개는 저 아히 입에 물리고(59), tāita'pi(대답-이, 401),
잠-이 \rightarrow 잼-이; tjami 덧들어서(잼-이, 265),
 짹-이 \rightarrow 쩍-이; 신 한 dja'ki 어대 간고랴(쩍-이, 323);
말기 \rightarrow 맬기-; ton ma'dkita(돈 맬기다, 182, 250),
ton ma'dkin mud saramtūri(돈 맬긴, 288).

위의 예에서 형태소 내부에서 음라우트 수용만을 보여주는 (10)-1의 개신형들은 20세기 초엽의 서울말 또는 경기지역의 입말에서 어간의 재구조화를 거친 단계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동이나 피동접사 또는 주격조사 ‘-이’와의 통합과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단독 실현형들은 자료의 제약에서 기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ckardt(1923)의 텍스트에 이러한 실현형과 비실현간의 수의적 교체 과정이 우연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여타의 피동화 모음을 중심으로 음라우트의 실현형들로만 출현하는 단독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 피동화음 ‘어-에’:

네기 \rightarrow 네기-; nō'kita(308), 도적놈으로 nō'kita(21),
벼히 \rightarrow 베히-; pōhita(=pehita, 88), pehita(209),

꺅이→꺅이-; 나무가 gō'kkyōdso(394),
susugō'ki(수수께기, 237),

(11).2 피동화음 ‘오→외’:

오비(吾鼻)→외비; o'pika susamtchōkinkoro(吾鼻가 數三尺인고로, 246),
요긴(要緊)한→외긴한; yo'kinhan 몽학을 아니하연습니다(360),
코기리(象)→꺅기리; kho'kiri(57),
nopta--no'phi(높다-높히-, 260); 녹이→꺅이-; no'kita(127, 219),

(11).3 피동화음 ‘오→의’:

일홈(姓名)-이→일훬-이; irho'mi 무어시냐(27),

(11).4 피동화음 ‘우→위’:

죽이→꺅이-; ju'kinanya(꺅이-, 43), tju'kita(169, 219), 목매여 ju'kikita(262),
까치던지 가마귀던지 보난 대로 tjūkyōra(꺅여라, 361).

(11).2의 ‘오→외’의 예에서 한자 관용구 ‘오비(吾鼻)→외비’와, ‘요긴(要緊)→외긴’에 적용된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매우 특이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 실현형들의 등장은 20세기 초엽 서울말 또는 경기지역의 입말에서 이러한 통합적 과정이 생산적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코기리(象)→꺅기리’와 같은 움라우트를 수용한 형태의 출현도 다른 지역의 방언에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예이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반영하는 완판 고소설 부류에 이와 유사한 ‘꺅코리’형이 등장한 적은 있다. 딕국 천자 꺅코리 타고 우리 전하는 연을 타고(84장본 완판 춘향전, 상.35ㄴ). 그러나 19세기 전라방언에 출현하는 ‘꺅코리’형은 움라우트 과정을 수용한 형태는 아니고, ‘코(鼻)+ -접사 ‘-이’→꺅’와 같은 형태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⁹⁾

3.3 연결어미 ‘-며’과 ‘-면’에 의한 ‘이’ 모음 역행동화의 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움라우트의 유형들과 관련하여 Eckardt(1923)의 텍스트에서 특별하게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적인 유형은 동화주 y-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 ‘-면’과 ‘-며’가 선행하는 용언어간의 후설계열의 모음에 전설성을 수의적으로 부여하는 동화작용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도 피동화음 ‘아→애’의 과정이 다른 피동화 모음의 경우에서보다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반영하고 있다.

(12).1. ‘아→애’:30)

-하면→해면; 말 ha'myōn(25), 아니 ha'myōn(235), 자칫 ha'myōn(283),
상등말로 ha'myōn(300), 한 번 marha'myōn 두 번 아니 하난 사람이오(185)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날더라 ha'myōnsō(51), iltchi ani ha'myōn(52),
putjarōn ha'myōn(52), 도적을 만난다 ha'myōn(26),
나라히 mangha'myōn 종묘사직이 읍서진다 하지오(333),
tjatchid ha'myōn(자칫 해면, 283), kūrōtchi ani ha'myōn(그렇지 아니 해면, 191),
우리가 이런 때에 도와주지 aniham'yo'n 사람이라 할 수 인소?(334),
아까 하던 이야기로 marha'myōn(말해면, 360), ta hapham'yo'n(다 함해면, 213),
다른 사정으로 mar ha'myōn(368),

29) 『전라도 방언사전』(주갑동, 2005:338)에는 ‘코기리’(象)에 대한 ‘꺅코리’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방언 사전에서 ‘코’(鼻)와 관련된 모든 복합어는 ‘꺅’로 출현한다. 꺅꺅다, 꺅꺅지, 꺅꺅물, 꺅꺅병, 등등(p.338).

30) 연결어미 ‘-(으)면’과 ‘-(으)며’에 통합되는 용언어간의 ‘아’ 모음이 물론 ‘이’ 모음 역행동화를 수용하지 않는 예들이 출현 빈도에 있어서 앞선다.

(1) 살기나 hamy?n 조켄소(391), (2) t?umy?(더우며), (3) tchiumy?(치우며) tchamy?(차며, 37)

(4) 빨래를 빨라 hamy?n 물이 조하야(234), (5) 이러케 hamy?n 잘 될가요?(125), (6). 낮이나 칼이나 독기나 periryamy?n(-베리라면, 218), 등등.

- 자기를 sarangha¹myōn 남을 사랑하니(사랑해면, 374),
 -하며→-해며; 노루가 난다 ha¹myō(해며, 33), 활로 쏘아 잡아들 걸 ha¹myō(해며, 51).
 -나면→-내면; 사람이 세상에 na¹myōn(-내면, 245),
 -가면→-개면; 어대로 ka¹myōn 조승닐까?(-개면, 130), cf. 구경을 kamyōn(가면, 131),
 집에 들어 ka¹myōn(-개면, 110),
 -라면→-래면; 글씨로 ssūrya¹myōn(-쓰레면, 44), 빨래를 harya¹myōn(-하레면, 234),
 독선으로 근너 kasillrya¹myōn(가실레면, 112),
 께를 djarya¹myōn 귀 마초기가 어려우니(-짜레면, 204).

이와 같이 연결어미가 촉발시키는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경기도 방언의 기술에서 일찍이 수집되어 관찰된 바 있다. 김계곤(1988:20)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방언을 수집하면서, ‘-자면→-재면’과 같은 예를 주목한 바 있다. 예: 글을 쓰재면.³¹⁾ 그리고 역시 경기도 방언을 기술한 임용기(1984)도 “ | 치답기”(움라우트) 항목에서 ‘-가자+ -면→-가재면(p141), 있다 -면→있대면, 간다+ -면→간대면’(p.149) 등’의 용례들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보기는 서울말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간다면→간대면, 보자면→보재면, 등등. 또한, 임 교수는 그 논문(1984)에서 ‘간다-며?’에서와 같이 종결 어미화를 거친 ‘-며’의 경우도 역시 서울말에서 역행동화를 수용하고 있는 예들을 언급하였다. 예: 간다며→간대며, 있다며→있대며, 본다며→본대며’. 그리고 이러한 움라우트를 거친 이후에 ‘-며’는 계속적인 발달을 거쳐 ‘-며→-메’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예: “간다-며→간대-며→간대-메”.

따라서 Eckardt(1923)의 텍스트에 등장하고 있는 위의 (12)의 예들은 20세기 초엽 단계의 음운론적 과정을 정밀하게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³²⁾ 또한, 이러한 유형에 ‘독사(毒蛇)-면→독새-면’과 같은 동화작용도 등장하고 있다. 그 배암이 toksa¹myōn 사람을 물것시오(368).

이번에는 연결어미 ‘-며’와 ‘-면’과의 통합에서 여타의 다른 피동화 모음에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되어 있는 유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3).1 ‘어→에’;

- 그러면→그레면; kūrōmyōn 네가 은지하야(129)↔kūrō¹myōn 이리로 들어오십시오(120),
 kūrō¹myōn(191), kūrō¹myōn 그리 하시오(213),
 kūrō¹myōn 모양이 조케 하여주시오(213),

(13).2 ‘으→의’;

- 크면→키면; khūta-- khū¹myōn(키면, 37),

31) 김계곤(200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역행동화의 예들을 추가할 수 있다.

(ㄱ) 다-면→대-면: 그렇대면, 자-면→재-면: 들어 오재면 (경기도 연천군 방언, 284),

(ㄴ) 자-면→재-면→재른: 방을 언재르느, 하자-면은→허재머느: 그룽케 허재르느(화성군 팔탄면 방언, 392).

32) Ramstedt는 그의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알타이 언어학 개론』(I, 음운론, 1957:159-164)에서 알타이 제어 가운데 비어두음절의 모음이 어두음절의 모음에 역행동화를 일으키는 음성 변화(“Brechung”)의 3가지 유형을 소개하였다. 그는 비어두음절의 전설모음 -i(-y-)가 선행 음절의 비전설 모음에 역행동화 작용을 일으키는 터키어, 몽고어 및 통구스어 등의 예들 가운데, 한국어의 움라우트의 보기도 제시하였다. 그는 한국어에서 후행음절의 -i의 영향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났으며, ai, oi, ui ?, i는 각각 ?,?(we),?(wi), ?, ?로 발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서로 다른 음절에 위치하는 a-i, o-i, u-i 등도 역시 동일한 역행동화 규칙에 지배를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가 보기로 제시한 한국어의 움라우트의 예들은 빈약한 편이다. 그러한 예 가운데, 용언어간과 연결어미 ‘-(으)면’과 통합되는 ‘하-면(hamy?n)이 ‘해-면’(h?my?n)으로 발음된다는 설명이 주목된다(1957:164). Ramstedt(1957)에서는 Eckardt(1923)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나, 그가 예전에 *A Korean Grammar*(1939)을 저술할 때에 참고한 한국어 문법서 가운데 하나가 Eckardt(1923)였다는 사실을 그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문법서에서 위의 움라우트의 용례가 차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Eckardt(1923)에서의 피동화 모음 전사 표시 a¹가 Ramstedt(1957)에서는 ?로 바뀌어져 있다.

- 같으면→-같이며; 다 이 같치 쉬울 것 kadhūmyōn 배홀 것이 무어신가(205),
- 놓으며→-놓이며; 수건을 내며 nohūmyō 하난 말이(노희며, 174),
- cf. 상 위에 nohūmyō 절하나라(111),

(13).3 ‘오→외’;

- 보면→-뵈면; 방은 더웁지 아니한 걸 po'myōn(-뵈면, 243),
- 오면→-외면; 초례청으로 nao'myōn(나외면, 118),

(13).4 ‘우→위’;

- 주면→-쥬면; kirō'kirūl sillangēke tju'myōn(기레기를 실랑에게 쥬면, 111).

동화주 y를 갖고 있는 연결어미 ‘-(으)면’과 ‘-(으)며’가 앞선 용언어간의 후설모음을 전설화시키는 음운론적 힘은 피동화음 ‘아’ 이외의 환경에서는 약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올라우트 현상은 이와 같은 음성 조건에서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피동화음 ‘어, 으, 오, 우’에 끌려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세기 초엽의 서울말 또는 그 인근 지역어의 구어에서 이러한 올라우트 과정이 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또한 올라우트 현상이 매우 생산적으로 작용하였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도 조건의 연결어미 부류에서 ‘-으면→의면’ ‘-으며→-의며’ 및 ‘-거디면→-거디면’ 등과 같은 음운론적 조정이 역시 관찰된다(최전승 1986:152-153).

(14).1. -으며→-의며;

- 흐난 소리 양진이 뒤누의며 천지강산이 진동흐니(완판, 충열,하.1ㄴ),
- 잔되를 와드득 쥐여 쓰되며 울제(별춘.25ㄴ; 병오 춘.13ㄴ),
- 슈저의 노의며 우니(심청,상.24ㄴ),

2. -으면→-의면; 모도 너 사랑 갖되면(수절가,상.30ㄴ),

- 더면→-드면→-디면; 우리 망쳐 사러뜨면(심청,상.18ㄴ),

3. -거디면→-거디면;

- 금산성을 치거디면 제 응당 구홀 차로 올 거시니(완판, 충열,하.14ㄴ),
- 너 조차 죽거디면 유주부 사당의 일점 영화 잇슬손야(완판, 충열,상.22ㄴ),
- 이통하다 죽거디면 이 원한 너 혼신 원귀가 될 거신이(수절가, 상.39ㄴ),
- 황기 첫단 말을 도도가 알거디면 치소될가 흐난이다(완판, 화룡,37ㄴ).

그러나 金文基 소장 필사본 25장 『홍보전』(1901년에 필사)에 반영된 다양하고 생산적인 올라우트 현상 가운데에서도 아래와 같은 연결어미와의 통합에서 실현되어 있는 예들이 가장 풍부한 양상을 보인다. 고대소설 『홍부전』의 이본과 그 계열에 관한 연구(김창진 1991)에 의하면, 필사본 25장 『홍보전』은 경판 20장분을 母本으로 하여 필사했으나, 그 표현 방식과 언어 내용은 전형적인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으로 전환되었다. 이 텍스트(약칭: 필사)에서 연결어미와 통합되어 실현되는 올라우트의 유형들을 추출하여 원래의 경판본 20장본(약칭: 경판)과 대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1. 연결어미 ‘-며’;

- 느가며 조롱흐고 드러 가며 비양흐니(경판 홍부전 1ㄴ)
- 나키며 조롱흐고 드러 키며(필사 1ㄴ),
- 팔 가라 가며 독이며(경판 15ㄴ)---팔 가라 키며 죄기고(필사 19ㄴ),
- 무엇 먹고 쳐시 느며(경판 2ㄴ)---무얼 먹고 쟈시 키며(필사 2ㄴ),
- 물내질 흐며(경판 3ㄴ)---물내질 히며(필사 4ㄴ),
- 제물을 차리라 흐며(경판 11ㄴ)---제물을 차리라 히며(필사 15ㄴ),
- 오운이 이러나며(경판 7ㄴ)---오운이 이리키며(필사 9ㄴ).

2. 연결어미 ‘-(으)면’;

- 중의 가면 억미 흥정(경판 1ㄴ)--장에 키면 억미 히기(필사 1ㄴ),
- 밥을 지여 먹으라면(경판 2ㄴ)--밥을 지여 먹자히면(필사 2ㄴ),

그러하면 엇지 흐준말가(경관 4ㄱ)---그러히면 엇지 할가(필사 4ㄴ),
 ---히동 히면 나물 쫓기(필사 4ㄴ), 갑설 의논히면(필사 9ㄴ),
 두라 흐량이면...즈즈히 지량이면(경관 5ㄱ)---되랴 히면...자자이 지라 히면(필사 6ㄱ),
 그러하면 옥인가 보(경관 7ㄱ), 그러하면 뉴리호박인가 보외, 그러하면 쇠가 보외(경관 7ㄱ)--
 ---그러히면 옥인가 부오, 그러히면 유리호박인가 부오, 그러히면 쇠가 부오(필사 8ㄴ),
 그러하면 엇지 흐여 왓소(경관 9ㄱ)--그러히면 엇지히야 왓십나(필사 11ㄴ),
 ---거만히면 췌일리라(필사 18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을 반영하는 필사본 25장 『홍보전』에 등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예들은 움라우트 현상의 실현 위계에 비추어, 통상적인 음운론적 및 형태-통사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³³⁾ 이와 마찬가지로, Eckardt(1923)에 의해서 관찰된 연결어미와의 통합에서 일어나는 위의 (12)와 (13)의 예들도 역시 그 당시 해당 지역 화자들의 구어에서 생산성이 높은 공시적 움라우트 현상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4. $V^i \sim V_i$ 과 전설화의 원리 및 20세기 초엽 움라우트 현상의 분포

4.1 움라우트의 진행 단계: Vorschlag(앞꾸밈음: 전설성)→Umlaute(변모음)

우리는 앞선 §3.2에서 Eckardt(1923)에서 수행된 움라우트의 피동화 모음 V^i 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역행동화의 음성학적 첫 단계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1920년대 서울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먼저 (ㄱ) $V \rightarrow V^i$ 과정을 수행하며, 여기서 다음 단계 (ㄴ) $V^i \rightarrow V_i$ (변모음, 즉 $a \rightarrow \hat{a}i$; $o \rightarrow \hat{o}i$; $u \rightarrow \hat{u}i$)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Eckardt(1923:6-7)가 설정한 <음운규칙> 20의 규정에서 그 첫 단계로 Vorschlag라는 용어를 사용되었다(이 글의 §3.1을 참고). 그가 구사한 Vorschlag는 후행하는 움라우트의 동화주 [i]나 [y]의 전설적 발음이 앞선 음절의 모음에 영향을 준 결과가 $V \rightarrow V^i$ 와 같이 실현된다고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Eckardt가 사용한

33) 필사본 25장 『홍보전』에서 통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움라우트의 실현 예들을 경관본 20장과 대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명사형 어미 ‘-기’와 통합 과정;

아희 빈 되 빅치기(경관 1ㄱ)--아히 빈 데 빅치기(필사 1ㄱ),
 가문 날의 비오기 기다리듯...중마진 되 벳나기 기다리듯...승전히기 기다리듯(경관 3ㄴ)
 ---비오기 기다리듯 장마진 데 벳치기 기다리듯, 전장의 승전히기 기다리듯(필사 4ㄴ),
 복중 츠기, 빅치기 츠기, 작치기 츠기, 키질 히기(경관 16ㄱ)--
 -- 복장 치기, 빅 치기, 봉뽕난디 치질 히기, 희산한데 초흔 히기(필사 21ㄱ),
 허릿되 스코 다라나기(경관 16ㄱ)---허리췌 스코 다라닉기(필사 21ㄱ),
키질 히기 그릇 다기(경관 4ㄱ)---치질 히기 그릇 췌기(필사 4ㄴ),
 성을 중만하기의 망흐것다(경관 17ㄱ)--승을 장만히기에 망흐것다(필사 22ㄴ),

(ㄴ). 주격조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

둥니 스람이 줍을 못즈니(경관 2ㄱ)--둥닛 사람이 줍을 못자니(필사 2ㄴ),
 어진 스람이라(경관 4ㄱ)---어진 사람이라(필사 4ㄴ), 우리는 각통 사람이라(필사 17ㄱ),
나도 집이 불일이 만는 사람이세(필사 19ㄴ),
 어디서 밥이 느라(경관 2ㄱ)---뵈이 어디 잇실손나(필사 2ㄴ),
흐늘을 위흐미니(경관 16ㄴ)---하날을 위힉미니(필사 21ㄱ).

“Vorschlag”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학적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

Vorschlag에 대한 정의를 Wikipedia(Die Freie Enzyklopaedie)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6). Vorschlag는 음성학에서 단어를 발음할 때, 그 단어의 철자에서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음이 첨가되어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예를 들면, 영어에서 철자 ge-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이 g가 d가 앞에 첨가된 약한 마찰음 (generation=[dʒ-])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발음은 철자 ga-, go- 및 gu- 등으로 시작하는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³⁴⁾

연속적인 소리의 흐름, 특히 음악에서 이러한 현상은 appoggiatura(아과자투라)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장식음의 일종인 “앞꾸밈음”으로 번역된다. 뒤에 연속될 소리가 앞소리에 섞여 꾸며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음운론적 과정의 기술에서 Vorschlag라는 용어는 Roth(1936)에서도 사용되었다. Roth(1936:7-24)는 그의 문법서 서두에 있는 음운론(Lautlehre)에서 한국어의 상향 이중모음 ‘여’(ye)는 단모음 ‘어’(e)와 동일하지만, i가 앞선 Vorschlag가 있을 뿐이라고 기술하였다(p.7). 이어서 Roth(1936:12)는 한국어의 유음 ‘ㄹ’(rɯl)이 보이는 다양한 발음 현상을 예시하면서, ‘ㄹ’은 i-Vorschlag를 갖고 있는 단모음 ‘아, 어, 오, 우, 으’ 등과 연결되면 n과 같이 발음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는 음운론에서 Vorschlag 또는 i-Vorschlag라는 용어를 상향 이중모음의 활음 y를 지시하는데 사용한 셈이다.

그 반면에, Eckardt(1923)는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인 움라우트와 관련하여 선행하는 피동화음에 뒤따르는 i 또는 y의 전설적 성분이 부분적으로 옮겨가서 하향 이중모음의 -y를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Vorschlag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Eckardt는 1910-1920년대 당시의 서울말과 경기도 방언의 구어에 실현되고 있었던 ‘이’의 역행동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V→Vⁱ의 방식으로 나타냈다고 추정한다. 그러면, 이 시기에 대중들이 구사하였던 움라우트의 결과가 과연 Vⁱ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움라우트라는 용어는 게르만어에서 어떤 모음 V1이 다음 음절에 있는 모음 V2와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정을 수반하는 음성변화의 한 가지 유형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특히 게르만어의 i-Umlaut는 후설모음이 뒤에 연속되는 전설계열의 -i 또는 y가 오면, 조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해당 전설모음으로 바뀌거나, 또는 전설모음 성분에 가까이 접근하는 변화를 수행하게 된다(Paul 1960:146-147; Behaghel 1968: 285). 이와 같은 움라우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충실하면, 피동화음에 첨가되는 V→[+ 전설성]의 음운론적 과정을 Eckardt(1923)는 텍스트에서 V→Vⁱ의 형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피동화음 Vⁱ에서 실현되는 위첨자 -i의 음성학적 신분은 Eckardt(1923)와 거의 같은 시대에 간행된 Otto Jespersen의 음성학 교과서 *Lehrbuch der Phonetik*(Zweite Auflage, 1913)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드러난다. Jespersen(1913)의 제3부 “음성 결합론”(Kombinationslehre)에서 모음 동화와 관련하여 Eckardt(1923)에서 사용된 Vorschlag나, 위첨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은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Jespersen은 제12장 “음성의 장단”에 대한 기술에서 매우 짧은(extra kurz) [i]를 [i̯], 또는 [i̯]로 전사하고 있다(1913:178).³⁵⁾

34) “in der Phonetik ein bei der Aussprache eines Worts zus?tzlich anklingender Laut, der dem Schriftbild des Worts nicht zu entnehmen ist (z. B. spricht man bei englischen W?rtern, die mit ge- beginnen, das g als weichen Zischlaut mit d-Vorschlag, nicht jedoch bei W?rtern, die mit ga-, go- bzw. gu- beginnen).”(Wikipedia: Die Freie Enzyklopaedie, 2015.01.15일 이용).

35) 또한 Jespersen(1913:155)는 중설모음의 유형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ʔ]의 음성 환경에 따른 변종으

Eckardt가 이 시기에 Jespersen(1913)을 참고하고 이러한 전사 방식을 한국어의 음라우트 현상에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보장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위첨자 표기는 일정한 모음이 아주 짧고, 동시에 약하게 들리는 청음 효과를 전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관용으로 보인다.

Eckardt(1923)는 음라우트 현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모음에 전설성을 첨가하는 일종의 꾸밈음으로 로마자 표기 V^i 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음 앞에서 상향 이중모음 $yə$ 가 진행하여 오는 연속적인 음성변화의 한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i^e 와 같은 전사 방식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2.1에서 관찰한 바 있다. 그는 $C+yə>C+e$ 의 음성변화 과정에 개입된 중단단계 $yō>ye>^ye>e$ (여>예>에)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역시 i^V 의 부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m'ied si tōiyōdso?*(몇 시 되었소? 181), *onal m'iedtchirio*(오늘 며칠이오? 326), cf. *myōd t'ai*(몇 代, 210). 따라서 모음 전면에 위치하는 위첨자 i^e 를 Eckardt는 일정한 자음 앞에서 수행하는 ‘여>예’의 변화의 중단단계 $ye>^ye$ 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음라우트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V\rightarrow V^i$ 에 등장하는 위첨자 i^e 도 역시 중단단계인 하향 이중모음 Vy 의 활음 y 가 짧고 약하게 실현되는 V^y 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Eckardt(1923)에서 V^i 는 아래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음라우트 현상에서만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 (17).1. *e'ko!* 맥이 대단히 뛰어난걸!(에이고, 357), *eko=aiko*(에고=아이고, 32),
eko, aiko(409), *eko(=aiko) musūn pyūngintji al su ūpsō*(356),
2. *피시다*; *mo'siko*(피시고, 397), 내가 아버지님 *mo'siko* 살림살이 하오(397).
3. *sū'küi(hata)*, *tjilthu*(식기하다, 질투, 315),
4. *암만해도 공부하기 sūilsūmnita*, 또는 *-sūiryō'yo*(sireyo로 발음한다, 257).
5. *ankeseyo*(안 게세요, *kesō'yo*에서 형성되었음, 61),
6. *건너-(渡)→건네-*; *빨리 못 kōnnekedso*(건네겐소, 'kōnnō'kedso'에서 형성되었음, 112),
7. *Kūon phanse mudt'ai*(59), 각주: *phanse*(判書)=*phansō-*(주격첨사) $-i$ 와 연결되어 형성되었다.

위의 (17).1의 ‘ $e'ko!$ ’형은 또 다른 형태 ‘ $eko=aiko$ ’(에고=아이고, 49, 409)에 비추어보면, 원래 ‘ $eiko\rightarrow eyko\rightarrow e^yko$ ’와 같은 음성 실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리고 (17).2의 ‘피시다’형의 첫 음절의 모음에 반영된 o^i 의 경우도 이 시기에 일어난 하향 이중모음 $oy\rightarrow o^y$ 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17).3에서 한자음 ‘식기’(猜忌)의 첫 음절 모음 $ü$ 에서 위첨자 $-i$ 의 출현은 20세기 초엽 당시의 이중모음 yi 의 발음과 관련되어 있다. Eckardt(1923:2)는 한국어의 <발음규칙> 11 항목에서 ‘의’[$ü$]는 불안정하지만(*flüchtig*),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기는 하나, $ü$ 의 앞 성분 $ü$ 는 거의 소실된다고 기술하였다. *küi*(기, 旗)=*ki*; *phūita*(피다, 發)=*phita*; *kūita*(기다, 伏)=*kita*; *hūita*(희다, 白)=*hita*.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보면, *sū'küi(hata)*의 예는 이중모음 [iy]에서 앞 성분인 i 가 잔존한 반면에, 활음 $-y$ 가 탈락되어버리기 이전에 빠르고, 약화된 발음 [i^y]를 전사한 것이다.

(17).4에서 ‘ $-sūiryō'yo$ ’의 당시 현실 발음이 [*sireyo*]라는 Eckardt의 지적은 ‘(r)yō i =(r)e’와 같은 대응을 추출하게 된다. 그는 <발음규칙> 10에서 한국어의 단모음 ‘에’를 기원적으로 $ō$ (어)+ i (이) $\rightarrow e$ (에)와 같이 파악하기 때문에, 전설계열의 단모음 ai [$ä$], oi [$ö$], $üi$ [$ü$]와 같은 신분의 변모음(Umlaute)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로, 그는 (17).5-7에 걸쳐 있는 표

로 아주 짧고, 모음적 활음과 같은 성격의 위첨자 [i^y]를 전사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36) ‘ $eko=aiko$ ’(에고=아이고, 49, 409)형은 Eckardt(1923:409)에서 “외침, 간투사”(Exklamation, Intr-jektion)의 일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면에서의 현실 발음 e를 모두 $\delta + -i \rightarrow \delta i \rightarrow e$ 의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17).5에서 ‘an kes δ iyo \rightarrow an keseyo’의 예는 ‘시-+ -어 \rightarrow 셔’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C+y δ 의 변화와 관련을 맺고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음운론적 과정에 출현하는 위첨자 i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iV의 경우는 yV \rightarrow yⁱ와 같은 활음 y의 약화 과정을 반영한 것이고, 그 반면에 움라우트 현상에서 나타나는 Vⁱ은 V \rightarrow Vy(이중모음화) \rightarrow V^y의 진행 방향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20세기 초엽 서울말, 또는 경기도 지역방언의 구어에서 실현되었던 움라우트 현상은 먼저 (1) V \rightarrow V^y와 같은 조음상의 조정 단계(Vorschlag)를 거친 다음에, 이어서 (2) 전설성 성분 -y가 강화되어서 Vⁱ \rightarrow Vy(Umlaut : 즉 a \rightarrow ai; o \rightarrow oi; u \rightarrow ui)로 전환되는 2 가지의 음운론적 단계를 보유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ckardt(1923)는 그 당시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입말에 출현하는 형태소 내부와 그 경계에서 앞 음절의 후설계열의 모음이 후속되는 전설의 i와 y의 조음상의 역행동화를 받아서 그 발음 내용에 전설적 성분을 혹은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첨가시키는 음운론적 과정을 V \rightarrow Vⁱ과 V \rightarrow V^y으로 전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가 가능하다면, 국어 지역방언의 음운론에서 기원적인 움라우트 현상의 기제는 각각의 피동화음에 전설성이 첨가된 [V^y], 또는 [Vy]와 같은 이중모음화를 수행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형성된 이중모음 [V^y] 또는 [Vy]는 해당 지역방언의 음운체계에서 첨가된 전설성이 사용상의 반복 강화됨에 따라서 화자들의 구어에 관습화되어 각각의 전설계열의 모음으로 변모(Umlaut)되었다고 추정한다. Eckardt(1923)는 ‘이’ 역행동화 현상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연속적인 진행 단계를 (1). Vorschlag(앞꾸밈음=전설성의 첨가) \rightarrow (2). Umlaut(변모음)으로 정밀하게 관찰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움라우트 현상은 이와 같은 2 가지의 음운론적 과정을 하나로 압축하여 V \rightarrow [+ 전설성]으로 대변되어 있는 셈이다.

국어 음운사적으로도 통시적 움라우트의 원형은 일차적으로 해당 피동화 모음에 전설적 성분을 부과하여 하향 이중모음화(Vy)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가정이 지금까지 규명된 방언사의 연구(한영균 1980; 최전승 1986; 백두현 1992)에서 근대국어 단계의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한, 1930년대에 정인승(1937)은 당시의 맞춤법 통일안 및 표준어 사정의 사회적 맥락에서 서울말과 경기도 인근 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과 그 실현 예들을 검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정인승(1937:2-3)에서 기술된 움라우트 현상이 실현되는 음성학적 원리는 1910-1920년대에 걸쳐 Eckardt(1923)가 관찰하였던 제1단계 V \rightarrow Vi(Vorschlag) \rightarrow 제2단계 V \rightarrow Vi \rightarrow Vi(Umlaut)의 과정과 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 (18). i는 소위 혀 높은 전설모음으로서 ㅏ ㅑ ㅓ ㅕ ㅡ 등이 모두 혀 낮은 후설 또는 중설 모음임에 반하여 l만이 현저하게 달라, 혀뭉이 높으면서 앞을 알게 열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ㅏ ㅑ ㅓ ㅕ ㅡ 등 혀 낮은 소리를 발한 뒤에 연하여 l소리를 내고자 할 때에는 혀뭉이 갑자기 먼 거리인 경구개 가까운 자리로 옮겨가기 위하여 윗 음절 홀소리의 끝을 다 거두기 전에 혀가 벌써 l소리를 낼 자리로 옮겨갈 자세를 먼저 취함으로 인하여 자연이 윗 음절모음의 끝이 혹은 강하게 혹은 약하게 l소리로 화해지는 것이요,...(밑줄은 글쓴이가 첨가하였음).

지금까지 이러한 정인승(1937)의 위의 인용문은 움라우트 현상을 해석하려는 오늘날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다. 언어사 연구에서 해당 언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한 변화, 또는 변화의 경향에 대하여 당대에 활동하였던 연구자 또는 정서법 학자들의 명시적인 관찰 기록은 후대의 학자

들에게 보수적인 문헌 자료 이상의 소중한 가치가 부여된다(Campbell 2000; Smith 2007). 그러나 이러한 동시대 사람들의 언어 현상에 대한 관찰은 경우에 따라서 후대의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또한 부정되어 버리기도 한다.³⁷⁾

음라우트 현상은 원칙적으로 조음의 경계에 근거한 음운론적 조정으로, 말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앞 음절의 모음의 혀의 위치가 뒤따르는 음절의 전설 고모음 i 또는 y의 역행동화를 받아서 전설의 조음 위치로 가깝게 접근하는 음성학적 과정이다. 이러한 조정이 2차적으로 해석되어 해당 피동화이 음운론적으로 모음체계에서 전설모음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글쓴이는 정인승(1937)에서 밀줄 친 인용문은 당시 1930년대 서울말에서 수행되었던 음라우트의 1차적 음성학적 본질을 잘 드러낸 설명이라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음라우트 환경에서 역행동화를 입은 후설 모음이 그 조음의 끝을 다 거두기 전에 혀가 이미 전설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갈 자세를 먼저 취하는 음성학적 사실로 말미암아, 피동화 모음의 끝이 혹은 약하게, 혹은 강하게 전설의 ‘|’(-y)음으로 바뀌지게 된다는 원리는 Eckardt(1923)에서도 관찰된 것이다. Eckardt(1923)는 음라우트 환경에서 진행되는 피동화 모음의 끝이 약하게 전설 고모음 i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Vorschlag(꾸밈음: Vi), 그 반면, 강하게 옮겨가는 경우는 모음체계에서 해당 전설모음으로 전환된 Umlaute(변모음: Vy)로 구분해서 전사한 셈이다.

4.2 음라우트의 Vorschlag 단계와 전설성 성분의 첨가 ‘-y’

국어의 음라우트 현상에서 뒤따르는 전설계열의 i 또는 y의 역행동화를 받아서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이 직접 해당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 전설성]을 첨가한다는 원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서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일찍이 1950년대 한국어 음운체계를 성분분석(또는 변별자질들의 묶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한 S. Martin(1951/1968)은 당시 서울말의 9개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체계를 5개의 음운론적 성분으로 분석하였다.³⁸⁾

37) 위의 정인승(1937)의 언급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라우트 현상을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어 파악하려는 최전승(1986:164)에서와, 1930년대 서울방언에서의 공시적 “앞모음 되기” 현상을 기술한 김차균(1991:19)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행된 음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엄밀한 음라우트의 규정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기술하는 김주필(1994:121)은 정인승(1937)의 언급을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김주필(1994)는 위의 인용문은 “표기에 이끌린 지적”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근거는 “다듬이→다툼이, 드리다→되리다, 시골뜨기→시골뜨기와 같은 경우에 표기 ‘의’는 ‘|’로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김주필(1004:135)은 역사적으로 제1차 음라우트가 V→Vy(이중모음화)로 나온다는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16세기의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그려기>기러기’(雁)에 반영된 제1차 음라우트 현상은 수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음라우트 현상처럼 ‘i’나 y에 의해 선행의 후설모음에 전설성을 추가한다면 ‘기러기’가 아니라, ‘(그려기>)기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인호(2014:117)도 역시 정인승(1937)의 밀줄 친 인용문에서 선행 음절 모음의 끝에서 실현되는 강약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8) 이러한 모음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연속체로 출현한다(S. Martin 191/1968:365).

IY	I	IW
WEY	EY	EW
AY	A	

이와 같은 연속체로 형성된 음소들은 그 수효가 11개이다. 9개의 단모음 음소가 존재한다. (여기서 모음성분 Y와 W는 음소 /y/와 /w/로 실현된다. 따라서 W-IY=/wi/, W-EY=/we/,

(19) high tongue position	I	front tongue position	Y
mid tongue position	E	lip rounding	W
low tongue position	A.		

이와 같은 S. Martin(1951/1968)의 기술에 따르면, 전설의 혀의 위치를 나타내는 모음성분 Y와 W는 각각 음소 /y/와 /w/로 실현된다. 따라서 전설계열의 단모음들은 /i/=IY, /e/=EY, /ɛ/=AY, /ø/=WEY, /ü/=WIY와 같이 표면으로 도출되어진다. 운봉지역의 공시적 음라우트 현상을 기술한 이병근(1971)은 이러한 성분분석의 자질을 이용하여 음라우트의 기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교수는 음라우트 현상은 후설모음이 Y계의 동화주에 의하여 전설 모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후설모음에 전설화 성분인 Y가 부여되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첨가규칙(addition rule)으로 파악하였다. (1) i>i→IY, (2) ə>e→EY, (3) a>ɛ→AY, (4) u>ü →WIY, (5) o>ø →WEY(1971:478-479).³⁹⁾

여기서 글쓴이는 음라우트는 역행동화에 의하여 후설모음에 전설성의 성분인 Y가 첨가되는 것이며, Y는 표면으로 -y로 실현된다는 설명 방식에 주목한다. 즉, ə→əy, a→ay, i→iy, o→oy, u→uy.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음라우트 현상의 원리는 후설모음에 전설적 성분 -y를 첨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설적 성분 -y가 첨가되어 해당 전설모음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2차적으로 음운론화(phonologization)를 거친 것으로,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전적으로 해당되는 모음체계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역행동화 작용의 결과, 음성학적으로 전설성 성분 -y는 후설모음의 끝 부분에 표면적으로 혹은 약하게, 혹은 강하게 실현될 뿐이다.

음라우트 현상이 결국은 후설모음에 전설적 성분인 -y(-i)를 첨가하는 구체적인 과정임은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생성 음운론의 이론으로 재해석한 김진우(1968:520)에서도 지적되었다. i→iy [i], ə→əy [e], a→ay [ɛ], wi [u]→wiy [wi], o→oy [ø], wa →way [we]. 또한, 그는 일련의 전설모음은 후설모음들에서 ‘전설화’(fronting) 특질을 첨가해서 2차적으로 도출되어 나온 형태-음운론적 특질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정은 국어의 음운사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밝아온 하향 이중모음의 전설 단모음화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⁴⁰⁾

20세기 초엽 서울말에 등장하는 음라우트의 실현형에 대한 로마자 전사에서 <후설모음 + -i>와 같은 표기 방식이 前間恭作的 『韓語通』(1909)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W-E/=w?/, W-AY=?/?. Y-IW=/yu/, Y-EW=/yo/).

	/i/	/ʔ/	/u/
/ʔ/	/e/	/ʔ/	/o/
	/ʔ/	/a/	

39) 이병근(1971)에서는 S. Martin(1951/1968)의 mid tongue position E가 ?로 파악되었다.

40) 김진우(1968)에서 그러한 형태 음운론적 과정을 반영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보기들이 제시되었다.

(ㄱ) na(生)--i(사동의 접사)→[nʔ], tha-(燒)--이→[thʔ], ca-(寢)--iu→[cʔu], ai(兒)∞ ?
(아이∞애), sai(間)∞?(사이∞새);

(ㄴ) sʔ-(立)--iu→[seu](세우-), sʔi(三)∞se(서이∞세);

(ㄷ) po-(見)--i→[pʔ], oi∞?(오이∞외), 등등.

이러한 보기들은 한국어의 전설모음들은 비전설모음들에서 ‘전설화’(fronting) 특질을 첨가해서 도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즉, /ʔ/</a/+<i>, /e/</ʔ/+<i>, /ʔ/</o/+<i>. 여기서 <i>는 전설화 성분을 나타낸다. 그러나 또 다른 전설모음 /i/가 남게 되는데, 적어도 몇몇 사례에서 i는 ?+<i>에서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진우 1968:519).

(ㄷ) ttʔ-(浮)--i→[tti-](뜨--이→띠);

(ㄹ) hʔllʔ--i→[hʔllʔi](홀르--이→홀리);

(ㅂ) pappʔ--i→[pappi](바쁘--이→바삐), 등등.

음라우트를 수행한 피동화음 후설모음에 -i를 첨가하는 이 시대의 표기는 단순히 ‘- |’로 끝나는 문자구조에 기계적으로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 (20). chip-päi-ngi, 집헝이(杖, 54), chip-pu-rai-ki, 집흐락이(原, 집흐락이, 54),
chip-so-ki, 집섹이(原, 집섹이, 54), nai-ki, 내기(賭, 68), toi-mi, 퇴미(厚魚, 84),
moik-hi-, 맥히-(237), poit-ki-, 뱃기-(原 뱃기-被脫, 246),
poit-ki-, 뱃기-(原 뱃기, 寫, 237), chui-ki-, 취기, (‘츄이-’와 같다, 237).

위와 같은 보기 이외에, 前問恭作(1909:147)은 당시의 기술 대상인 서울말에서 ‘속이-’, ‘먹이-’와 같은 사동형은 口語에서 어간의 ‘ㄱ’와 ‘ㄴ’가 후행음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쇠기-’와 ‘멕이-’와 같이 발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1940년대에 오면, 小倉進平(1944)과 河野六郎(1945)과 같은 전문적인 방언 연구를 통하여 그 당시의 한국어 지역방언에서 출현하였던 다양한 음라우트 실현형들이 설득력 있게 전사되었다. 특히 小倉進平(1944)은 음라우트 실현형들을 음성 전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후설모음에 -i를 첨부하였다(또한, 최전승 1986 및 1987:23-24를 참조).

- (21).1 [ko-i-gi]: 충남→서천;
[kwe-gi]: 제주도→제주, 대정, 경북→의성;
[kwe-gi]: 제주도→성산, 서귀포, 전남→목포, 나주; 경북→청송, 충북→충주, 함북→명천, 부기;
[kui-gi]: 경북→고령. (小倉進平 1944:163),
2. [me-²tui-gi], [me-²tui-gi](메떡기, 메뛰기); 전남.북→일부 지역(1944: 318),
[tʃu-duiŋ-i], [tʃu-duiŋ-i](주딩이, 주딩이); 경기, 황해→일부 지역(1944: 278),
[mo-thuiŋ-i](모뎡이);경남.북; 충남.북; 황해→각각 일부 지역(1944: 53),
3. [tuiŋ-ge](뎡개): 경남→부산, 경북--대구;
[tuiŋ-ge](뎡개): 전북→장수, 진안, 무주, 금산;
[tuiŋ-gi](뎡기): 경남--동래 외.

위의 예에서 (21).1의 ‘고기(魚)→괴기’의 음라우트를 실현시키는 방언형들의 첫째 음절의 이중모음 [we]와 [we]의 음성적 존재는 이중모음 ‘외’[oy]에서 통시적으로 발달하여온 oy>we∞we의 과정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출현이 가능하다. 또 다른 형태 [kui-gi]에서의 이중모음 [-ui]는 oy>uy와 같은 모음상승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o-i-gi]와 같은 방언형은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지역(충남: 부여, 논산 등지)에서 관찰된 河野六郎(1945)의 [koⁱgi]을 연상하게 한다.⁴¹⁾ 더욱이 음라우트를 수용한 ‘괴기’에서 어두음절의 모음의 전사 [-oⁱ]는 Eckardt(1923)가 20세기 초엽의 서울말에서 이 형태를 지속적으로 전사한 로마자 표기 koⁱki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고기→괴기’에서 확인되는 [-oⁱ]는 후설모음 o가 음라우트 적용 환경에서 후속되는 i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성이 첨가되어, “자연이 웃음절모음의 끝이 혹은 약하게 |소리로 화해되는 것”(정인승 1937)이요, 이것은 바로 Eckardt(1923)가 관찰한 후설모음에 전설성이 첨가된 “꾸밈음”(Vorschlag)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증거는 사실은 (21).2의 음라우트를 수용한 지역 방언형들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형태는 각각 제2음절의 모음 ‘우’의 단계에서 역행동화에 의하여 u→uy와 같은 이중모음화를 거치고, 이어서 비원순화 uy→iy가 적용된 과정을 반영한다. 그리고 (21).3의 ‘뎡겨(米糠)→뎡개, 뎡개, 뎡기’의 예들은 음라우트를 수용한 피동화음 ‘으’가 i→iy의 과정을 거쳐

41) 또한, 河野六郎(1945)은 권말 부록에 실린 <방언어휘> 15에서 ‘흙(土)에 주걱조사 ‘-이’가 연결되는 경우에 ?→?y와 같은 이중모음화가 실현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흙+-이’→[hʔigi](충남: 태인 등지).

하향 이중모음 [iy]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땡기→딩기’[‘등계’의 사투리]에 보라’, 문세영 1938:426.⁴²⁾

5. 20세기 초엽 서울말과 경기도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의 확산⁴³⁾

5.1 1930년대 표준어의 선정과 대중들의 구어

19세기 후기 단계에 서울말에서 출현하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의 일부의 모습은 개신교 선교사 W. M. Baird가 관찰한 바 있다.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은 그가 1895년 5월호에 간행된 *Korean Repository*(pp. 161-75)에 자신의 한국어의 로마자 작성 시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Baird가 설정한 몇 가지 로마자 작성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한글 표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한국어의 동일한 문자가 출현하는 상이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이음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배당하는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그는 한국어의 모음 ‘아, 어, 오, 야, 여, 요’ 등 다음에 ‘이’가 연속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음가가 분명히(plainly) 수정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사실을 관찰하게 된다. 즉, 이들 후설계열의 모음에 전설의 ‘이’가 직접 또는 자음을 중간에 개입시켜 다음 음절에서 연속되면, 각각 ‘애, 예, 얘, 예, 외’ 등으로 빈번하게(frequently) 전환되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래와 같은 ‘-이’의 역행 동화의 현상을 보기로 예시하였는데, 주로 주격조사 ‘-이’와 사동의 접사 ‘-이’ 앞에서 실현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이었다(최전승 1995:110 참조).

- (22). 썩(煎餅): 썩+ -이→썩이; 법(法): 법+ -이→뱌이; 목(喉): 목+ -이→뫼이;
번역(翻譯): 번역+ -이→번엌이; 공(球): 공+ -이→꿍이; 떡이다→뻬이다.

20세기 초반, 1920년대에 확산되어 있는 국어의 전반적인 움라우트 현상과 지역적 분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小倉進平(1924:46)이 자신이 작성한 <음운 분포도> 제15도와 함께 아래와 같이 밝혀지게 된다.

- (23). 이’음의 역행동화: 단어 또는 句의 다음에 ‘이’ 모음이 오는 경우에, 그 단어 또는 句에 있는 모음이

42) 움라우트의 실현이 이중모음으로 전환되는 공식적 사실은 한영균(1980)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한 교수는 완주방언에서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와 체언의 연결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아주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들을 열거하면서, 이 가운데 파동화음이 하향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두 가지 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虎):-이’→[pʰ:mi]↔[pʰymi], ‘중(僧):-이’→[cʰ:ngi]↔[cʰyngi]. 한영균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하향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pʰymi], [cʰyngi]의 두 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는 움라우트의 제약조건이 되는 音長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하였다(1980:226). 그리하여 /hʰ:m/이나 /so:m/같은 경우에도 주격조사와의 통합에서 [hʰymi], [soymi]와 같은 과정을 거쳐 [himi], [sʰmi]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영균(1980:229-230)은 19세기 후기에 간행된 완판본 84장본 『춘향전』 텍스트가 완주방언의 영향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다음에, ‘으’의 움라우트형이 ‘으→의’로 실현되는 사실 등을 지적하여(드리-(獻)→뎨리-; 이름이라→일의미라), 이와 같은 움라우트 현상이 i→ʰi, u→ʰu, ʰi→e 등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겪은 것이 아니고, i→ʰy→i, u→ʰuy→ʰi, ʰi→ʰy→e의 과정을 이룬 단계에서 밝은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43) 이 글에서 §4.3은 글쓴이의 최전승(2001)과, 최전승(2004)의 일부를 다시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모음의 영향을 받는 일종의 동화작용, 즉 역행동화(Regressive assimilation)의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바람(風)-이’가 ‘바램이’로 바뀌고, ‘사람(人)-이’가 ‘사램이’, ‘공일(空日)이’ ‘굉일’로 바뀌진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관찰과 1920년대 움라우트 실현형의 분포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방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남부지역의 방언에만 국한된 현상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방언에서 확산되어 있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모습과, 그 가운데 일부가 의식적인 선택을 거쳐서 맞춤법과 표준어로서의 수용 과정은 1930년대에 언어정책으로 확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에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다.⁴⁵⁾ 여기서 선정된 표준말 모음과 함께 비표준어의 신분으로 같이 열거되어 있는 “유의어”(같은 말)들의 존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표준 유의어들은 “서울에서 유행하는 즉, 서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쓰는 서울 사투리만을 수용”(이윤재 1936: 6)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 선정된 표준어와 함께 대조되어 있는 비표준어들은 1930년대 광범위한 서울 사회계층에서 사용되었던 공시적 형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탈락된 비표준어 유형들은 1930년대 당시 대중들이 구사하였던 서울말의 구어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제23항은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ㅣ’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움라우트 수용을 표기에서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표준어로 선정된 움라우트 비실현형과 비표준어로 밀려난 움라우트 실현형들은 아래와 같다.

- (24). 먹이다--백이다. 박이다--백이다, 속이다--씩이다. 죽이다--씩이다,
뜨이다--띄이다, 잡히다--잼히다, 막히다--맥히다, 말기다--말기다,
벗기다--벳기다, 쫓기다--쫓기다, 숨기다--웁기다, 뜯기다--뽇기다.

위의 보기에서 1930년대에 용언어간에 연결된 사동과 피동의 접사 ‘-이’계에 의해서 역행동화를 수용한 어간 형태들은 표준어로 선택받지 못했으나, 당시 서울말에서 구어의 신분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언어간에서 움라우트를 실현시킨 형태들은 이미 1910년대의 Eckardt(1923)에서 대부분 선보였던 것들이다.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근거하여 움라우트 실현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원칙은 3년 후에 사정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에서도 그대로 준수된다. 표준말 모음에 딸린 <부록> 제 9항에서 이러한 원칙이 유의어 관련(예: 건더기--건덕지, 소나기--소낙비, 주둥이--주둥아리, 다듬잇돌--다듬다, 버르장어--버르장머리, 등등)이나 어원 관련(말기다--말다, 잡히다--잡다, 짓먹이--먹다, 등등)의 관점에서 다시 확인된다.⁴⁶⁾

44) 小倉進平(1924)은 남부지역의 움라우트 현상이 충청북도의 대부분(단, 청주, 영동지방은 ‘이’의 영향을 받는다)과 경상북도의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안동, 청송지방을 제외하면,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남부방언에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45)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의 “머리말, 2. 표준말 사정의 방법”에 따르면, 당시 표준어 선정의 대상은 물론 서울말이지만, 그 영역을 경기도 전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 제 4권 11호(1936)에 발표된 정인승의 “표준어 사정과 한자어의 표준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경성 발음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니, 이는 물론 다른 아무 지방에도 없는 경성 특유의 발음을 말함이 아니요, 적어도 近畿는 물론, 그 밖의 상당한 범위까지 통용되는 경성음을 이르는 물론이다”(p.3).

46) 이와 같은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에서 표준어로 선정된 움라우트의 실현형들(ㄱ)은 다음과 같다.

5.2 현대 서울 토박이들이 구사하는 움라우트 현상의 일면

화자가 실현시키는 자연스러운 움라우트 현상은 조사자의 격식을 차린 방언조사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통합적 현상이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규범어에 속하는 움라우트의 실현형과 토속적 방언 형태인 비실현형 간에는 “위신”, 또는 “친밀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 등과 같은 사회 상징적 가치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화자는 상황에 따라서 청자와의 일종의 말하기의 작전으로 움라우트를 화용론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최전승 2004).

따라서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필연적인 “관찰자의 역설”(observer's paradox)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면 이야기 구술체의 스타일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지역의 중산층 노령의 화자들이 자신의 말 자체에 외부의 조사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온 한 평생을 회상하는 긴 담화 가운데 수의적으로 출현하는 움라우트 현상을 관찰하기로 한다.

먼저, 『민중 자서전』(뿌리깊은나무, 1991)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서울 토박이 한상숙 화자(1991년 조사 당시 74세)의 구술에 드러난 움라우트의 실현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병근 1991; 최전승 2004).⁴⁷⁾

- (25)ㄱ. 새권가지(사귀-), 내비리테(내버리-), 디리고(드리-), 매렵다구(마렵-),
 맥이구(먹이-), 채려(차리-), 켈이먼(절이-), 뱃기(벗기-),
 백여서(박이-), 애끼누라구(아끼-), 땀기구두(말기-), 달이다(들이-),
 뚜드리닷기(뚜드리듯이), 웅겼으미(웁기-), 뉘뻗지만(누비-),
 ㄴ. 냄편(납편), 되미(도미), 구데기(구더기), 돛재리(돛자리), 스물 몇평짜리(스물 몇평짜리),
 핵교(학교), 십원짜리(십원짜리), 쌈일(삼일), 밀젠병(밀전병), 채레(차레),
 다담이질(다듬이질), 꼴뚜기(꼴뚜기),
 ㄷ. 보기 싫다구(보기 싫-),
 ㄹ. 댄추(단추),⁴⁸⁾ 쇠주(소주), 챔위(참외).

(ㄱ). 움라우트 실현형:

깍대기(穀皮), 꼭대기(頂上), 가난뱅이, 갈매기, 내리다(降下), 노래기(사향각시),
 때뽕재기, 때리다(打), 달팽이, 다래끼, 대님, 땀기, 땀기다(引火), 도깨비,
 새끼, 새기다(刻), 재미(滋味), 채비(差備), 올챙이, 웅배기, 포대기, 팽이(楸).

(ㄴ). 움라우트 비실현형:

가랑이, 가자미, 곱팡이, 고장이, 난장이, 나바기, 단추, 다리(橋, 脚),
 달이다(顛), 다리미, 당기다(引), 멧장이, 모가비(인부 두목), 미장이,
 쓰르라미, 삭히다, 삭이다(消和), 잠방이, 지팡이, 지푸라기, 차리다(準備),
 아끼다, 아기, 아비.

1930년대의 서울말에서 표준어로 선정된 움라우트 실현형(ㄱ)들은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 (『조선어 표준말 모음』, 일러두기)에 해당되는 격식어와 계층어의 신분에게 확산되었을 것이다.

47) 1912년 서울에서 출생한 담화 구술자 한상숙 노인의 서울말은 목수현씨가 편집한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 18. 서울 토박이 부인 한상숙 한평생>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면 빨래허라』(1992, 뿌리깊은 나무사)를 이용하였다. 한상숙 노인의 한 평생에 대한 구술은 그이의 조카인 목수현씨가 꼼꼼이 옮겨 받아 정리했다고 한다.

48) (ㄱ). 고름 안달구 댄추 매(p.108), (ㄴ). 조고리에다 적삼해 입으면 댄추 매서 달아, 댄추를 매지(p.108), (ㄷ). 그렇게 깨기구 적삼이구는 죄 댄추를 다는데(p.109).

한상숙 구술자의 말에 등장하는 (25)리의 ‘덴추’(p.108)나 ‘쇠주’(燒酒, p.43))와 같은 형태는 움라우트의 실현 위계로 비추어보면, 형태소 내부에 확대된 적극적인 움라우트의 수용 단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역행동화의 실현형들은 또한 깊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덴추’와 ‘쇠주’는 우리가 §3.1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19세기 후기의 단계로 소급되며, Eckardt(1923)에서도 tantcho(209)↔taintcho(209)↔taintchu(213), 그리고 syotjyu↔sōitju(5) 등과 같은 수의적 교체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분의 말에는 움라우트의 동화주 ‘-i’가 이중모음에서 기원된 ‘새귀-(交)와 ‘챬위’와 같은 유형도 출현하고 있다. 눈독을 들여 가지구 새귀거지(交, 157)↔사귀는 색시 있는데(157); 고사 지낼 때 챬위두 놓거든(참외, 85).

그 반면에, 한상숙 노인의 구술 담화 가운데에서 주격조사 ‘-이’와 통합되는 환경에서는 움라우트의 실현은 텍스트 자체 내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유형의 서울 토박이 말 전사 자료를 살펴봐도 큰 차이가 없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7년에 간행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을 참조하면, 자연발화 가운데 주격조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 실현 예가 ‘씨름+ -이→씨림이’와 ‘월급+ -이→월김이’와 같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 (26)ㄱ. 씨름+ -이: 씨:름두 해두 그냥 씨림이 아니라 샷마 씨름이 나오구
(7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는 78세 노년층 화자 JSY, 남자, 대학교 졸, p.269),
ㄴ. 월급+ -이: 취직이 제:일 좋거든, 제:일 월김이 좋아. 월급이 존:데...
(4대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자 화자 81세 JIG, 중학교 졸, p.176).

이번에는 같은 『민중 자서전』(뿌리깊은나무, 1991) 총서 가운데 경기도 출신 이규숙 씨의 말에 실현된 움라우트의 유형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분은 서울의 오랜 전통 주택지역인 계동에서 살면서, 양반집 아녀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당시 87세(여, 1991년 기준)의 화자이다.⁴⁹⁾ <이규숙 연보>에 따르면, 이분은 1905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출생하여 1921년 나이 17세에 서울 양반과 결혼을 하고, 20세부터 서울 시집에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 습득과 형성기를 경기도에서 보낸 이 화자는 비록 20세부터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 왔으나, 근본적으로 경기도 말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분의 구술 담화에서 형태소 내부에 수행된 움라우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서울 토박이 화자인 한상숙 씨의 말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웁수’(웁수, p. 46), ‘괴기’(고기, 152), ‘디다-’(踏, 드디-, 65), ‘씩였구나’(속이-, 101), ‘씩이-’(죽이-, 94), ‘쨌겨-’(쨌기-, 40), 등등.⁵⁰⁾ 이규숙 화자의 말에는 움라우트의 환경을 벗어난 ‘도배(塗褙)→되배’와 같은 전설화의 예도 보인다. 옛날에는 되배를 삼첩지루 했어요(169). 여기서 ‘되배’형은 20세기 초엽의 Eckardt(1923)에서 출현하고 있는 예를 찾아서 글쓴이가 제시한 바 있다(§3.1을 참조). 따라서 ‘도배→되배’는 오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말을 구사하는 이규숙 구술자의 담화 가운데 움라우트 제약의 관점에서 억제성이 강한 개재자음 n에서도 역행동화가 실현된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니-→대니-’(行)가

49) 이규숙 화자의 구술 자료는 <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4. 班家 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 『이 “계동 마님” 이 먹은 여든살』(1992, 뿌리깊은 나무사)를 이용하였다. 이규숙 노인의 한평생을 구술한 내용을 편집한 셈이 깊은물 김연옥 편집차장은 6개월 동안에 걸쳐 거의 날마다 구술자를 만나 그이가 여든 평생의 기억을 섬세하게 더듬어 펼치도록 이끌었다고 한다.

50) 이러한 움라우트 실현형들은 이규숙 화자의 담화에서 비실현형들과 수없이 교체되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괴기↔고기’의 교체를 구술 담화 속에서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옛날엔 뭐든지 괴기가 풍성했지만 자연히 시방은 고기 반 근만 사든 두 번 시 번 놓잖어, 찌개 할라든. 게다가 또 수입 괴기들 먹네. 그러구 불고기나 양념 고기루 허는 거는 등심이나 안심으로 해야자”(p.152).

그러한 보기인데, 언어 사용의 친숙도에 따른 높은 출현 빈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말을 쓰는 한상숙 씨의 말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역시 쓰이고 있다.⁵¹⁾ 그리고 이규숙 씨의 담화 가운데 ‘다치-(傷)→대치-’와 같은 매우 유표적인 움라우트 실현 예도 보인다. 말에서 떨어지셔서 이 척추를 대치셔서(p.27). 또한, 이분의 말에서도 움라우트 실현형의 동화주 ‘-이’가 이중모음 ‘-의’(<이>)에서 기원된 형태도 비실현형들과 함께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출현하고 있다.⁵²⁾

- (27). 종이∞종이(紙): 옛날엔 비니루 종이 같은 거 안에다, 기름 바른 종이에다가 이쁘게 해서 팔어(91),
 그때는 비닐 종이 없으니깐 시방 종이마냥..(177),
 당내귀∞당나귀: 새새댁이 당나귀 타구...부인네두 당내귀 탈 재격이 될 꺼라.
 젊은 여자가 당내귀 타구오른(160),
 채미(참외): 그 퍼령 채미 두껍게 뻗겨 가지구(94), 그뻐 조선 채미잖아(94),
 시방 노랑 채미 말구 퍼령 채미 그걸 잘 잡수서(94).

이러한 움라우트 유형은 서울 토박이 한상숙 화자의 말에서도 등장하였던 예들이다. 그러나 경기도 방언을 구사하는 이규숙 노인의 담화 가운데에는 주격조사 ‘-이’와의 통합 과정에서 움라우트가 수의적으로 실현되어 비실현형들과 교체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상숙 노인의 말에서는 전연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 (28). ㄱ. 신랑(新郎)+ -이: 신랑이 오는데 보니께(p.14), 신랑이 그거 발꾸 들우와요(40),
 신랑이구 색시구(46), 신랑이 좋아 사는 것두(46)∞신랑이 가마 타고(40),
 ㄴ. 법(法)+ -이: 못 내려서는 법이구(17), 큰 상을 주는 법이야(37),
 먼침 전환허는 법이잖아(76),
 떠들고 하는 것도 못하는 법이구(76)∞친정서 허는 법이지요(20),
 죄인이니깐 못 우는 법이야, 눈물을 못 내는 법이야(p.113).
 ㄷ. 맘(心)+ -이: 맘이 편하지(86)∞맘이 불안허다구(190), 맘이 불안해요(204),
 ㄹ. 바람(風)+ -이: 바람이 시원허구(24), 바람이 술술 들어오니(120),
 그 새루 갈매기 바람이(181),
 ㅁ. 사람(人)+ -이: 사람이 얼굴은 똑 같애두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말을 안 허니께 내가 누구헌데 말을 걸 수가 없대(207).

위의 예에서 ‘바람-이→바람-이’와 ‘사람-이→사람-이’ 등의 보기는 Eckardt(1923)에서의 1910-1920년대의 서울말 혹은 경기도 방언에서 관찰한 바 있다(이 글의 §3.1의 예문 (4.2)를 참조). 특히, 경기도 방언을 구사하는 이규숙 화자의 말에는 ‘사람-이→사람-이’에서 형성된 움라우트 실현형이 생산적으로 확대되어 주격조사 ‘-이’ 이외의 다른 격조사 형태에서도 유추에 의한 확대형 ‘사람’으로 재구조화되어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재료 값은 받으시겠지. 그러지 않으면 지러운 사람들을 으똥게 다 대뤄(22), 암 것두 모르는 사람은 출생신고도 읊구(16), 등등.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에 의한 확대형의 존재는 주격조사 ‘-이’와의 통합에서 적극적인 움라우트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사람-이’와 같은 움라우트는 20세기 초엽으로 소급되는 시간 심층이 깊은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Eckardt(1923)에서 추출된 §3에서의 적극적인 움라우트 현상은 다른

51) (ㄱ) 이규숙 씨의 경기도 방언: 자주 대너두 몰러(p.24), 돌아 대니던 곁(89), 두 달을 대니머(103),
 못 걸어 대니셨어(96), 하인이 대니거든(155), 전갈 대니는 하인울(155),

(ㄴ) 한상숙 씨의 서울 방언: 출장을 대니시니까(p.77).

52) 경기도 방언을 수집하여 정리한 김계곤(2001)을 참고하면, 이와 같은 움라우트 형태는 ‘호미→회미, 잎사귀(葉)→잎새귀, 나비(蝶)→내비, 모기→뽕기’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지역방언 요소가 유입된 현상이 아니었으며, 20세기 초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세기 초엽에서 현대 서울말로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특히 주격조사 ‘-이’와의 통합에서 움라우트 실현이 Eckardt(1923)의 예들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사라진 과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글쓴이는 특히 서울말에서 이러한 형태론적 구성에 적용되었던 움라우트 퇴조의 경향에 193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언어정책과 교육이 일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김차균 1991을 참조).⁵³⁾ 언어변화와 언어정책 간의 사회언어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과 논의

■ 참고논저

- 강희숙(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 -전남방언과 서울방언을 중심으로-”, 1- 32, 『우리말글』 33호, 우리말글학회.
- 고영근(1977), “『조선어교재문전』 해설”, [역대문법대계]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1977, 23. 탐출판사.
- 고영근(1978), “19세기 전반기의 서양인의 국어연구 자료”, 27- 40, 『관악어문연구』 제3집, 서울대 국문과.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탐출판사.
- 고영근(1995), “중세어의 동사형태부에 나타나는 모음동화”, 587- 603.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고예진(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I),
- 김계곤(1988), “경기도 방언 채집, -고양군 원당을 방언-”, 3- 25, 『기전문화연구』 제17집, 인천교육대학교.
- 김계곤(2001), 『경기도 사투리 연구』, 박이정.
- 김민수 외(1997), 『외국인의 한글연구』, 태학사.
- 김인택(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문자와 음운 현상에 대한 기술”, 163- 194, 『코기토』, 73. 부산대학교.
- 김주필(1994), “17- 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53) 1930년대 국어의 “앞모음되기 현상”을 정인승(1937)에서 제시된 움라우트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 김차균(1991)은 현대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앞선 한 두 세대의 움라우트 규칙을 받던 자료의 대부분이 그 규칙을 받지 않은 자료로 되돌려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국립국어연구원, 1997)에서 25 대째 서울에서 살아 온 대학원 출신의 bht(당시 74세)씨가 자연 발화 속에서 서울말과 표준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그 화자에 지적에 따르면, 자신이 어렸을 때 서울에서 ‘돈’을 ‘뉘’, ‘안경’을 ‘엔경’, ‘학교’도 ‘핵교’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표준어가 각각 ‘돈, 안경, 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토박이말로 ‘단추’도 ‘덴추’라고 말하는데, 표준어가 ‘단추’이지만 보통 말할 때는 ‘덴추’로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p. 306).

논문.

- 김주필(2014),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의 성격과 특징”, 37- 70, 『반교어문연구』 제37집, 반교어문연구회.
- 김차균(1991), “1930년대 국어의 앞모음 되기 현상”, 3- 24,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백두현(1991), “20세기 초의 서울 방언에 대한 일 고찰”, 127- 151, 『용언어문학』, 제5집, 경성대 국문과.
- 원윤희/고예진(2012), “최초의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서 『조선어교제문전』 연구”, 247- 272, 『독일어문학』 제56집, 독일어문학회.
- 심지연(2012), “개화기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어 연구에 대하여”, 301- 334, 『민족문화연구』 제48호, 민족문화연구소.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윤애선(2013), “개화기 한국어문법 연구사의 고리맞추기”, 114- 154, 『코기토』, 73. 부산대학교.
- 이기문(2000), “현대 한국어의 변화들에 대한 단상”, 1- 14, 『서울말 연구』, 1집, 서울말 연구회, 박이정.
- 이남윤(2012), “개화기 서양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 검토”, 37- 58, 『한어문교육』, 제 16집, 한어문 교육 연구회.
- 이병근(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473- 487,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이병근(1992), “한 상숙 노인의 서울말”, 15- 18, 『밥해 먹은 바느질하라, 바느질 아니은 빨래하라』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서울 토박이 부인 한 상숙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 이병근/박경래(1992), “경기방언에 대하여”, 『남북한의 방언연구』, 15- 40, 김영배 편저, 경운출판사.
- 이상억(2000), “서울 옛말씨 분석: ‘생인손’ 등의 하층계급어법”, 『서울말 연구』, 1집, 123- 150, 서울말 연구회, 박이정.
- 이승녕(1965), “천주교 신부의 한국어 연구에 대하여”, 205- 217, 『아세아연구』 18호, 고려대학교.
- 이주행(2002), “서울 방언의 음운에 대한 연구”, 177- 191, 『21세기 국어학의 현황과 과제』 (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이하얀(2014), “국어 음운규칙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임용기(1984), “양주 지방말의 말소리 연구(1)”, 133- 169; 『기전문화연구』 12- 13 합집, 인천교육대학교.
- 정인승(1937), “ ‘ | ’의 역행동화 문제”, 1- 7, 『한글』 제5권 1호, 조선어학회.
- 정인호(2014), “개화기의 몇몇 서양인과 한국어 음운론”, 101- 126, 『우리말글』 62호, 우리말글학회.
- 정희준(1938), “에키르트와 한글”, 『한글』 6권 8호, 6- 7, 조선어학회.
- 채서영(2000), “서울말의 비어두 모음 /오/의 상승 변화”, 205- 230, 『서울말 연구』, 1집, 서울말 연구회, 박이정.
- 최호철 외(2005),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 경진문화사.
- 최전승(1978), “국어 ‘i-umlaut’ 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국어문학회.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87),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어학』 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 최전승(2001), “1930년대 표준어의 형성과 수용 과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235- 311, 『국어문학』 36집, 국어문학회.
- 최전승(2004),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 157- 226, 『우리말글』, 31호, 우리말글학회.
- 최학근(1963), “서울방언권의 형성과 서울방언”, 『향토 서울』, 제19호, 향토 서울 연구회.
- 한영권(1980), “완주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관악어문연구』 제5집, 211- 232, 서울대국어국문학과.

- 한영균(1991), “움라우트의 음운사적 해석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제8집, 주시경연구소.
- 우메다 히로유키(2000), “서울말 모음의 통시적 변화”, 27- 52, 『서울말 연구』, 1집, 서울말 연구회, 박이정.
- 小倉進平(1924), 『남부 조선의 방언』, 조선사학회.
- 小倉進平(1964), 증보 보주 『조선어학사』(河野六郎 보주), 刀江書院.
- 河野六郎(1945), 『조선방언학시고』, 동도서적.(『한국어 방언학 시론』, 2012, 이진호 역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前間恭作(1909), 『韓語通』, 丸善株式會社.
- Behaghel, Otto.(1968), *Die Deutsche Sprache*, Verb Max Niemeyer Verlag.
- Campbell, Lyle.(2000),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 Eckardt, P.A.(1923), *Koreanische Konversations- 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Heidelberg: Julius Groos. [역대문법대계]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편, 1977, 탑출판사 [2] 23에 재수록).
- Fertig, David.(1996), "Phonology, Orthography and the Umlaut Puzzle", 169- 183, *German Linguistics: syntactic and Dischronic*, John Benjamins Publishong .Co.
- Jespersen, O.(1913). *Lehrbuch der Phonetik*(Zweite Auflage), Verlag von B.B. Teubner in Leipzig und
- Kim, Chin- Wu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516- 527, *Language* 44- 3.
- Martin, E. Samuel.(1951/1968), Korean Phonemics, *Language* 27. 519- 533. *in Readings in Linguistics* 1, 364- 370, ed by Martin Joo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ul, Hermann(196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Sechste unveränderte Auflage, Max Niemeyer.
- Penzl, Herbert.(1996), The Germanic i-umlaut revisited, 189- 195, *In Sights in Germanic Linguistics* ed by Rauch, Walter de Gruyter.
-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 Ugrilaisen Seura.
- Ridel, Félix- Clair(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Imprimerie de L. Lévy et S. Salabelle. [역대문법대계(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편, 1977, 탑출판사) [2] 19에 재수록]
- Roth, P. Lucius.(1936), *Grammatik der Koreanischen Sprache*, Abtei St. Bennedikt. [역대문법대계(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편, 1977, 탑출판사) [2]25에 재수록].
- Smith, Jeremy.(2007), *Sound Change and the History of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 Underwood, H.G.(1890),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Kelly & Walsh, L'd. [역대문법대계]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편, 1977, 탑출판사 [2]3에 재수록).

<토론문>

양영희(전남대)

최전승 선생님의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1923)에 반영된 20세기 초엽 서울 방언의 음운론과 움라우트의 공시성”에 대한 토론문

학문의, 인생의 스승님으로서 존경하는 최전승 교수님의 토론자로 제가 자격이 있을 것인지 여러 번 숙고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방면은 전적으로 문외한인 저이기에 그러한 주저와 망설임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로라도 선생님을 뵈 수 있다는 치기어린 순수함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어 보는 것도 나름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무모한 용기로 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선생님의 논지를 ‘그동안 1910~1920년대 서울 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인데, 적어도 구어체에서는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을 통해 입증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움라우트에 대해 ‘南濃北稀’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는지요?

2. 꼴뚜기→꼴띠기의 과정도 움라우트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움라우트는 ‘V’ 혹은 ‘Vj’ 등과 같이 ‘i나 j’의 음상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ㅜ’가 ‘ㅣ’로 실현될 수 있는지요? 혹시 ‘ui’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3. (2)와 같은 토론자의 추정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면, 어느 경우에는 중단 단계를 거쳐서 움라우트로 실현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움라우트로 실현되는지요?

4. 혹시 서울 방언에서 그동안 움라우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한지요? 가령, 움라우트를 실현하면, 서울이 아닌 지방 사람으로 보는 관정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 등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서, 움라우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는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교 시절에 음운론에서 배웠던 움라우트에 대한 지극히 초보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기보다는 선생님의 논문으로써 음운론과 방언론의 움라우트에 대해 공부한다는 즐거움만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 선생님께 도리어 불쾌감을 드리지는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를 중심으로

하채현(전주대)

<목차>

1. 논의의 방향
2. 어휘 교재 검토
3. 교재 개발 절차와 제언
4. 결론

1. 논의의 방향

한국어 어휘 교재에 관한 논의는 교재 분석 연구와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기존 교재 분석을 통해서 개발 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오미정(2004), 신은경(2005), 강현화 외(2008), 이정희·서진숙(2010) 등이 있다.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는 김춘화(2007), 강현화 외(2009) 등이 있다. 강현화 외(2009)는 학습자 요구 분석 없이 한국어 사전이 개발되는 실태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출판된 어휘집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급 학습 대상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다. 여기서 실시한 요구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중급으로 갈수록 사전 유형보다 ‘연습문제가 포함된 어휘 교재’를 선호하며, 대화 예문을 원하는 초급과 달리 중고급 학습자¹⁾는 문장 예문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김춘화(2007)는 한국어 교재의 어휘 빈도를 분석하였기에 교재 분석 연구에 포함된다. 이 연구는 표제어 선정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교재 개발을 다룬 이정희·서진숙(2010)은 어휘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어휘 수업 자료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가 담긴 교재와 연계하여 어휘 자료를 개발할 것과 어휘장을 통해 활동할 것을 제안한 것은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논의는 현재 어휘 교육이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않았으므로 보조 자료 형태의 교재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은 본고의 방향과 다른 부분이 있다. 신은경(2005)은 어휘 학습 교재의 구성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 교재를 검토하면서 밝힌 나열식 어휘 제시 방

1) 본고는 중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중급과 고급 학습자를 함께 논의에 올리고자 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TOPIK 유형이 <한국어 I>과 <한국어 II>라고 하여 학습자의 숙달도를 통합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관련 논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이러한 TOPIK 경향에 부합하고자 <한국어 II>에 해당하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를 동시에 논의 상에 올리고자 한다. 물론 TOPIK의 경향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TOPIK이 한국어 교육계에서 큰 줄기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이에 별도의 논의 없이 중급과 고급을 함께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법과 체계적이지 못한 주제별 분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논의들은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본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밖에 본고와 관련하여 어휘 의미에 관한 연구,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어휘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실제 어휘 교재 개발 경험에 근거하여 어휘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고찰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어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어휘 교재 중 하나의 모델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교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어휘 교재 검토

어휘 교재는 먼저 전체 구성을 살펴야 한다. 구성은 기능에 좌우된다. 학습자의 어떤 기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교재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교재가 표방하는 기능에 따라 독학용 자료집인 경우와 학습을 위한 교재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어휘 교재²⁾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어휘 교재 출판 현황(출판 연도순)

번호	서명	출판 정보
1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문화사(2000)
2	Korean fundamental Vocabulary	가람(2005)
3	Handbook of Korean Vocabulary	한국문화사(2005)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어휘 가나다라	연세대학교출판부(2005)
5	한국어 필수 단어 6000	랭지플러스(2006)
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이밍(2006)
7	Korean Picture Dictionary	다락원(2006)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생활 어휘	두산동아(2008)
9	한 면에 속 들어오는 동사 풀이(한국어 동사 500 활용 사전)	소통(2008)
10	2000 Essential Korean Words for Beginners/Intermediate	다락원(2008/2014)
11	외국인을 위한 실무 한국어 어휘	박문각(2008)
12	Step by Step Korean 1 through 15 Action Verbs	한국문화사(2008)
13	Step by Step Korean 1 through 15 Descriptive Verbs	한국문화사(2008)
14	한 면에 속 들어오는 형용사 풀이(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 사전)	소통(2009)
15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어휘 1	랭지플러스(2010)

2) 이 밖에 의미의 계열 관계에 집중하여 개발된 교재로 속담, 관용어, 외래어 어휘 교재가 있다. 『살아 있는 한국어: 속담/관용어』, (랭지플러스,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래어』, (월인, 2007),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 3300』, (역락, 2012)

16	(우선순위) 한국어 초급 어휘 1500	한국문화사(2012)
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고급	연세대학교출판부(2011)
18	TOPIK 초/중/고급 어휘 40일 정복	박문각(2013)
19	쑥쑥 TOPIK 한국어 어휘 초/중/고급 50	(주)시대고시기획(2014)

이 중에서 몇 개의 어휘 교재를 선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선별 기준은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이다. 어휘 학습에서 한국어 중급 학습자는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한꺼번에 한국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에 노출되며 부사, 관용 표현, 추상적인 어휘 등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는 적어도 하루에 20개 이상의 새 어휘를 익혀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³⁾ 이정민·강현화(2008: 242)에 의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통상적으로 1시간 수업에서 10개의 단어를 익히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만일 그러하다면 20개의 어휘를 익혀야 하는 중급 단계 학습자는 초급에 비해 배에 이르는 많은 양의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단계에서 급격히 강화된 어휘 학습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중급 이상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이 다른 급수에 비해서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가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한 어휘 교재는 최근에 발간되고 있는 중이기에 중급 이상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재는 비교적 최근에 출간되었다.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어휘 1』(2010)-『어휘 1』⁴⁾

『2000 Essential Korean Words for Intermediate』(2014)-『에센셜』

『TOPIK 중급 어휘 40일 정복』(2013)-『어휘 40』

『쑥쑥 TOPIK 한국어 어휘 중급 50』(2014)-『쑥쑥 50』

별도의 분석은 구성의 측면과 내용의 측면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선별한 네 권의 교재는 각각 저자들이 사용한 표제어 선정 방법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밝힌 어휘 선정의 방법들은 모두 네 가지이며 교재에 따라 이 방법들을 중복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재 어휘에서 추출한 어휘. 둘째, 이미 출제된 한국어능력시험(TOPIK)⁵⁾에서 추출한 어휘. 셋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하는 어휘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추출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넷째, 개인 연구자의 연구 결과로 선정된 어휘. 어휘 교재들은 이와 같이 선정된 어휘를 활용하여 그 중 일부 어휘를 뽑고 그것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표제어 선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첫째의 경우는 기관용 교재에서 추출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빈도 처리에 따라서 중요도를 가렸다는 말이다. 기관 교재는 통합 교재로서 언어 기능 모두를 고려한 구성이므로 어휘 학습의 이해와 표현을 두루 경험하게 하는 표제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편이다. 한편 TOPIK에서 추출한 표제어는 기관 교재 추출 어휘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3)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숙달도별 분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급 학습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TOPIK 응시자 분포로 볼 때 2010년 이후 중급 이상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보다 많아졌다.

4) 이후 설명에서 간략히 한 교재명을 편의 상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어휘 1』은 『어휘 1』로 칭한다.

5) 이후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때에 따라서 ‘토픽’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것이다.

수 있다. 기관 교재 추출 어휘는 상당 부분 학습 목적 구분 중 학문 목적과 비즈니스 목적에 편중되어 있기 쉽다. 반면에 TOPIK 추출 어휘는 좀 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의거하므로 범용 어휘 교재라면 TOPIK 추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논지에서 볼 때 국립국어원 추출 어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어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정책 차원의 국가적 사업으로 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연합하여 작성한 연구 결과로서의 어휘 목록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시기가 2003년이라는 점은 2차 연구 시기가 도래했음을 예고한다. 언어는 살아 있어서 생성 변화 퇴보 사멸 한다는 원칙에서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어휘 선정 관련 연구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저자들이 사용한 선정 방법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선정에 활용한 숨겨진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 교재의 경우 5기관에서 7기관까지 편차를 보이며, TOPIK 어휘 추출도 1회부터 최근까지 중에 부분 추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차에 대해서 근거를 알기 어렵다. 기관 교재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TOPIK 시행 횟수에 따라 선정 어휘 목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관 교재 수나 시험 시행 횟수에 따라서 선정 어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어휘 학습(입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국립국어원 목록과 개인 연구 목록을 검토 없이 그대로 가져 온 메타 추출이라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교재들에서 밝힌 어휘 선정은 연구 논문들에 근거를 둔 메타 추출 어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교재 분석

기준	세부 항목	어휘 1	에센셜	어휘 40/쑥쑥 50
구성	표제어 선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TOPIK, 기관교재	TOPIK, 기관교재
	학습 목적	학문 목적	일반 목적	시험 대비
	학습 대상	중급, 유학생	중급, 범용	중급, 범용
	내용의 배열(기준)	나선형 3/25, 선형 22/25(과, 주제별 단위)	선형(주제)	선형/나선형(반출 필수 중요 추천/품사)
내용	용법 제시	문장 단위	담화 단위	문장 단위
	관련어 제시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어휘 확장	유의어 반의어 관용구 관련어 참고어 어휘 확장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연습 문제	소주제별(22과) 20-30문제	소주제별(30-40 어휘) 5문제	30개 어휘 학습 후 약 10문제
	번역 제시	없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CD제공 여부	없음	CD 제공	없음

위 표는 네 권의 교재가 대략 세 개의 패턴으로 구분되기에 이와 같이 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어휘 40』와 『쑥쑥 50』은 유사한 점이 많아서 표에서 따로 나누지 않고 함께 넣었다. 다양한 삽화를 사용하여 부담 없이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자연, 사회, 기술, 문화, 철

학'의 범주 안에서 소주제를 22개로 분류하여 어휘장⁶⁾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별도의 번역어 없이 교사나 다른 도움을 받아서 단어의 '잇기'와 '늘리기'를 통하여 의미 관계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휘 1』은 지금까지 출간된 교재 중 유일하게 '수업에서 쓰기 위한(활용하는)' 어휘 책이다. 어휘에 '1'이라는 숫자는 초급 교재라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어휘 1』은 중급용이며 현재 1 이외의 것은 출간되지 않았다. 또한 삽화 수준이나 교재의 모습이 유치원용 그림책 느낌을 주어서 보다 진지한 학습자에게 어색할 수 있다.

『에센셜』은 초급(2006)에 이어 6년 만에 중급(2014)을 내 놓아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 교재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표제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선정 어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⁷⁾ 또한 유의어 반의어 이외에 의미의 결합 관계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학하기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담화 단위로 제시되어 어휘 학습을 통한 화법 활용에 용이하다. 학습자가 이를 CD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음 교육 차원까지 염두에 둔 교재다. 다만, 중급 학습자들은 담화 표현보다는 문어적인 표현이나 공식적인 표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⁸⁾ 등은 『에센셜』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의 토픽 성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관마다 토픽 수업이 개별 영역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늘었다. 이에 따라 토픽 어휘 수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교재가 나올 시점이다. 『어휘 40』이 『쑥쑥 50』은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살펴 본 두 토픽 어휘 교재는 수업에 쓰이기보다는 독학용 교재로서 사전 방식을 날짜로 쪼개 놓은 형태다. 『쑥쑥 50』은 하루 공부 분량을 품사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에 들어 있는 '하루하루 인내심을 가지고 어휘 학습에 임하라'는 문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 특히 학습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임을 예상하게 한다.⁹⁾

『어휘 40』이 『쑥쑥 50』과 구별되는 점은 내용의 배열 부분이다. 『쑥쑥 50』이 하루씩의 어휘 분량을 품사별로 익히도록 설계된 반면, 『어휘 40』은 어휘를 '빈출, 필수, 중요, 추천'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 단계 더 거쳤다. 필수 어휘는 토픽 출현 어휘이고 중요 어휘는 기관 교재 출현 어휘이며 빈출 어휘는 토픽과 기관에 동시 출현 어휘라고 한다. 특히, '추천 어휘'는 토픽과 기관 교재에 출현하지 않았지만 교사의 경험에 비추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이 판단하는 어휘로서 학습자의 어휘망을 확장하도록 돕고 있다. 『어휘 40』은 번역어에서 일본어를 제외하였다. 『어휘 40』과 『쑥쑥 50』은 날짜별 학습으로 학습자의 나선형 학습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제 어휘 목록의 제시와 학습은 나선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간부터 학습을 시작해도 되는 선형 구조를 가졌다. 구성의 의도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어휘 교재는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여야 한다. '교재'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출간된 어휘 교재는 대체로 사전이나 모음집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휘 교재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機能)(말, 듣, 읽, 쓰)을 구현하는 언어 자료집이라면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사전 형태는 적합한 구성일 수 없다. 또한 학습서 형태의 교재라면 주로 교사에 의해 교실 현장에서 구체화되므로 그에 따른 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개별 교재마다 '어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어휘장의 적합한 의미는 교재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대체로 '어휘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합의한 듯하다. '내용 중심 문법의 field 개념을 확대하여 어휘의 관계망을 표현한 용어(최경봉, 1996: 829)'로 판단된다.

7) 게다가 『에센셜』의 저자(강현화, 2014)는 개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중급용 어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8) 이는 강현화 외(2009: 52) 참조

9) 이런 점에서 최근에 출간되고 있는 토픽 어휘 교재는 동양권 학습자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권 학습자는 참을성을 가지고 홀로 공부하는 데 서양권 학습자에 비하여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어의 기능을 구현하는 언어 자료로서의 어휘 교재는 세부적으로 학습 목적, 학습 대상, 내용의 접근 방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학습 목적은 일반(범용) 목적, 비즈니스 목적, 시험 목적, 특수 목적 등으로 유형화된다.¹⁰⁾ 출간된 교재들은 일반 목적의 범용 교재가 대부분이다. 학습 대상의 경우 L2 학습자의 숙달도를 구분하지 않은 교재가 대부분이다. 숙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재들은 초급이나 중급 미달 수준의 어휘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재가 출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개는 수업의 자료(교재)보다 독학용 학습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교재 내용의 배열은 선형적 구조와 나선형적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¹¹⁾ 사전식 어휘 모음집의 경우에 선형적 구조를 가진다. 현재는 대부분의 교재들이(12, 13, 15, 17 제외) 선형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 나선형 구조는 어휘 학습에 대한 심화·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습서로서의 어휘 교재의 형태는 나선형 구조가 적합할 수 있다. 이정민·강현화(2008: 237)은 나선형 어휘 학습을 '좁은 독서를 통한 점증적 어휘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초급용 어휘 학습서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점증적 어휘 학습이란 특정 분야(주제)에 사용되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여 한 어휘가 노출되는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어휘에 대한 의미가 점차 심화되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암기와 함께 거의 정확한 의미 해석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이정민·강현화(2008)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선형 학습을 위해서는 주제 텍스트를 통한 어휘 학습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3. 교재 개발 절차와 제언

3.1. 어휘 선정

이 장에서 제시하는 어휘 교재 모델은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교재와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사전식 모음집을 탈피하고자 한다. 교재의 의미에 충실한 형태로 구성된 어휘 교재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하나의 모델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한다. 어휘 모음집의 경우, 학습 문제나 학습 활동이 적고 다량의 어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형태의 어휘 교재는 자칫 광범위한 표제어에 치어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어휘 교재는 교재이므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하고 개인 학습서의 기능도 동시에 지녀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능(技能)을 하는 어휘 교재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적당량의 표제어를 가지고도 중고급 학습자의 어휘장을 최대한 확장하게 하는 어휘 교재는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휘를 안다는 것은 개별 어휘를 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휘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휘 학습은 연상을 통하여 결합 관계와 계열 관계로 자유자재로 의미망을 넓혀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¹²⁾

10) 이는 김정숙(1992)에 따른 분류다. 김정숙(1992)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학습 목적에 따라 구분한 초창기 논의에 해당한다.

11) 선형적 구조와 나선형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흥우(2006)의 3장을 참조할 수 있다. 나선형이라 함은 앞 선 학습을 토대로 뒤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학습자나 교사 모두 낮은 학습이 아닌 이미 배운 것을 다시 확장하는 형태의 내용 수업을 의미한다.

12) 어휘 학습에서 '연상'이나 '기억'에 대한 연구는 여러 지면에서 다루어져 있다. 그 중 남상은·김영주(2011)의 실험 연구가 살펴볼 만하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형태의 어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휘 선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그림 1> 어휘 선정 절차

위 그림은 가능한 한 어휘 선정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주제 선정이 어휘 선정에 앞선다. 이는 메타 언어 목록이 아닌 직접 추출 절차라는 점에서 기존 표제어 선정과 다르다. 이를 어휘 선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문장이나 담화 단위를 제시하는 어휘 교재와도 차별적이다. 어휘를 위한 간략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³⁾ 주제별 제시되면서 주제에 따른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연상 작용에 효과적이다.¹⁴⁾ 학습자가 텍스트의 윤곽을 가지고 해당 텍스트의 내용 안에서 어휘를 기억하기 때문에 학습 어휘에 대한 의미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다.

문제는 적절한 텍스트 생산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TOPIK 지문을 분석하여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주제에 따라 텍스트(지문)를 생성하였다.¹⁵⁾ 그런 다음 선정한 주제별 텍스트에서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것이 1차 어휘 선정이다. 이러한 어휘 선정은 교사의 경험과 직관에 근거한다.¹⁶⁾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선정은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성 확보는 2차 어휘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차 선정 어휘 목록은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메타 추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어휘에 대한 의문들을 즉각적으로 해

13) 어휘 교육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휘 연구→어휘 교육 연구→어휘 교수 학습 전략 연구로 간략히 할 수 있다면 본고는 마지막 단계인 어휘 교학 전략과 가장 긴밀하다. 본고는 학습자 중심 어휘 교재를 고민하는 자리이고자 한다. 어휘 교학 전략인 어휘 학습 자체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어휘 선정과 어휘 연습에 대한 논의는 명료해진다. 학습자가 학습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학습'에 대한 연구가 요구 분석에서 출발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L2 학습자는 필요에 의해서 흥미를 가지고 최대한 쉽게 어휘를 익히고 싶다. 사전에 있는 어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상과 활동을 통해서 외국어의 의미 체계 안에 들어오고 싶어 것이다. 본고가 의도하는 어휘 교재 모델도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는 어휘 학습서다.

14) 2장에서 분석한 『어휘 1』과 『에센셜』은 주제별 어휘 제시가 어휘망 형성을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15) 텍스트(지문)의 적합성은 ① 주제 적합성 ② 객관성 ③ 흥미도 ④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하채현, 2014) 참조

16) 본고에 제시한 1차 어휘 선정의 방향은 『어휘 40』에서 제공된 '추천 어휘'(본고의 2장)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교사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어휘를 가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결합 능력을 발휘한다. 목표 어휘의 의미 관계와 제약은 준비한 자료로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활용하게 한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한국어 어휘 특성을 학생들과 함께 심화시킨다. 주제에 따른 흥미로운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텍스트만으로도 관심이 가고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

<표 3> 1차 어휘 량

번호	주제	체언	용언	합계
1	심리	31	10	41
2	직업	30	10	40
3	교양·상식	22	22	44
4	과학	15	16	31
5	인물	25	13	38
6	일상생활	11	12	23
7	건강	29	11	40
8	언어	11	10	21
9	환경문제	10	15	25
10	경제	16	11	27
11	교육	14	11	25
12	취미와여가	12	1	13
13	매체	30	15	45
14	사회	18	11	29
총합계		274	168	442

위 표는 1차 선정 어휘를 체언과 용언으로 구분한 것이다. 부사나 관용구는 '참고'나 '관련어'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이 용언에 비해 배에 가깝게 많다.¹⁷⁾ 물론 체언이 많다는 것을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의미의 결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언 학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차 어휘 선정은 표제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교육용 어휘 목록과 함께 검토한다. 1차 선정 어휘가 국립국어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결과 1차에서 선정한 어휘가 대체로 국립국어원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체언보다 용언을 추출하는 데 신경을 썼다. 1차 선정 어휘에서 포함되어 있는 초급 어휘를 걸어내고 주제별 적합도¹⁸⁾를 검토한다. 주제별로 선정한 어휘 카드를 펼쳐 놓고 어휘가 놓인 위치와 관계성을 살펴서 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체언은 주제별 적합도를 가늠하기가 용언에 비하여 쉽다. 용언은 적합도를 따지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 용언의 적합도는 체언과의 의미상 결합 관계를 따져서 선정한다.

17) 체언의 어휘 양이 용언에 비하여 많은 것은 대부분의 어휘 교재(본고의 2장에서 검토한 교재들)에서 그러하다. 연세한국어사전을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평가용 기본 어휘표'에는 체언과 용언이 별도로 계량화되어 있다. 여기서 명사는 6,134 어휘(약 57%), 동사 2,213 어휘(약 20%)인 것으로 제시되었다(이현희, 2008: 194-196). 이처럼 선정 어휘에서 대체로 체언의 비중이 용언보다 높은 수치를 알 수 있다. 표에 제시한 주제 중 '취미와 여가' 항목은 텍스트 자체가 안내문 형태이기에 어휘가 적게 추출되었다.

18) 여기서 '적합도'란 '적합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4> 추가 어휘 선정 과정의 예

번호	주제	어휘	더한 어휘
1.1	심리	p 더볼다	p 구사하다
1.1	심리	p 몰다	p 달려있다
1.1	심리	p 설명 ~다 해도	p 맞추다
1.1	심리	p 소홀하다	p 맺다
1.1	심리	p 중시하다	p 비유하다
1.1	심리	p 집중되다	p 쌓다
1.1	심리	p 해석하다	
1.1	심리	p 현격하다	

위 표는 2차 어휘 선정 과정을 보여 주는 예다. 보는 바와 같이 ‘심리’의 경우에 용언의 추가 비율이 높다. ‘심리 1.1’의 내용은 ‘인간관계의 신의’에 대한 지문(텍스트)다. 선정 용언인 ‘구사하다’는 신의를 쌓아가는 방법 중 ‘말을 진실하게 구사하라’에서 추출되었다. 언어 ‘구사’와 관련되기에 의미 상 결합 관계를 드러내기에 표제어로 선정된 예다. 특히, 조어법상 비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휘를 선정에 포함한다. 초급 어휘라면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지만 중고급 학습 어휘에는 넣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책걸상’ 같은 어휘를 추가한다. 이런 종류의 단어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단어 중에 비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다른 비통사적 단어들을 접했을 때 추측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최종 선정 어휘 량

번호	주제	명사	동사	합계
1	심리	31	21	52
2	직업	30	19	49
3	교양상식	22	22	44
4	과학	21	14	35
5	인물	25	25	50
6	일상생활	14	14	28
7	건강	29	21	50
8	언어	22	14	36
9	환경문제	21	24	45
10	경제	20	18	38
11	교육	14	11	25
12	취미와여가	12	1	13
13	매체	30	26	56
14	사회	22	19	41
총합계		313	249	562

이 어휘는 국립국어원 중급용 어휘 5,965개, 강현화 선정 중급 어휘 3,855개에 비해 적은 양이다. 본고에서 선정한 어휘는 첫째,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출한 표제어이며, 둘째, 그렇기 때문에 표제어로부터 어휘망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어휘 선정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칠수록 정교해질 것이다.

3.2. 교재 구성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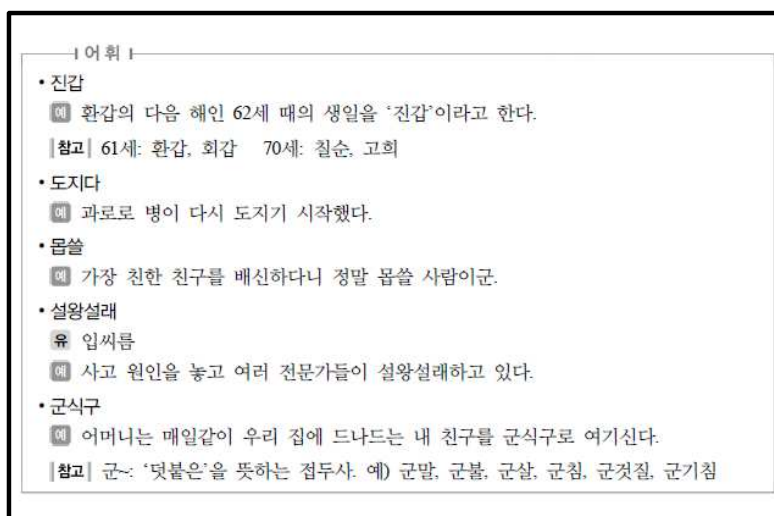
본고에서 제안하는 어휘 교재는 텍스트 기반이어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어휘 기억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이면서 동시에 읽기 학습이 될 수 있다.¹⁹⁾ Paribakht and Wesche(1996)은 읽기 텍스트 뒤에 이어지는 어휘 연습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Gass(1988)의 입력을 통한 다섯 가지 학습 단계를 이용하였다. 이 분류는 어휘 연습을 학습이 일어날 것 같은 조건들과 관련시키고 있다. 특히 Gass의 논의는 어휘 학습을 학습자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서 구분하였기에 주목할 만하다. 세부적인 내용 제공은 문장 단위로 하고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연어, 관용구 등도 포함한다.

<표 6> 어휘 및 표현(심리 영역) 제시를 위한 작업의 예

번호	어휘	한자 (영어)	예문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연어	관용구
1.2	n 경쟁		커피 전문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점 포별 할인 경쟁이 치열해졌다.						
1.2	n 공감		한국의 대중문화에 공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감					
1.2	n 군주		군주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임금					
1.3	n 변인	0	교사와 학생 및 교재는 수업의 주요한 변인이다.						
1.3	n 보상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된다.						
1.3	n 사기꾼	0	형님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다.						
1.3	n 사례	事例	그 논문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3	n 선의	0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한 선의의 모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호의	악의				
1.3	n 악용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선용				
1.2	n 위정자	0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위정자가 될 수 없다.						
1.2	n 의사소통		그의 한국어 수준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1.2	n 의식	意識	시민 의식은 언론의 자유에 비례한다.						

19)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본고의 논지를 흐릴 수 있다. 비록 어휘 학습과 읽기 학습이 상관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교재 전체의 틀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일관된 논지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1.2	n 이익	0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윤 (경제)	손해				
1.3	n 정서	情緒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1.2	n 조화	調和	사회생활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는 중요한 덕목이다.		부조 화				
1.2	n 지위	地位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은 낮추어 먹어야



<그림 2> 어휘 및 표현 제시의 예

초급에서 명확한 의미화에 도달하기 위한 어휘 학습은 모어의 제시를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 대상의 어휘 학습에서 모어의 제시는 두 어휘가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²⁰⁾ 학습 언어의 의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급 대상 어휘 학습에서 모어의 제시는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연습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어휘 및 표현 연습의 기본 문형>

- ① noticing: 제시어 보고 빈칸 채우기
- ② comprehended input: 반의어, 유의어 고르기
- ③ intake: 문법 요소를 이용한 단어 완성하기
- ④ integration: 언어 완성(줄긋기)하기
- ⑤ output: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휘, 문장 만들기, 속담, 관용구 써 넣기

이는 Gass가 제안한 활동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단계는 '알아차리기

20) 이에 대해서는 신형욱(2008)의 논문이 참조할 만하다. 여기서는 어휘 학습의 원리를 명확성, 체계성 그리고 다양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확성은 어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체계성은 학습자에게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어휘가 아닌 필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어휘를, 다양성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어휘이므로 되도록이면 새롭게 경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어휘 제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본 고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noticing)'라고 부른다. 이는 Schmidt(1999)가 주장해서 그후 여러 학자들이 발전시킨 언어 학습 이론으로 어휘 학습에도 적용된다.²¹⁾ 알아차리기 조건(선택적 주의)을 이용한 어휘 연습에는 텍스트 앞부분에 주목해야 할 어휘를 배열해 놓거나 텍스트 내에 강조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주요 효과는 학습자의 의식 고양으로 단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단어가 눈에 띠도록 하는 것이다. Gass의 두 번째 단계는 '이해된 입력(comprehended input)'이다. 이 단계는 수용적 회상(retrieval)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단어를 동의어, 정의, 혹은 그림과 연결시키는 어휘 활동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용(intake)'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단어를 재구조화(재배열)하기 위해 형태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목표 단어의 문법 범주를 바꾸거나 어간이나 접사를 이용하여 단어를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integr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맥에서 의미 추론하기, 목표 단어와 연어 연결하기, 목표 단어와 동의어 연결하기, 단어 집합에서 특이한 단어 골라내기 등의 어휘 활동을 하게 한다. 마지막 '출력(output)' 단계에서는 적절한 새로운 문맥에서 목표 단어를 재생해서 산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라벨달기 활동, 개방형 빈칸 채우기 연습, 목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어휘 연습

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을 쓰십시오.

- 1) 이 작품이 그가 죽은 후에 _____(으)로 평가받았다.
- 2) 한국의 교육 평가 지수가 상승 _____을/를 보이고 있다.
- 3) 거짓말을 _____아/어/어서 친구가 없다.

2.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 그 일은 항간의 ()이가 되다
- 그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가 풍부하다
- 매일 만나다 보니 ()이가 떨어졌다.

())

<그림 3> 어휘 및 표현 연습의 예

3.3. 어휘 교재 개발 방향과 과제

21) 강현화(2004: 64)는 서평에서 어휘 교육 학자들의 논의가 같은 의미 다른 용어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휘 학습 전략을 구상하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어휘 교수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다. 이는 실제 언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이 딜레마가 어휘 교수 학습 개발을 더디게 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는 개별 어휘에 대한 것이다. 편이상 학습자A(L2 학습자)라고 하자. 학습자A가 어휘A를 한 번 보고 쉽게 어휘의 의미 체계에 편입하였다. 어휘 학습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학습자A가 어휘B의 경우 반복적으로 접하고도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휘A와 어휘B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어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특질의 문제인가?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중고급 대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종종 겪는 일이다. 학습 목표는 따로 있는데 할애된 시간 동안 어휘만 설명하다가 수업이 끝났다. 학습자들은 사전을 찾는 등 미리 어휘 학습을 하고 왔다. 그런데도 활용해 보니 어휘 사용에 오류가 많았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어휘만 설명하다 끝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오른다. 어휘가 많으면 어휘 영역 수업을 별도로 교수요목에서 책정하면 될 일이지만 전반적인 언어 교수에서 어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다.

이제 어휘 교재를 개발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발견한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어휘 선정의 측면과 교재 구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어휘 선정에서 발견한 논의 사항이다.

- ▶ 메타적인 방법으로 (연구 결과로서 선정된 어휘에 기대는 방법으로) 어휘를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보다는 경험적이라도 직접적인 어휘 추출을 다양하게 시도하여야 한다.
- ▶ 어휘 선정 단계는 중첩 과정을 거치되 보다 적절한 어휘를 추출하여야 한다.
- ▶ 중고급 학습용 어휘에는 조어법상 비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휘를 표제어 목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조어법상 비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더 숙고해 볼 일이다. 이 제안들은 구체적인 교수 경험에 근거하여 덧붙인 것이다. 다음으로 교재 구성의 측면이다.

- ▶ 기존 어휘 교재는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어휘 교재는 사전이 아니므로 연습과 활동을 강화하여 학습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 주제가 있는 어휘 학습이 효과적이다.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은 간략한 지문보다 깊이 있고 흥미 있는 텍스트로부터 촉발된 어휘일 때 연상 작용을 활성화할 것이다.
- ▶ 예문은 문장 단위로 제시한다. 구어 표현보다는 문어 표현과 공식적인 표현이 학습자에게 필요하다. 그러하더라도 예문은 학습자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 실생활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중고급 대상 어휘 교재에서 모어 제시는 필수 항목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어휘 교재 개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어휘 영역이 별도의 한국어 학습 영역이 아니더라도 어휘 학습의 중요성은 줄어들 수 없다. 오히려 강조될 전망이다.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대한 고충을 염두에 둘 때 다양한 형태의 어휘 교재 단행본이 출간되어야 한다. 이는 보조 자료로서의 어휘 모음집이나 시험 대비만을 위한 어휘 독학 교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별 교사의 어휘 학습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맡기기보다는 이를 총합하여 언어 교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핵심 영역으로서의 어휘 학습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어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외국어 어휘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하더라도 한국어 과점에서의 새로운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²²⁾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휘의 의미상 사회적 계열 관계와 연어, 관용어 등의 결합 관계 등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특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어휘 교재는 범용 교재가 많고 학문 목적, 직업 목적, 귀국 자녀, 결혼 이주민 등을 위한 어휘 교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결론

본고는 어휘 교육에서 대한 이론적 검토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 학습서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실제 어휘 교재

22) 어휘 학습 전략은 어휘망 집합 그림 그리기, 어휘 캡슐 전략 등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타 한국어 학습에 관련된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이정민(2010) 참조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몇 가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하였다. 첫째, 어휘 능력이나 어휘 개념 혹은 구조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과정을 생략하였다. 둘째, 본고에서 제안한 어휘 교재를 가지고 실제 어휘 수업을 실행한 결과를 다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 대상의 어휘 교재가 빈약한 현실에서 중급과 고급 학습자 대상 어휘 교재의 모델을 제시하였기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휘 선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과 한국어 어휘 교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어휘 1』(2010)

『2000 Essential Korean Words for Intermediate』(2014)

『TOPIK 중급 어휘 40일 정복』(2013)

『쏙쏙 TOPIK 한국어 어휘 중급 50』(2014)

강현화·최진희·윤현애(2009) 학습 겸용 어휘 자료집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사 전학회 제15차 학술대회발표자료집, 43-53.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김춘화(2007), 한국어 교재의 어휘빈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남상은·김영주(2011),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5-35.

신은경(2005),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유형별 어휘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신형욱(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교수·학습 방안 제안, 한국어 교육 2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7-224.

이정민(2010),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이정민·강현화(2008), 한국어 독학용 어휘학습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1-252.

이정희·서진숙(2010),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의 실제,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195-218.

이충우(1998), 국어 어휘 교육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75-103.

이현희(2008), 한국어 동사의 어휘학습 자료 구성 방안 연구, 문법교육 8, 한국문법교육학

- 회, 191-218.
-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 최경봉(1996), 어휘의 의미 관계와 어휘 교육 방법론, 『광산구증서박사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821-846.
- 하채현(2014),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모형 제시,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 Nation, I.S.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김창구 옮김(2012), 『I. S. P. Nation의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 소통).

<토론문>

박미열(전북대)

[별지 첨부]

양적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능력 측정 변항 추출*

- 중등학교 학생의 언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서형국(전북대)

<목차>

1. 머리말
2. 기본 사항
 - 2.1 자료
 - 2.2 분석
3. 분석 결과
 - 3.1 어휘 부류의 사용 양상
 - 3.2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이 발표는 중등학교 학생의 평가된 작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 특성을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텍스트를 바탕으로 계량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제안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어 학습자에 대한 측정은 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학습자의 국어 능력은 교실이나 교육 과정에 의해서만 형성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측정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만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하여 국어 학습자의 국어 능력 측정은 직접적 상관관계를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어 학습자의 국어 자료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세부적인 측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어 학습자가 만들어 낸 자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질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는 양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질적 평가는 전문가로서 국어 연구자나 국어 교육자가 학습자의 국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 양적 평가는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국어 자료에 대한 변항 중심의 계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1) 본 발표는 2014학년도 제2학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의 전공 강의 <의사소통교육론>의 수강생인 김한나, 강세민, 최은경, 정준철, 박경희, 김보국, 김정효, 김선영, 양은진(자료순)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과 통계 작업을 전연 새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에서 목표한 바를 보고하는 자리를 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제공하고 강의에서 있었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여 준 수강생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본 발표에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은 발표자의 단독 작업으로 모든 잘못은 발표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²⁾

국어 학습자가 만들어 낸 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는 국어 교육의 제반 단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으나, 평가자의 주관성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국어 학습자가 만들어 낸 자료에 대한 양적 평가는 일반성을 구할 만큼의 대상 자료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양적 접근법이 대상 자료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도달할 정도의 측정 수단으로 고려해 볼 만한 자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 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양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일정한 양으로 축적하고, 이들에 대하여 양적 접근법을 일관되게 시행하여, 여기서 발견되는 현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어'는 확정적인 대상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해 1994: 61f).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상대적이며(Biber & Conrad 2009), 개연적(김광해 1994)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 개연적인 측정을 위한 변항을 계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법의 일반화를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을 특정한 수정없이 사용함으로써 재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엄밀하고 일관된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료를 평가하는 분들이, 자료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고치는 외에는, 분석된 자료에 대한 형태 개별적 연구나 분석을 최소화하여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전제하여, 본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전문적 연구 과정이나 추가적인 세부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재현 가능할 정도의 설명을 부가한다.

2. 기본 사항

2.1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에 학생들이 손수 쓴 글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았다. 학생들의 글은 저학년일수록 길이가 짧고, 고학년일수록 길이가 긴 편이다. 한 편의 길이는 대개 250어절 가량에서부터 800어절 가량까지이다. 각 자료의 길이가 보이는 편차가 언어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2500어절 기준으로 모아서 그 평균 수치를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 방법은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작성자를 통제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대상 자료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자료의 구성에 개입하는 과정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료의 길이나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가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작성자의 언어 능력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나 국어 교육의 직접 대상에 대해서는 양적 평가를 실시하기에 일반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자료이기는 하나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비교의 척도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둘째,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 말뭉치의 길이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하는 글의 길이에서 나타나는 상위(相違)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를 집적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다. 대용량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을 통하여 연구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³⁾ 이와 같은 방식에서 사용한 표본의 길이는 2,000어절부터 10,000어절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최대 1,000어절을 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들 간에 보이는 편차를 극복하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이들을 전체로 집적하여 일정 어절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학년	구분	담화 상황					출처	어절 수	형태 수	비고
		성별	줄거리	주장	감정	주제				
5		混	×	○	×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2,830	5,755	
7	①	여	○	×	○	독서감상	과제	1,613	3,209	교열됨
	②	여	×	×	○	감사인사	사신(私信)	2,585	5,082	편지
8		混	○	×	○	한가위	손글씨 과제	2,862	5,730	
9		混	○	×	×	행사소감	과제	2,098	4,398	
11	①	여	○	×	○	감상문 (‘추억’)	글짓기 대회	2,701	5,492	
	②	남	×	△	○	자유주제	글짓기 대회	2,852	5,759	
12	①	여	×	×	×	자기소개	과제	2,510	5,366	
	②	여	○	×	○	기행문	과제	2,358	4,774	
계							20,051	40,791		

<표 1> 자료의 목록과 자료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다. 이들 자료는 모두 학생이 쓴 글로서 다음 <표 2>를 기준으로 그 자료적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⁵⁾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온전한 자료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이들 자료를 집적하는 연구 방법은 앞서 언급한 장점, 또는 불가피한 연구 방법에도 불구하고

3) 안예리·이주현(2014)에서는 길이가 긴 텍스트(이 경우, 『빈상설』)를 임의의 구간에서 일정량(2500어절)을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방법을 택하게 된 근거가 될 만한 해외의 표본 추출 방식으로는 Helsinki 말뭉치의 경우와 16~18세기 영어 대화 말뭉치인 CED 말뭉치의 경우를 예시하였다.
 4) Biber(2012)에서는 포괄적 언어 특성의 경우에, 온전한 텍스트를 전체로서 검토하거나 표본이 되는 텍스트를 모아둔 집합을 검토함으로써 레지스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특히 192f 참고).
 5) 아래 자료는 줄고(2014)에서 제시한 국어사 자료의 텍스트 유형 확인을 위한 자료 분류 기준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제시한 것이다. 특히 2. 담화 맥락의 경우, ‘공공연함’을 ‘과시적임’으로 바꾸었다. 이때 ‘과시적임’이란 ‘다른 여러 사람에게 보일 것을 전제로 하는 담화’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연’이란 그것의 외부에 공개되었음을 가리키는 결과적 상황에 해당할 뿐, 담화의 발생 맥락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몇 가지 문제를 보인다.

글의 길이는 그 자체로 언어 능력을 다면적으로 반영한다. 글쓰기를 배우는 수준의 학생일 수록, 즉 고급 수준의 글쓰기가 아닐수록, 대개 글쓰기 능력과 글의 길이는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글로만 보아도 5·7학년의 글이 극단적으로 짧고, 12학년의 글이 평균적으로 가장 길다. 나아가, 글의 도입 부분이나 맺음말 부분 등 글의 위치에 따라서 레지스터는 일정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글의 길이가 짧은 글을 모은 자료일수록 이러한 위치에 따른 레지스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일정한 수준에 있는 글을 모아서 이들끼리 상호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규정하여 주는 특성을 일방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Biber & Conrad 2009).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방법은 대상 자료의 맥락 특성('상황 특성', situational characteristics)을 일정하게 한정하고, 이들 자료에서 특성을 추출하여 상대 비교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 방안으로 전주지역 학생의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 특성을 추출하여 보이려는 것이다.

국어 자료를 그 생산 맥락을 감안할 수 없을 상황까지를 고려하여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는 <표 2>를 활용하여 보기로 한다.

1		?	,	,
2		?	,	
3		· ?	,	,
4		· ?	,	,
5		?		
5'		?		
6		?		
6'		?		
7		?	, ()	
8		?		
8'		?	, (傳)	

<표 2> 국어 자료의 텍스트 유형 확인을 위한 자료(genre) 분류 기준

<표 2>에 근거하여 <표 1>의 자료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자료의 맥락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대화가 아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과시적인 자료이다. 즉 작성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을 보이고 평가받을 것을 전제하고 작성한 자료이다.

셋째, 본 연구에 소용된 자료는 대개 작성자가 매우 구체적이지만, 내용에서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수신자도 대개 구체적이기도, 명시적이기도 않다. 다만 몇몇 글에

서는 작성자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도 한다. 또한 편지글에서는 수신자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넷째, 편지글을 제외하고는 서술문으로서 ‘존대’나 ‘하대’가 중화되는 환경이다.⁶⁾

다섯째, 이들 자료는 계획적 자료이지만, 대개 즉흥적으로 작성되며, 교열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산문 자료이다.

일곱째,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모두 일상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글’이다. <표 2>는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말’, 즉 ‘말’을 말뭉치화한 전사 자료인지, ‘대본’인지, ‘글’인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모두 ‘글’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두기로 한다.⁷⁾

2.2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형태 분석과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자료는 전자 자료로 구성하고,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에 개발하여 보급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2.0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을 하되, 본 연구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SynKDP 1.5.5로 빈도를 추출하였다.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표지 단자(tag set)는 다음 <표 3>과 같다.

	NN	NNG NNP NNB		JK	JKS JKC JKG JKO JKB JKV JKQ
	NP				
	NR				
	VV			JX	
	VA			JC	
	VX				
	VC	VCP VCN		E	EP EF EC ETN ETM
	MM				
	MA	MAG		XP	XPN

6)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서사시제’(이지영 2002)처럼 ‘서사대우’가 존재함을 우리는 짚어두기로 한다.

7) 본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가운데 ‘말’을 녹취한 자료가 두 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생이 쓴 글에 집중하고, 이들 ‘말’ 자료는 추후의 연구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관련 수강생들의 양해를 구한다.

8) SynKDP(‘깜짝새’)에서 빈도를 추출하는 경우, 자모로 시작하는 어절은 어절 빈도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모로 시작하는 형태(예컨대, 종결어미 ‘-버니다’, 명사형 어미 ‘-ㅁ’ 등)는 별도로 계산하여 최종 자료에 합산하였다.

		MAJ		XS	XSA XSV XSA (XSB)
	IC			XR	

<표 3> 형태 분석 표지와 약호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를 일부가 아닌 전체(complete texts)로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형태소에 대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려고 한다.⁹⁾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형태 분석과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세운 기준을 제시하여 두기로 한다.

2.2.1 형태 분석의 원칙

본 연구에서 시행한 형태 분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을 기준으로 일관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담화 기능'을 감안하여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과 같은 최근의 대사전류의 처리 결과도 아울러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과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그렇다면'은 부사로 처리하였는데, 이를 <표준>은 활용형으로 처리했으나, 담화 기능상으로는 '대용'의 의미 기능보다 이른바 '접속'의 기능을 하는 형태적 단위로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고려>처럼 '부사'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 점도 참고하였다.
- (2) 자료에 쓰인 형태가 같더라도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 맥락에 맞는 형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니다고'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기능이 서로 다른 사례가 발견된다. (ㄱ)의 경우는 종결어미 '-니다'(EF)에 인용격조사 '고'(JKQ)가 통합한 사례이고, (ㄴ)의 경우는 연결어미 '-니다고'(EC)의 사례이다.
 - ㄱ. 마침 고등학생들이 영자 책자 제작을 한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12-①)
 - ㄴ. 셋째 이모부는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용돈을 주시고 가셨다.(8)
- (3) 분석 도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1월에 배포한 <지능형형태소분석기 2.0>을 사용하고, 대개의 형태 분석은 일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에 따랐다. 이에 따라 파생어인 용언은 접사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합성용언, 체언복합어는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파생용언의 경우는 특히 어근과 통합하는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일반 명사에 동사나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통합한 사례는 어쩔 수 없이 명사의 분석 결과에서 과분석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9)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접근 방법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오래 전부터 양적 접근법이 갖는 한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차 지적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Ullmann의 지적을 인용한 김상태(1982: 92-93)의 요점을 들어 두기로 한다.

- ㉠ 문체의 민감한 누앙스를 붙잡기에 너무 거칠.
- ㉡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허위의 정확성을 줄 수도 있음.
- ㉢ context의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 ㉣ 질과 양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음. 즉 다양한 요소가 피상적인 동질성의 바탕에서 함부로 분류당할 위험이 있음.
- ㉤ 뻔히 아는 결과를 산출하여 널 때가 있음.

2.2.2 형태소 제시의 원칙

본 연구에서 통계는 형태소별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2.2.1에서 분석한 형태 분석의 결과는 형태소별로 통합함으로써 형태소 분석의 자료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형태소별 분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4) 형태 분석의 결과는 형태소별로 대표형을 정하여 제시한다.
- (5) 각 형태소의 기본형은 음운론적으로 무거운 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원칙은 형태소의 식별이 용이하고, 즉 동음어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알려진 탈락과 같은 음운 현상 적용 등에 얼맞은 장점이 있다.
 - ㄱ. 매개모음을 가진 형태는 매개모음을 가진 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니다’와 ‘-은다’는 ‘-은다’로, ‘으며’와 ‘며’는 ‘으며’로 제시하는 따위이다.
 - ㄴ. ‘란’과 ‘이란’처럼 ‘이-’를 매개로 하는 형태의 경우도 긴 형태인 ‘이란’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 ㄷ. ‘와, 과’의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무거운 ‘과’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 ㄹ. 다만, 매개모음을 가진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라도 ‘을, 를, ㄹ’의 경우에 ‘ㄹ’은 ‘를’에 포함하여 제시한다.
- (6) 음성모음형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어도’와 ‘-아도’ 가운데는 ‘-어도’를 대표형으로 삼는 따위이다.
- (7) ‘ㄷ~ㄹ’의 교체는 별개 형태소로 제시한다. 종결어미 ‘-다’와 ‘-라’의 분포는 서술격조사의 뒤라는 명확한 분포 요건이 존재하므로 한 형태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들을 별개 형태소로 제시함으로써 서술격조사와의 결합 빈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8) 관형사형의 ‘-은’은 선행하는 품사에 따라 동음어적 속성을 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시할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 (9) 형태소별 제시가 무의미한 것은 형태별로 제시한다. 예컨대, 접속조사(JC) ‘과’와 ‘와’라든지, 목적격조사(JKO) ‘을’과 ‘를’은 대개 모순적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다른 조사가 첨가되더라도(JC ‘하고’, ‘랑’ 등), 그 분포를 참고하기 쉬우므로 이들은 형태별로 제시한다.
- (10) 선행 형태소가 음운론적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이형태 출현 조건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통합하여 제시한다. 주격조사(JKS) ‘이’와 ‘가’의 경우, 종결어미(EF) ‘-습니다’와 ‘-습니다’, 종결어미(EF) ‘-는다’와 ‘-니다’는 그 분포를 별도로 따지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므로, 이들은 모두 밑줄 친 형태를 대표형으로 하여 제시한다.
- (11) 같은 범주를 대표하더라도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형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종결어미(EF) ‘-다’와 ‘-니다’는 범주상으로는 직설법이나 중화된 종결어미의 범주를 대표하지만, 선행하는 용언의 품사가 달라 그 형태를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 (12) 준말로 처리될 만한 조사는 본디말이나 중복형을 대표형으로 선정하여 제시한다. 즉, 보조사(JX) ‘는’과 ‘ㄴ’은 ‘는’을 대표형으로 삼고, ‘에서’의 준말로 처리된 ‘서’(‘여기서’의 ‘서’)는 ‘에서’에 통합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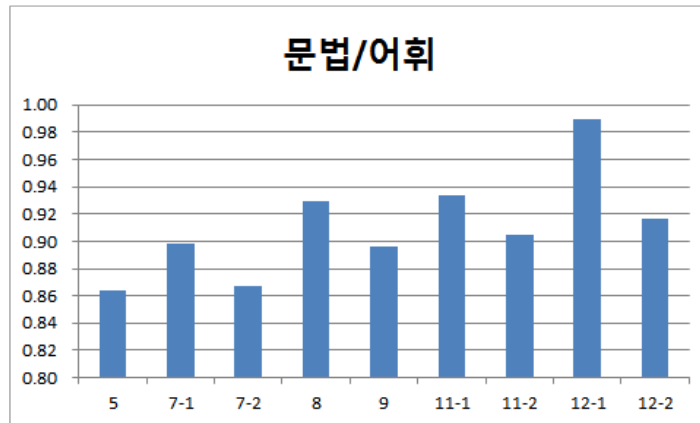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분석한 자료를 대상으로 크게 어휘 부류와 문법 부류로 나누어 이들이 보이는 양상을 서술하고, 그것이 어떤 특징적 현상으로 귀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각 학년별 자료에서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의 비율을 정리하기로 한다. 각 형태소 가운데, 문법 형태소에는 모든 어미와 조사를 포함하되, 서술격조사와 접사는 모두 산입하지 않았다. 어휘 형태소에는 모든 단어를 포함하되, 어근은 포함하고 보조용언은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율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비율	0.864	0.899	0.868	0.930	0.896	0.934	0.905	0.990	0.917

<표 4> 자료별 어휘형태소에 대한 문법형태소의 비율



<그림 1> 자료별 어휘형태소에 대한 문법형태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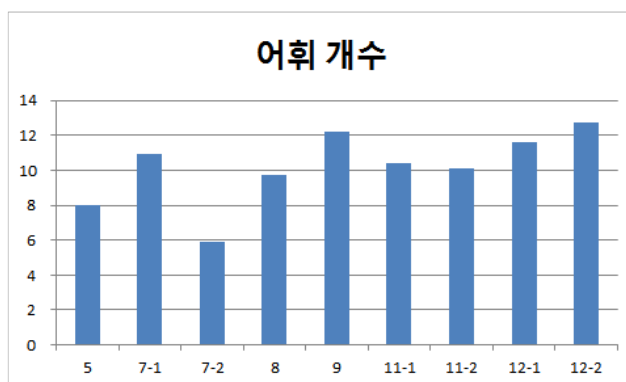
<표 4>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법형태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특히 8학년(중2)을 제외하면 어휘형태소에 대하여 문법형태소가 90%를 전후로 하여 사용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와 유사한 조사이지만 문장당 몇 개의 어절, 즉 몇 개의 어휘가 한 문장 안에 쓰였는지는 다음 <표 5>와 같다. 앞서와 달리 여기서는 보조용언을 어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학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개수	7.99	10.95	5.88	9.73	12.23	10.39	10.12	11.61	12.75

<표 5> 자료별 문장당 어휘의 개수

10) 7-2는 선생님께 보낸 사신(私信)이고, 12-1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자기소개서라는 점에서 다른 글과 장르상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자료별 문장당 어휘의 개수

<표 5>와 <그림 2>에서 보이는 사실 역시, 대개 12학년으로 갈수록 문장 안에 포함된 어절의 개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5>의 내용을 기초사된 문장의 길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와 비교하여 보면, 물결 21에서 조사한 신문 기사의 평균 문장 길이가 대개 13개로 조사된 것을 보면(정유진 외 2013: 18), 학년이 늘수록 문장력이 성인의 그것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휘의 개수가 <표 4>에서 볼 수 있는 문법형태소의 개수와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¹¹⁾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학생의 발달에 비례하는 글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례는 문장을 이루는 어절의 개수보다는 문법형태소와 어휘형태소의 비율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3.1 어휘 부류의 사용 양상

먼저 용언류와 체언류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서술격조사 구문을 잠정적으로 제외하고, 동사문과 형용사문의 서술어가 명사류와 어떤 상대 빈도를 보이는지 점검하기로 한다. 이 상대 빈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였다.¹²⁾

(13) 동사문·형용사문의 서술어와 명사류의 상대 빈도

ㄱ. 상대값: $(NNB+NNG+NNP+NP+NR+XR) - (XSA+XSV) - VCP$

ㄴ. 기준값: $(VA+VV+VCN) + (XSA+X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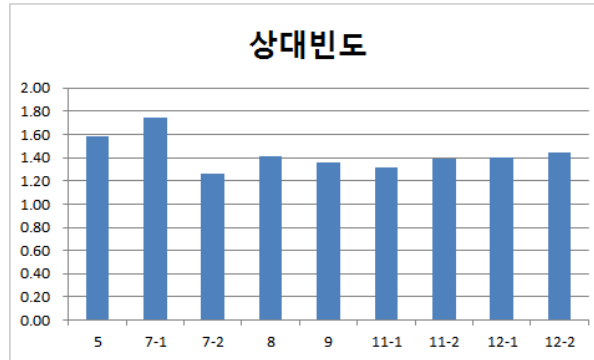
ㄷ. 상대 빈도 = 상대값 / 기준값

11) 보조용언을 계산에서 뺀 경우에도 결과는 <표 4>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보조용언을 산입하였느냐의 여부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12) 여기에서 제시하는 상대 빈도는 정확한 값이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부류를 단위로 해서는 구문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게'와 같은 부사파생접미사(XSB)의 경우에는 파생 부사의 어근이 문장성분을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경우(파생용언이든 근원어든) 용언의 뒤에 접사가 통합하는 경우로 분석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일관되지만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취하였다. 어근(XR)으로 처리된 경우는 '독특, 궁급, 솔직'처럼 대개 고립적인 비활성어근으로서 파생용언의 어간인 경우가 많았다는 경험적 기반에 근거하여 용언 범주로 넣되, 이들은 접사의 수효에서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학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상대빈도	1.58	1.74	1.27	1.41	1.35	1.31	1.39	1.40	1.45

<표 6> 동사문·형용사문의 서술어와 명사류의 상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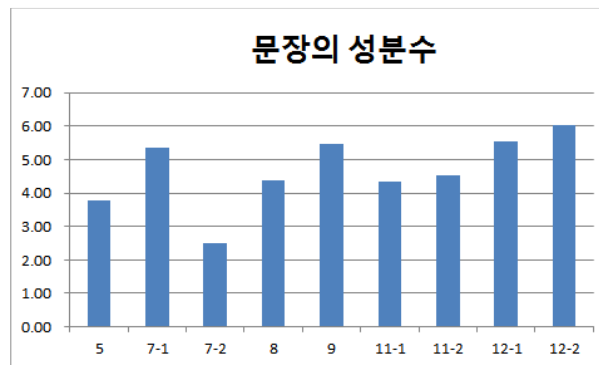


<그림 3> 서술어와 명사류의 상대 빈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비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준값을 종결어미(EF)로만 바꾸어서 검토하면 다음 <표 7>, <그림 4>와 같다.

학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상대빈도	3.77	5.37	2.49	4.39	5.46	4.34	4.52	5.54	6.03

<표 7> 문장당 체언류 성분의 상대 빈도



<그림 4> 문장당 체언류 성분의 상대 빈도

<표 7>, <그림 4>의 전체 경향은 몇몇 유형(9, 11-1, 12-1)을 제외하고는 <표 5>, <그림 2>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어휘 부류별 고빈도 어휘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휘의 계량이 '확률이 높고 낮은 (more or less probable) 어휘 항목을 특정해 내는 작업이라고 할 때(김광해 1994), 빈도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에 의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개별 어휘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휘 총량의 분포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전자의 연구 방법은 기껏해야 1000어절을 넘지 못하는 학생들의 낱말의 글을 대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총량의 분포

에 주목하는 방안을 주로 적용하되, 그 안에서 고빈도를 보이는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고, 기왕의 조사 자료를 대조하여 보이기로 한다. 고빈도 어휘는 되도록 누적빈도 90%에 이르는 어휘까지를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1 체언류

1) 일반명사(NNG)

여기서는 누적빈도 대신 고빈도어 10개를 제시하고, 상위 10위까지의 고빈도어에 대한 누적빈도를 제시하기로 한다.¹³⁾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133	/27	/194	/39	/37	/59	/28	/33	/62
2	/117	/15	/30	/38	/25	/30	/27	/31	/49
3	/102	/14	/25	/22	/24	/23	/26	/29	/29
4	/52	/13	/23	/22	/22	/22	/26	/25	/27
5	/45	/11	/22	/20	/20	/21	/21	/22	/26
6	/41	/11	/17	/18	/20	/19	/20	/19	/25
7	/41	/9	/16	/18	/18	/18	/13	/18	/25
8	/32	/9	/16	/17	/17	/17	/12	/16	/23
9	/19	/8	/16	/14	/15	/17	/11	/12	/15
10	/17	/8	/14	/14	/14	/16	/11	/12	/14
10				/14	/14	/16	/11	/11	/14
10					/14		/11		/14
10					/14				
누적 빈도	44.11	20.80	42.73	19.01	23.58	23.05	17.44	17.76	30.86

<표 8> 고빈도 일반명사(NNG)

<표 8>에서 보인 고빈도어는 학년별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고빈도 상위 10위 안에 든 일반명사는 ‘생각’인데, <고려대>에서는 6위, <국어원I>에서는 ‘생각하다’가 동사 14위, ‘생각’이 명사 13위이고, <국어원II>에서는 전체 70위에 해당하고, 가장 최근의 <물결21>에서는 15위에 해당한다.¹⁴⁾

13) 본 연구에서는 일반명사의 고빈도어는 누적 빈도 90%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2,500어절을 기준으로 하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에서 2회 출현형까지의 누적 빈도가 이미 80%를 넘기 때문에 90%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14) <고려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2000년에 펴낸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I’(김홍규·강범모(2000)을 말한다. <국어원I>과 <국어원II>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조남호 2002)와, ‘현대

<물결21>을 포함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은 네 자료에서 '생각'보다 고빈도 일반명사로 나타나는 명사는 '말', '때', '사람', '일'인데¹⁵⁾, 11-2의 자료가 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상위 10위까지의 누적 빈도는 '11-2 > 12-1 > 8'의 순으로, 각기 20%를 넘지 않았다. 초등 자료인 5와, 선생님께 보낸 짧은 편지글 모음인 7-2에서 상위 10위까지의 고빈도어가 40%를 웃돌았다.

2) 의존명사(NNB)

의존명사는 4회 이상 출현하는 고빈도어를 누적빈도와 함께 보이고, 형태소 1000개당 의존명사의 출현 수와 함께 제시하여 보인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103	/33	/70	/52	/79	/60	/79	/52	/55
2	/29	/15	/7	/15	/22	/15	/47	/29	/31
3	/23	/8	/6	/12	/6	/12	/17	/6	/8
4	/8	/4	/6	/9	/5	/7	/8	/6	/7
5	/7	/4	/5	/4	/5	/6	/7	/5	/7
6	/6	/4	/5	/4	/4	/4	/7		/6
7	/6		/5	/4	/4	/4	/6		/4
8			/4				/5		
9			/4				/4		
10							/4		
출현 횟수	35.27	26.49	27.35	23.04	35.70	27.31	38.37	24.41	33.10
누적 빈도	91.18	80.00	80.58	75.76	79.62	72.00	83.26	74.81	74.68

<표 9> 고빈도 의존명사(NNB)

의존명사는 1000어절당 대략 23~38회 정도 나타난다. 어느 학년에서 어느 정도로 일관성을 보이며 증가하는지 그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표 9>의 고빈도 의존명사 가운데서, 보문구성이나 양태 표현에 사용되는 의존명사(이하 '문법적 의존명사' 또는 'G')가 출현하는 비율을 1000 형태소당 출현 횟수로 환산하여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김한샘 2005)를 가리킨다. <물결21>은 '신문의 언어 사용 통계'(정유진 외 2013)을 줄여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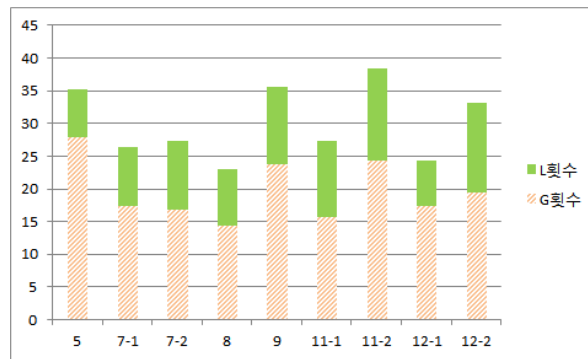
15) 이들 어휘가 표시된 칸에는 위아래에 음영을 두어 비교해 보기 쉽도록 제시하였다.

16) <물결21> 등의 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글쓰기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기성(既成)의 글쓰기와 유사한가를 보인 데 지나지 않는다. 대규모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빈도와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작금의 기성 글쓰기에 대한 사회화 정도를 보이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유사성이 반드시 좋은 글쓰기의 척도가 되리라고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103	/33	/70	/52	/79	/60	/79	/52	/55
2	/29	/15	/6	/15	/22	/15	/47	/29	/31
3	/23	/8	/5	/12	/4	/7	/7	/6	/7
4	/6		/5	/4		/4	/7	/6	
횟수	35.27	26.49	27.35	23.04	35.70	27.31	38.37	24.41	33.10
G횟수	27.98	17.45	16.92	14.49	23.87	15.66	24.31	17.33	19.48
G비율 (%)	79.33	65.87	61.86	62.89	66.86	57.34	63.36	71.00	58.85

<표 10> 고빈도 문법적 의존명사(G)의 1000 형태소당 출현 횟수

보문구성이나 양태 표현에 사용되는 고빈도 의존명사 가운데 ‘것’의 사용빈도는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초등 자료와 편지글에서 ‘것’의 사용빈도는 다른 문법적 의존명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8, 9학년 자료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인 의존명사 가운데 고빈도 문법적 의존명사의 출현 빈도와 점유율을 보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고빈도 의존명사는 빗금 부분, 단위는 1000형태소당 출현횟수)



<그림 5> 의존명사 종류별 출현 횟수

문법적 의존명사의 점유 비율은 초등 자료와 편지글 자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초보적 수준에서 의존명사를 활용하는 문법적 표현은 ‘것’을 압도적으로 사용하던 데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의존명사는 대체로 ‘것 > 수 > 때문 > 중’의 점유율을 보이는 방향으로 굳어져 감을 볼 수 있다.

3) 대명사(NP)

본 조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 대명사(NP)는 대개 10개 정도가 쓰였다.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전체 수량을 보이기로 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21	/26	/78	/89	/44	/99	/46	/66	/45
2	/17	/9	/34	/24	/12	/16	/32	/7	/34
3	/16	/5	/20	, /3	/4	/8	/25	/4	/5
4	/9	/4	/5	, , /2	, , /2	/3	/20	/3	/3
5	/7	/3	/4	, , , /1	, , , /1	, , , /2	/7	, , /2	, /2
6	/6	, /2	/3			, , /1	/5	, , /1	/1
7	/3	, , /1	, /2				, /4		
8	/2		, , /1				, , /3		
9	, /1						, , /2		
10							, , /1		
빈도	15.46	18.07	32.07	24.26	17.28	27.86	32.30	17.52	20.53

<표 11> 대명사(NP)의 사용 현황

<표 11>에서 보이는 대명사의 사용 양상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인칭 대명사와 겸양법이 반영된 대명사의 사용 양상이다. 화맥 지시적인 1인칭 대명사¹⁷⁾ ‘나, 우리, 저, 저희’의 사용량을 다음 <표 12>로 제시하기로 한다.

17) ‘자신’은 화맥지시적이기보다 조용적 대명사이다. 생성문법의 예외적격표시(ECC)와 관련하여 성분통어에 관여하는 장벽이론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 들어맞는 대명사는 ‘자신’으로 논의가 되었다. 물론 ‘자신’을 포함하여 국어의 대명사는 영어와 달리 조용이나 공지시와 관련하여 영어와 달리 그렇게 형상적(configurational)이지 않아서, 생성문법적 설명이 완성되기 어렵지만, ‘자신’이 화맥지시보다 조용에 의하여 결속(binding)되는 현상이 많음은 이미 익히 지적되어 온 바다(대표적으로 최석재 2000을 참고).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인칭	56	35	137	113	56	115	91	75	79
대명사 출현	89	58	163	139	76	153	186	94	98
점유율 (%)	62.92	60.34	84.05	81.29	73.68	75.16	48.92	79.79	80.61

<표 12> 전체 대명사 중 화맥 지시적 1인칭 대명사의 사용량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글쓰기가 ‘객관화된 서술’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검양의 대명사 ‘저, 저희’를 사용한 글쓰기 역시 같은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 저희’가 사용되지 않은 7-1, 8, 9, 11-1, 12-2를 여타 대상과 나누어 평가해 볼 수 있다.¹⁸⁾

이와 같은 척도로 평가해 볼 때, 총 대명사 가운데 3/4 정도로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비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오차 범위 안에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표 11>에서, ‘저, 저희’가 사용되지 않은 자료의 대명사 사용량은 1000형태소 당 20회 가량으로 사용량이 비교적 균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

3.1.2 용언류

1) 동사(VV)

본 조사의 대상 자료에서 동사(VV)는 고빈도 10개의 동사와 그 출현 횟수와 누적 빈도를 제시하기로 한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겠으나, 고빈도 동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 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한 수준까지 줄어든다. 12-2를 제외하고는 대략 30% 초반대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동사의 타입(type수)인데, 괄호 안에 1000형태소당 동사의 타입 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을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동사의 종류가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12학년(고3)에서는 그 전에 비하여 타입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18) ‘나, 우리’와 달리, ‘저, 저희’는 대용량 자료를 대상으로 한 대명사 빈도 조사에서도 그 순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고려대>의 경우, ‘나, 우리’가 각기 2위와 3위 고빈도 대명사인 반면, ‘저’는 14위, ‘저희’는 78위이고 그 출현 빈도는 ‘나, 우리’의 1/10 수준으로 나타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100	/23	/50	/68	/84	/38	/42	/58	/63
2	/27	/18	/38	/37	/12	/27	/20	/24	/25
3	/17	/13	/30	/21	/11	/19	/18	/17	/23
4	/16	/10	/19	/20	/11	/13	/15	/16	/22
5	/14	/7	/17	/20	/10	/10	/13	/13	/17
6	/10	/7	/14	/19	/8	/10	/10	/11	/12
7	/10	/6	/14	/18	/8	/10	/9	/11	/11
8	/9	/6	/12	/13	/7	/9	/8	/9	/10
9	/8	/6	/8	/12	/7	/9	/7	/9	/9
10	/7	/6	/8	/12	/7	/8	/7	/8	/9
10	/7	/6	/8			/8	/7	/8	/9
출현 횟수	218 /410	102 /259	210 /454	240 /587	165 /360	153 /493	149 /495	176 /486	201 /438
동사 %	71.24	80.71	89.33	102.44	81.86	89.77	85.95	90.57	91.75
type 수	114 (19.81)	114 (35.53)	124 (24.40)	181 (31.59)	127 (28.88)	194 (35.32)	218 (37.85)	163 (30.38)	131 (27.44)
누적 빈도	53.17	39.38	46.26	40.89	45.83	31.03	30.10	36.21	45.89

<표 13> 고빈도 동사(VV)

기왕의 대단위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비교하면 동사 '있다'가 고빈도로 올라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고,¹⁹⁾ 대개 '하다 > 되다 > 보다 > 대하다²⁰⁾'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음도 확인된다.²¹⁾ 12-2를 제외하면 특히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동사가 11~12학년의 자료에서 고빈도로 형성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2) 형용사(VA)

형용사 역시 동사와 마찬가지로 자료량과 빈도를 제시한다.

19) 본 조사에서 '있다'는 모두 형용사로 분류되었다. <고려대>의 경우를 제외하면 '있다'는 대개 형용사로 일괄 분류하였다.

20) '대하다'가 고빈도 동사에 들어 있는 것은 '형태소 분석기'라는 기계적인 분석 장치를 사용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대하다'는 '대하여, 대해서' 정도의 활용형으로 사용되는 동사로서,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흔히 '동사'라는 직관으로 선뜻 떠올리기 쉽지 않은 단어이다.

21) 이런 경향 역시, 앞서 각주 16)에서 서술한 것처럼 '글쓰기의 사회화'에 따라 일어난 경향으로 볼 개연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경향이 잘 쓰는 글과 직접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렵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55	/23	/34	/37	/32	/40	/67	/49	/42
2	/41	/12	/19	/22	/32	/21	/24	/15	/24
3	/29	/5	/15	/19	/22	/17	/15	/10	/18
4	/16	/5	/14	/12	$\frac{1}{7}$	/13	/13	/7	/13
5	/13	/4	/13	/10	/11	/11	/11	/7	/10
6	/7	/3	/9	/10	/8	/11	/8	/7	/6
7	/7	/3	/8	/7	/8	/9	/7	/5	/5
8	/7	/3	/7	/6	/5	/7	/5	/5	/5
9	/6	/2	/7	/5	/4	/6	/5	/5	/4
10	/6	/2	/7	/4	/4	/5	/3	/4	/4
10		/2			/4		/3		/4
출현 횟수	187 /231	62 /88	133 /194	132 /197	143 /198	140 /223	158 /206	114 /159	131 /191
VA %	40.14	27.42	38.17	34.38	45.02	40.60	35.77	29.63	40.01
type 수	41 (7.12)	34 (10.60)	51 (10.04)	53 (9.25)	40 (9.10)	64 (11.65)	46 (7.99)	43 (8.01)	45 (9.43)
누적 빈도	80.95	70.45	68.56	67.01	72.22	62.78	76.70	71.70	68.59

<표 14> 고빈도 형용사(VA)

형용사는 전체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고 하기 어려운 어휘 부류이고, 주제나 장르에 따라서 그 출현 빈도도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1000 형태소당 형용사 타입의 출현수는 7~11학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고, 대신 11~12학년 자료에서는 다른 자료에서보다 출현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대용량 말뭉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료 분석에서 형용사는 ‘있다 > 없다 > 같다 > 그렇다’ 정도의 순위를 보인다. 우리의 조사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순위로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다’에 비하여 ‘없다’가 고빈도로 나타나는 학년의 자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있다, 없다, 같다, 그렇다’ 등의 형용사 역시 양태 범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데, 이들 형용사는 특히 9, 11-1에서 고빈도를 차지하지 못할 뿐, 대개 고빈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보조용언(VX)

보조용언의 경우 상위 10개 용언의 분포를 보이기로 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47	/26	/35	/28	/22	/27	/30	/32	/19
2	/45	/19	/21	/21	/16	/25	/24	/29	/16
3	/21	/14	/17	/19	/15	/24	/23	/24	/15
4	/15	/12	/12	/19	/13	/18	/22	/21	/14
5	/12	/11	/9	/14	/12	/18	/18	/12	/12
6	/10	/9	/9	/13	/10	/16	/17	/11	/10
7	/6	/7	/8	/12	/9	/11	/9	/11	/7
8	/5	/6	/8	/9	/7	/7	/8	/7	/7
9	/5	/5	/7	/7	/6	/7	/6	/7	/6
10	/2	/4	/5	/5	/3	/7	/6	/6	/6
10	/2			/5					
출현 횟수	168 /172	113 /128	131 /146	147 /177	113 /117	160 /176	163 /182	160 /177	112 /119
VX %	29.89	39.89	28.73	30.89	26.60	32.05	31.60	32.99	24.93
type 수	13 (2.26)	17 (5.30)	15 (2.95)	21 (3.66)	14 (3.18)	18 (3.28)	18 (3.13)	18 (3.35)	13 (2.27)
누적 빈도	97.67	88.28	89.73	83.05	96.58	90.91	89.56	90.40	94.12

<표 15> 고빈도 보조용언(VX)

<고려대>와 같은 경우, 보조용언은 ‘있다 > 하다 > 앓다 > 지다 > 주다’ 등의 차례로 빈도를 보인다. 이 다섯 보조용언의 누적 빈도는 66% 정도인데, <표 15>에서처럼 상위 10개로 늘리면 82.9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표 15>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경향이 다른 방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초등 5학년에서부터 중등 8학년 정도까지는 보조용언 상위 10개의 누적빈도가 점차 감소하여 80% 초반으로까지 줄어드는 한 경향이 있지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8학년까지는 글쓰기에서 보조용언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다양성을 늘려가는 방향을 보이는 반면, 9학년부터는 보조용언 사용이 일부로 한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 1000 형태소당 보조용언 출현 비율이라든지, 보조용언 타입의 전체 개수와 그 출현 비율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 각각의 장르와 주제, 완성도에 따라서 출현 양상에 개별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3.1.1 수식언류

1) 일반부사(MAG)

부사는 일반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누어 제시한다. 일반부사는 고빈도 부사 10개를 보이기로 하고, 각각이 나타나는 횟수와 1000 형태소당 출현 수, 타입 수, 누적 빈도를 <표 16>으로 보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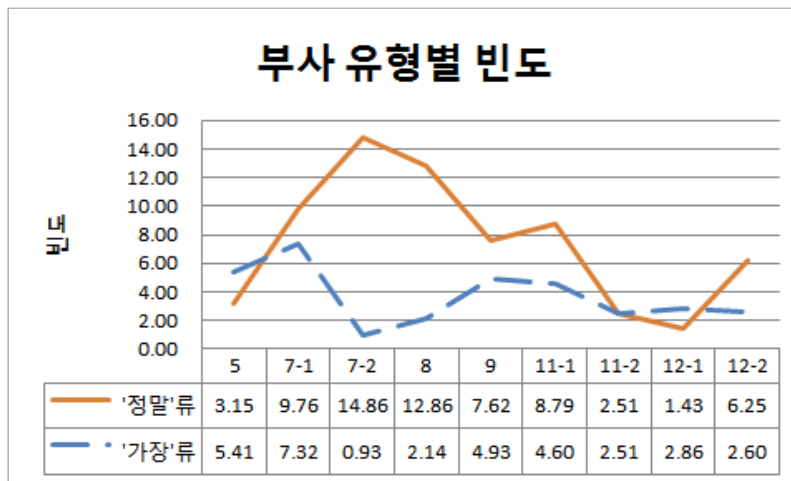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24	/7	/27	/20	/18	/17	/17	/12	/21
2	/13	/5	/22	/17	/11	/10	/6	/9	/11
3	/13	/5	/21	/17	/9	/8	/6	/5	/10
4	/11	/3	/15	/16	/9	/7	/5	/5	/9
5	/9	/3	/15	/13	/8	/7	/4	/4	/7
6	/8	/3	/13	/11	/8	/6	/4	/3	/7
7	/8	/3	/12	/10	/8	/5	/4	/3	/5
8	/7	/2	/10	/7	/8	/5	/3	/3	/5
9	/7	/2	/9	/7	/7	/5	/3	/3	/5
10	/6	/2	/8	/7	/6	/5	/3	/3	/4
10	/6	/2	/8		/6		/3	/3	/4
출현 횟수	106 /222	35 /82	152 /323	125 /280	92 /223	75 /239	49 /199	50 /140	84 /192
MAG %	38.58	25.55	45.65	48.87	50.70	43.52	34.55	26.09	40.22
type 수	76 (13.21)	50 (15.58)	88 (17.32)	103 (17.98)	87 (19.78)	119 (21.67)	125 (21.71)	76 (14.16)	87 (18.22)
누적 빈도	47.75	42.68	47.06	44.64	41.26	31.38	27.64	35.71	43.75

<표 16> 고빈도 일반부사(MAG)

대용량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에서 일반부사는 ‘더 > 다시 > 잘 > 안’의 순서로 고빈도를 보이며 나타난다. <표 16>의 표시된 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부사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들 고빈도 부사가 고빈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부정부사 ‘안, 못’의 분포는 그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반면, 강조부사인 ‘정말’, ‘너무’와, ‘가장’, ‘아주’, ‘꼭’의 분포 변화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듯하다.²²⁾ 이들 두 부류의 부사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22) 직관적으로 ‘정말’과 ‘너무’는 비교적 구어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아주’, ‘꼭’은 문어적으로 사용되는 부사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문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직 관찰적으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지만, 글쓰기의 훈련량과 관련하여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일 개연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림 6> ‘정말’류와 ‘가장’류의 출현 빈도

‘정말’류 부사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가장’류는 고빈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채로 2%대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이는 결국 ‘정말’류 부사는 12학년에 가까이 갈수록 사용 빈도가 주는 반면, ‘가장’류 부사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2) 접속부사(MAJ)

접속부사는 형태만으로는 그 쓰임새나 텍스트 안에서의 의미를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에서 접속부사는 그 사용 횟수에서부터 타입까지도 많은 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접속부사를 복수로 나타난 사례를 되도록 모두 제시하고, 이들이 보이는 특성을 대단위 자료를 검토하여 제시된 논의들과 비교하여 보이기로 한다.

본 조사의 대상 자료에서는 최고 빈도 접속부사로 대개 ‘그리고, 그래서, 또’와 같은 부사가 사용되었다. ‘그래도, 하지만’ 등의 부사가 바로 다음 순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래서, 또’와 같은 접속부사가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는 담화 유형은 한송화(2013)에 의하면 ‘사적 독백’이나 ‘강의/연설’의 유형에서 확인되는 유형이다. 특히 ‘그래서, 그리고’ 등이 최고빈도 접속부사로 사용되는 담화 유형은 이들 유형 외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23) ‘정말’류 부사와 ‘가장’류 부사는 본 발표에서 임의적인 유형 분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특히 ‘정말’류 부사에 대한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이들의 점유율 감소는, 문어에 의한 글 쓰기 교육이 ‘글’에 반영되는 성과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12-2가 보이는 글의 특이성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두 부사류의 점유율의 차(‘정말’류 점유율 - ‘가장’류 점유율)에 특히 주목할 수 있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22	/9	/13	/20	/10	/12	/10	/12	/5
2	/18	/8	/8	/8	/5	/12	/4	/10	/5
3	/15	/2	/5	/5	/3	/9	/4	/3	/5
4	/6	/2	/5	/4	/3	/5	/3	/3	/4
5	/6	/2	/2	/3	/2	/4	/3	/3	/3
6	/4		/2		/2	/3	/2	/2	/3
7	/3				/2	/2	/2	/2	/2
8						/2	/2		/2
출현 횟수	80/87	23/25	35/40	40/49	27/31	49/54	30/38	35/38	29/30

<표 17> 접속부사(MAJ)의 분포

반면, 한송화(2013)의 ‘사적 독백’, ‘강의/연설’ 담화 유형에서 보인 바와 달리, 논리적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유형의 접속 부사의 사용은 본 조사에서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었다.²⁴⁾

3) 관형사(MM)

관형사 부류는 사용량이 많지 않고, 사용되는 관형사 어휘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다. 복수로 사용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표 18>에 제시하고, 이들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여 두기로 한다.

대용량 말뭉치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개 ‘이 > 한 > 그 > 두’의 순서(<물결 21>), 또는 ‘그 > 이 > 한 > 두’의 순서(<고려대>, <국어원I>)²⁵⁾로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 검토한 자료에서는 ‘그, 한, 이’가 대개 고빈도 관형사로 쓰인다.

‘그, 이’와 ‘그런, 이런’은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와 관련하여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는 대개 선행하는 대상(흔히 체언으로 실현되는)을 다시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그런, 이런’은 선행하는 사태(흔히 용언으로 실현되는)를 다시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24) 이들 접속부사가 발견되는 경우는 5학년, 7학년 자료에서 발견된 것이 전부이지만, 이들 또한 2, 3회 정도로 발견될 뿐이다. 우리는 글쓰기 교육(내지는 글쓰기 방식의 사회화)을 유형화하고, 학습자가 접해야 할 문어 자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바, 여기에는 어휘 유형별 고찰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를 이상의 어휘 유형의 분포가 일러준다고 이해하려 한다.

25) <국어원I>에서는 ‘그 > 이 > 한 > 그런 > 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10	/26	/7	/18	/11	/69	/32	/15	/16
2	/10	/18	/6	/7	/6	/14	/26	/9	/11
3	/9	/9	/5	/5	/5	/12	/11	/8	/9
4	/5	/6	/3	/5	/5	/4	/9	/4	/5
5	/5	/4	/3	/4	/4	/4	/6	/3	/4
6	/5	/3	/2	/4	/3	/3	/6	/2	/4
7	/3	/3		/3	/2	/3	/5	/2	/4
8	/2	/2		/3	/2	/3	/4	/2	/4
총 MM	59	81	30	87	49	137	133	52	77

<표 18> 관형사(MM)의 분포

요컨대 이들 관형사는 사태를 중심으로 연계 관계를 상징하는 글쓰기인지, 대상 중심의 연계 관계를 상징하는 글쓰기인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료에서 이들 관형사의 상대 빈도는 특히 8학년 이후로는 ‘그, 이’ 계열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은 피수식 명사로 추상명사가 어떤 비율로 사용되는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2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

본 조사에서 문법 형태소는 크게 조사류와 어미류에 대해서만 보이기로 하고, 접사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접사류의 경우에는 단어 형성의 부류와 함께, 통사의미적 기능을 하는 통사적 접사 부류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문법 형태소는 범주별로 종합하여 다루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테면, 연결어미는 절 접속의 연결어미와, 보조적 연결어미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다. 나아가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용언과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²⁶⁾ 어휘와 문법 형태소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본 발표는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탐구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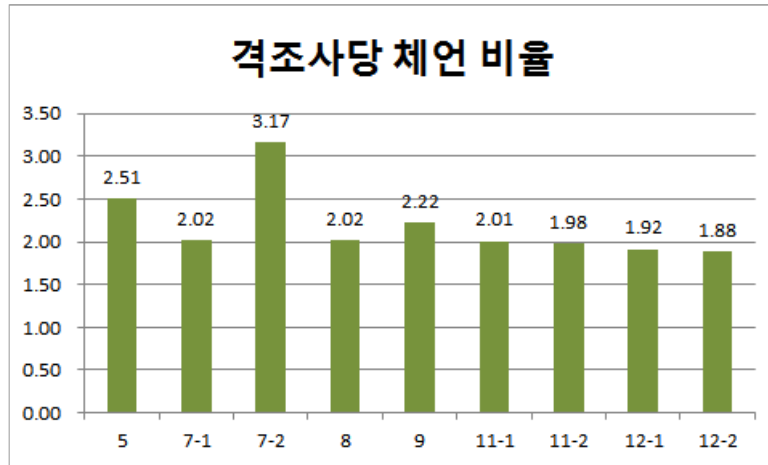
3.2.1 조사류

조사의 사용 양상은 격조사류(JKB, JKG, JKO, JKS, JKV, JC)²⁷⁾가 체언류(NNB, NNG, NNP,

26) 개념 중심으로 논의 대상을 확정하고, 여기에 형태를 대입하여 검토하는 연구 방법이 현상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다가서 있다고 본 연구는 보고자 한다. 어휘의 연구 방법에서 이런 연구 방법을 onomasiology라고 하였는 바, 이와 유사하게 통사·의미적, 혹은 담화화용적 관점에서 문법론에 대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춘 설명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7) JKB를 비롯한 이들 약어에 대해서는 앞서 <표 2>를 참고. 다만 격조사 가운데 인용격조사(JKQ)는 문장,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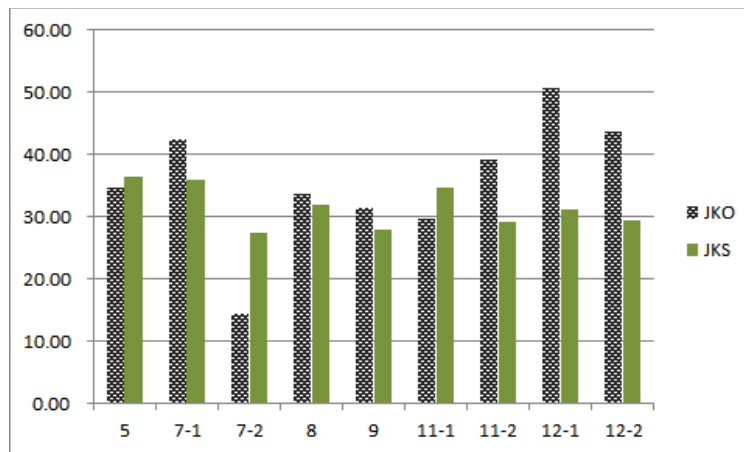
NP, NR, SN)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7> 전체 체언류 대비 격조사의 비율

<그림 7>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체 체언류에 대하여 격조사가 사용되는 비율은 1.9 정도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 자료인 5와, 편지글인 7-2 자료에서는 비교적 격조사 사용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과시성이 떨어지게 되는 글투의 쓰기 환경에 관련되는 현상으로 보인다.²⁸⁾

이와 같은 안정화 경향은 대표적인 구조격 조사인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며 나타난다.



<그림 8>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실현 경향

<그림 8>은 1000개 형태소당 주격조사(JKS)와 목적격조사(JKO)가 몇 개 정도씩 실현되는지를 보인 도표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격조사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현되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안정화 경향을 보이는 주격조사와는 다른 경향

종결어미(EF)에 통합하는 것이 주가 되므로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28) 다년간 고등학교에서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하여 온 경험에 의하면, 특히 격조사를 꼬박꼬박 갖추어 쓰는 방식의 글쓰기가 여러 번 교열을 거친 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런 경향을 수정하여 주는 지도가 이루어져 분량을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글로 완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11~12학년에서 이런 상반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어휘격조사의 대표격이라고 할 만한 부사격조사는 그 빈도와 종류,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77	/34	/53	/147	/90	/107	/107	/115	/106
2	/27	/30	/23	/50	/33	/36	/52	/49	/51
3	/28	/29	/22	/21	/26	/32	/37	/25	/24
4	/9	/13	/10	/15	/20	/22	/22	/19	/23
5	/8	/7	/10	/10	/9	/19	/18	/19	/14
6	/8	/3	/9	/6	/7	/9	/10	/8	/6
7	/3	/2	/5	/6	/4	/6	/5	/4	/5
8	/2	/2	/5	/5	/3	/4	/4	/3	/4
9	/2	/1	/4	/4	/3	/2	/4	/3	/2
10	/1	/1	/3	/2	/2	/1	/1	/1	/2
10	/1	/1	/2	/2	/2	/1	/1	/1	1
JKB %	29.37	38.64	29.52	47.47	45.93	43.52	45.49	46.03	49.85
type 수	14 (2.43)	12 (3.74)	15 (2.95)	15 (2.62)	14 (3.18)	11 (2.00)	12 (2.08)	11 (2.05)	11 (2.30)
type- token	0.082	0.097	0.100	0.055	0.069	0.046	0.046	0.045	0.046

<표 19> 고빈도 부사격조사(J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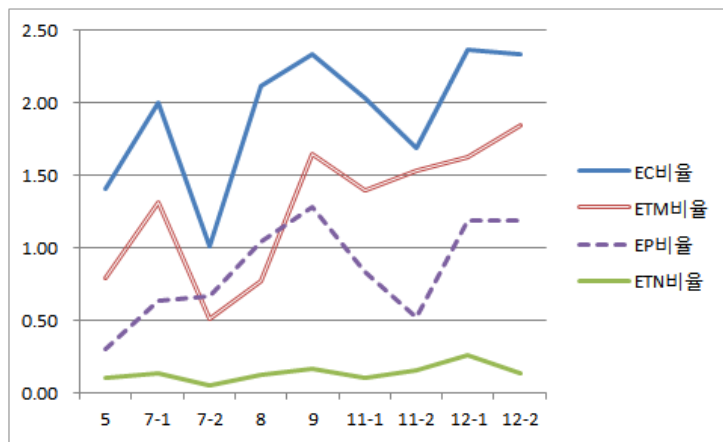
<표 19>가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0개 형태소가 나타날 때 부사격조사는 총 29개~49개 정도가 나타나는데, 8~12학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JKB %). 각 학년 자료에서 부사격조사는 11개~15개 종류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종류는 줄어든다. 이는 1000개 형태소에서 나타나는 부사격조사의 종류도 두 개를 가까스로 넘는 정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한 부사격조사가 쓰이는 전체 빈도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타입토큰비).

3.2.2 어미류

어미류의 전체 분포를 통하여 복문의 비율을 점검하여 보기로 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EF	367	148	427	298	181	264	285	223	186
EC	515	296	432	630	423	536	481	529	435
ETM	292	195	219	231	298	369	436	362	343
ETN	38	20	23	39	30	29	44	58	26
EP	111	95	285	310	233	221	149	266	222

<표 20> 어미의 출현 양상



<그림 9> 1문장당 어미의 평균 출현 수

<그림 9>²⁹⁾에서는 종결어미를 문장의 구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때, 연결어미(EC), 관형사형어미(ETM), 선어말어미(EP), 명사형어미(ETN)의 비율을 보였다. 5, 7-2, 11-2에서 특별히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 문장 안에 비종결어미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9학년까지의 비교적 저학년에서는 연결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서로 상관관계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으며, 11~12학년에서는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 어미의 분포에 대하여는 연결어미의 분포만을 보이기로 한다. 연결어미는 고빈도 10개의 목록과 누적 빈도를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대용량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고빈도 어미는 '아/어 > 고 > 게 > 지'의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21>에서 표시하여 보인다.

29) <그림 9>는 선 그래프로 보였기 때문에 5학년으로부터 12학년에 이르기까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림 9>는 엄격한 의미의 '추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각 학년을 반영하는 자료의 상대적인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부득이 선 그래프를 그려 보인 것이다. <그림 9>가 추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학년 순위	5	7-1	7-2	8	9	11-1	11-2	12-1	12-2
1	/97	/86	/119	/178	/99	/125	/133	/139	/105
2	/85	/67	/75	/107	/88	/124	/107	/126	/78
3	/71	/33	/48	/67	/35	/55	/41	/58	/43
4	/70	/18	/36	/43	/35	/35	/29	/28	/39
5	/45	/14	/25	/29	/24	/32	/25	/21	/26
6	/27	/12	/19	/26	/22	/22	/21	/21	/25
7	/27	/10	/17	/25	/18	/18	/17	/20	/24
8	/11	/10	/12	/21	/15	/15	/16	/14	/17
9	/10	/9	/12	/14	/11	/12	/13	/12	/16
10	/6	/6	/11	/13	/11	/10	/10	/12	/12
10	,		/11						
출현 횟수	449 /515	265 /296	347 /432	523 /630	358 /423	448 /536	412 /481	451 /529	385 /435
EC %	89.49	92.24	85.01	109.95	96.18	97.60	83.52	98.58	91.12
type 수	38 (6.60)	27 (8.41)	32 (6.30)	39 (6.81)	38 (8.64)	45 (8.19)	37 (6.42)	31 (5.78)	32 (6.70)
누적 빈도	87.18	89.53	86.57	83.02	84.63	83.58	85.65	85.26	8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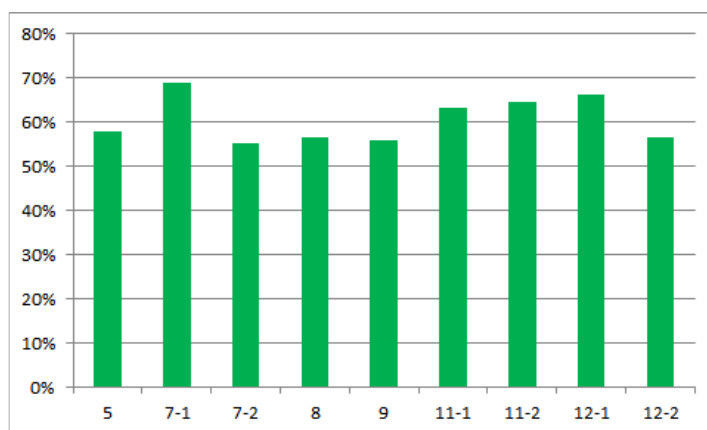
<표 21> 고빈도 연결어미(EC)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양은 8학년 자료부터 급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그 다양성은 특히 9학년과 11학년에서 다른 학년의 경우보다 1.5개 이상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결어미 ‘-어, -고, -게, -지’의 빈도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보조적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용법을 주요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본 조사의 대상 자료에서도 이들은 최고빈도의 연결어미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어, -고, -게, -지’의 보조적 연결어미는 주로 동작상이나 피·사동과 관련한 문법 범주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즉, 이들 연결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들 문법 범주를 사용하는 정도와 상관관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이 비율을 <표 22>, <그림 10>으로 보이기로 한다.

	5	7-1	7-2	8	9	11-1	11-2	12-1	12-2
점유 율	57.86	68.92	55.09	56.67	56.03	63.25	64.45	66.35	56.55

<표 22> 연결어미 가운데 ‘-어, -고, -게, -지’의 비율



<그림 10> 연결어미 가운데 '-어, -고, -게, -지'의 비율

<표 22>와 <그림 10>에서 보이는 비율은 7-1과 12-2를 제외하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60% 기준으로 9학년 이전과 11학년 이후로 구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에서 보였던 자료별 특성과 편차와 달리 상당히 일정한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4) 요약을 대신하여

이 발표의 궁극적 목적에 값하기 위하여, 앞서 조사에서 시사하였던 몇 가지 경향에서 추적해 볼 만한 몇 가지 경향을 과제로 확인하여 두고자 한다. 다만, 특히 몇몇 자료(이를 테면, 5, 7-2, 11-2, 12-2 등)에서는 일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음을 전제하여 두고자 한다.

(14) 언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의심하여 볼 사항

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띠는지 추적해 볼 사항

- ① 어휘 형태소에 비하여 문법 형태소의 비율이 증가해 가는가: <표 4, 그림 1>
- ② 고빈도 의존명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가: <표 9>(9, 11-2 제외)
- ③ 동사의 type 수는 증가하는가: <표 13>(12 제외)
- ④ '그리고' 계열의 나열 접속부사는 고빈도로 유지되는가: <표 17>
- ⑤ 문장당 어미의 평균 개수는 증가하는가: <그림 9>(7-2, 11-1, 11-2 제외)
- ⑥ 고빈도 어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용량 말뭉치의 순서로 수렴하는가('생각' 제외)

나. 8~9학년을 고비로 대립적 경향을 추적해 볼 사항

- ⑦ 고빈도 일반명사의 누적빈도: <표 8>(5, 7-2, 12 제외)
- ⑧ 고빈도 보조용언의 점유율: <표 15>

다. 11(9)~12에서 일관성을 보이는지 추적해 볼 사항

- ⑨ 문장당 어휘의 개수: <그림 2>
- ⑩ 서술문 명사류의 상대 빈도: <표 6, 그림 3>
- ⑪ 문장당 체언류 성분의 상대 빈도: <표 7, 그림 4>
- ⑫ 1인칭 대명사의 사용량: <표 12>(11-2 제외)

- ⑬ 형용사의 1000형태소당 타입 수는 줄어드는가: <표 14>
- ⑭ '정말'류 부사는 줄어들고, '가장'류 부사는 일정한가: <그림 6>
- ⑮ 격조사당 체언의 비율은 9학년부터 하향세인가: <그림 7>
- ⑯ 목적격조사는 증가하는가: <그림 8>
- ⑰ 부사격조사의 타입 수는 증가하는가: <표 19>
- ⑱ '-아, -게, -지, -고'가 연결어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느는가: <그림 10>

4.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전주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5학년 7~9학년, 11~12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대상으로 계량적 방법으로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여 보려고 하였다.

언어 능력 변향을 추출하려는 시도로 접근한 것이지만, 글쓰기 자료에 대하여, 또한 본 조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평가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조사는 '연구'의 단계로 탐구되지 않은 자료로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쓰기 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와 함께 본 자료에서 보인 통계 결과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전제함으로 인하여, 본 발표는 추가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소규모 자료를 객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말, 글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본 발표의 목적이 있다. 본 발표의 인접 지역인 전주 시내는 물론, 전라북도 도·농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조사와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광해(1994), '문체와 어휘'. 박갑수 편저,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2005-1-33, 서울: 국립국어원.
- 김흥규/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안예리(2013),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안예리·이주현(2014), '20세기 문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3. 229~265쪽.
- 이영제·강범모(2014), "현대국어 역사 코퍼스를 이용한 언어 변화의 계량적 연구".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3. 267~303쪽.
- 李知英(2002), '서사시제에 대하여-서사의 현재시제를 중심으로', 朝鮮語研究會 編, 『朝鮮語

- 研究 1』, くろしお出版. 147~166쪽.
- 정유진·김일환·강범모·김흥규(2013), *신문의 언어 사용 통계*, 서울: 소명출판.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1-17,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한송화(2013),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언어사실과 관점』(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1. 139~169쪽.
- 황석자(1984), *현대문체론*. 서울: 한신문화사.
- Biber, Douglas(2012), Register and discourse analysis. in James Paul Gee & Michael Handfor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91~208.
- Biber, Douglas & Susan Conrad(200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토론문>

진대연(호원대)

서형국 선생님의 “양적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능력 측정 변항 추출 - 중등학교 학생의 언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는 먼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의의를 언급한 후 몇 가지 질문과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연구자께서는 학생이 작성하고 평가를 받은 작문 말뭉치를 토대로 언어 특성을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텍스트를 바탕으로 계량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전주 지역 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양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자료를 일정한 양으로 축적하고 양적 접근법을 일관되게 시행하여 여기서 발견되는 현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셨습니다.

본론의 내용은 2장의 ‘기본 사항(자료, 분석)’과 3장의 ‘분석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형태 분석의 원칙과 형태소 제시의 원칙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휘 부류의 사용 양상(체언류, 용언류, 수식언류)과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조사류, 어미류)을 분석하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자료를 객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말, 글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는 물론 전라북도 도·농 지역 중등학교 학생의 글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께서도 밝히고 계시듯이 이 발표에서 포함하신 조사(와 그에 사용된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언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의심하여 불 사항’으로 정리하신 18개의 항목은 각각이 매우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에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하시거나 보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 또는 요청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발표의 제목이나 본문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연구자께서 학생의 작문 말뭉치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언어 능력 측정을 위한 변항’을 추출하실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사용 양상’의 기술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연구자께서는 당초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연구 계획 또는 일정을 갖고 계신지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둘째, 연구자께서는 특정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쓰기 능력이 일치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발표에서 학생의 작문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면 언어 능력과 쓰기 능력이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공존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면서 동시에 언어 능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언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의심하여 볼 사항’으로 정리하신 18개의 항목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 가운데는 언어 능력의 측정 변항과 직결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항목은 언어 능력 또는 쓰기 능력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파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18개 항목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이 발표에서는 5학년, 7~9학년, 11~12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자료로 다루었는데 머리말 등 글의 일부에서는 ‘중등학교 학생’의 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평가는 질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는 양적 평가를 통해’라고 기술된 부분은 과도한 이분법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1> 등에서 자료의 목록과 자료량을 밝히고는 있지만 자료 수집의 방법과 절차가 그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소 지엽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수정 또는 보완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작성한 토론문에서 채 여쭙지 못한 사항은 학술대회의 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연구자의 옥고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문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교수법 사례 연구

-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에서 ‘카타오투’ 활용을 중심으로 -

곽상인(공주대)

<목차>

1. 서론
2. 창의적인 포토에세이 작성하기
3. 카메라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물 제작
4. 하이퍼텍스트로서의 릴레이 글쓰기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2012년 1학기부터 공주대학교에 새로 개편된 <창의적 사고와 표현> 수업에 적용했던 스마트폰 활용 사례들을 들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했다. 스마트 폰 어플인 카카오투를 활용하여 첫 번째 포토에세이 만들기, 두 번째 카메라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 세 번째 릴레이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반성적 글쓰기는 물론,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공동체 의식까지도 함양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유의미한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었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성찰하고 타자와 소통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완성해가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핵심어 : 스마트폰, 카카오투, 교수법, 창의적 사고와 표현, 포토에세이, 자기소개서, 릴레이 글쓰기, 객관화, 자기성찰.

1. 서론

대학교육 현장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뉴밀레니엄시대라 불리던 2000년 이후에 멀티미디어 장비가 점차적으로 강의실에 구비되면서, 판서를 기본으로 했던 교육의 장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곧 교수자가 칠판에 판서를 하고 학생이 적힌 내용을 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현장은 보드를 도입하면서 일차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루었고, 실물환등기를 이용해 OHP 필름 등사물을 칠판이나 스크린에 띄우면서 이차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최근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또는 원격조정이 가

능한 전자탁자를 이용하여 원터치가 가능한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강의실에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현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에서 디지털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흥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와 비주얼에 신경을 써야 하고, 디지털기기를 보다 멀티하고 다이내믹컬하게 다루기 위해서 미디어나 모바일도 종종 활용해야 한다.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화된 모바일 기기의 적절한 접목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장비가 교육의 장에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는 글 쓰는 행위를 좀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해보았다. 교수자가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노트에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이러한 아날로그적 글쓰기 방식을 디지털(모바일) 방식으로 바꾸어도 학생들은 충분히 논리적인 사유를 할 것이라는 게 본고의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¹⁾ 물론 '언어능력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라기보다 학문의 실용화 경향 속에서 그 도구적 성격에 주목한 것이고, 또 컴퓨터 사용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글쓰기가 더 필요해지는 현실적 필요성'²⁾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직시하면서 새롭게 교수법을 적용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필기도구를 대체할 멀티미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코드와 소통의 방식에 공감할 필요³⁾도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새롭고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재밌는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대학생들이 SNS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에 단편적인 소통만 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서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강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교수자에게 질의하기도 한다. 이제 스마트 폰은 강의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학생들이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감성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통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글쓰기'(대학국어 관련)와 관련한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교양교과목 중 <글쓰기>, <발표와 토론>, <사고와 표현>, <글쓰기와 말하기> 등과 같이 이전의 <교양국어>를 모델로 하고 있는 교과목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 글쓰기의 현황⁴⁾, 교양과목 수업 방안 모색⁵⁾, 글쓰기 교육의 사례 연구⁶⁾, 글쓰기 교육의 시스템에 대한 연

1) 본고의 필자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연구자로 장창영을 들 수가 있다. 그는 글쓰기 교육 역시 시대와 문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의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디지털 글쓰기는 복합적이면서 입체적인 사고방식과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매체 개발과 그에 따른 기술 향상은 글쓰기에서도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디지털 글쓰기는 아날로그식 글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창영(2003), 「디지털을 활용한 글쓰기 교수-학습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0집 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p. 396-417.

2) 최시한(2009.2),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시학과 언어학』(제16호), 시학과 언어학회, p. 9.

3) 글쓰기 속에는 언어규범과 형식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인지과정과 의사소통 맥락이 포함된다. 글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희모(2005.11),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창간호), p. 121.

4) 김성수(2009.6),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대학 글쓰기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33호), pp. 327-361., 임선애(2012.12),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대구가톨릭대학교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의 경우」, 『교양교육연구』(제6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pp. 139-168., 정희모(2005.11),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창간호), pp. 111-136., 최시한(2009.2),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시학과 언어학』(제16호), 시학과 언어학회, pp. 7-28.

5) 강민경(2012.9),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제45호), 한국비평문학회, pp. 205-231., 김상한(2013.12), 「스마트 폰을 활용한 문학 창작 교육 방안 -그림책을 중심으로-」, 『청어람어문교

구기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논의들은 말과 글, 생각하기의 종합적인 작용이 사고와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개발 적용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야만 길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라든가,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본고에서 다룬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수법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이미숙의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 이미숙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문자 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문자 사용이 한국어 습득에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연구를 했다.⁸⁾ 그런데 연구대상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어서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또한 목표점이 뚜렷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타난 문자 쓰기의 잘못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아쉽다. 따라서 교육환경은 현재에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발전된 모형으로 변할 것이다.⁹⁾ 교육자-피교육자 간의 위계적인 질서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현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의적인 수업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다. 스마트폰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창의적인 요소와 맞물린다고 판단한다. 인터넷, 각종 유용한 어플, 카메라, 동영상 기능, GPS, 자료 업/다운로드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호환되면서 작동하기에 기존의 것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다. 특히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이다.

글쓰기와 관련한 교양교과목의 목표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정연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봤을 때, 그 도구가 스마트폰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스마트폰 어플 중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교수법이 가능한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일반적이고 딱딱한 수업방식을 지양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한지를 살펴, 스마트한 교수법을 제안¹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쓰기와 말

육』(제4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 125-151., 유혜원(2013.12), 「국어교육 : 말하기 글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제53호), pp. 457-482., 배달말학회, 이양숙(2011.3),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회론과비평』, 한국문학회론과 비평학회, pp. 169-189., 조용림(2013.8), 「글쓰기 과목의 수업 방안 모색」,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pp. 373-397., 한래희(2014.3),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제20집), 한국작문학회, pp. 335-378.

6) 김민정(2009.12),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반성적 쓰기'의 활용과 의의」, 『한국문학회론과 비평』(제45집), 한국문학회론과 비평학회, pp. 451-480. 시지현 외 3명(2011.9), 「사이버대학 강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토론학습 인터페이스 설계연구」, 『컴퓨터교육학회』(제14권 제5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pp. 81-96. 정기철(2010.9),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pp. 529-558.

7) 김인환(2010.4),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어문논집』(제61집), pp. 5-26., 안미애 외 2인(2014.2), 「웹 활용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제8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pp. 53-77., 황성근(2011.5), 「글쓰기에서 말하기의 영향」, 『사고와표현』(제4집1호), 사고와표현학회, pp. 183-208.

8) 이미숙(2013.2.),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9) 참고로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에 따르면 특정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다양한 기능과 자료를 담아 교실과 학습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해 스마트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라 한다.

하기는 언어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메시지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의미가 분명한 글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경험세계를 객관화시키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주대학교 교양필수 교과목인 <창의적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했던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¹¹⁾을 활용하여 (1) 포토에세이 만들기, (2) 카메라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 (3) 릴레이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물을 분석하겠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공동체 의식까지도 함양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II. 창의적인 포토에세이 작성하기

유비쿼터스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존의 교육환경과 수업모형은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SNS, 다양한 미디어 매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며 살아간다.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담아낸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연결이 빠르고 쉬우며,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며, 컴퓨터와 호환이 잘 돼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동영상 앱이 내장되어 있어서 자기를 이미지화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기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모바일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Wi-Fi나 데이터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얻을 수가 있다. 휴대성과 이동성, 빠른 정보처리 능력 등등은 여러 가지 학습상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¹²⁾ 학습자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체제와 유사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재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¹³⁾

목 차	스마트폰 적용 사례	실시 방법 및 회수
1.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 포토에세이	한 학기에 3-4회에 걸쳐 스

10) 스마트폰의 교육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첫째 휴대성, 간편성, 이동성, 즉시성, 상호작용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이러닝 환경은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터 기반의 이러닝 환경보다 상호작용성이 훨씬 높아졌다. 시지현 외 3(2011.9), 앞의 글, p. 82.

11)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앱(App) 다운로드 횟수 결과, 부동의 1위가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다. 앱 이용자 중, 두 앱을 하루 평균 1-2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2회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가 39.8%였다고 한다.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20-30대로 전체 응답자 중 88.9%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주(2012.5),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스턴트 메신저 앱 이용동기와 수용 -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 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석사학위논문.

12) 윤석현 외 2인은 모바일 매체의 특성으로 첫째 이동성, 둘째 접근성, 셋째 확장성, 넷째 신속성을 들고 있다. 윤석현 외 2인(2003.10.),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지』(제10-D 권 제6호), 한국정보처리학회, pp. 1011-1016.

13) 공주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2012), 『창의적 사고와 표현』, 공주대학교 출판부.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집단토론'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 이는 추후 제목을 달리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2.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 릴레이 글쓰기	마트폰을 활용하여 수행과제를 실시하였음.
3.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말하기		
4. 나의 롤 모델 만들기	*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1)	
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6. 문서 작성과 관리	×	
7. 창의적 기획과 기획서 작성	** 집단토론(각주 13참조)	
8. 프레젠테이션의 준비와 실시		
9. 취업을 위한 면접	*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2)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창의적인 자유연상쓰기, 커뮤니케이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롤 모델 작성하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조별발표, 면접 프레젠테이션 등등이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주된 수업 콘텐츠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은 ‘글쓰기’, ‘말하기’, ‘글쓰기와 말하기’, ‘발표와토론’, ‘사고와 표현’ 등과 같은 교양교과목의 교육목표가 접목된 과목이라 할 수 있다.¹⁴⁾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글쓰기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도 함께 안고 있었다. 글쓰기와 말하기가 왜 어렵고 재미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렵고 막연하다. 맞춤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글쓰기와 말하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고와 표현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을 활용했는가. 카카오톡은 대중적이고, 빠르고 문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편리하고, 데이터 전송이 자유로운 현대적 소통의 절대적인 어플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¹⁵⁾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은 말과 글로 사고하고 표현하되, 그것이 창의적이면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수업목표로 한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의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한 후, ‘포토에세이 만들기’를 시도하였다.¹⁶⁾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봄을 담아라’라고 하는 주제를 주었을 때 학생들은 세계와 대면하는 각자의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담았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봄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담으면 안된다고 지도하였다.

예컨대 ‘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들, 그러니까 벚꽃, 커피, 벤치, 연인, 담배, 책, 진달래, 개나리, 새싹 등을 카메라에 담지 말라¹⁷⁾고 말했다. 곧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학습된 것, 습관, 상식, 각인된 것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다 창의

14) 공주대학교는 글쓰기 관련 과목(의사소통기술, 발표, 토론 등 포함) 등이 통합되어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과목은 ‘창의성’, ‘사고’, ‘표현’을 핵심 요소로 하여, 사회적 필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과목 역시도 이전부터 교육되던 ‘대한국어’와 같은 교양과목을 대신하여 새로이 개발된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조용림(2013.8.), 「글쓰기 과목의 수업 방안 모색-공주대학교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제86집), 한국언어문학회, p. 375.

15)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봉(2011.6),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SNS 사례 연구-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경영학 석사논문을 참조할 것. 김해봉은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즉시성, 정보의 다양성, 위치추적 가능, 편리성을 카카오톡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위의 글, p. 44.

16) 이미지를 형성할 때 이미 자신의 고유한 시공간이 드러난다. 즉 이미지에 있는 만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담겨 있다. 김상한(2013.12), 앞의 글, p. 134.

17) 참고로 강민경은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감각기관의 착각 깨트리기, 둘째 허위 이데올로기 깨트리기, 셋째 관습적 차용 깨트리기를 제시하였다.(강민경(2012.9), 앞의 글, pp. 205-206.) 본고에서 포토에세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출발했다.

적인 이미지가 포착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로 사고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인데, 익숙한 세계를 낯선 세계로 바라봄으로써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감각으로부터 '창의성'¹⁸⁾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제를 통해 기존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세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그간 인식했던 봄의 이미지로부터 해방된 사유의 틀을 갖게끔 유도한 것이다. 반복된 학습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창의성이 발산되지 못할 것이며¹⁹⁾, 인식체계가 확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숙한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되, 1. 참신함, 2. 공감가능성, 3. 기존과의 차이, 4. 글과 이미지의 적절한 조화와 설명 등을 염두에 두면서 이미지를 전송하라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봄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담고, 봄을 시적으로 은유화 한 창작의 글도 쓰라고 제시했다.

이 과제의 수업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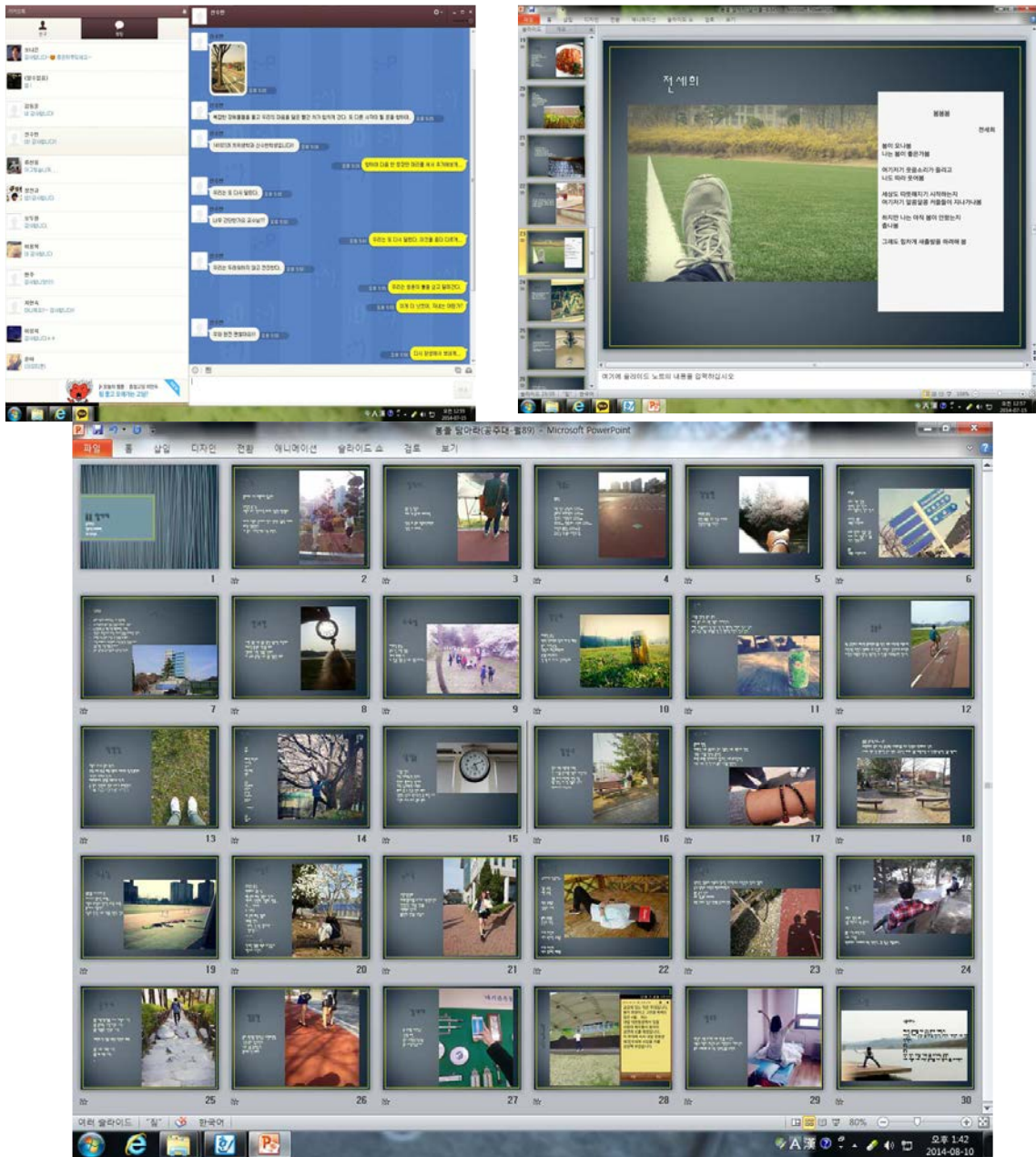
- 교수자 : PC용 카카오톡 프로그램 설치→연구실 PC(또는 전자탁자)로 카카오톡 접속
→개별 과제 검토→**학생과 대화(적절한 피드백)**→과제물을 PPT 정리
→다음 시간에 설명
- 학생 :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서버(WiFi나 유료데이터)접속→과제 수행→**교수자와 대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이다. 그래야만 수업에 활력이 돋고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된다. 피드백 역시도 학생들이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의도를 공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카카오톡이 PC와 연동이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이미지와 메시지들을 PC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기에 수업진행에서 피드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찍어내고 자신이 선택한 그 이미지에 직접 시적인 글을 써봄으로써, 내면에 감추어진 창의적인 자기능력을 발현했다. 학생들이 보낸 글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검토해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분석하고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최대한 기존의 '봄'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했다. 학생들에게 자연과 세계를 대하는 다양한 자기표현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18) 창의성이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나 사고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계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p. 719),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개인 고유의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나 활동(Osborn),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나 지적 행위(Maslow),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Torrance), 새로운 사고를 생산해내는 능력(Guilford)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성수(2009.5), 앞의 글, pp. 331-332.

19) 사람들은 자기 인식 체계 안에서 세계를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 인식 체계는 프레임, 혹은 생각의 틀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번 형성된 지식의 틀이 굳어지면 좀처럼 그 근거를 의심받지 않는다. 이 편견의 감정이 지속적이고 확장되면 아예 고정관념으로 굳어진다. EBS(2010) 인간의 두 얼굴 제작팀, 『인간의 두 얼굴 : 내면의 진실』, 지식채널, pp. 86-87.



위의 그림은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예이다. 학생이 먼저 봄의 이미지를 카메라로 찍어서 카오투으로 전송을 하면 교수자는 그것을 평가하고 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같이 고민한다. 그 다음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학생의 역할은 끝난다. 교수자는 여러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여줘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수업시간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되레 자신이 만든 창작물과 다른 학우들이 만든 창작물을 비교하면서 세계 인식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⁰⁾ 교수자는 개별 학생들의 창작물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학생에게 어떤 의미로 이러한 이미지와 글이 선

20) 자꾸 연상을 해서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를 포착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 경험 세계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자, 어떤 욕망이 투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글쓰기가 나를 표현하는 행위여야 한다. 진솔하게 나를 표현하고, 진솔한 나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야 나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정기철(2010.10), 앞의 글, p. 531.

택됐는지 물으면서 강의실 분위기를 다이내믹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학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은 학생에게 창작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수자와 같이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창작과정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단순하게 문장을 수정하고 결과물만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교육효과가 떨어졌을 것이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피드백을 할 때 자극을 받은 학생들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²¹⁾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교수자의 즉각적인 응답은 그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카카오톡은 개별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몰입도 또한 높다. 1:1 대화방식이기에 학생 스스로도 관심 받고 있다고 인식했기에 관계가 돈독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창출되었다.

학생들은 실제로 강의 시간에 부여된 주제만으로 쓰기 학습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딱딱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에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했다. 이처럼 포토에세이를 만드는 글쓰기는 창의성 같은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으며, 글을 쓰는 과정이 바로 사고의 연장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상을 풍부하게 생각하고, 사물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그 이면을 찾는 눈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기발함이나 엉뚱한 발상에 기반을 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글을 쓰는 주체가 텍스트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 검토를 거치고,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세부적인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고과정을 경유하여 독자적인 생각을 단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수업에 반영되어 창의적인 글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²²⁾

Ⅲ. 카메라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물 제작

앞선 장에서 글과 이미지만으로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폈다면, 본 장에서는 영상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자기소개 영상물 제작은 '자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말하기'와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고를 수가 없기에, 면접을 병행하는 것이 현 추세이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PR을 하는 방식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크게 보자면 자기성찰적인 측면과 취업 대비의 목적성을 띤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롤-모델을 설정하고 자신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4H(Hero, Hard Time, Heritage, Heart)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Hero 항목에서는 자신의 롤-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왜 그 대상이 영웅인지를 설명한다. 두 번째 Hard Time 항목에서는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들을 제시하고,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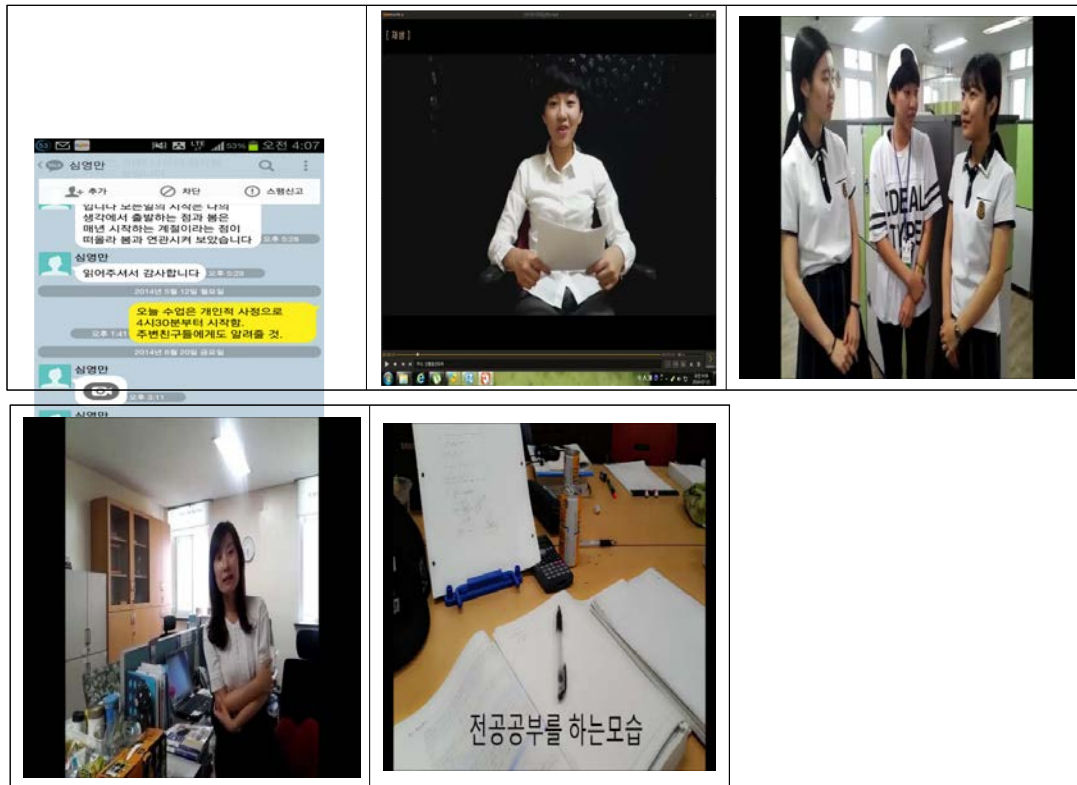
21) '결과물에 대한 교수자의 침착지도는 글쓰기의 과정별 결과물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안미애 외 2인(2014.2), 앞의 글, p. 62.

22) 김성수(2009.6), 앞의 글, pp. 350-351.

Heritage 항목에다 Hard Time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다. 네 번째 Heart 항목에서는 나의 심장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갈망, 희망, 갈구 등등)를 쓰는 것이다.²³⁾

위의 각 항목에 대한 서술은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현재 정립된 자신을 反省하고 미래상을 꿈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와의 대면이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대면하는 것이 사실 어색하고 부담되는 일이겠지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상(비전)을 엮음으로써 자기성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숨겨져 있던 ‘자기’와 소통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객관화’ 작업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영상 만들기는 매우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영상은 자기 소개 - 지인 인터뷰 - 현재의 나를 만든 절체절명의 순간 - 자기 성찰과 미래상의 순으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학생들이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서사들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일 수가 있다. 또한 지극히 불편한 진실들과 대면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팩트를 회피하거나 미화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양숙의 경우는 자기서사를 써내는 방식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가 않고, 기술되는 방식 또한 현재의 욕망에 따라서 구성될 수도 있다²⁴⁾고 말한다. 그러나 교수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경험세계를 - 비록 가공되었다 할지라

23) 조용림은 ‘4H’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시도했는데(조용림(2013.8.), 앞의 글, pp. 386-391.), 본고에서는 4H를 활용하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따라서 글쓰기와 말하기가 접목된 영상 제작은 자기를 보다 잘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24) 어떤 자기서사에도 상당 정도 자기도취나 환상, 자기기만, 자기합리화나 정당화가 개입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양숙(2011.3), 앞의 글, pp. 182-183.

도²⁵⁾ -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세계를 객관화 해서 보여주었을 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탐구와 자기성찰일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곧 자기를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자기 이미지로 만들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인식해온 자기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자기 서사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자기개발과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 그림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캠코더 모양을 누르면 영상이 재생된다.²⁶⁾ 이때 학생들은 여과 없이 자기만의 경험세계를 그려냈고,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사고를 발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잠재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맞보았다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지적, 감성적 능력들을 발견해냄으로써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그것이 곧 창의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깨달은 것이다.

학생들은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차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말투나 표정, 몸가짐도 살피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글쓰기에서 말하기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글쓰기의 소통구조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글쓰기와 말하기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동질적이며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다. 글쓰기 교육 또한 말하기와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면 말하기가 글쓰기의 롤 모델로 작용²⁷⁾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 영상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Hero : 부모님, 연예인(유재석, 김병만), 스포츠스타(류현진, 김연아, 박지성), 정치인(안철수, 박근혜), 학과의 전공교수, 리더(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등.

(2)Hard Time : 재수, 전학, 고교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사업실패, 어려운 가정환경, 친구의 배신 등.

(3)Heritage: 2번의 경우와 대비시켜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확립한 것.

(4) Heart :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아직 꿈을 미설정된 상태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抱負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영상을 만드는 일은 '반성적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기'가 아닌, 심연에 숨겨진 '자기'를 끄집어내고 회의하고 진정성을 발견하여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²⁸⁾이

25) 정기철은 자신의 내적 본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로, 첫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갖기 때문(불안감, 죄책감, 열등감)이고, 둘째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적 풍토 때문이며, 셋째 나에 대해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교육의 구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기철(2010.9), 앞의 글, p. 532.

26)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상대방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은 20M이다. 전송 가능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해상도를 320*240으로 맞춰서 녹화를 해야만 약 3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다.(참고로 640*480은 50초 정도다.) 따라서 A4 기준으로 1장 남짓한 분량을 천천히 낭독했을 경우의 시간과 비슷하기에, 작업 전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27) 황성근(2011.5), 앞의 글, pp. 204-205.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세계를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자아성장을 도모한다면 이 방법은 좋은 교수법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자기 고백적이라 치유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자기를 발견하고 탐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와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하이퍼텍스트로서의 릴레이 글쓰기

릴레이 글쓰기는 일종의 하이퍼텍스트²⁹⁾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활자화되어 나온 책처럼 선형적인 글쓰기와 글읽기를 탈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앞 문장을 통해서 연상작용이 가능한 비선형적 글쓰기를 말한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지는 않은 것은 글 쓰는 이의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뻗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롭고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산되는 글쓰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글쓰기 유형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릴레이 글쓰기를 시도했다. 교수자가 집단 카카오톡을 통해 단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면 10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서 바로 위에 제시한 문장을 보고 연상되는 문장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써야 한다. 바로 앞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개별적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래 샘플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시간에 쓴 릴레이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수업 역시도 카카오톡으로 진행했으며, 처음 문장만을 교수자가 제시하면 그것을 학생들이 자기 순서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릴레이처럼 문장에 문장을 이어가면 된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비약이 발생하는지를 엿보는 것이 관건이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보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예견되거나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샘플 1	샘플 2
(1)엄마가 나에게 “저녁에 뭘 먹고 싶니?”라고 물으셨다. (2)시작되었다. (3)분명 우리 식구는 30분 전 저녁을 먹었다. (4)사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다. (5)엄마의 병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린 옆에 있던 동생이 자살을 결심한다. (6)그 순간 아버지는 옆에서 소주 8병째 드셨는데, 술을 더 가져오라고 동	(1)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다. (2)어머님이 식탁 위에 용돈을 백만 원을 놓고 가셨다. (3)오늘 안에 다 써보라니... 일단 2만원으로 손을 씻고 손 닦았다. (4)그 후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면서 택시를 탄 채로 5분 당 만원씩 밖으로 던졌다. (5)생각해보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학교에서 시간을 썩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6)그래서 나는 지금 택시를 타고 당장 패션

28) 자기서사의 글쓰기는 과거의 사실을 활용하여 현재의 자아상을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서술의 방법이다. 또한 한 개인이 속한 집단과 사회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글 쓰는 주체가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대학에서 작성해야 하는 제반 글쓰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이양숙(2011.3), 앞의 글, p. 186.

29) 하이퍼텍스트라는 글쓰기 환경 혹은 기술을 문학과 접목시킨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학 형태이다. 여기서 작가는 데이터 제공자로 등장하며, 독자는 마우스로 원하는 곳을 누르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작가의 글쓰기에 참여하거나 그 글쓰기를 확대 재생산해낼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를 여럿이 돌아가면서 연결하고 만들어 낸다. 텍스트를 연결해주는 것을 하이퍼링크(Hyperlink) 라고 하며 마우스에 의해 떠오르는 텍스트 전체를 하이퍼텍스트로 부른다. 김종희·최혜실 외(2001), 『사이버 문학의 이해』, 집문당.

<p>생을 발로 찼다. (7)동생은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그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아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8)순간, 우리 가족은 자살한 동생이 너무 창피해서 집을 나와 서울역에 갔다. (9)서울역에는 동생보다 창피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10)그런데 그 창피한 사람 중 나의 이상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11)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연락처를 물었다. (12)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김수현이었다. (13)근데 난 남자다. (14)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우린 오늘부터 1일이다. (15)1일째 사랑을 하고 있다. (16)다음날 호주로 가서 결혼했다. (17)그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한다. (18)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고, 나 혼자만 살아서 이상한 섬에 도착하였다. (19)그곳에서 나는 원정도박을 즐겼다. (20)그곳에서 나뭇잎 옷을 입은 여인을 발견했다. (21)그 여인은 김수현이었다. (22)난 역시 수현이가 좋다. (23)수현이랑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다.</p>	<p>의 거리 홍대에 갔다. (7)홍대에 가서 셔플을 추기 시작했다. (8)모든 게 꿈이었다. (9)어머님이 식탁 위에 용돈을 백만 원을 놓고 가셨다. (10)이것을 오늘 안에 다 써보라니... 일단 2만원으로 손을 씻고 닦았다. (11)그 후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면서 기사 아저씨 얼굴 중 보이는 구멍마다 돈을 꽂았다. (12)돈을 좋아하는 택시기사는 흥분해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13)그러다 택시기사는 차 브레이크가 고장남을 알게 되었다. (14)결국 빨간 불에서 멈추지 못하고 차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다. (15)가는 도중에 앞차를 박아 정신을 잃고 일어나보니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 (16)어디로 가는 지도 기억이 안 나서 집으로 가 달라 했다. (17)집에 가서 내일 학교를 가기 위해 잤다. (18)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머님이 식탁 위에 용돈을 백만 원 놓고 가셨다. (19)꿈이 아니다. (20)이것을 오늘 안에 다 써보라니... 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챙겨 공항으로 갔다. (21)그러나 공항은 갑작스러운 북한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22)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소화기가 보여서 소화기로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23)이런 꿈에서 깨어났다.</p>
---	--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과 2 모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곳곳에 제시했다고 판단한다. 비선형적인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샘플 1의 경우 첫 문장으로 “엄마가 나에게 “저녁에 뭘 먹고 싶니?”라고 물으셨다.”라고 제시했는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로 나타났다. 쉽게 예상되는 스토리 라인은 저녁 메뉴를 고르거나 외식을 하거나, 그래서 행복한 저녁식사가 되었다든가 혹은 예기치 않게 불행한 저녁식사가 되었다든가 하는 식의 내용이 나와야 할 터인데, 연예인인 김수현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샘플 2의 경우 첫 문장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제시했는데, 결과는 “꿈”으로 귀결된다. 통상적으로 물음에 대한 선형적인 글쓰기라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가방을 챙겨서 등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의 비선형적 글쓰기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릴레이 글쓰기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적절한 수행과제라 할 수 있다. 글쓰기도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글쓰기가 독자와 필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해야 하는 직선적 구조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글쓰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³⁰⁾

30) 인터넷은 글쓰기가 과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과는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필자가 독자의 반응에 따라 메시지를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자와 독자의 관계 설정 또한 말하기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 글감 선정에서부터 주제 정하기, 자료수집, 글쓰기의 과정에 독자가 重心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말하기의 청자중심의 메시지 전달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다. 황성근(2011.5), 앞의 글, p. 202.

이상의 수행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매우 신선하다고 인식했으며, 기말고사 이후 강의평가에서도 학생들의 피드백 또한 매우 긍정적이며 좋았다.³¹⁾ 가령 포토에세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으로는 ‘자신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과제가 흥미로웠다’, ‘카톡으로 글쓰기를 해서 신선했다’, ‘해보지 못한 과제여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재미있었다’, ‘자료전송이 수월해서 좋았다’, ‘형식적인 틀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좋았다’ 등이 있었다. 실시간으로 개별첨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일대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한 것이다. 정리된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공통 첨삭이 가능해졌다. 개인의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으나, 나중에는 결과물들이 공유되면서 소통의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³²⁾를 실시했는데, 가령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게 주목할 항목은 1. ‘평소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2.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포토에세이, 자기소개 동영상,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는가?’ 3.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4.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글을 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는가? 5.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0-4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는 10명, 5-8시간은 13명, 9-12시간은 10명, 13-16시간은 5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응답자로는 ‘매우 그렇다’(9명), ‘그렇다’(14명), ‘보통이다’(11명), ‘그렇지 않다’(2명), ‘전혀 그렇지 않다’(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글쓰기에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4명), ‘그렇다’(10명), ‘보통이다’(14명), ‘그렇지 않다’(8명), ‘전혀 그렇지 않다’(2명)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은 창의성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28명이어서 전체 응답자의 73%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사용과 창의성이 어느 정도 연관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려운 형식을 벗어나 쉽고 간편하다’, ‘자유롭다’, ‘특별한 차이를 모르겠다’는 긍정의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정적 답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4명), ‘그렇다’(8), ‘보통이다’(17명), ‘그렇지 않다’(8명), ‘전혀 그렇지 않다’(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6%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수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몇몇 인상적인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UCC를 제작해보는 것’, ‘어플을 분석하는 연구’, ‘강의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카톡을 실시하는 것’ 등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다음 강의에서 활용해 볼 생각이다.

이처럼, 위의 수행과제들을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수업계획서에 한 학기 3-4회 정도 삽입하면 좋겠다. 교수자들도 이제 교육현장과 실생활의 현장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31) 강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설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음.

32)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환경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38/41명을 대상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관련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기 바람.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현실적 소통방식을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치를 두어야 학생들도 교수자를 신뢰하면서 일대일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소통한다면 교육의 장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공주대학교 교양교과목 중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주된 학습목표가 듣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종합적인 작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와 대면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할 줄 알고,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디지털화된 기기를 통해서 자기와 타자와 세계와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 현장의 영역을 강의실에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 딱딱한 강의실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에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아날로그식 글쓰기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것, 이러한 기대효과가 현 교육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교수자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멀티미디어 어플을 활용하여 보다 다이내믹한 수업이 이루어지게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체계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교육의 환경도 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를 위해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적 수업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이 제시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하고, 평가에 대해서도 엄밀하고 공정하며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곧 교수와 학생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글쓰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글쓰기를 해서 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도 많다. 카카오톡은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기에 교수자에게는 빠르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과제들을 PPT로 정리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는 점이고, 그것이 수업평가에도 반응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수업조교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모바일 기기이다 보니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함이 유발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만 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심할 수 있어서 장시간 문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교수는 미리 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

라서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행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의 문제, 문제 등은 항상 고민해야 할 숙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공주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2012), 『창의적 사고와 표현』, 공주대학교 출판부.
안종배 외 2인(2014), 『스마트폰 마이스터 되기(스마트폰 200% 활용법)』, 진한엠앤비.

2. 국내외 논저

- 강민경(2012.9),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pp. 205-231.
- 김민정(2009.12),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반성적 쓰기의 활용과 의의」,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09, pp. 451-480.
- 김상한(2013.12),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국어,한문 교육의 방향> : 스마트 폰을 활용한 문학 창작 교육 방안 -그림책을 중심으로-」, 『청어람어문교육』, 청어람어문교육학회, pp. 125-151.
- 김성수(2009.6),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대학 글쓰기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33호), pp. 327-361.
- 김인환(2010.4),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어문논집』(제61집), pp. 5-26.
- 김종희·최혜실 외(2001), 『사이버 문학의 이해』, 집문당.
- 김해봉(2011.6),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SNS 사례연구 :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경영학 학위논문(석사),
- 박현주(2012.5),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스턴트 메신저 앱 이용동기와 수용 : '카카오톡'과 '카카오토티' 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학과 석사,
- 시지현 외 4명(2011.9), 「사이버대학 강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토론학습 인터페이스 설계연구」, 『컴퓨터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pp. 81-96.
- 안미애 외 2인(2014.2), 「웹 활용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pp. 53-77.
- 양재민(2012),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학습활동 피드백 시스템」, 계명대학교 전산교육학과 학위논문(석사),
- 유혜원(2013.12), 「국어교육 : 말하기 글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 배달말학회, pp. 457-482.
- 윤석현 외 2인(2003.10),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지』(제10-D권 제6호), 한국정보처리학회, pp. 1011-1016.
- 이미숙(2013.2),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충북대학

교, 석사.

- 이양숙(2011.3),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11, pp. 169-189.
- 임선애(2012.12),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대구가톨릭대학교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의 경우」, 『교양교육연구』(제6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pp. 139-168.
- 장창영(2003.9), 「디지털을 활용한 글쓰기 교수-학습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0집 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p. 396-417.
- 정기철(2010.9),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2010, pp. 529-558.
- 정희모(2005.11),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창간호), pp. 111-136.
- 정희모 외 7인(2008), 『대학 글쓰기』, 삼인.
- 표진우(201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
- 조용림(2013.8), 「글쓰기 과목의 수업 방안 모색」,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 최시한(2009.2),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시학과언어학』(제16권), 시학과 언어학회, pp. 7-28.
- 한래희(2014.3),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한국작문학회, pp. 335-378.
- 황성근(2011.5), 「글쓰기에서 말하기의 영향」, 『사고와표현』(제4집1호), 사고와표현학회, pp. 183-208.
- Mihaly Csikszentmihalyi(2003), 노혜숙 옮김, 『창의성의 즐거움』, 북로드.
- Heinz Goldmann(2006), 윤진희 옮김, 『말하기의 정석』, 리더북스.

■ 별첨

<창의적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1. 평소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가?(해당 사항에 ○를 표시하십시오)

0-4 시간	5-8 시간	9-12 시간	13-16 시간	16시간 이상

2.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가?(1,2,3과 같이, 순위를 적으시오)

통화	문자	인터넷 검색	게임
동영상 시청	카메라	DMB	커뮤니티
기타의견			

3.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접속하는가?

1시간 미만	1-3시간	4-8시간	9-12시간	12시간 이상

4.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사항에 ○를 표시하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을 위해() - 교제의 확장을 위해서()
- 게임을 하고, 아이템을 주고 받기 위해() - 동영상이나 사진을 지인과 공유하기 위해()
- 취미나 최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기타 (_____)

5. 카카오톡 활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해당 사항에 ○를 표시하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 빠르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 - 많은 사람들과 단체 대화가 가능하다()
-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어낼 수 있다() - 자료의 공유가 자유롭다()
-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다()
- 기타 (_____)

6.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포토에세이, 자기소개 동영상,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스마트폰으로 포토에세이, 자기소개 동영상,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한 것이 응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포토에세이, 자기소개 동영상,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완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데 무리는 없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업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

11.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올바른 어휘, 표준어 규정, 맞춤법, 바른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유익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4. 세 가지 과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

15.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기타 활용하고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

2014.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창의적사고와표현> 담당교수 곽상인

<토론문>

손혜숙(중앙대)

곽상인 선생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양교과목 교수법 사례 연구 -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교과목에서 ‘카카오톡’ 활용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대학에서 비슷한 교양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비슷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토론자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포토 에세이 작성의 경우 활동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클래스의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교수자의 부담감(이른테면 물리적 시간이 담보되어야 할 텐데요.)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물론, 수업조교 도입을 언급하셨는데, 대부분의 대학 현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또, 실시간 피드백의 경우 지정된 시간이 있었는지요?

2. 포토 에세이의 경우 이미지와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글쓰기가 볼 수 있습니다. 강의 특성상 ‘글쓰기’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각 영상 매체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이미지와 글쓰기의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미지와 문자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자기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은 요즘 학습자들의 성향을 잘 반영한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말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에 대한 학습자들의 거부감은 없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찍는다는 것 자체에서 ‘자기 검열’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자칫하면 고백적이기 보다 보여지기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4. 릴레이 글쓰기는 스토리의 차원, 발상의 차원 등 지향점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 및 피드백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발표자께서는 ‘창의적 발상’에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황 연상과 비슷한 활동으로 저 또한 실제 강의에서 발상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때,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릴레이 글쓰기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꼭 말과 문자가 아닌 매체를 활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 이 강좌가 글쓰기와 무관한 교과목이라 할 수 없기에 글쓰기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여주신 활동들을 통한 글쓰기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나 향상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제2부 분과별 발표

【고전문학/한문학】

조선 중기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

장봉수(전남대)

<목차>

1. 머리말
2. 조선 중기 호남 한시
3. 호남 한시와 한(恨)
4.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의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문학사 그 가운데 영·호남 지방문학사 서술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방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 초기는 근기(近畿)와 영남 출신 관료들이 중심이 되고 관각문학이 주를 이룬 통합 국문학의 시대로서, 곧 이어 대두하기 시작한 지방 사립들에 의한 지방문학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 지방문학의 등장은 조선 개국 후 한 세기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성종 이후 즉 16세기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중앙의 관각문학과 비견할 수 있는 본격적 사립문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영남과 호남지방의 사립들에 의해 두드러진 지방적 특색을 지닌 문학이 대비적 경향을 띠고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영남문학은 신라 이래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비로소 영남 지방문학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문학으로서 영남지방의 문학적 특색이 현저하게 드러난 계기는 그 이전까지 주변부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호남지방에서 뚜렷한 지방문학의 특색을 지닌 문학이 등장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영·호남 문학’이란 용어가 상징하듯, 특색을 지닌 강력한 호남 지방문학이 등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와 대조되는 영남 지방문학의 특색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고, 두 지방문학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호남지방은 백제의 멸망을 시작으로 고려 시대의 차별과 소외를 겪은 후, 고려~조선 왕조 교체기와 세조 때의 계유정난, 연산군 때의 사화 등을 피해 낙남한 절의지사들에 의해 학문과 교육이 일어나고 실력을 양성한 결과, 중종 이후 목릉성세라고 일컫는 선조 때까지 호남지방의 문학은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성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는 영남지방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그리하여 호남문학은 물론 조선문학사를 빛낸 丁克仁, 朴祥, 宋純, 林

1) 조선 전기의 인구와 과거 급제자의 영호남 비중을 비교해 보면, 세종 때의 인구 통계로 경상도는 전라도에 비해 2~2.5배의 인구를 가졌으나(이수진, 「조선 초기 호구의 이동상황」, 『한국논총』, 하성 이선근박사교회기념사업회, 1974.), 조선 전기의 생원·진사 합격자 수는 경상도 1,579명(15.6%), 전라도 1,380명(13.6%)이었

億齡, 林亨秀, 金麟厚, 柳希春, 梁應鼎, 李後白, 朴淳, 奇大升, 高敬命, 鄭澈, 白光勳, 崔慶昌, 林悌 등 기라성같은 문인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는 李晬光, 許筠 등 후세인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²⁾

이 때의 영남지방에서도 신진 사람이 족출하여 학문과 문학에 성황을 이루었는데, 金宗直과 그의 문인들, 李賢輔, 周世鵬, 李彦迪, 李滉과 그의 문인들, 曹植과 그의 문인들, 張顯光과 朴仁老 등이 그들이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뛰어난 문인들이 대거 등장하여 각기 특색 있는 문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지방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문학 전체로서도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발달한 지방문학의 특성은 다른 지방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지방문학 연구는 개별적 작가론과 작품론, 지역 단위의 장르론과 각 지방문학의 단편적 특성에 대한 고찰에 그치고, 지방문학 사이의 비교를 통한 특성의 고찰은 미미한 실정이다. 1980년대 들어 조동일에 의해 '영남가단과 강호가도', '호남가단과 풍류정신'과 같이 영호남 가단의 비교연구가 시작되었고³⁾, 다시 영남지방의 인물전설을 통한 '상하 차별'과, 호남지방의 여성화자 남성 시가를 통한 '남녀 차별'의 역전을 영·호남 문학의 특질이 될 수 있음을 말했으며⁴⁾ 최정락은 영·호남 문학의 특성을 서정지향과 서사지향, 집단이념과 개인정서, 이념과 현실의 결합, 사회적 모순구조 비판과 사회악을 만드는 전형 비판 등으로 비교 고찰하였고⁵⁾. 그밖에 특정 장르에 대한 영·호남 문학의 비교 연구가 있을 뿐이다.

두 지방간에는 문학 내외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조되는 특징적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시가에 표출된 호남문학의 특색부터 살펴 보면, 호남지방 국문시가의 두드러진 특성은 주기적 정서가 표출된 풍류시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리적 이념이 표출된 영남지방의 도학시가와 대조되고, 호남지방 한시 역시 주기적인 한(恨)과 풍류의 서정시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주리적 이념을 담은 영남지방의 재도적(載道的) 설리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16세기의 호남 한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한(恨)의 표출로 보고 이를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조선 중기 호남 한시

호남지방의 학문과 문학은 16세기 조선 중기에 들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성시대를 맞게 된다. 학문면에서는 지연이나 혈연, 학통이나 도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풍토를 바탕으

고(최진욱, 「조선시대 생원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조선 전기의 문과 급제자 수는 경상도 237명(14.9%), 전라도 171명(10.8%)으로(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77.) 두 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라도가 약진했음을 알 수 있다.

2) 李晬光, 『芝峯類說』 권14, <文章部> 7, “試藝”

頃世詩人多出於湖南。如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鼎, 朴思菴淳,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悌, 高苔軒敬命。皆表表者也
許筠, 『惺所覆瓿藁』卷23, 說部2, <惺翁識小錄>.

在靖陵朝。湖南人才之顯于時者甚多。如朴訥齋昆季。崔舍人山斗。眉菴昆季。梁校理彭孫。羅提學世績。林牧使亨秀。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璵最著。其後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高霽峯。或以學問。或以文章顯於世。及今無一人以才行聞於時者。其占科第。亦漸落落。莫知其所以然也。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주)지식산업사, 1992. pp.321-333.

4)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54~184.

5)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어문학』 50집, 한국어문학회, 1989.

로 상호간에 논쟁을 벌이면서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 독특한 이론을 선도하기도 했으니, 花潭 徐敬德과 河西 金麟厚 사이의 理氣一元論을 둘러싼 논쟁, 太極陰陽一物說을 둘러싸고 벌어진 一齋 李恒과 高峯 奇大升, 河西 金麟厚 사이의 논쟁, 蘇齋 盧守愼과 河西, 一齋, 高峯 사이의 人心道心 논쟁, 秋巒 鄭之雲과 河西 사이의 天命圖 論辨, 退溪 李滉과 高峯 사이의 四端七情 論辨 등이 그것이다. 호남 유학은 이처럼 性理學을 둘러싼 論辨이 영남의 晦齋 李彦迪이나 退溪 李滉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논변의 양상은 어느 한 학파나 학설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한 특색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영남 지방에서 퇴계가 주장한 理氣二元論的 互發說을 바탕으로 한 주리적 성리학설에 대하여, 理氣一元論的 共發說을 바탕으로 한 주기적 성리학설이 이미 호남 지방에서 高峯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자유스러운 학풍 속에서 북송 邵雍의 象數學이나 張載의 主氣說, 명대 羅欽順의 氣哲學까지 받아들여지거나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晦齋나 退溪 등 영남 주자학과 달리 主氣的 性理說이 등장할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문학에서는 지방의 특색을 지닌 주정적인 서정한시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純善의 四端을 주로운 당위적·윤리적 주리의 문학만이 아니라, 四端을 포함한 七情이 구현되는 현실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한 것이 호남 한시의 주된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6세기 호남지방 학문은 주리적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이는 문학에 있어서도 주기적 문학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주기적 문학은 主情的 문학으로 구현되고 이는 좁은 의미의 문학 즉 예술로서의 문학이 문학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주기적 문학은 이성의 문학이 아니라 감성적 문학이다. 이는 시문학 특히 한시문학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 중기 호남 한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唐詩風의 경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종대 사림파의 등장 이전까지는 송시풍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 시기에 이르러 당시풍으로의 시풍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宋詩는 議論이나 理路를 중시하고 과다한 用事와 典故, 난삽하고 신기한 표현 등을 일삼으며 의미전달을 위해 鋪陳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以文爲詩’의 성격을 지니고, 그에 반해 唐詩는 진솔한 성정과 意興을 중시하고 比와 興의 기법을 주로 하여 함축과 여운을 남긴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江西派詩를 위주로 한 宋詩風을 탈피하여, 李靑·金淨을 거쳐 朴祥에 이르러 당시풍이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고 이후 당시풍은 호남시인들이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당시풍은 호남지방의 사宗으로 일컬어지는 朴祥을 근원으로 하여 林億齡·金麟厚·林亨秀·李後白·朴淳·高敬命·鄭澈·林悌·白光勳·崔慶昌 등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당시풍은 主氣的 抒情이 중심을 이루고 다시 낭만적 경향을 띠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호남 한시와 한(恨)

이 시기 호남 한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主情的, 感性的 경향은 한(恨)의 정서이다. 한을 우리 민족의 기본적 정서로 보기도 하고, 우리 문학 특징의 하나로 한을 들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은 민중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귀족 문학이라 할 수 있는 한시는 민중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문학 형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호남 지방에서는 민중을 대변한다 할 수 없는 사대부 문인들에 의해, 귀족 문학이라 할 수 있는 한시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 다양한 한의 정서를 표출한 시가 지어졌다. 시인들의

수나 작품의 질적, 양적 면에서 다른 지방과 변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은 '怨恨, 情恨, 悔恨, 懊恨, 痛恨, 恨歎'처럼 다른 말과 복합하여 쓰이기도 하고 '슬픔, 설움, 괴로움, 아픔, 억울함, 분함, 자책, 저주, 분노, 증오, 후회, 불만' 등을 그 의미장 속에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그 속성이 단순하기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김동리가 1948년 평론집 『文學과 人間』에서 소월의 시적 정서에 대하여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그리움의 감정, 즉 보상받을 수도 없고 대상을 구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상실감을 '情恨'으로 규정하여 문학적 용어로 사용하였고, 역시 소월의 시를 논하는 글에서 河喜珠는 '설움의 덩이', 柳宗鎬는 '청승'과 같은 용어를 써서 한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⁶⁾ 金烈초는 한이 '맺히고' '풀린다'는 데 착안하여, 맺힘 대 풀, 恨 대 解恨, 원한 대 신명이라는 二元對立의 틀을 상정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고⁷⁾, 千二斗는 김열규의 이원대립적 구조를 비판하면서 한을 '맺힘과 풀림의 연속관계로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이란 그 한자적 개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유한 우리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 현상을 표상하는 용어하는 것, 상실, 좌절에서 연유되는 원망, 한탄, 비애 등을 질게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삭히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점차로 예술적 승화, 윤리적 안정을 획득해 가는 일종의 승화, 조절의 장치라는 것⁸⁾

이라 하기도 했다.

한은 弱者, 敗者, 被治者의 정서이다. 한은 부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强者, 勝者, 治者의 정서는 아니다. 따라서 한은 약자인 민중의 정서를 대표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학사를 보아도 한이 민중의 노래인 민요의 대표적 정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16세기 호남 지방 한시를 분석해 보면 한을 표출한 작가나 작품이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결코 弱者, 敗者, 被治者라 할 수 없는 사대부 문인들이 민중문학이라 할 수 없는 한시 형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한의 정서를 표출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호남 지방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국가나 민족이나 정권의 중심부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소외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수 있다. 실제적 박해보다 정신적 피해의식이 더 강력한 상처로 남아 지방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전과 달리 16세기 들어 이 지방 출신 사대부들이 대거 관계에 진출하고 학문과 문학면에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그들 역시 정치적 이유로 낙남한 사대부들의 후예로서 은연중 지방 민중들의 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한 결과 문학을 통해 자연스레 표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지방 특유의 개방적 사고와 풍조는 개성있는 감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당시풍을 깊게 받아들임으로써, 제재나 주제의 제한을 벗어나고 새로운 표현의 기법을 개척하는 등 시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의 개성적인 시풍을 받아들이고 특히 호남 지방 특유의 정서인 한과 결부시킴으로써 특징적인 시풍을 구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남녀간 사랑을 상실한 한의

6) 河喜珠, 「傳統意識과 恨의 의미」, 『現代文學』 72호, 1960.(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p.13에서 재인용)

柳宗鎬, 「한국의 파세틱스」, 『現代文學』 72호, 1960.(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pp.13~14에서 재인용)

7) 김열규, 『우리의 전통과 오늘의 문학』, 문예출판사, 1987. pp.10~14.

8)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pp. 27~28, p.33.

정서를 여성적 시적 화자를 설정하고 여성적 감성으로 극대화하여 표현한 시나, 시인의 호방한 기상과 포부의 좌절에서 오는 한스런 정서를 표현하는데, 무인으로 시적 화자를 설정하고 무인의 심상을 통해 토로한 시, 그리고 민중의 고달픈 삶의 모습과 한을 연민의 정을 지닌 성찰자의 입장에서 풍자하고 비판한 시들은 호남 한시의 특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시적 경향은 특정 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인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이러한 경향은 또한 한 시인에게서 모두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시대 호남 한시의 특징을 대표하는 경향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한은 호남 지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호남한시의 주요 정서가 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호남한시에는 염정과 일락의 낙천적 긍정적 정서, 초탈과 동경의 세계를 향하는 초월적 정서가 담긴 주기적인 풍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호남한시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호남한시에 이러한 특징의 시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영남지방의 한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보인 시들도 있고 호남지방의 한시에서도 영남지방 한시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재도적 한시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4. 호남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

호남한시에서 한의 정서를 표현한 시의 시적 주체는 약자이거나 패자이거나 피지배 민중이었다. 그리고 이 시들의 작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서민이 아닌 양반 사대부이지만, 상실과 좌절 그리고 착취 당한 약자를 시적 자아로 설정해서, 그들의 처지와 정서를 표현하는 우회적 방법을 구사한 것이다. 한을 노래한 시의 시적화자는 대부분이 사랑을 잃은 여성이거나, 꿈과 호기를 실현하지 못한 무인, 장사이거나 학대와 착취와 불의에 희생당하는 백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양반 사대부 시인들이 시적화자를 약자, 패자의 위치로 설정하고 자신을 비롯한 이 지방 사람들의 정서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한시에 표출된 한의 양상은 첫째, 女人의 恨(女性的 情恨) 둘째, 壯士의 恨(豪氣와 挫折의 悔恨) 셋째, 百姓의 恨(世上에 대한 憤怒와 백성에 대한 憐憫) 등으로 표출되어 있다. 호남 한시에 표출된 이러한 여성의 情恨, 장사의 悔恨, 백성의 痛恨, 즉 포괄적으로 말하여 ‘恨’이야말로 호남인의 대표적 정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 女人의 恨(女性的 情恨) : 閨怨詩

우리나라의 애정한시는 다른 제재의 한시에 비해 양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체제 속에서 애정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 특히 한시문을 익힐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여성 애정한시 작가가 매우 희소하게 된 점도 있지만, 유학 그 가운데서도 성리학을 국교로 한 조선의 건국 이후 사대부 사회에서 남녀간의 애정 표현을 ‘男女相悅之詞’나 ‘淫詞’나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한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정한시는 작가, 현실과 허구, 시의 화자, 내용 등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 가운데 한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李鍾默⁹⁾과 閔丙秀¹⁰⁾는 현실에서의 사랑을 노래한 시와 허구적 사랑을 노래한 시로 나누었고, 이혜순¹¹⁾은 남성 작가이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허구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여성화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로 일인칭 여성화자를 내세운 악부체 노래로서 입을 상실한 후의 슬픔과 한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고찰했는데,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즉 작가의 슬픔과 인고와 한의 정서를 허구적인 여성 화자를 통해 표출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애정을 상실한 슬픔과 아픔을 표현한 시를 閨怨詩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閨怨詩는 대부분이 古元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애정한시가 양적으로 매우 빈약한 가운데서도 16세기 호남 지방에서는 사대부 문인들에 의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 다량으로 창작된 현상이 나타났다. 朴祥, 金麟厚로부터 시작하여 호남 지방 사대부 대부분은 거리낌없이 閨怨詩를 지었고, 林悌처럼 한 사람이 50수가 넘는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호남지방 閨怨詩의 대부분도 古元시가 차지하고 있다.

호남 지방의 古元시는 남성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여성화자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閨怨詩가 이 지방 사람들의 의식의 저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문학 양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한을 표현한 문학의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 내면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남성작가의 여성화자 古元시는 호남 문학의 주요한 특징이 되어 오늘날에도 연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¹²⁾

호남 지방 문학에 남겨진 한의 전통은 백제 가요로 소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사가 전하는 백제 가요는 <井邑詞>가 있고, 가사부전가요로 <禪雲山歌>, <無等山歌>, <方等山歌>, <智異山歌>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恨'의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전통을 이어 다정다감한 주정적 기질을 가진 16세기의 호남 문인들 역시 여필중

9) 李鍾默, 「愛情漢詩의 전통과 美學」, 『국문학연구』 제5호, 국문학회, 2001. p.242.

10) 閔丙秀, 『韓國漢文學概論』, 太學社, 1997. pp.284~5.

11) 이혜순, 「여성화자 시의 한시 전통」, 『韓國漢文學研究』 19호, 1996. p.23.

12) 호남 문학의 주요 특징의 하나로서 남성작가의 여성화자시를 들고 있는 분으로는 조동일, 박명희, 김대현 등을 들 수 있다.

조동일은 그의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165-181), <호남문학사의 맥락: 남성시가의 여성화자>에서 호남문학에 남성이 여성화자의 노래를 부른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白光勳의 <龍江詞>, 崔慶昌의 <銅雀妓詞>와 <李少婦詞>, 판소리 「春香歌」, 서정주의 춘향시편<春香 遺文>의 예를 들고, 그러한 전통이 형성된 것은 백제의 노래 <禪雲山>, <無等山>, <方等山>, <井邑>, <智異山> 가운데 <無等山>을 제외한 네 편을 여성 수난을 여성 스스로 노래했는데. 이런 여성 시련의 노래를 국정을 담당 한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 나라의 노래로 삼아 후대에 전승하였고, 후에 남성 시인들이 여성 취향을 가지고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 작품을 즐겨 쓰게 되었으며, 여성의 노래를 통해 민중의 수난을 함께 나타내고자 해서 남성 시인들이 여성 화자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하였다.

박명희는 「16세기 호남한시의 여성화자 유형과 의의」(『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호, 2010.)를 통해 16세기 호남 한시의 특징의 하나로 남성작가의 여성화자시를 들고, 16세기에 출현한 남성작가 여성화자시를 창작한 작가들은 호남문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으며, 남성이지만 자신의 소회를 간접히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나 情의인 호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왔고, 당시 호남 문인의 시는 당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당풍과 여성화자 시문이 주정적인 結節點에 의해 만날 수 있었음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김대현은 「靑蓮 李後白 漢詩에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경향」, (『한국언어문학』 53집, 2004.)에서, 청련 이후백이 여성 정시의 표현과 여성화자에 의한 표현으로써 최경창, 백광훈, 임제에 이르는 '호남 서정시파'를 열고, 여성화자시를 호남 한시의 주요한 특질로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13) 安東注는 백제의 詞傳歌謠로 <完山謠>, <山有花歌>를 더 들고 있다. 그러면서 백제 가요의 내용이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歌謠들의 內容은 한결같이 時代的 社會相을 비추고 있는데 百濟王國의 榮枯盛衰의 歷史的 循環에서 婦女子

부의 가부장적 유교 질서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여성화자의 규원시를 적극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16세기 호남 지방 남성문인들에 의해 지어진 여성적 정한을 노래한 규원시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호남 규원한시는 호남의 사종으로 일컫는 朴祥과 金麟厚에 의하여 대표적 여성화자시인 악부체 ‘妾薄命’이란 시제로 시작된다.

訥齋 朴祥의 대표적 규원시는 <妾薄命>과 <擬古>이다. <妾薄命>은 7수로 된 규원시인데, 7수가 각기 운을 달리한 별개의 오언율시로 볼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의 시로 볼 수도 있다. 이 시는 첩으로 부르는 1인칭 여성화자가 청자로 설정된 대상으로부터 총애를 잃고 대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독백적 진술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대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암묵적으로 노래한 시이다. 놀재는 당시의 여성현실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짝어지게 되는 여성의 숙명적 비운과 한에 대한 공감을 여성화자를 통한 간접적인 수법을 통해 오히려 절실하게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재의 1인칭여성화자시로는 네 계절에 따른 <擬古> 네 수가 더 있다.

河西 金麟厚는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면서도 이름난 규원시를 남기고 있다. <次韻陳無己妾薄命>은 북송 때의 시인 陳師道の 五言古風短篇 <妾薄命>을 차운하여 지은 시로서, 원시는 陳無己가 스승이었던 曾鞏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자신을 남편을 잃은 아내에 비겨 노래한 시인데, 河西가 이 시의 운을 빌어 임과 이별한 여인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하서는 이밖에도 <有所思>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有所思>는 남편을 여윈 아내가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여성화자의 시로 볼 수 있지만, <연보>의 표현대로라면 승하한 인종에 대한 ‘悽惋激烈之情’을 잘 표현한 노래요, ‘忠臣戀主之詞’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굳이 규원시의 형식을 빈 것은 하서가 조선시대 지아비를 잃은 여인의 더할 수 없는 한스런 정서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俛仰亭 宋純도 규원시 <代人戲作 二首>를 남겼다. 이 시는 비록 제목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代人) 장난삼아 짓는다(戲作)고 했지만, 굳은 맹세를 저버리고 십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며 가을 달밤 독숙공방하는 여인의 한에 공감하여 지은 규원의 노래이다.

靑蓮 李後白은 그리 많지 않은 한시 가운데서도 빼어난 열정시들을 다수 남기고 있다. 그의 <閨怨四時詞>는 임을 변방에 보낸 여인을 시적 화자로 설정하고 계절에 따라 느끼는 지아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과 염려와 사랑의 정서를 섬세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임을 여윈 아내의 한이야말로 한의 극한에 이른 것임을 작자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라고 보겠다.

閨情詩로는 삼당시인의 시를 능가할 시인과 작품을 들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孤竹 崔慶昌의 규원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규원시로는 <李少婦詞>와 <銅雀妓詞>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李少婦詞』는 40구의 장편 7언고시로서 대부분의 다른 규원시들이 고사를 모티브로 한 관습적인 제재로 한 데 비해, 이 작품은 현실적 인물과 사실을 토대로 극적으로 시상을 전개하면서도 사건을 암시하거나 함축하는 수법을 구사하여 서정성을 드높이고 있다. 여인의 한에 대한 孤竹의 연민과 공감은 그의 <銅雀妓詞>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노래는 22구의 장편 칠언고시로 기첩의 가련한 짝사랑의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당대의 환경이나 정서에서 벗어나

들이 겪은 苦痛의 悲劇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征役이나 行商으로 인한 남편과의 離別이거나 부당한 王命에 대한 抗拒에서 비롯된 百濟女人들의 恨과 所望의 하소였을 것이다.

- 安東注, 「百濟文學의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156.

천한 기녀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은 인간 존중의 표출로서 홍랑과의 고사에 나타난 고죽의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임과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죽의 여성화자 시로는 <白苧辭>, <無題>, <宮怨> 등을 더 들 수 있다.

玉峯 白光勳의 규원시로 <龍江詞>는 30구의 장편 7언고시이다. 임을 여의고 살아가는 한 많은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여 독백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상 현실 속의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적 화자와 배경과 사건을 설정하여 가장 적실한 표현을 구사한 시라 할 수 있다. 백광훈의 규원시 가운데는 이 밖에도 20구의 오언고시 <東郭美人篇>, 14구의 칠언고시 <西臺篇>, 역시 같은 14구의 칠언고시 <西樓篇>과 같이 전래의 악부 형식을 빌어 임과 이별한 여인의 처지와 심정을 관념적으로 노래한 시도 있다.

白湖 林悌는 시와 문장 그리고 행적을 통해 다정다감한 호남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다. 빼어난 국문 염정시를 통해 풍류객으로서의 풍모를 잘 드러내기도 했거니와, 한시에서도 염정시와 사회시, 그리고 비개시를 통해서도 가식없는 한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임을 잃은 여성화자를 설정하여 그 한을 표현하는 수법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특히 '代人作'이란 제목과 형식을 취한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林白湖集』에는 5편의 대인작이 있는데, 이는 시인 자신의 체험과 정서를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고 그 여인을 대신하여 노래하는 형식임을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들은 임과 이별한 여인의 눈물겨운 인종과 한의 정서에 깊이 공감한 사람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섬세한 여인의 심사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다. 백호는 이러한 '代人作' 이외에도 <無題>, <奩體>, <戲題>와 같은 제목의 수많은 염정시를 남기기도 했다.

2) 壯士의 恨(豪氣와 挫折의 悔恨) : 悲慨詩

16세기 호남 한시에서 다른 지방과 달리 한의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또 하나의 양상은, 호방한 기상을 지닌 대장부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좌절한 장사의 한을 노래한 시가 많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핀 규원시가 가부장 사회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한을 노래한 데 비해, 그와는 대조적으로 호방한 기상과 역량을 가졌으면서도 좌절하고 만 懷才不遇의 武人에 빗대어 그 비운을 표현한 시들이 다수 지어진 것이다¹⁴⁾.

16세기 호남 한시에서 武人 形象 또는 武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劍을 노래한 시인은 매우 많다. 石川 林億齡, 河西 金麟厚, 錦湖 林亨秀, 松川 梁應鼎, 霽峯 高敬命, 松江 鄭澈, 孤竹 崔慶昌, 白湖 林悌 등 16세기 호남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인들이다. 이들은 모두 문과에 급제한 문반이고 탁월한 문인이지만 무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과 달리 유독 호남 문인들이 무인 형상의 시를 많이 쓴 것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의 단초

14) 이러한 시를 '武人形象'의 시라 이름하고 그 시들의 풍격과 주제를 고찰한 분으로 박종우와 권혁명이 있다. 박종우는 16세기 호남 한시의 미적 특질을 風格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호남 사대부 한시 특징의 하나로 豪放의 풍격과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悲慨의 풍격을 들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武人 내지는 武人 氣質의 인물을 설정하여 이러한 豪放과 悲慨의 풍격을 드러내었다고 하였다(「16세기 호남사립 시세계의 한 양상-주로 시세계의 주제적 전형과 풍격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9호, 2003, 「16세기 湖南士林 漢詩의 武人 形象」, 『고전문학연구』 27집, 2005, 「16世紀 湖南 漢詩의 한 研究 ; 宋純, 林億齡, 高敬命, 鄭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종우에 의해 시작된 '武人形象' 시에 대한 연구는 권혁명으로 이어졌는데 그에 의하면 무인형상 시는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무인 형상을 통해 文才不用의 현실과 그로 인한 鬱憤과 不滿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하였다(「16세기 湖南 漢詩에 나타난 武人形象과 그 意味 - 林億齡, 梁應鼎, 鄭澈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26호, 2007.).

를 茶山 丁若鏞이 호남인을 평한 “湖南俗任俠少質”¹⁵⁾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산은 호남의 풍속을 ‘任俠少質(호협한 기개만 있고 순박함이 적다)’하다고 했다. ‘任俠’은 ‘義俠’과 유사한 말로서 ‘정의를 위하여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돕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질과 기상이 호방하고 호탕하며, 품은 뜻이 고상하고 원대하며 의지가 굳세고, 용력이 뛰어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大丈夫’, ‘俠客’, ‘豪士’, ‘豪傑’, ‘壯士’ 등으로 불리고 있고, ‘義士’, ‘烈士’, ‘志士’의 이미지에다 武人, 武將, 將帥의 형상을 띠고 있어 그 의미장에 포함된 말들도 매우 다양하다. 호남인들의 이러한 ‘任俠少質’한 풍속이 소외당한 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된 정서가 응축된 결과로 본다면, 이 역시 이 지방 사람들의 의식의 심층에 오랜 동안 잠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시기 들어 훈구 세력과 신진 사대부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네 차례의 사화로 폭발하고 그에 따라 희생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사회적 환경과 남북 변경에서 야인이나 왜구들에게 빈번하게 노략질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을 접한 이 지방 사대부로서, 장사로서의 고뇌와 비분강개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에 표현된 정서는 시대적 현실이나 운명에서 좌절당한 장사의 悲憤慷慨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는 司空圖가 《二十四詩品》에서 말한 ‘悲慨’의 시풍과 다르지 않다. ‘悲慨’는 비분강개함 즉 슬프고 분하며 의분이 북받쳐 개탄함을 일컫는 말이며, 불의에 대한 저항, 꿈과 포부의 좌절에 대한 분노를 배경으로 느끼는 정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호남 한시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무인형상의 시는 장사의 한을 표현한 ‘悲慨詩’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사의 비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였다. 문인인 시인 자신을 무인 장사의 형상에 투사하여 그 장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방법 즉 1인칭 壯士話者의 화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 하나요, 시인이 역사적 인물인 장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 주인공의 행적을 제시하면서 시인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노래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다.

먼저 시인 자신을 호방한 기상과 포부를 지닌 장사로 설정하고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없는 데서 오는 강개한 심정을 노래한 시들을 보기로 한다.

錦湖 林亨秀는 문신이었지만 무인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 그 인물됨에 대하여 허균은 ‘風流豪逸’하다고 했고 이수광은 ‘氣豪才俊’하다고 한 분이다. 뿐만 아니라 문무겸전하여 26세부터 3년간 동북면 국경인 함경도 會寧府 判官으로서 야인을 진압하고 백성들을 안정시켰는데, 그 때의 체험을 200구의 7언고시인 <鰲山歌>로 노래하기도 했다. 문장이나 시서로는 이를 수 없는 군사의 일이나 무인의 역할을 잘 인식한 상무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센 의기는 乙巳士禍, 丁未士禍를 만나 34세의 젊은 나이로 장사의 한을 품은 채 생을 마치게 된다. 그의 <卽事>(受降亭)는 무인의 호탕함과 비개의 정서를 결합하여 호방한 장사의 울분과 한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孤竹 崔慶昌은 三唐詩人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자 문신이었지만, 무관인 평안도 兵馬節度使를 지낸 부친의 기상을 이어받아 문무겸전하여, 무관직을 겸한 직책인 北評事와 鍾城府使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의 <出塞>는 무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쟁에 임하는 비장함이 잘 표현된 시이다. 겉으로는 대장부의 호기가 넘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전쟁의 참담함과 평화에 대한 희원이 담긴 노래라 할 수 있다.

白湖 林悌 역시 무인 혈통의 후예로 성장기부터 호협한 기상과 무인의 기질이 남달랐다고

15) 한국문집총간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文集 跋 <跋擇里志>에서 “湖南俗任俠少質。故唯高氏靈峰孫奇氏高峰孫尹氏孤山孫數家之外。雄顯者蓋少”라고 했다.

한다. 출사하기 전 27세 乙亥(1575) 왜구의 침입이 있자 포의로서 灌園 朴啓賢 전라감사의 막부에 종군하기도 했고, 벼슬의 대부분을 북관지역인 함경도 안변 고산도 찰방, 北道 및 西道兵馬評事 등 무관직을 맡았고 이 때의 체험은 수많은 변새시풍의 시로 표출하게 된다. 그의 시 <元帥臺>는 원수대에 오르는 무장의 늙은 기상으로 시작하여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변새에서의 자주적·민족적 장사·열사의 꿈과 한을 노래한 것이다. '元帥臺'를 시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시로는 이 시 외에도 오언근체의 <元帥臺>과 칠언절구의 <送黃景潤爲鏡城判官>이 더 있다. 이밖에 무인으로서의 호기와 외적을 평정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장사의 꿈, 그리고 변새에서의 우수의 정서를 노래한 시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다. <出塞行>, <次受降亭韻>, <驛樓>, <鏡城長句用朱村韻>, <遺興>, <高唐道中>, <次枕虛樓韻>, <蠶嶺閑亭>, <次巡撫韻>, <送別>, <醉呈朴使相>, <讀杜陵詩史和諸將>, <自述>, <贈金爾玉>, <忠廟>, <送李評事>, <慶興府>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시인 자신을 무인 또는 장사에 투사하거나 다른 장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장사다운 기상과 꿈의 좌절에서 온 한을 표현한 시들을 보기로 한다.

초기에 石川 林億齡은 호방한 기상에 걸맞게 호방한 무인풍의 시들을 많이 남겼다. <聞壯士歌>를 비롯하여 장편의 <金陵太守俊鷹長篇>, <述懷長篇呼韻 贈梁公燮>, <宋大將軍歌> 등이 그것이다. 그의 <聞壯士歌>는 긴 휘파람소리만으로도 오랑캐를 평정할 수 있었던 호기와 위용을 갖춘 장사였지만, 쓸쓸한 가을과 함께 조락해 가는 신세에 대한 비감을 노래하였다. 장사로서의 역량에 대한 자부와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 사이의 불평한 심기와 한을 노래한 것이다.

석천의 34구 오언장편인 <金陵太守俊鷹長篇>의 시적 화자는 금릉태수이고 제재는 '俊鷹' 즉 뛰어난 매이다. 여기서의 금릉태수는 석천 자신을, 俊鷹은 호탕한 기상과 倭狃를 평정할 재능을 지닌 장사를 풍유한 것으로 보인다. 석천의 장쾌한 마음과 우국의 결의와 함께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한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석천의 26구 오언장편 <述懷長篇呼韻 贈梁公燮>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나 기회를 얻지 못하면 홀대를 당하거나 비판을 받아 버려질 수 있음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뛰어난 인재를 외면하거나 배척하던 당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국의 심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석천의 비개시로 대표적인 작품은 아마도 <宋大將軍歌>일 것이다. 이 시는 7언 및 5언형식이 복합된 78구의 장편고시로서, 민간 전승의 영웅 설화를 바탕으로 장군의 영웅적 행적에 대한 흠모와 함께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통탄을 노래했다.

다음으로 河西 金麟厚의 시 가운데 장사의 한을 표현한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인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유자임에도 불구하고 <古劍歌>, <馬伏波據鞍圖>와 같은 무인다운 호방한 기상과 웅대한 뜻을 펴지 못한 한을 표출한 노래를 남겼다.

28구의 칠언고시인 <古劍歌>는 1인칭 시적화자인 '나(我)'가 보검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보검으로 형상화된 뛰어난 재주와 역량을 가졌음에도 그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장사의 울분과 한을 노래한 것이다. 하서의 34구의 장편 칠언고시인 <馬伏波據鞍圖>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오면서 충성을 다했으나 사후에 간신으로부터 충심을 더럽히게 되는 비운의 伏波將軍 馬援이 말타고 싸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고 쓴 시이다. 불의가 정의를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오는 한을 표현하고 있다.

松川 梁應鼎 역시 문신이었지만 關西評事, 關北評事, 穩城府使, 慶源府使 등 무반직을 겸한 외직을 전전한 기간이 많았다. 34구의 칠언장편인 <折檻>은 한나라의 충신 朱雲이 보검으

로써 간신들의 목을 베겠다고 직간하다 난간을 부러뜨린 고사를 인용하여, 간신들이 발호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그들을 척결하지 못한 비분을 노래한 작품이며, <到輸城 與幕僚宴飲>에서는 변방 장수로서의 호기와 懷才不遇의 悲慨를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霽峯 高敬命의 시를 보기로 한다. 霽峯 高敬命은 기묘명현이었던 高雲을 조부로서 둔 학자요 문인이었다. 임진왜란 때 60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서 쫓겨난 포의의 신분으로서 창의하여 두 아들 從厚, 仁厚와 함께 삼부자가 순국한 역사상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무인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가문 출신이요 관직에 있을 때도 무반직을 맡은 적이 없었음에도, 그의 시를 보면 무인 못지 않게 호방한 기상을 지녔고, 이러한 무인다운 기상과 절의는 국난을 당하여 자연스럽게 의병활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2구의 7언고시 <醉時歌>는 고검(古劍)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비범한 자질과 능력을 지녔지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흠 속에 묻힌 고검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웅대한 꿈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펼 수 없는 장사의 비분강개한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이처럼 칼이나 활을 소재로 한 무인의 한과 관련된 제봉의 시는 이밖에도 <謝周道贈劍>, <早起>, <次湖陰> 등이 있다.

松江 鄭澈의 시 <對月獨酌>도 같은 부류의 시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술을 제재로 하였고, 송강은 주선이었지만 이 시는 주흥을 노래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문인으로서의 송강이 뜻을 펼 수 없는 울분과 강개한 심정을 무인의 칼에 기탁하여 노래한 시로 볼 수 있다. 좌절당한 장부의 한을 완곡하게 표현한 시의 전형을 보여준 작품이다

3) 백성의 恨(世上에 대한 憤怒와 백성에 대한 憐憫) : 社會詩

16세기 호남 시인들에 의해 지어진 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곤궁한 삶의 묘사를 통하여 그들의 고통과 한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그 원인이 된 당대의 제도 와 지배계층의 수탈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분노를 노래한 점이다. 즉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풍자의 수법을 통해 표현한 시들로 사회시, 풍유시, 풍자시, 사회풍자시 등으로 부르는 시인데, 이 사회시의 경우 16세기 호남지방 한시가 다른 지방 한시에 비해 시인들의 수에서나 작품의 양에서나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시는 주로 피지배층인 백성의 시각에서 당대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로 그들의 고통과 한을 노래한 시이다.

그러면 왜 다른 지방과 달리 이시대 호남 사대부 시인들에 의해 사회시가 다수 산출될 수 있었을까? 이 시대는 연산군의 폭정 이래 훈척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와 신흥 사림파 사이의 권력 쟁탈을 두고 벌어진 사화의 여파와 여러 차례의 왜변으로 인한 시대의 모순이 중첩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시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시가 성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것은 틀림 없지만, 이런 조건이 호남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영남 지방의 재지사족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학문적·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세습해 온 데 비해, 호남 사람들은 조선 초기부터 정치적 이유로 낙남하였거나 유배당한 양반의 후예가 대부분으로 학문적으로나 경제적 조건이 영남 사람들에게 비해 열악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호남 지방에 인재가 많이 배출된 것은 가문의 정치적 후광이나 풍요한 경제적 후원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로 그들의 천부적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의지의 결과였을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낙향해 있을 동안에도 일반 백성들의 삶과 크게 유리된

삶은 아니었을 것이고, 더구나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기 때문에 관리들의 수탈이 자심했을 것이며, 거기에 잦은 왜구들의 침탈 등으로 인해 이웃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체험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따랐을 것이며, 이러한 체험은 이 지방 사람들의 감성적 기질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한을 담은 사회풍자시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우선 訥齋 朴祥의 시부터 보기로 한다. 놀재의 <呵呵>(遺草作荷荷)는 12구의 칠언고시로서 목민관으로의 체험을 통해 목민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표현한 시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목민관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잘 표현한 시라 하겠다. 놀재는 이외에도 장마철 굶주린 백성들에게 부적절한 부역을 강행하는 관의 횡포를 풍자한 <苦雨>, 여섯가지 흉물과 독물이 되어 백성의 고향을 착취하는 지배계층을 신랄하게 풍유한 20구의 오언고시 <古風十韻>, 지방 관원들의 가렴주구를 풍자 고발한 <尙州到忠州> 등을 남기고 있다.

陽谷 蘇世讓의 사회풍자시 역시 매우 신랄하다. 그의 <田家苦>는 18구의 오언고시로서, 괴로운 농사일로 허리를 펴 겨를도, 아이에게 젖 먹일 틈도 없지만 세금 독촉에 부자가 머슴으로 전락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마는 참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시이다.

俛仰亭 宋純은 이 시대 호남의 대표적 사회풍자시인이었다. 24구의 오언고시인 <田家怨>은 춘궁기의 궁핍, 공납과 사징으로 가렴주구하는 관원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농가의 참상을 고발한 시이다. 면양정은 이밖에도 거지의 삶을 통해 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당대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신분의 차별없는 하층민에 대한 연민과 긍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지이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새로운 인간상을 표현한 44구의 칠언고시 <閻丐歌>, 유민으로 전락한 백성들의 참상을 폭로하고, 그 원인으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와 혹독한 법령 제도로 진단하며, 양반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분노를 표현한 40구의 칠언고시 <閻隣家哭>과 같은 장편의 사회시들을 남기고 있다. 거지를 제재로 한 작품의 전통은 위 면양정의 <閻丐歌>에서 하서 김인후의 <丐歌嘆>으로 이어지고 다시 송강 정철의 <道逢丐者>로 이어진다.

河西 金麟厚의 백성에 대한 애정은 <傷田家>를 통해 확인된다. <傷田家>는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과 고통을 노래한 시로서 '刈麥(보리베기)', '種豆(콩심기)', '耘苗(김메기)'의 세 수로 되어 있다. 가령 '刈麥(보리베기)'은 모진 가뭄으로 보리농사를 망친 농가의 고달픔과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무능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시이다.

松江 鄭澈의 가난한 백성들의 참상을 고발한 사회시로는 <賣薪吟> 등이 있는데, 이 시는 땀나무와 숲을 팔아도 밥 한 끼를 지을 수 없어 굶주리며, 겨울에 도토리를 줍다 동상에 걸려 신음하고, 자식을 도랑에 버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고발한 시다.

백성의 한을 노래한 思庵 朴淳의 시로는 <丹陽途中>, <宿山村民舍> 등이 있는데, <丹陽途中>은 災傷御史時에 호서지방을 순시하다 지은 2수로 된 시이다. 먼저 관에 세금으로 다 바치고 삶의 방책을 잃어버린 촌가의 황폐한 모습을, 다음에 백성들의 곤궁한 처지를 귀족이나 부자들의 사치와 낭비에 대조시켜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杜甫의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인상적인 시다. <宿山村民舍>는 가난한 깊은 산촌에까지 가렴주구의 착취가 미치고 군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노래한 시이다.

다음으로 霽峯 高敬命의 사회시로는 <次山谷效建除體韻 述懷>, <秋雨害稼> 등이 있는데, <次山谷效建除體韻 述懷>는 山谷 黃庭堅의 시를 차운하여 쓴 24구의 장편고시이다. 흉년과 세금 부담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백성의 처지에 서서 실감나게 노래했다. <秋雨害稼>

嘆>은 가을 장마로 인한 피폐한 농촌의 실상과 가렴주구로 인한 농민의 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농민의 처지에서 읊은 응제시(應製詩)이다. 백성의 처지에 서서 실감나게 노래했다.

孤竹 崔慶昌의 사회시로는 <田家>, <雨雹> 등이 있다. <田家>는 보릿고개를 배경으로 하여 궁핍한 '田家'와 부유한 '東鄰'을 대조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풍유한 오언절구의 시이고, <雨雹>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참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28구의 장편 오언고시이다.

玉峯 白光勳의 42구 장편 칠언고시인 <達梁行>은 그 제재가 앞에서 소개한 거지나 농민 등과는 달리 왜구의 침략으로 희생된 백성들이다. 이 시는 명종 10년(1555년)에 왜구가 70척을 동원하여 전라도 해안을 침범하였던 을묘왜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으로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전란의 참상과 국가를 보위해야 할 장수의 무능으로 인해 희생된 백성들의 고난과 한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노래하였다.

끝으로 白湖 林悌의 시를 보기로 한다. 20구 칠언고시인 <田家怨>은 조정에 月課로 올린 작품으로서 곤궁한 농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구황의 일로 궁촌을 다니다가 泰川고을 경계에 이르러 70세의 노인이 90세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시라는 <以救荒事行遍窮村 到泰川境 見七十歲老翁奉九十慈親 感而紀事>, 高山察訪으로서 군량 수송에 차출되어 해변을 왕래하면서 목민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백성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노래한 6수의 <紀行>을 남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시는 <新穀行>, <望南家吟> 같은 작품을 남긴 고려말 李奎報를 선구로 하고, <籍兵行>, <母別子> 같은 시를 쓴 영남의 金誠一 같은 분이나, 金時習, 魚無迹, 李達, 權鞞 같은 方外人 성향의 시인들에 의한 사회풍자시가 있기는 했지만, 호남지방의 사회시는 같은 시기, 같은 지방,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에 의해 같은 경향의 시가 성황을 이룬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 중기 호남의 사회시는 당시풍을 적극 수용하면서 杜甫와 白居易의 시정신을 본받고 발전시켜, 조선 후기의 茶山 丁若鏞의 사회시로 꽃피우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은 국문학사상 지방문학 시대를 연 16세기 조선 중기, 호남 지방문학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한시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해 본 글이다. 16세기 호남 지방은 전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재들이 거의 동시에 족출하여, 영남 지방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학문과 문학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이 시대 영호남에는 각각 특색 있는 지방문학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두 지방문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당대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가문학, 그 중에서도 한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조적 경향은 호남한시의 주기적(주정적) 경향과 영남한시의 주리적(재도적) 경향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호남한시에 표출된 주기적, 주정적, 감성적 경향을 대표하는 정서는 한(恨)과 풍류라 할 수 있다. 한은 상실, 좌절, 탄압, 수탈, 불운 등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정서이며 약자, 패자, 피치자 즉 민중의 정서이다.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는 약자, 패자, 피치자라 할 수 없는 사대부 문인들에 의해 다른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시를 통해 민중적 한

이 표출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이 지방 민중들의 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집단적 트라우마인 한의 정서를 사대부 문인들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 지방 특유의 개방적 사고와 풍조는 개성있는 감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당시풍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재나 주제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표현의 기법을 개척하는 등 시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한이건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한이건 호남 한시에 표현된 한의 표출 방식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적 자아나 노래한 대상을 상실과 좌절 그리고 착취당한 약자, 패자, 피치자로 설정함으로써 그 약자의 처지와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을 노래한 시의 시적화자나 대상은 대부분이 사랑을 잃은 여성이거나, 꿈과 호기를 실현하지 못하고 좌절한 무인, 장사이거나 학대와 착취와 불의에 희생당하는 백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양반 사대부 시인들이 자신의 시적 정서를 시적화자나 대상에 투사하여 자신과 나아가 이 지방 사람들의 정서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남한시에 표출된 한의 양상은 첫째, 女人의 恨(애정상실의 情恨)을 노래한 閨怨詩 둘째, 壯士의 恨(豪氣와 挫折의 悔恨)을 표현한 悲慨詩 셋째, 百姓의 恨(世上에 대한 憤怒와 백성에 대한 憐憫)을 노래한 社會詩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호남 한시에 표출된 여성의 情恨, 장사의 悔恨, 백성의 痛恨 즉 恨은 호남인의 대표적 정서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을 표출하는 세 가지 양상은 당시의 대표적 호남 사대부 시인들 즉 朴祥, 蘇世讓, 宋純, 林億齡, 林亨秀, 金麟厚, 李後白, 朴淳, 高敬命, 鄭澈, 白光勳, 崔慶昌, 林悌 등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서를 표출한 시들은 짧은 시형인 절구나 율시보다는 대부분이 12구 이상의 장편 고시나 악부체이며, 40구가 넘는 장편만 해도 <妾薄命>(박상) 56구, <李少婦詞>(최경창) 40구, <宋大將軍歌>(임억령) 78구, <聞丐歌>(송순) 44구, <聞隣家哭>(송순) 40구, <達梁行>(백광훈) 42구 등 많은 작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들이 일시적 즉흥적으로 일어난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많은 고심과 독자를 의식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쓰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남지방 한시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恨의 정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의 風流기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두 지방문학 사이에는 작품외적 특성으로서 양 지역의 인성적, 이념적, 학문적 경향의 차이, 문학관의 차이, 문학 공간으로서의 시단의 차이, 향유하는 집단의 계층적 차이 등이 나타나고, 작품 내적 특성으로서 두 지방에서 생성하고 발전시킨 국문학의 갈래, 두 지방 국문시가와 한시에 나타난 주제적 경향, 지방에 따라 선호하는 서정, 서사, 교술 등 문학의 갈래, 표현상의 특징 등에 있어서도 대조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다음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자료>

『孤竹遺稿』

『錦湖遺稿』
 『訥齋先生集』
 『俛仰集』
 『思菴先生文集』
 『石川先生詩集』
 『松江集』
 『松川先生遺集』
 『陽谷先生集』
 『玉峯詩集』
 『林白湖集』
 『霽峯集』
 『靑蓮先生集』
 『河西先生全集』
 『惺所覆瓿藁』
 『與猶堂全書』
 『芝峯類說』

<단행본>

김열규, 『우리의 전통과 오늘의 문학』, 문예출판사, 1987.
 민병수,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7.
 박만규, 나경수,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정익섭, 『호남가단의 연구』,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주)지식산업사, 1992.
 _____,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논문>

권혁명, 「16세기 湖南 漢詩에 나타난 武人形象과 그 意味 - 林億齡, 梁應鼎, 鄭澈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26호, 2007.
 김대현, 「청련 이후백 한시에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경향」, 『한국언어문학』 53집, 2004.
 박명희, 「16세기 호남한시의 여성화자 유형과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호, 2010.
 박종우, 「16세기 호남사림 시세계의 한 양상」, 『한문학보』 9호, 2003.
 _____, 「16세기 湖南士林 漢詩의 武人 形象」, 『고전문학연구』 27집, 2005.
 _____, 「16世紀 湖南 漢詩의 한 研究 ; 宋純, 林億齡, 高敬命, 鄭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진태, 「판소리와 탈놀이의 비교발생론」, 『국어국문학』100호, 국어국문학회, 1988.
 박학래, 「조선시대 호남유학의 전개양상과 의의」, 『대한철학회논문집』99집, 2006.

- 安東注, 「백제문학의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종목, 「애정한시의 전통과 미학」, 『국문학연구』제5호, 국문학회, 2001.
- 이해준, 「기묘사화와 16세기 전반의 호남학파」, 『전통과 현실 2』, 1991.
- 이혜순, 「여성화자 시의 한시 전통」, 『한국한문학연구』19호, 1996.
- 조원래, 「16세기초 호남사림의 형성과 사림정신」, 『금호문화』89-2, 1989.
-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어문학』50집, 한국어문학회, 1989.
- 채현석, 「16세기 강호시가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토론문>

김영봉(전북대)

장봉수 선생님의 “조선 후기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에 대한 토론문

저는 원래 史學科 출신으로 梅泉野錄과 絶命詩로 유명한 梅泉 黃玟의 詩文學 研究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의 한시를 전공해서 조선 중기의 한시와는 전공분야에서 조금은 멀지만,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호남지방에서 창작된 한시 내용 중 恨의 양상을 고찰해보겠다는 발표자의 의욕을 십분 공감하면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되어 발표자의 논문 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을 읽고 느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 의문점 등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 먼저 목차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선 중기 호남 한시에 표출된 한(恨)의 양상’이라는 발표자의 논문의 제목은 학술 토론의 장에서 발표할 논문 주제로 삼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시 제목에 ‘조선 중기’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 중기’라는 용어 사용의 폭이 커 논점이 흐려지고 있는데,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시대구분론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쓰신 본 논문에는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살았던 호남 시인들의 恨의 양상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조선 중기 호남지방의 恨의 정서를 논하는 본 논문에서 이 시기 여성 시인들이 써 놓은 시의 恨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지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논문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의 머리말 10번째 줄에 있는 ‘지방문학 사이의 비교를 통한 특성의 고찰은 미미한 실정이다.’라는 내용과 연결하여 ‘2. 조선 중기 호남 한시’를 논한 3쪽의 상단 부분은 영남 호남 성리학에 대한 논쟁과 논변의 양상이 나열되어 있고, 뒤로는 호남 한시의 경향이나 특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 조선 중기 호남 한시’는 논문의 제목 및 주제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있습니다. 또 3쪽의 ‘3. 호남 한시와 恨’도 같은 의미로 4쪽의 전반부는 恨의 경향이나 恨의 낱말을 풀이하고 있고, 4쪽 후반부는 恨을 표출한 작가나 작품이 많은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제시가 명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는 호남한시의 특징을 다시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와 관련하여 논문의 구성적인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4쪽에 천이두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용만 해 놓고 인용문에 대해 인용했던 이유나 주장하는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데요, 발표자께서는 이 부

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4쪽 아래에서 10번째 줄인데요, “호남 지방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국가나 민족이나 정권의 중심부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소외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의 글의 논지를 보면 조선 중기에 호남지방이 장기간에 걸쳐 소외되었기 때문에 恨의 정서가 자리 잡았다는 내용인데, 저는 16세기 말 1592년에 일어났던 왜란 직전까지 거의 호남 지방 사람들이 특별히 차별대우나 소외를 크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호남지방 사람들이 恨의 정서가 많았던 원인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5쪽에서 ‘4. 호남 한시에 표출된 恨의 양상’은 논문의 제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규원시, 비개시, 사회시로 나눠 恨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漢詩 作家의 시의 제목만 써놓고 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조선 중기에 호남 지방에서 활동한 한시 작가들의 恨의 양상을 표출한 詩句를 직접 인용하여 주장을 펴면 더 생동적인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용된 한시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12쪽 첫 부분에서 ‘이 시기 호남 지방에 인재가 많이 배출된 것은 주로 그들의 천부적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의지의 결과였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남지방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 출신보다 더 천부적 재능이 많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선 중기 호남 지방에서 인재(뛰어난 한시 작가들)가 많이 배출되었던 원인을 오히려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 중기 호남지방의 恨을 표출했던 여러 변인들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7쪽부터 13쪽까지는 ‘호남 한시에 표출된 恨의 양상’을 논하면서 閨怨詩, 悲慨詩, 社會詩로 나눠 분류하고 恨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주제에 부합하는 호남 漢詩人들의 恨의 특징이나 주장할 만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조선 중기에 호남 한시를 창작했던 시인들의 시 내용을 소개하거나 업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문 내용은 작가론이나 작품론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본 논문의 주제 접근을 위한 진전된 논의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서 조선 중기 영호남의 한시에서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차이점 등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본론 부분에서 거의 영남 한시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창 한시에 나타난 지역성

- 부안 · 변산권 한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

손영화(전북대)

<목차>

- I. 지역문인 매창 다시 읽기
- II. 자유와 휴식의 공간: 변산
- III. 동경과 향수의 공간: 향토

I. 지역문인 매창 다시 읽기

매창(1573~1610)은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기녀이다. 황진이·서경덕·박연폭포를 松都三絶이라 칭하듯, 매창·유희경·직소폭포를 일러 扶安三絶이라 한다. 이 말처럼 매창은 고전문학사에서 황진이와 쌍벽을 이루는 여류시인이자 면면히 이어진 부안지역의 예술혼을 대변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나 황진이와 마찬가지로 기녀라는 신분상 구체적인 생애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많지 않아, 매창과 교류했던 허균·유희경 등의 문집과 저술 등을 통해 그 대략을 가늠해볼 뿐이다.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梅窓集』 발문에 의하면 매창의 아버지는 부안현의 아전 李湯從이다.

계생의 자는 천향인데, 스스로 매창이라고 호를 지어 불렀다. 부안현의 아전이던 이탕종의 딸이다. 만력 계유년(1573)에 나서 경술년(1610)에 죽으니 나이 서른여덟이었다. 평생 노래 부르고 시 읊기를 잘 했다. 수백편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으나 지금은 거의 흩어져 없어졌다. 무신년(1668) 10월에 아전들이 외워 전하던 시 58수를 모아 개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¹⁾

아전의 딸이라는 출신으로 말미암아 매창은 자연스럽게 기적(妓籍)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스스로 매창(梅窓)이라는 호를 지어 기명(妓名)으로 삼았다. 매창이라는 이름은 비록 못 사내들을 위한 향락의 대상일지언정 차디찬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고결한 매화처럼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의지의 천명이었다.²⁾

매창은 가무는 물론 시문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거문고를 타는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서 도성에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고 한다. 타고난 재주에다 기녀라는 신분적 질곡에서 파생되는 삶의 애환까지 더해져 섬섬옥수로 뜯는 거문고 가락마다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이렇게 시와 거문고로 정한을 달래다가 38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요컨대 매창은 기녀

1) 『매창집』 발문

2) 이수광의 『지봉유설』 권14에 수록된 「妓妾」은 매창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떠돌며 밥 얻어먹는 범이라곤 평생 배우지 않았고 / 매화나무 창가에 비치는 달그림자만 나 홀로 사랑했답니다 /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을 그대는 알지 못하고 / 뜯구름이라 손가락질하며 잘못 알고 있네요 [平生不學食東家 只愛寒梅月影斜 詞人不識幽閑意 指點行雲枉自多]

라는 신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매창이라는 自號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창 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드러나는 상사와 연모의 女心 읽기에 치우친 감이 있다. 김지용 교수는 황진이가 자유분방한 개성적인 멋을 지닌 데 비해 매창은 情誼에 가득차고 정절이 굳으며 인내와 순종의 여성적 멋을 지닌 여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³⁾ 시조 한 수와 한시 57수라는 많지 않은 작품에서도 특히 相思之懷와 신분 한탄을 노래한 작품들⁴⁾이 주로 다루어진 점은 이러한 연구 현황을 반영한다.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지고지순한 순정과 매창 시조 「이화우 훗날릴제」에 나타난 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한국여인의 원형으로 일반화하는 논리⁵⁾도 매창 한시가 지닌 다양성을 간과하는 요인이다.

부안은 매창이 나고 자라고 생애를 마친 고장이다.⁶⁾ 그렇다면 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공간론적 인식의 바탕을 '피해의식의 공간', '임 부재의 공간'⁷⁾ 말고도 부안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글은 매창 한시에 나타난 지역성을 중심으로 부안·변산 지역문인으로 매창의 위상과 가치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이다.

매창이 죽고 50여 년 후 부안의 아전들이 매창의 시문이 산실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부안 開岩寺에서 『매창집』을 간행하였다. 『매창집』 간행은 그 자체만으로 매창에 대한 세인의 평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매창에게는 追遠報本하려는 자손이나 불우한 藝人의 재주를 아끼는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매창집』은 매창의 굳은 절개와 뛰어난 시재를 아낀 부안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추림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신분을 떠나 그 사람의 됴됨이와 능력,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안 사람들이 아니었던들 매창의 주옥같은 시편은 무심한 세월 너머로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매창집』과 매창 묘비석은 부안 지역민이 지닌 문화 예술적 소양의 증좌이자, 매창을 지역의 대표문인으로 여기고 매창의 작품을 아꼈음을 보여준다.⁸⁾

지역문학의 범주 조건을 ①그 지역 출신의 인사가 ②그 지역 내에서 ③그 지역의 언어를 제대로 활용하여 ④그 지역의 문학적 소재를 이용한 제작한 작품이라고 설정할 때,⁹⁾ 매창의 작품은 이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있다. 매창과 매창의 작품이 특히 사대부 이하 부안 지역민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지역색(향토색) 짙은 소재를 사용했던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했기에 지역민들에게 주는 감동의 폭과 깊이가 더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

이런 견지에서 매창 한시에서 지역성을 탐색하려는 본 논문의 작업은 그간 情恨의 시상에

3)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1974.(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대출판부, 1988.에서 재인용)

4) 상사지회를 읊은 대표작으로는 「彈琴」, 「自傷」, 「自恨」, 「贈別」, 「秋思」, 「閨怨」, 「春怨」 등이 있으며, 신분 한탄을 주된 정조로 하는 작품으로는 「籠鶴」, 「贈醉客」, 「自恨薄命」, 「病中秋思」 등이 있다. 신분 한탄의 시는 성적 유희를 탐해 집적대는 술한 사내들로 말미암아 고단한 기녀의 애환 또는 관아에 구속되어 출처가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움 등에 대한 호소이다.

5) 천이두, 「문학예술에 표상된 전북인상」, 『전북학연구』 III, 전라북도, 1997, 364쪽.

6) 한양으로 전근되는 태수 徐雨觀을 따라 잠깐 한양에 머물렀던 때를 제외하고 매창은 평생을 부안에서 살았다.

7) 김덕수, 「이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의식세계」, 『국어문학』 29, 국어문학회, 1994.

8) 매창은 부안을 봉덕리 공동묘지에 동고동락했던 거문고와 함께 묻혔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매창(이)뜰이라고 부른다. 1655년 부풍시사에서 매창의 무덤 앞에 '名媛李梅窓之墓'라고 쓰인 비석을 세워 추모하였다. 매창의 묘는 1983년 지방기념물 65호로 지정되었다. 부안문화원은 매년 4월경 매창문화제를 개최하여 매창의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고 있다. 1668년 개암사에서 간행된 『매창집』은 밀려드는 수요에 개암사의 재원이 바닥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9) 성범중, 「고전문학과 지역성의 문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121쪽.

10) 성범중, 위의 논문, 122쪽.

경도되어 논외로 취급되던 매창의 일부 한시 텍스트에 관심을 촉구하고, 향후 부안·변산 일대 문학지리(학)¹¹⁾의 정립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자유와 휴식의 공간: 변산

『매창집』에는 모두 58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李元亨의 작품으로 확인된 「尹公碑」를 제외하면 현재 전하는 매창의 한시는 57수가 된다. 이 중 지역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은 부안·변산 일대의 명승이나 고찰을 찾아 그 풍경을 읊은 몇 수이다.

千層隱佇千年寺	천 층 높이 산 위에 천 년된 절이 있어
瑞氣祥雲石逕生	상서로운 구름 사이로 돌길이 났네
淸磬響沉星月白	맑은 풍경소리 잦아들고 별빛은 밝은데
萬山楓葉鬧秋聲	온 산에 단풍 들어 가을소리 가득해라

「登千層庵」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천년 고찰 천층암의 저녁 풍경을 읊은 시다. 변산(509m)은 수백 개의 바위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파른 암벽을 기어오르면 또 다른 바위 능선이 기다리고 있다. 천 겹의 바위 봉우리들에 에워싸여 있어서 이름도 천층암이었던 모양이다. 현재 천층암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東國輿地誌』 부안현 조에 淸臨寺를 소개한 대목에 천층암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서 그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볼 뿐이다.¹²⁾

淸臨寺는 변산 靑淵洞에 있다. 절 뒤 산 위에 또 淸淵窟, 千層庵이 있는데, 암자는 절벽에 붙어 있다. 바위가 갈라지고 돌이 겹겹이라 나무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위와 아래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산골짜기다. 원래 淸臨寺는 옛날에는 큰 절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져서 그 터만 남아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천층암은 변산 청연동 청림사 뒤의 산 위에 있었던 작은 암자이다. 깎아지른 절벽에 붙어 있어서 나무사다리를 타고 기어올라야만 한다. 자칫 밧이라도 헛디디는 날에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청림사의 규모가 컸다고 했으니, 아마도 천층암은 청림사에 딸린 末寺가 아니었을까 싶다. 매창은 여인네의 몸으로 이런 아찔한 곳에 있는 천층암에 오른 것이다.

전구와 결구는 천층암에서 맞는 고즈넉한 밤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암자에 오르는 도중 매창의 시선에는 온산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단풍이 들어왔던 모양이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산이 어둠에 잠기니, 맑은 별빛이 하늘을 수놓고, 가을 풀벌레 소리만 적막을 깨운다. 이는 단순한 경물 묘사라기보다는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自性を 회복한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문학적 수사에 가깝다. 「등천층암」을 통해 변산의 작은 암자 천층암을 찾아 참선 수행하는 매창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한편, 『동국여지』에는 청연동의 위치에 대한 기록도 있다.

11) 문학지리(학)은 문학사학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문학사가 시간을 주축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간을 주축으로 이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문학사는 총괄, 문학지리는 개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문학사는 전체의 체계를 잡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으나, 문학지리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무한히 달라지는 논의가 펼쳐진다.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159쪽)

12) 『동국여지』는 반계 유흥원(1622~1673)이 1656년에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매창 사후 60여 년이 지나서 반계가 『동국여지』를 편찬할 무렵에도 천층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연동은 변산 가운데에 있다. 뽕족뽕족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계곡과 폭포가 못을 이루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바위 위까지 넘쳐흘러 자리를 깬 것처럼 평평하다. 세상에 전하기를 용이 못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하며, 가뭄이 들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낸다. 상류에 火龍淵이 있고, 그 북쪽으로 1리쯤 되는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깎아지른 벼랑이 천 길이나 되어 기어오를 수 없다. 벼랑의 이름은 鶴岩인데, 옛적에는 학의 동우리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한다.

산봉우리와 계곡, 폭포 등의 설명을 미루어볼 때 청연동은 지금의 가마소계곡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상류에 있다는 화룡연은 와룡소, 淸臨寺는 靑林寺,¹³⁾ 학암은 鶴峯(병봉, 안주봉)으로 보인다.¹⁴⁾

매창은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던 허균의 영향을 받아 참선에 힘썼으며, 유선사 계열의 仙的 취향의 시들도 즐겨 썼다. 30여 세 이후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아 양생과 수련에도 관심이 많았다. 월명암 역시 매창이 참선을 위해 자주 찾았던 사찰이다. 월명암은 변산 쌍선봉(459m) 아래 위치한 사찰로, 변산 8경 중 月明霧靄로 이름난 곳이다.

卜築蘭若倚半空	하늘에 기대어 절간을 지었기에
一聲淸磬徹蒼穹	맑은 풍경소리 하늘까지 통하네
客心恍若登兜率	나그네 마음도 도솔천에 올라온 듯하니
讀罷黃庭禮赤松	황정경을 읽고 적송자를 봐야겠네

「登月明庵」은 월명암에 오른 감회를 읊은 시다. 「층천층암」과 마찬가지로 기구와 승구에서는 높은 산에 위치한 사찰의 탈속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구름 사이로 난 돌길(층천층암)’, ‘하늘로 울리는 풍경소리(등월명암)’ 모두 수직 상승의 이미지로 意趣의 고양을 도모하였다. 「등월명암」에서는 수직 상승을 통한 지향처가 불가의 깨달음, 즉 도솔천임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다.

매창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없었고, 싫어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재주를 팔아야 했다. 매창의 한시에서 변산은 그런 愛別離苦 怨憎會苦의 숙명에서 자유롭기를 꿈꾸었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현실의 구속과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게 한 공간인 변산의 명승과 사찰은 정신과 육체의 휴양처였음에 분명하다.

「登御水臺」는 신라 경순왕의 전설이 깃든 어수대에서 감상을 읊은 시다.¹⁵⁾

王在千年寺	천년 왕업의 옛터엔
空餘御水臺	겨우 어수대만 남았네
往事憑誰問	지나간 옛일을 누구에게 물으리
臨風喚鶴來	바람 맞으며 학을 불러 보네

어수대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괴석의 절벽으로, 변산의 진경인 雨中邊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장마철이면 바위 봉우리 곳곳에 폭포가 생겨 물줄기가 쏟아지면서 자욱한 물안개가

13) 청림사는 변산 상서면 청림리에 있었던 절로, 변산의 4대 사찰 중의 하나였다. 언제 소실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청림사에서 나온 銅鐘에 새겨진 명문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절임을 알 수 있다. 절은 불타버리고 절의 경내였던 자리에 마을이 들어섰으며, 대웅전 자리였던 곳에는 부안김씨 재실이 들어서 있다. 재실을 지을 때 땅을 파니 큰 동종이 나와서 내소사에 보존하였다고 전한다. 그 동종이 지금 내소사 종각에 보존되어 있는 보물 277호인 고려동종이다.

14)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땅이름 <http://blog.daum.net/byeonsan88/1563> 참조.

15) 어수대에는 신라 경순왕이 이곳에 들렀다가 목욕을 하고 경치에 반해 머칠을 놓고 갔다 하여 붙은 지명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피어오른다. 처진 기암괴석의 절벽을 말한다. 바위 절벽 면으로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비경을 자아낸다. 그러나 매창이 어수대를 찾은 때는 폭포수 장관을 연출하는 장마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매창은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전설을 회고하며 감회에 젖었다. 전구까지는 적막하고 처연한 분위기 속에 무상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무상감의 이미지는 결구에서 학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상승 이미지로의 전환이 시도된다.

매창은 천층암, 월명암, 어수대 등과 같이 변산 일대의 명승과 고찰을 찾아 그 경치와 감상을 읊었다. 탐승 행위는 매창에게 기녀라는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휴식을 제공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탐승이 자연 경물에 대한 단순한 완상 취미가 아니라 불교와 도교 등에 대한 철학적 開悟를 전제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가 높다고 평가할 만하다.

Ⅲ. 동경과 향수의 공간: 향토

매창은 생애의 대부분을 부안에서 보냈다. 부안의 자연과 풍물은 매창에게 시적 영감을 촉발시켰고, 매창은 作詩함에 있어 부안의 자연과 풍물을 통해 정감을 녹여내었다. 그래서 매창의 한시에는 부안과 부안 지역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향수가 묻어난다. 비록 관아에 매인 기녀의 신분이어서 촌부와 아낙네들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해내지는 못하였지만, 아련한 그리움의 정감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泛舟」는 부안 강어귀에서 뱃놀이하면서 포착한 경물을 산뜻하게 읊어낸 작품이다.

參差山影倒江波	들쭉날쭉 산 그림자 강 물결에 어리고
垂柳千絲掩酒家	수양버들 가지들이 주막을 가렸네
輕浪風生眠鷺起	바람에 이는 잔물결에도 백로는 놀라 깨고
漁舟人語隔烟霞	고기잡이 말소리는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네

산 그림자가 맑은 강에 비치고, 강가 수양버들의 축축 늘어진 가지들은 건너편 주막을 가리고 있다. 강물의 흐름대로 배는 조용히 나아간다. 작게 일렁이는 물결에 잠자던 백로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드는데, 안개 속에서 아득히 어부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백로를 깨운 것이 잔물결인지 고기잡이 어부들의 말소리인지 알기 어렵다. 전체적인 시상은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이다. 매창은 어부들처럼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의 실현불가능은 몽롱한 안개로 상징된다. 그래서 매창에서 시에서 일상생활의 공간인 향토는 그리움이라는 정서의 형상화 공간에 머물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尋眞」 역시 향토색 짙은 소재를 활용해 평범한 지역민의 삶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岩下繫蘭舟	바위 아래 목란 배를 매고
耽看碧玉流	푸른 물결 바라보고 즐기네
千年名勝地	천년의 이름난 이곳
沙鳥等閑遊	모래밭 물새들만 한가롭게 노니네 (其二)

遠山浮翠色	먼 산은 푸른 하늘에 떠 있고
柳岸暗烟霞	버드나무 언덕은 안개 속에 잠겼네
何處靑旗在	어디멘가, 푸른 깃발 펴려있는 곳

漁舟近杏花 고깃배는 살구꽃 핀 마을로 다가가네 (其三)

매창은 목란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물결을 바라보며 모래밭 물새들을 구경하고 있다. 매창이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은 물결이다. 푸른색은 꿈과 이상의 색채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나 물결은 신기루처럼 부서지고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매창이 바라보는 푸른 물결은 이를 수 없는 자신의 꿈에 해당한다. 모래밭, 물새 같은 향토적 소재, 푸른 물결과 모래밭 물새 간의 淸白 대비 등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尋眞」 기삼에도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먼저, 기구와 승구에서는 푸른색(하늘, 버드나무 언덕)과 하얀색(안개)이 대비된다. 푸른색은 원경의 하늘과 근경의 버드나무 언덕에 공통으로 나타나며, 하얀색 안개에 의해 구분된다. 전구의 푸른 깃발은 其二의 푸른 물결과 동일한 메타포로 쓰였다. 전구의 표현은 유치환의 「깃발」에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리이다.

이에 비해 고깃배는 지역민의 생동하는 삶의 수단이며, ‘살구꽃 핀 마을’은 고향이다.¹⁶⁾ 매창이 지향하는 삶의 공간이 ‘살구꽃 핀 마을로 향하는 고깃배’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自恨」 其三이다.

翠暗籠烟柳	버들엔 푸르스름 안개가 끼고
紅迷霧壓花	꽃잎은 붉으스름 안개에 눌렸네
山歌遙響處	나무꾼의 노래가 아득히 메아리치고
漁笛夕陽斜	어부의 피리소리는 저녁놀 속에 스러지네

매창은 푸른 버들도 붉은 꽃이 핀 향토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의 공간은 언제나 안개에 덮여 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현 방안의 부재는 고향을 몽롱한 그리움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한다. 나무꾼과 어부는 매창과 시공간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향토공동체가 아니라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동체이다. 이른바 매창이 정의하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와 가상의 간극은 매창이 문학적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감의 투사이다.

石田茅屋掩柴扉	돌밭 초당에서 사립문까지 닫고 지내며
花落花開辦四時	꽃 지고 꽃 피는 길로 계절을 아네
峽裡無人晴晝永	산속에는 사람도 없는데 해는 길어
雲山烟水遠帆歸	구름 끝 바다 멀리서 돛단배가 오네

「閑居」에 나타난 매창의 공간 역시 현실의 공간과 단절되어 있다. 굳게 닫힌 사립문은 외부 현실과 소통하는 통구가 폐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매창은 오로지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통해 삶을 인식한다. 어부들의 비릿한 땀냄새, 나무꾼의 호쾌한 도끼질 소리 같은 생활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사람 없는 산속에서 저 멀리 돛단배의 그림자를 아득한 시선을 쫓을 따름이다.

매창의 고향, 부안은 매창에게 영원한 꿈의 메카이다. 매창은 한시에서 따뜻하지만 몽롱한 시선으로 고향의 향토와 지역민을 바라본다. 따뜻함은 그들에 대한 매창의 애정에서, 몽롱함

16) 이호우의 시조 「살구꽃 핀 마을」은 고향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지고 / 뉘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리

은 기녀라는 자신과 신분과 평범한 지역민과의 좁혀지지 어려운 현실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지역성에 생동감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동감의 결여가 매창 한시의 한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지역문인 매창이 지닌 기녀로서의 특수성이 작용할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안 지역민들은 매창 한시 기층에 자리한 지역 및 지역민을 향한 애정과 향토적 정서에 공감했기에, 매창의 시문을 서로 외우고 다투어 『매창집』을 간행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문학은 지역성을 회복할 때, 그 평가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한문학 작품들은 대개 어디든지 각각의 지역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되고 있다. 그 만큼 지역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적 공감에서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학을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을 지역문학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 참고문헌

- 김민성, 『매창전집: 이매창의 문학과 인생』 1-2, 고글, 1998.
- 김준형, 『이매창 평전』, 한겨레출판, 2013.
- 남기택, 『강원영동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청운, 2013.
- 진정환, 천리에 외로운 꿈, 국립전주박물관, 2012.
- 최수웅, 『문학의 공간, 공간의 스토리텔링』, 한국학술정보, 2006.
-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대출판부, 1988.
- 허경진, 『매창 시선』, 평민사, 1986.
-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21, 동방한문학회, 2001, 177~178쪽.
- 김덕수, 「이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의식세계」, 『국어문학』 29, 국어문학회, 1994.
-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 방향」, 『고시가연구』 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성범중, 「고전문학과 지역성의 문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 심세진, 「이매창의 생애와 문학」-주체적 사랑에 대한 욕망과 좌절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 천이두, 「문학예술에 표상된 전북인상」, 『전북학연구』 III, 전라북도, 1997.

17)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21, 동방한문학회, 2001, 177~178쪽.

<토론문>

정 훈(군산대)

[별지 첨부]

진훤전설의 신화성과 변이

조성훈(우송대)

[별지 첨부]

<토론문>

윤태식(서울시립대)

[별지 첨부]

제2부 분과별 발표

【현대문학】

죽음을 현재화하는 글쓰기

- 「바다의 편지」를 중심으로

강소희(전남대)

<목차>

1. 들어가며
2. DNA'를 환기하는 문학
3. 역사적 죽음의 바다
4. 죽음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글쓰기
5. 나가며

1. 들어가며

최인훈(崔仁勳, 1936~)은 한국 소설사의 독보적인 문제적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학위 논문이 백여 편에 이르고, 평론 또한 수백 편이 나올 정도로 최인훈은 한국 문단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1955년 『새벽』에 「수정」이라는 시가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던 그는 1959년 『자유문학』에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듬해 「광장」을 통해 문단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최인훈은 『가면고』(1960), 『구운몽』(1962), 『회색인』(1963),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1963-6), 『서유기』(1966), 『총독의 소리』 연작(1967-68),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1970-72), 『태풍』(1973)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한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이 일련의 작품들은 분단으로 상징되는 한국현대사의 굴곡과 상흔을 특유의 관념적이며 지성적인 언어를 통해 치열하게 사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사실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난해한 소설 기법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70년대 중반, 갑자기 희곡으로 선회한 그는 「옛날 옛적에 휘이휘이」(1976)를 시작으로 「한스와 그레텔」(1982)에 이르기까지 총 7편의 희곡을 창작한다. 그리고 소설 쓰기를 중단한 지 20년 만에, 한국 근대 역사를 삶으로 지나온 작가의 경험과 사유를 기록한 『화두』(1994)라는 작품을 내놓는다.

「바다의 편지」¹⁾는 『화두』 이후 8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최인훈이 2003년에 발표한 단편

1) 「바다의 편지」는 2003년 겨울, 『황해문화』에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바다의 편지」를 논의한 글은 세 편에 불과하다. 먼저, 김명인의 「영원한 경계인의 문학적 유서」(『황해문화』, 2003.겨울)는 「바다의 편지」를 “최인훈의 삶과 전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로서의 장편”인 「화두」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하면서, 이 작품을 일평생 경계인으로 살아온 환갑이 넘은 한 노작가가 우리에게 보내온 “문학적 유서”라고 의미화한다. 다음으로 장사흠의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의지와 독일 관념론」(『현대소설연구』 23, 2007)은 「바다의 편지」를 중심으로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최인훈은 독일 관념론의 ‘불사의 자아’, ‘무제약적 자아’ 등의 개념을 자신의 방법으로 재해석해 작품 속에 투영시키는데, 이를 “주어진 현실을

소설이다. 이 작품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발신인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은 한 청년이다. 몸은 이미 백골이 되었으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곧 흩어져 버릴 의식을 붙잡고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

난해하고 단편적인 문장들이 시처럼 나열되어 있어서 서사를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가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아 일인승 잠수정을 타고 정찰을 수행하던 중 "접근해야 할 해안까지는 아직도 먼 위치에서 적에게 발견되어 공격당하였다." 커다란 폭발이 있었고 정신을 잃었던 '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미 몸의 살은 모두 사라져 물고기들이 눈의 구멍 속을 드나들고 있었고, 두개골과 가슴뼈와 팔다리뼈가 물살에 밀려 "마치 실재의 나보다 세 배쯤 한 크기의 거인 백골"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직은 "나의 추억이 이 유해 언저리에 남아있어", '나'는 어머니께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중이다.

최인훈은 「바다의 편지」를 발표한 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 여정을 항해일지에 비유하며, 『화두』까지의 작품이 "인류 문명과 한국 역사에 대한 사유의 항해航海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바다의 편지」는 이 항해하던 배가 "무사히 안착했음"을 바라는 희망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²⁾ 그리고 김명인은 이 작품의 해제에서 「바다의 편지」를 일평생 경계인으로 살아온, 환갑이 넘은 한 노작가가 오랜 시간 발효해왔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온 "문학적 유서"라고 명명한다.³⁾

「바다의 편지」에 대한 최인훈과 김명인의 논의에 기대다면, 이 작품은 한국의 '근대'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해온 작가 최인훈이 50년이 넘는 자신의 문학 여정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다의 편지」는 최인훈에게 '문학이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혹은 희망을 적어 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최인훈은 왜 죽은 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나'는 누구이며, 작가는 왜 '나'의 몸과 의식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몇 개의 질문들이 최인훈에게 있어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체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편 「바다의 편지」를 중심에 두고, 이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소설 「하늘의 다리」와 「구운몽」, 그리고 몇 편의 에세이를 경유하면서 앞에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인훈 문학론의 단면을 짚어볼 것이다.

2. DNA'를 환기하는 문학

비판하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낭만주의적 방법론의 핵심"이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연남경의 「우주적 공간 '바다'를 향하는 최인훈의 소설 쓰기」(『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 2009)는 최인훈의 전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기호로서 '바다'라는 공간에 주목하고, 「광장」, 「하늘의 다리」, 「태풍」, 「낙타섬에서」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부정적 육지 공간에서 탈출하면서 시작된 인물의 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저와 해저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바다의 편지」에 이르러 '바다'가 "과거 역사와 화해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우주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바다의 편지」는 대체적으로 글의 후반부에 잠깐 언급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 작품을 최인훈의 문학론과 연결시켜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다.

2) 최인훈·연남경, 「최인훈 문학 50주년 기념 인터뷰-「두만강」에서 「바다의 편지」까지」,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9. 여름, 437쪽.

3) 김명인, 위의 글, 34쪽.

우선, 최인훈 문학론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과 문제의식부터 살펴보자. 최인훈 문학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DNA’이다. 그는 「문학과 이데올로기」라는 한 에세이에서 생물학자 헤켈이 종의 진화와 유지 방법을 정의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라는 명제를 가져와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DNA는 생명체가 자기의 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네 개의 염기 배열구조를 말한다. 생명 발생에서부터 그 구조를 완결시키기 위해 무수한 시행착오와 낭비를 거듭하다가 50만 년 전 그 구조가 완결되었다. 다시 말해 네 개의 염기 배열에 의해 선택된 나선형의 사슬에 생명 발생에서부터 50만 년 전까지의 모든 정보가 압축된 상태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계통발생이 완결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완결된 DNA는 하나의 종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킬 때, 다시 말해 개체를 발생시킬 때 압축된 상태로 전해진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오랜 환경 적응 끝에 완결된 계통발생의 모든 정보를 개체를 발생시키는 수태기간 동안 전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최인훈은 인간 또한 진화의 산물이며, 생물학적인 여러 법칙들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에게 문명이 있다는 점이다.

DNA가 자기 속에 계통 발생의 단계를 기억으로서 지니고, 그 기억의 되풀이에 의해서만 개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문명 유전 정보라고 할 (DNA)도 그 자신 속에 역사적 진화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 먼 옛날의 어느 날에 원시 인류가 돌맹이 한 개를 집던 순간부터 먼 옛날 어느 날 저녁에 원시 인류가 나뭇가지를 서로 비벼서 불을 일으킨 그 첫 겪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의 모든 기억의 총체-그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지니고 있는 (DNA)의 내용이다. … 그러나 여기서 큰 위험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DNA)는 DNA와는 다르다. DNA는 정보이면서 실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완성시키지만 (DNA)에는 그러한 필연성이 없다. 그것은-(DNA)는 배우면 있고 배우지 않으면 없다. … 둘째로 (DNA)는 생물의 개체 발생과는 달리, 그것(당대 문명)의 성체 형태 즉 최종 형태만 으로 이식·전달이 가능하다는 성격을 갖는다.⁴⁾

최인훈에 따르면 DNA가 계통발생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문명에도 이와 같은 유전 정보가 있으며, 인간의 문명 또한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진화한다. 이러한 문명 유전 정보를 최인훈은 DNA’라 명명하고, 여기에 문명이 탄생하게 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 기억의 총체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DNA와 DNA’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DNA는 완결된 상태로 생명체 속에 실재하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반면, DNA’는 배우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며, 문명의 최종 단계만이 이식 혹은 전달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DNA’는 그것의 한 부분만을 전달·이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통발생의 되풀이 없이도 개체발생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최인훈은 완전한 혹은 이상적인 문명을 이룩하려면 인간 문명의 계통 발생 전순 단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적 근대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문제시된다.

개항 이래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DNA)의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근자 2, 3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일어난 가속적인 (DNA)가 유럽 밖으로 퍼져 나온 역사의 한 부분에 우리도 휘말려 오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권국 사이의 문화 교류 같은 팔자 좋은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빼앗기면서 이루어졌다는 데서 혼란과 괴로움은 곱빼기가 되었다. 더구나 정치적 제도라는 것 자체가 (DNA)의 중요한 구성 인자의 하나이고 보면 사태는 더욱 괴기할 것이 된다. … 이것을 이 글에서 써오는 이론 모형의 궤도에

4)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이데올로기』(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8, 395-396쪽.

옮겨 본다면 근대 유럽형 정치 제도라는 개체 발생의 중요한 고리가 빠져버렸거나 억제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발생하기는 한 해방 후 한국 정치라는 이 개체는 혹시 그 개체 종의 계통발생의 어느 진화 단계에 머문 기형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⁵⁾

한국의 근대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이라는 낯선 타자를 통해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최인훈의 문학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DNA'를 '계통발생 사다리'에 비유하면서, 한국이 서양 근대 문명의 DNA' 그것의 부분만을 이식받아 계통발생 사다리의 여러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한국에는 기이한 변형 혹은 불완전한 사본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방 후 한국 정치제도의 현실을 "계통발생의 어느 진화 단계에 머문 기형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한국적 근대에 대한 최인훈의 이러한 진단은 이 역사를 삶으로 지나온 사람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 조건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이것을 "기묘한 기억 상실의 조건"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개화가, 민족사가 안에서 끓어 터지는 형식이 아니고, 수술당한 형식이었던 것은 이 역사의식의 연속성이 끊긴 것이 된다. 수술의 고통에서 깨어나 보니 상처는 아물었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였던가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⁶⁾ 다시 말해 서구의 근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한국에 이식될 때,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오랜 역사적 경험들이 함께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역사인식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한국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통발생의 사다리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역사적 기억들,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최인훈에게 있어 예술과 문학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그는 예술을 "기호 자체를 환기하거나 (DNA)' 자체를 환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정의하면서, "사람은 왜 이런 기호 행동(예술)을 하는 걸까?"라고 묻는다.

예술은 기호 행동이다. 그것은 상상적 (DNA)'를 불러내는 것을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 예술이 환기코자 하는 (DNA)'는 이러저러한 (DNA)'가 아니라 바로 (DNA)' 그 자체이며, 그보다 더 옹건하게 말하자면 그 전술 (DNA)'를 존재에까지 승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예술이 하고자 하는 일은 (DNA)' 자체를 넘어서 우주 자체를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인간이 유로써 도달한 예누리 없는 높이에 자각적으로 서서 우주의 전량과 맞서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문명인의 개체 발생의 이상형을 가지기 위해서, (DNA)'의 모든 사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DNA)'의 전량을 직관하기 위해서이다. ... 문학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문학은 언어라는 기호를 예술 일반과 같은 약속 아래 사용함으로써 우주를 불러내는 예술의 한 가닥이다.⁷⁾

최인훈에 따르면 예술이 하는 일이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인 모든 문명 계통발생의 사다리, 즉 DNA'의 전량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은 민주주의의 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DNA'의 모든 사다리를 환기시키며, 문학 또한 언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을 통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이상형을, 계통 발생 사다리의 전량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인훈은 문학에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한 보편적 환기력이 있음을 믿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문학적 방법은

5) 위의 글, 399-406쪽.

6) 최인훈, 「소설을 찾아서」, 위의 책, 240쪽.

7) 위의 글, 410-412쪽.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최인훈은 서양사와의 대비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통발생의 잃어버린 사다리를 제시하거나, 민주주의의 이상형 즉 유토피아의 세계를 그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우리 역사에 수놓아진 수많은 죽음들, 그 시공간에 천착한다.

3. 역사적 죽음의 바다

앞에 제시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나’는 누구이며, 최인훈은 왜 이자의 목소리로 편지를 보낸 것일까?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최인훈의 작품에서 ‘바다’는 특별한 공간이다. 가장 먼저 「광장」의 이명준이 남과 북 어디에서도 ‘푸른 광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신한 남지나해의 ‘푸른 바다’가 있다. 그리고 「하늘의 다리」에서 김준구가 LST를 타고 북에서 남으로 오기 위해 건넌던 동해도 떠오른다. 이외에도 「낙타섬에서」, 『태풍』, 『화두』 등 최인훈 작품 곳곳에 바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다의 편지」가 최인훈의 이전 소설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인훈은 이전 소설들을 「바다의 편지」에 인용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소설 속 인물들이 놓여있던 역사적 시공간을 ‘바다’에 끌어들인다.

특히 소설 「하늘의 다리」와 「구운몽」은 「바다의 편지」와 가장 긴밀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으로, 「구운몽」 속 <해전>이라는 시와 「하늘의 다리」 13장의 일부분이 그대로 「바다의 편지」에 교차 편집되어 있다. 최인훈은 여기에서 시 <해전>은 기울임체로, 「하늘의 다리」 13장은 바르게 쓰고, 각 부분을 인용할 때마다 ‘/’를 사용하여 둘을 구분하고 있다. 두 작품의 인용은 “소속을 알 수 없는 기억들이 나의 의식 속에 혼선이 된 전화선 속의 말소리들처럼 섞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서술 뒤에 시작된다.

잠수함이 가라앉으면서 봉어들은 태어난 것이다. 바닷풀 사이사이를 지나 그 무쇠배들조차 숨 막혀 죽은 수압 해구海溝를 헤엄쳐 어항 속으로 찾아온 것이다 (...)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 이등 수병은 어머니의 사진에 입을 맞췄다 그 입술에서는 장수연 냄새가 났다 자식은 열아홉 살이나 먹었는데 애인이 없었다 게다가 담배질도 배우기 전 (...) 어머니 사진이 물 밑에 깔렸다고 해서 바다는 장수연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싱그런 미역풀이 함기艦旗만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81명의 수병을 그 밑에 영주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위대한 이민移民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하늘에 치짚는 물기둥이 쏟아져 밀린 해일 다만 금봉어는 온 것이다 철함을 질 식시킨 해구의 수압을 뚫고⁸⁾

인용문은 「바다의 편지」에 교차 편집된 <해전>의 일부를 모은 것으로, 무쇠배로 불리는 잠수함에 탑승한 81명의 젊은 수병들의 죽음을 그리고 있다. 열아홉, 너무도 젊어서 담배도 피우기 전, 애인도 사귀기 전인 이들은 밤바다에서 폭뢰에 맞아 해저로 가라앉았다. 죽음 직전에 어머니의 사진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들이 해구의 수압을 뚫고 금봉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소속을 알 수 없다고 쓰여 있으나, 바다 속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드는 것은 우선 해저에 수장된 81명의 젊은 수병들, 그들의 말과 기억이다.

주지하듯이 최인훈 소설에서 바다가 문제적 공간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남북북단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휴전선으로 육지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바다는 목숨을 걸고 남과 북 사이를 이동하

8) 최인훈, 『바다의 편지』, 도서출판 삼인, 2012, 518-522쪽.

던 통로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죽음이 가라앉아 있는 곳이다. 이는 특히 「바다의 편지」에서 '나'가 잠수정을 타고 정찰을 하는 임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왜 우리는 이 조그만 연해를 휴전선으로 갈라놓고 “잠수정을 타고 검디검은 그믐밤을 골라” 몰래 지나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고 싶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말씀해주시지 못했던 “아버지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불화”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연구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리켜 “눈 먼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⁹⁾ 따라서 「바다의 편지」 속 '바다'는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이 수장된 곳이면서 동시에 이 문제와 대면해 치열하게 사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라져간 장소이다.

한편 <해전>이라는 시가 수록된 「구운몽」이라는 소설 자체의 성격에 주목하면, 「바다의 편지」 속 '바다'는 또 다른 역사적 죽음의 장소로 확장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구운몽」은 『회색인』과 함께, 최인훈이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보낸 후 혁명에 대해 문학적으로 사유했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권명아는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에서 4월 혁명을 전후한 이미지와 담론이 「구운몽」에 어떻게 르포르타주 되어 있는지 읽어내면서, 독고민의 꿈속에 등장하는 바다를 김주열의 시인이 발견된 마산 앞바다로 해석한다.¹⁰⁾ 「구운몽」과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으로 인해 「바다의 편지」 속 '바다'는 김주열로 대표되는, 4월 혁명으로 인해 죽어간 자들의 장소로 의미화 된다.

관속 속에 누워 있다. 미라. 관 속은 태아의 집보다 어둡다. 그리고 춥다. 그는 하릴 없이 뻗히 눈을 뜨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몸을 비틀어 돌아눕는다. 벌써 얼마를 소리 없이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몇 해가 되는지 혹은 몇 시간인지 벌써 가리지 못한다. 혹은 몇 분밖에 안 된 것인지도 모른다. 똑똑. 누군가 관 뚜껑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요? 저예요. 누구? 제 목소릴 잊으셨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많이 귀에 익은 목소리. 빨리 나오세요. 그 좁은 곳이 그리도 좋으세요? 그리고 춥지요? 빨리 나오세요. 따뜻한 데로 가요. 저하고 같이. 그는 두 손바닥으로 관 뚜껑을 밀어올리고 몸을 일으켰다. 어둡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게 누구요? 대답이 없다. 그는 몸을 일으켜 관을 걸어 나왔다.¹¹⁾

「구운몽」은 주인공 독고민이 미라가 되어 관 속에 누워있는 그의 꿈으로 시작되는데, 이 장면은 4·19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미라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관 안에 누워 있는 독고민을 부르는 부드럽고 따뜻한 누군가의 목소리. 이 장면 바로 뒤에 사라졌던 여인 '숙'에게서 한 통의 때늦은 편지가 도착하는데, 따라서 독고민을 일으켜 관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든 것은 사랑하는 여인 '숙'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 최인훈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숙의 존재와 5·16으로 인해 좌절된 혁명을, 그리고 독고민이 미라가 되어 누워있는 관의 어둠과 혁명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 상황을 대응시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구운몽」의 서사를 통해 혁명의 (불)가능성에 대해 다시 탐색한다.

편지를 받은 뒤 독고민은 그녀를 찾으러 광장으로 나가고, 이후 도시의 여러 사람들과 마주친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각 문학, 경제, 예술을 대표하는 시인, 은행가, 무용수들의 무리로, 이들은 후에 혁명을 이끈 주축 세력으로 밝혀진다.

바다처럼 망망한 강. 빨리 건너야 한다. 그는 힘차게 헤엄쳐 나간다. 이른 봄 얼음 풀린 물처럼 차다. 한참 헤엄쳤는데도 댈 언덕은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자 민은 보는 것이다. 그의 왼팔이 어췌죽지에서 훌렁 빠져나가는 것을. 저런. 그 팔 끝에 달린 다섯 손가락. 고물고물 물살을 휘젓는 다섯 손가락. 마치 다섯 발자리 문어처럼

9) 「바다의 편지」, 515-516쪽.

10)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10.봄.

11) 최인훈, 「구운몽」, 『광장/구운몽』(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8, 213쪽.

그것은 저 혼자 헤엄쳐 나간다. … 오른팔 오른다리, 가운데 토막. 모조리 쪼개진다. 쪼개진 조각들이 또 갈라지고 삽시간에 강은 수없이 많은 몸의 조각들로 덮여버렸다. 어느덧 조각이 하나둘 가라앉기 시작한다. … 물고기들이 주둥이 끝으로 툭툭 건드려보다가 지나간다.¹²⁾

사랑스러운 밀고자. 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홍수들. 크낙한 홍수의 밑바닥에 누워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너무 큰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너무 큰 아우성은 소리도 없다. 이제 나는 내 의식 속에 내 추억만을 가두어놓은 힘을 잃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외계를 막아서는 힘을 잃어버린 세포막처럼. 영원한 미래의 그날의 부활을 위한 장정長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겠지. 누구의 의식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낯두리들이—내가 접근하려던 저 도시의 사람들이—마치 강물이 육지의 유기물을 바다에 흘려보내듯—그들의 가위 눌린 잠 속에서 잃어버린 꿈낯두리가 흘러들어온 것이겠지—밀어낼 수 없이 내 속에 이렇게 넘어들어 온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는 나 아닌 것이 되겠지. 나는 없어지겠지.¹³⁾

첫 번째 인용문은 「구운몽」의 독고민이 꾸었던 꿈이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헤엄치던 그의 신체가 조각나고, 이 조각들을 물고기들이 건드리며 지나가는 이 장면은 그대로 「바다의 편지」에서 각각의 뼈들로 해체되었던 “느슨한 나 연합 같은 것”을 물고기들이 헤엄쳐 통과하는 장면과 겹쳐진다. 이후 독고민의 꿈은 조각난 신체들이 물으로 올라와 도시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고, 사람들은 손에 하나씩 낚싯대를 들고 그 조각들을 낚아 올리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인용문은 「바다의 편지」에서 「하늘의 다리」 13장을 인용한 일부이다. ‘나’는 한밤중 바다 속에서 너무나 큰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가 접근하려던 저 도시 사람들의 낯”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꿈의 낯두리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와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나의 의식이 해체되고 “나는 나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소속을 알 수 없다고 표현된, 바다 속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드는 또 다른 하나는 4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낯,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이다.

물고기들이 나를, 즉 우리를 건드리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나를 느낀다. … 물고기들과의 접촉은 여전히 공동경험이면서 서로 떨어진 각자의 각각의 느낌이라는 정도가 점점 짙어져 오는 것이다. 이리다가는 마침내 내 백골의 각 부분은 마치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가 돼버리고 나는 자기들 주변을 휩싸고 도는 무슨 슬픔의 기운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될 것은 없지만 여태껏 내가 알지 못한 새 존재 형식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 나의 추억의 단일성이 더는 지켜지기 어렵게 될 모양이다. … 이렇게 해서 나는 쓸데없는 바다 속 초소에서 쓸데없는 고정 초소 근무를 하면서 백골이 되다 못해 마침내 백골도 아닌 것—물고기일까, 바닷물일까, 어쩌면 햇빛일까 그런 것이 될 것 같은 앞날을 기다리고 있다.¹⁴⁾

바다 속 백골은 ‘나’가 아닌 ‘우리’로 명명된다.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드는 젊은 수병들의 기억과 도시 사람들의 꿈으로 인해 개체로서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느슨한 나 연합 같은 것”은 “공동경험”, “슬픔의 기운”이 되어간다. 이렇게 해서 바다 속의 ‘나’는 공동의 성격을 획득한다. 그것은 기형적인 근대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죽어간 자들의 공동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쟁과 분단, 4·19과 5·16 그 시간을 지나왔던 자들의 기억과 실현되지 못한 꿈이 간직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나’가 들어가게 될 “새로운 존재 형식”이며, 최인훈은 이 존재의 목소리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최인훈이 자신의 작업을 ‘고고학적 글쓰기’로 명명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그가 문학을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점점 “슬픔의 기운”으로 사라져 가는 아우성, 너무나 크지만 소리가 없는 역사에서 죽어간 자들의 집단적 기억과 꿈이기 때문이다.

12) 「구운몽」, 243-244쪽.

13) 「바다의 편지」, 523-524쪽.

14) 「바다의 편지」, 514쪽.

4. 죽음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글쓰기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고고학 입문 시리즈 가운데 한 편으로, 최근에 파낸 어느 도시의 전모입니다. 이 도시는 분명히 상고 시대 어느 왕조의 서울로 짐작됩니다. 이 한편을 특히 고른 것은, 그것이 아주 최근의 발굴이라는 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 유적이 모두 그런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본보기로 나타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한국 고고학의 과제와 전망 및 골치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백미편이라 하겠습니다.¹⁵⁾

인용문은 「구운몽」의 마지막 부분이다. 최인훈은 여기에서 독고민이 '숙'에게 온 편지를 받고 나아간 광장에서 마주친 도시 사람들과의 여러 사건 그리고 결국 혁명군의 수괴로 몰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한 편의 영화가 상연된 것처럼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최근에 발굴된 상고 시대의 한 도시를 담아낸 필름이라고 설명한다. “고고학 입문 시리즈”라고 이야기되는 이 영화는 한국 유적이 지닌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본보기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 고고학의 과제와 전망 및 골치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백미편”이라 서술하고 있다. 최인훈은 왜 「구운몽」의 전체 서사를 ‘고고학 필름’에 비유하는 것일까?

죽음을 다루는 작업, 목숨의 궤적을 더듬는 작업. 그것이 고고학입니다. 우리들의 작업대 위에 놓이는 것은 시체가 아니면 시체의 조각입니다. 사면장死面匠, 박제사剝製師. 우리의 이름입니다. … 우리들의 작품을 가리켜 생명에 넘쳤다느니, 창조적이라느니, 허구의 진실이라느니 하고 칭찬할 때는 사실 낮간지러워집니다. 고고학자란 목숨이 아니라 죽음을, 창조가 아니라 발굴을, 예언이 아니라 독해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 역사란, 신神이, 시간과 공간에 접하여 일으킨 열상의 무한한 연속입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이 결절結節한 자리를 시대 혹은 지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신의 사생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신은 배게 할 뿐, 아이들의 양육을 한 번도 맡는 일 없이 늘 내갯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지층 깊이 묻힌 신의 사생아들의 굳은 돌을 파내는 일입니다.¹⁶⁾

최인훈은 자신의 글쓰기를 고고학에서의 발굴 작업에 자주 비유한다. 왜냐하면 그의 소설이 탐색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그 중에서도 역사의 ‘상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하나의 ‘지층’에 비유하면서 여기에 신에게 버림받은 사생아들이 묻혀 있다고 말한다. ‘신’을 한 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면, 사생아들은 이 역사의 흐름에 의해 희생된 존재들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 최인훈은 이 지층에 묻혀 있는 이들의 죽음을, 시체의 조각들을 발굴하려 한다. 그리고 이 발굴한 “조각을 이어 붙여서 제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고고학적 글쓰기’ 작업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구운몽」의 전체 서사를 상고 시대의 한 도시를 담은 고고학 필름에 비유한 것, 그리고 「바다의 편지」에서 역사 속에서 죽어간 자들의 공동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최인훈에게 있어 문학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의 미래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상처 지점인 죽음의 시공간에 대한 치열한 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통발생의 사다리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역사적 기억들을 탐색하고 복원하려는 최인훈의 문학적 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민주주의에 대입해 이야기한다면, 한국 정치의 이상

15) 「구운몽」, 346쪽.

16) 「구운몽」, 344쪽.

형은 서양의 DNA'와의 비교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죽어간 이들의 기억과 꿈을 '어떻게 현재화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최인훈의 문학은 벤야민의 유물론적 역사서술과 공명한다.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전 사람들을 맴돌던 한줄기 바람이 스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목소리들 속에는 이제는 침묵해버린 목소리들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구애하는 여인들에게는 그들이 더는 알지 못했던 자매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다려졌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와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벤야민에게 역사와 과거는 두 가지로 계열화된다. 이미 씌어진 역사와 아직 씌어지지 않은 역사 그리고 승리자들의 시간과 억눌린 자들의 시간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보편사적 역사서술과 유물론적 역사서술로 지칭되는데, 전자는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승리자의 사실 더미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후자는 이 기록들을 거슬러 솔질하며 그 속에 묻혀 있는 억압받은 자들의 시간을 포착하고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회복하고자 한다.

인용문은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 2'의 일부로, 여기에서 그는 과거가 우리를 스쳐가는 한줄기 바람에,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목소리 가운데 매순간 '구원'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승리자들의 시간으로 기술된 연대기적 역사 속에서 과거가 우리에게 보내는 구원의 손짓을 포착하고 이를 끊임없이 현재화하려는 글쓰기이다. 이는 최인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글쓰기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쓰여져야 할 과거를 향해 있으며, 이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것이 바로 문학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5월의 밤/가만히/귀를 기울이면/남 몰래 다가드는 소리가 있다//
포르락포르락 창틀에/간들간들 플라타너스 가지 끝에/멀리 흘러와서 부딪히는 소리/아득한 옛날에서 부르는 소리//
5월의 밤/아득한 목소리 듣고 있으면/이 내 맘 공연히/싱숭해지며/님이여 그림다는/편지를 쓴다¹⁸⁾

예술이란, 불러내는 것. 먼데 것을 불러내는 것. 가라앉은 것을 인양하는 것. 침몰한 배를 끌어올리는 것. 기억의 바다에 가라앉은 추억의 배를 끌어내는 것. 바닷가. 표류물을 벌여놓은 바닷가. 그렇게 캔버스 위에 기억의 잔해 찌꺼기들을 그려모으는 일이 아닌가?¹⁹⁾

문학에 대한 최인훈의 이와 같은 생각은 「바다의 편지」와 상호텍스트적 성격에 놓여있는 「구운몽」과 「하늘의 다리」 곳곳에 편린처럼 산재해 있다. 글쓰기(편지)는 “아득한 옛날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되고, 그렇게 쓰여진 글(예술)은 먼 기억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잔해들을 ‘끌어’내고 ‘불러’낸다. 따라서 오랜 침묵을 깨고 최인훈이 우리에게 보내온 「바다의 편지」는 역사와 문학에 대한 최인훈 사유의 직접적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25전쟁과 4.19혁명이라는 아득한 옛날을 문학의 자리로 소환해, 그 시공에서 죽어간 자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기억과 꿈을 다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과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전망과 모색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들이 아니라, 과거가 보내는 잊혀진 기억과 꿈에서 찾아진다는 것이 「바다의

17)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331-332쪽.

18) 「구운몽」, 349쪽.

19) 최인훈, 『하늘의 다리/두만강』, (전집7) 문학과학사, 1994, 65쪽.

편지」를 통해 보내는 최인훈의 전언일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2003년에 발표한 단편 「바다의 편지」를 중심에 두고, 이 작품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소설 「하늘의 다리」와 「구운몽」을 함께 분석하면서, 최인훈 문학론의 단면을 짚어보았다. 주지하듯이 최인훈에게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에 대한 그의 사유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예술과 문학의 존재 가치를 역사의 진화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에세이 「소설을 찾아서」에서 잘 드러난다.

예술은 역사적 시간, 이익 사회에 묶인 인간의 분열된 분석론적 시간을 예술이라는 선의와 사랑의 시간 속에서 이겨내어 되찾아진, 또는 꿈꾸어진 공동체의 시간이다. 이익 사회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 모두를 떠맡으면서 저 하늘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아오르려는 씨름-그것이 문학이다. ... (작가는) 무엇을 믿고 거는가. 모든 인간은 분석 이전에 하나이며, 공동체이며, 죄가 있는 곳에, 분열된 사회 자체에, 분열된 의식 자체에 구원과 각성의 가능성은 내재해 있다는. 구하면 얻어지리라는 저 삶의 신비한 직관을 믿고 그렇게 한다.²⁰⁾

최인훈에게 진정한 문학은 우선 현재 인간이 놓여 있는 존재 조건, 공동체에 대한 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공동체의 상을 제시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꿈이 좌절된 과거의 시공간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치열한 사유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조건을 확인하고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승인”하면서, 현실의 불가능성을 문학으로 이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현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좌절하면서” 그 좌절을 기꺼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최인훈은 문학을 “다시 시작하기의 한 방식”²¹⁾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다시 시작하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일 것이다. 「하늘의 다리」에서 삽화가로 살아가는 주인공 ‘김준구’는 소설가이자 친구인 ‘한명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여보게 나에게 믿음을 주게. 인간의 마을에 아직 믿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이 공포가 무지한 소치이고 미술이라는 제한된 인식으로는 알아볼 길이 없으나 소설로는 알 수 있는 무슨 까닭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게. 그런 소설을 써주게.”²²⁾ 마치 최인훈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이 구절은 문학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 거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현실이 주는 공포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을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근본적인 성격이 ‘조건 없음’인 것처럼, 최인훈에게 소설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 “구원과 각성의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비록 그것이 좌절일지라도, 가능성은 이 좌절을 계속하는 것에서 생겨난다.

「바다의 편지」도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 실현되지 못한 꿈을 “살아 있는 자들이 이어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무섭고 슬픈 기억의 바다”는 언젠가 휴전선이 사라진 “아름다운 돛배들의 놀이마당”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먼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슬픔 따위가 어찌지 못할 힘 있는 종족”이 되어 “어머니와 나는 아주 질 좋은 차”를 마시게 되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언젠가 “둥근 슬픔의 메시지”를 읽을

20) 「소설을 찾아서」, 253-256쪽.

21) 최인훈, 『『광장』의 이명준, 좌절과 고뇌와 회고』, 위의 책, 417-421쪽.

22) 「하늘의 다리」, 116쪽.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구는 한 줄의 시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죽음, 그 ‘공공의 목소리’가 보내는 ‘슬픔의 메시지’를 읽을 것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고민을 관에서 일으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든 ‘숙’의 편지처럼, ‘인간의 마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소설을 요청하던 ‘준구’의 편지처럼, 「바다의 편지」는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깨우는 노작가의 목소리이다.

■ 참고문헌

- 최인훈, 『바다의 편지』, 도서출판 삼인, 2012.
- 최인훈, 『광장·구운몽』(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8.
-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8.
- 최인훈, 『하늘의 다리/두만강』(전집7) 문학과지성사, 1994.
-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10. 봄.
- 권성우, 「최인훈 에세이에 나타난 문학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 김명인, 「영원한 경계인의 문학적 유서」, 『황해문화』, 2003.겨울.
- 김윤식, 「어떤 한국적 요나의 체험」, 이태동 편,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 김태환, 「문학은 어떤 일을 하는가」,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2001.
- 김 현, 「사랑의 재확인: 최인훈」,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92.
- 연남경, 「우주적 공간 ‘바다’를 향하는 최인훈의 소설 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연남경·최인훈, 「최인훈 문학 50주년 기념 인터뷰-「두만강」에서 「바다의 편지」까지」,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09.여름.
- 장사흠,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의지와 독일 관념론」, 『현대소설연구』 23, 현대소설학회, 2007.
- 정영훈, 「최인훈 문학에서 기억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차미령,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황 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예술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토론문>

한순미(조선대)

강소희 선생님의 “죽음을 현재화하는 글쓰기 - 「바다의 편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 “재앙의 시간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

한 작가에게 글을 쓰는 행위는 사유의 완성된 결정체를 담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난세’의 경험과 기억에 나름대로 응답하는 실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여정에서 문학은 작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시대에 대한 증언이자 역사와 사회 현실을 향한 문제제기적 발언이 된다. 이러한 문학에 대한 정의에 어울리는 작가로 최인훈을 내세우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인훈의 문학이 시에서 소설로, 그리고 희곡으로 다시 소설로 넘나들었던 것은 바로 그런 문학의 역할과 임무를 “재앙의 시간 속에서” 작품 자체로서 수행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길의 끝에서 최인훈이 우리에게 보낸 한 편의 소설 「바다의 편지」(2003)는 끝없는 회의와 부정 의식, 균열된 정념과 섬세한 감각의 무늬로 그려진 것이어서 더욱 감동을 준다.

강소희 선생님의 글은 최인훈의 소설 「바다의 편지」를 다른 작품들과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로 읽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최인훈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있다. 작가의 문학관이 드러나는 에세이와 벤야민의 역사철학을 참조해 깊이 있는 작품 분석에 이르고 있다. “「바다의 편지」는 최인훈에게 ‘문학이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혹은 희망을 적어 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필자는 덧붙이면서 이렇게 묻는다. “최인훈은 왜 죽은 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나’는 누구이며, 작가는 왜 ‘나’의 몸과 의식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반세기를 넘는 최인훈의 문학 향해 일지를 통해 그에게 문학이란 무엇이었으며 지금 우리 시대의 문학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소설 「바다의 편지」는 이미 죽은 자,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인 ‘나’의 목소리로 오래전 죽어버린 어머니에게 부치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와 다른 편지다. 그렇다면 이 편지 쓰기 행위는 최인훈이 마지막에 이르러 실험한 소설 형식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는 일은 그의 문학론의 요지를 추출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최인훈은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로 대체 어떤 ‘문학’을 쓰고 있는 것일까. “죽음을 현재화하는 글쓰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2. 문학의 다른 이름: 바다, 죽음, “공동의 목소리”

앞서 던진 물음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인훈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해온 ‘바다’를 화두 삼

아 볼 수 있다. 필자는 먼저 「광장」, 「하늘의 다리」, 「낙타섬에서」, 『태풍』, 『화두』 등 최인훈 작품 곳곳에 바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바다의 편지」가 최인훈의 이전 소설들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 속 인물들이 놓여있던 역사적 시공간을 ‘바다’에 끌어들인다.”는 점을 포착하면서 이 소설의 바다를 “역사적 죽음”의 공간으로 읽어낸다.

-「바다의 편지」 속 ‘바다’는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이 수장된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 문제와 대면해 치열하게 사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라져간 곳이다.

-「구운몽」과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으로 인해 「바다의 편지」 속 ‘바다’는 김주열로 대표되는, 4월 혁명으로 인해 죽어간 자들의 장소가 된다.

-소속을 알 수 없다고 표현된, 바다 속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드는 또 다른 하나는 4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뉘,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이다.(발표문)

하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최인훈 소설 속의 바다는 이전 작품들 속의 바다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한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이나 장소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다. 그런 점에서 『광장』과 「바다의 편지」에서의 바다는 같은 음으로 발음 되지만 그 의미는 같지 않다. 그것들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다. 이를테면 한승원의 바다가 원시적 생명력과 역사적 죽음의 장소에서 화염의 바다, 우주 바다로 향해 왔다면 최인훈의 바다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고 획득한 것일까. 최인훈의 소설 「바다의 편지」에서 바다가 그의 다른 소설들과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단절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바다의 편지」는 최인훈 문학론의 근원에 자리한 ‘피난민 의식’을 깊은 해저에서 다시 쓰고 있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가 거주하고 있는 저 바다를 단지 ‘역사적 죽음’의 자리로 환원되지 않는 ‘문학의 공간’을 펼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필자가 던진 물음, 즉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나’는 누구이며, 최인훈은 왜 이 자의 목소리로 편지를 보낸 것일까?”라는 물음을 최인훈 문학론을 짚어내려는 이 글의 주요한 매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소설 속의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누구의 의식일까”

-바다 속 백골은 ‘나’가 아닌 ‘우리’로 명명된다. ‘나’의 의식 속에 섞여드는 젊은 수병들의 기억과 도시 사람들의 꿈으로 인해 개체로서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느슨한 나 연합 같은 것”은 “공동경험”, “슬픔의 기운”이 되어간다. 이렇게 해서 바다 속의 ‘나’는 공동의 성격을 획득한다. 그것은 기형적인 근대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죽어간 자들의 공동의 목소리이다.(발표문)

“흩어져버릴 의식을 붙잡고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의식의 흐름 기법과 내적 독백이 교차되고 있는 진술의 형식이다. 더불어 최인훈 소설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소설에 와서 ‘무인칭’(익명의 목소리)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필자가 포착한 “공동경험” “죽어간 자들의 공동의 목소리”, 달리 말해 ‘나’라는 개인적 실존을 넘어서 ‘익명의 존재들’을 향한 호소를 담은 최인훈의 문학 언어가 아닐까.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 물고기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나’의 찢긴 몸,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자, 아니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 이것은 “누구”의 편지일까. 「바다의 편지」에서 편지를 쓰는 자는 죽음이라는 시간과 바다라는 공간이다. 그 편지가 바로 최인훈이 이 소설을 통해 보여준 다른 문학이기도 하다. ‘바다’가 쓴 이 편지는 최인훈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 대답을 응축한 하나의 상징으로 읽힌다.

3. 환상과 구원: 카프카와 벤야민에 기대어

최인훈 문학론은 한편 '기억'과 'DNA'에 관한 작가의 독특한 해석과 함께 살필 부분이다. 발표문에서는 이에 관해 예리한 시선으로 읽어내고 있다. 최인훈은 「문학과 이데올로기」라는 에세이에서 생물학자 헤켈이 종의 진화와 유지 방법을 정의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라는 명제를 가져와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유를 전개하는 가운데 해방 후 한국 정치제도의 현실을 “계통발생의 어느 진화 단계에 머문 기형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한국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통발생의 사다리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역사적 기억들,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최인훈에게 있어 예술과 문학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즉 최인훈은 문학에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한 보편적 환기력이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서 최인훈은 우리 역사에 수놓아진 수많은 죽음들, 그 시공간에 천착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최인훈의 인터뷰 중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좀더 참조해 본다면 어떨까 싶다.

“인간의 의식을 DNA라고 표시하고 예술의 유전 정보는 DNA[∞]로 표시하는 거죠. 더 극한의 원본적인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메타볼리즘의 3형식」이라는 글에서 더 발전한 것을 썼는데, 나는 환상이라는 것을 인간 의식의 원본, 시원 상태라고 본 거예요. 나는 환상이라는 것을 인간 의식의 원본, 시원 상태라고 본 거예요. 리얼한 의식이 인간의 이상으로 주권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경계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2만 년이 나 3만 년, 숫자로 말한다면, 내 지식으로는 그런 정도의 환상이라는 형식으로 인간 의식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환상의 상태에 점점, 이를테면 나중에 이성이라고도 부르고 과학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영역이 그 환상을 잠식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환상이라는 단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태아가 열 달 동안에 최초로 착상했을 때는 물고기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처럼 환상은 인간 의식의 시원 형태로 있는데 제일 밑에 심해의 밑바닥의 바다 상태의 온도라고 할까 그 생태적인 상황이 환상이고 그 위에 점점 햇빛과 가까운 제일 위에 이를테면 해면이겠죠. 비유하자면 나는 인간의 의식이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유가 점점 과잉하는데, 환상 속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형태도 이미 들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연남경/최인훈 대담, 2009, 432쪽)

그렇다면 최인훈이 “지층에 묻혀 있는 이들의 죽음을, 시체의 조각들을 발굴하려 한” 그 ‘고고학적 글쓰기’ 작업을 “역사의 미래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상처 지점인 죽음의 시공간에 대한 치열한 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고고학적 글쓰기는 “인간 의식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환상”에 대한 특수한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상은 또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죽어간 이들의 기억과 꿈을 ‘어떻게 현재화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연결되는 바, 그의 문학론의 핵심에 자리해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최인훈의 문학은 벤야민의 유물론적 역사서술과 공명한다.”는 본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다.

선생님의 글에서는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와 최인훈의 「하늘의 다리」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승리자들의 시간으로 기술된 연대기적 역사 속에서 과거가 우리에게 보내는 구원의 손짓을 포착하고 이를 끊임없이 현재화하려는 글쓰기”를, 즉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것이” 바로 최인훈이 내세우는 “문학의 역할”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연 설명을 해보고 싶다. 벤야민이 제시한 18개의 역사철학 테제들은 역사를 ‘실증적 사실자료를 다루는 과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기억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벤야민은 ‘역사는 진보한다’는 인식을 진보 신앙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인식의 주체는 투쟁하는, 억압받는 계급 자신”이라고 보면서,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을 진정한 역사가의 과제로 보았다. 요컨대 「역사철학테제」(테제 1-18)의 핵심은 역사적 유물론과 신학의 결합을 통한 구원과 혁명에 관한 문제다. 아울러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

역을 역사의식의 범주로 도입한다. 벤야민이 인용한 “근원은 목표다.”라는 크라우스의 말은 곧 과거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현재 속으로 불러와 미래의 유토피아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작업을 응축한다. 과거와 전통은 되살아나서 미래를 조형하는 원본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최인훈의 소설 쓰기에서 벤야민과 연관시킨다면 바로 ‘기억’과 ‘환상’에 대한 벤야민의 테제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아울러 최인훈 문학론은 전통과 기억에 대한 그의 독특한 독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벤야민이 카프카에 대한 두 편의 글 「프란츠 카프카」, 「좌절의 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카프카에 관한 몇 가지 고찰」에서 읽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벤야민은 카프카의 작품에서 우화적 요소와 비전적 요소를 읽었고, 예언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의 비평적 글쓰기는 카프카의 문학이 그러하듯이 작품의 의미와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행위가 되고자 한다. 벤야민의 카프카론을 곁에 두고 봤을 때 최인훈이 소설 「바다의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학론은 한 층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죽음, 그 ‘공공의 목소리’가 보내는 ‘슬픔의 메시지’를 읽을 것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독고 민을 관에서 일으켜 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든 ‘숙’의 편지처럼, 또한 인간의 마을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킬 소설을 요청하던 ‘준구’의 편지처럼, 「바다의 편지」는 “영원한 미래의 그 날의 부활을 위한 장정”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깨우는 노작가의 목소리이다.(발표문)

발표문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본다. 필자는 「바다의 편지」에서 새로운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작가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지금 바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목소리가 쓰고 있는 한 통의 편지가 ‘숙’의 편지와 ‘준구’의 편지와 다른 것은 그것이 바깥의 공간에서 도착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한다. 바다의 물살과 파도의 움직임이 쓰고 있는 그것은 분명 ‘다른’ 문학이다. 어떤 목소리와 몸짓을 기록하려고 시도하는 최인훈의 이 소설에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문학은 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일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발표문에 자리한 물음과 고민에 연루되어 저의 생각들을 두서없이 덧붙여 봤습니다. 모든 물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

김미향(인천대)

<목차>

- I. 들어가며
- II.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
 - 1. 양심적 지식인의 자살
 - 2. 월남 작가의 두 번의 피란
 - 3. 관념적 개인주의자의 부역
- III.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
 - 1. 잔류파의 갈등과 위계
 - 2. 민중의 기회주의와 횡포
- IV.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과 그 의미

I. 들어가며

한국전쟁 시 한국문단은 도강파와 잔류파로 분류되고, 잔류파는 숨어 지내던 잠적파와 부역을 했던 부역자로 또 다시 나뉜다. 물론 부역자들도 그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게 된다.¹⁾ 당시 도강과 잔류에 대한 구체적 상황과 현실인식은 도강파와 잔류파 문인들의 글과 작품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처음 도강파는 국민을 버리고 또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 ‘피란(避亂)간 자’에 불과했으나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남은 사람들의 피란이 원천 봉쇄되면서 그들은 투철한 반공의 ‘영웅’이 되어 서울에 입성하였다. 반면, 잘못된 방송과 보도 그리고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따랐던 일반 ‘시민’들은 ‘부역의 역도’가 되어 도강파의 서울 입성을 공포 속에 지켜보게 된다. 다만 운이 좋아서, 또는 권력이나 돈이 있어서 가능했던 ‘도강’을 이념과 양심의 판단 근거로 삼은 잔류파 심판은 그 후, 민족분열과 혼란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문단은 상황을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시, 소설, 수필 등의 ‘창작물’보다는

*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사

1) 내무부 치안국(『한국경찰사』Ⅱ, 1973, 548면.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 되었나』, 『역사비평』9, 1990, 186면. 재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전쟁 부역자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첫째는 이념적 공명자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이념적으로, 공명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긍정하여 실천에 옮기려한 자들이다. 이와 같은 공산분자는 대개가 조직계통에 속하는 공산당원이고 가장 악질적으로 행동한 자들이다. 둘째는 반정부감정 소지자로서 이들은 비록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기존 조직의 변혁을 희구하였던 만큼 6·25전란이 일어나자 돌발적인 파괴세력에 가담하게 된 소극적인 공산분자들이다. 셋째는 대세뇌동자로서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공명할 판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대세에 부하뇌동하여 부역한 자들이다.” 하지만 문인들처럼 특수한 경우는 조연현의 『6·25 동란과 문예전시판』(『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88~92면.)을 보면 “괴뢰치하에서 문학가동맹에 잠시라도 나간 모든 문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A급은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인 표적이 있는 사람으로 무조건 기소, B급은 일단 구류, C급은 훈계 석방”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강파의 우월의식과, 잠적파의 이중성 그리고 잔류파의 죄의식 등 작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자기 고백적 '증언물'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²⁾ 하지만 체험기, 수난기, 피란기, 종군기 등의 '증언물'은 그 표현의 직접성 그리고 논픽션(non-fiction)이라는 장르상의 특징으로 오히려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게 될 때,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언물'에서는 잔류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부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잘함과 못함을 따지는 판단력보다는 속죄의 제스처가 더 필요했다. 공산당의 지배 하에서 90일을 보낸 이들은 자신들이 잔류는 했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부역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공산군의 강요였음을 끊임없이 입증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를 필요로 했다.³⁾

이 시기의 문학 연구 또한 '창작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증언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식적 전쟁 해석을 뒷받침하는 회고록, 증언물, 역사서는 오직 국군의 승리와 인민군의 만행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잔류한 시민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작가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품 곳곳에 남긴 문학적 증언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도강파의 피란 체험 영웅화와 더불어 잔류파의 부역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우월적 태도에서의 글쓰기 또는 잔류파의 일관된 변명과 천편일률적 고해성사가 아닌, 당시의 문학작품을 통해 잔류파의 선택과 현실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피란'만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⁵⁾으로 인정되었던 당시

2)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대표적 텍스트는 뒤늦게 도강하거나 은신했던 문인들의 『고난의 90일』(수도문화사, 1950.11)과 부역을 했던 문인들의 『적화삼삭 구인집』(국제보도연맹, 1951.3)이다. 『고난의 90일』에는 유진오의 「서울脫出記」, 모운숙의 「나는 지금 정말로 살아있는가?」, 이진호의 「暴力에 對한 抗議」, 구철희의 「強韌한生命」 등이 실려 있고, 『적화삼삭 구인집』에는 양주동의 「共亂의 敎訓」, 백철의 「사슬로 묶여서 三個月」, 최정희의 「亂中日記에서」, 안지영의 「赤流三月」, 장덕초의 「내가 본 共產主義」, 박계주의 「붉은 天國 見聞記」, 손소희의 「決心」, 김용호의 「自由와 平和를 爲하여」, 오제도의 「民族良心의 反映」 등이 실려 있다.

3) '한 사학자의 6·25일기'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창비, 2009.)는 일기라는 사적 기록의 형식을 빌린 일종의 역사서로 시대상과 진실을 역사학자로서 저자가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김성철은 1951년 10월 전쟁 중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동춘은 『한국전쟁』(돌베개, 2009, 77면.)에서 "김성철의 일기는 중요한 역사자료로 만약 김성철이 전쟁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도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폐기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이시기 '증언물'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병순의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연구-모운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41, 2010)에서는 잔류파 중 '은신'했던 모운숙과 '부역'했던 최정희가 발표한 수난기를 논의하고 있다. 모운숙이 체험의 직접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고난의 참상을 생생하게 알리는데 치중했다면 최정희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심리적 상황과 속죄의 의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는데, 잔류파라 하더라도 부역을 하지 않고 은신해 있을 경우 이념의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서동수는 증언물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한국현대문학연구』20, 2006)에서는 한국전쟁기 간행된 반공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부역문인들의 고해성사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1950년대 이후 남한 문단의 보수화 과정의 내면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또한 「모운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한국문예비평연구』33, 2010)에서는 각 시기별로 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자신의 피난 기억을 새롭게 배치하고 조직하여 자신을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그리고 있는 모운숙의 글쓰기가 적군에게 잡히기 보다는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자살의 정치적 글쓰기'화 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우리말글』52, 2011)에서는 대한민국헌법기초자인 자신이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술하는데 이것은 당시 남한의 문인들이 작성한 반공 텍스트는 반공담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 공간이었음을 밝히게 된다.

5) 김동춘, 『한국전쟁』, 돌베개, 2009, 119면.

"한국전쟁 당시 '피란'은 '6·25'이전 38선 이북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는 '월남'으로 공식화되었으며, 38선 이남

현실이 놓치거나 은폐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유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란의 시기를 놓쳤거나 피란 중 사망하였고, 잔류 후에는 부역하여 처벌⁶⁾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피란의 과정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정부 또한 단 한마디의 위로와 사과도 없었다. 그러므로 잔류파의 침묵과 묵종(默從)은 오히려 할 말은 많으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최선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로, 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 즉 ‘증언물’이 아닌 ‘창작물’로 숨어 버리고 만다. 특히 ‘창작물’ 중 소설 속에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책임과 정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증언물’과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학적 증언’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아무렇지 않은 듯 교묘하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창작물’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대화,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결과를 통해 천편일률적으로 떠들어대는 ‘증언물’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동안 누락되었던 잔류파의 목소리를 문학적 증언을 통해 귀 기울이고 정리하여 그 의미를 규명한다면 새로운 문학사적 계보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이 발발했고 이틀 후인 6월 27일 신문에는 우리 군의 승전보가 실렸다. 또한 대한민국 공보처에서는 중앙청 집무를 발표하고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전쟁 발발 사흘 만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었고 낮에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남아 있는 서울시민들은 잔류파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사흘은 서울 시민의 도강과 잔류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자 전쟁에서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다. II장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세 가지 선택’에서는 전쟁 발발에서부터 서울 잔류까지 사흘간의 혼란과 그 이후의 상황을 최인옥의 <목숨>, 최태응의 <구각을 떨치고>, 곽학송의 <철로> 등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⁷⁾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전문직에 종사했던 지식인들로 비교적 당시의 일반 시민들보다 전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잔류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최인옥의 <목숨>의 주인공 조병기는 한강로 K 병원의 원장이자 육군중위의 아버지, 최태응의 <구각을 떨치고>의 주인공은

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식화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건국 신화’를 만들어 낸 피란은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자, 북한 침략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입증해 준 성스러운 ‘엑소더스Exodus’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왔다.”

6) 한홍구,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한홍구 교수 역사와 책임”, 한겨레 신문, 2014.5.25.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는 9·28 서울 수복에서 1·4 후퇴 사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1950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사형이 선고된 부역자가 867명이고 이 중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일보> 1950년 11월 27일치에는 11월 24일에 322명의 공산당 협력자에 대한 형 집행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1950년 12월 11일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 정부의 부역자 처리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11월 8일까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된 1만 7721명 중 민간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353명, 계엄군법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713명,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된 사람은 232명이었다.”

7)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은 1950년 6·25 직후의 1차 피란과 다음 해 1·4후퇴 이후의 2차 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한 번의 경험을 통해 2차 피란에서의 서울 탈출은 필사적으로 이루어졌다. II장에서의 피란은 6·25 직후의 1차 피란을 말한다.

종군작가 그리고 광학송의 <철로>의 주인공 현수는 철도국 수색 조차장에 근무하는 통신요원으로 이들은 잔류 이후 각각 자살, 뒤늦은 도강과 두 번의 피란 그리고 부역을 선택하게 된다.

1. 양심적 지식인의 자살

최인옥의 <목숨>은 전쟁 발발 후 사흘 동안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한강로 K 병원의 원장 조병기이다. 전쟁이 발발한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조병기원장의 둘째 아들인 육군중위 창기는 서울에서 후퇴하는 길에 트럭 한 대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그의 가족에게 피란을 권한다. 하지만 조병기원장은 군부의 공용차를 사사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잔류를 결정한 후 트럭을 돌려보낸다. 개인의 피란에 군부의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양심적 관료나 정치가, 지식인들은 그와 같이 자신을 지켜보는 힘없는 시민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가족과 살림살이를 챙겨 피난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조병기원장이 피란에 실패한 첫 번째 원인으로 아들인 창기가 떠난 뒤 바로, 그는 가족만이라도 피란을 시켜야 했음을 깨닫는다. 반면에 이것은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보와 권력 또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부터 도강이 가능했음을 방증(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자동차를 타세요. 괜히 이려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창기는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아버지는 백번을 고쳐 생각해도 창기가 가지고 온 자동차를 타고 피란길을 떠날 마음은 나지 않았다. 지금 조국의 운명이 최후의 일전에 달린 이 엄숙한 시각에 군부의 공용차를 일개인의 사용에 돌려 가족과 살림을 들어내다니, 생명도 귀하고 재산도 중하지마는 한 계단 초월해서 잠시 내들인 발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야 할 일이었다.(최인옥, <목숨>, 202면.)

조병기원장은 창기가 떠난 뒤 곧 자신의 판단이 오류였음을 깨닫는다. 그는 가족들을 큰아들이 있는 대전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서울에 잔류하기로 결정하지만 이것이 조병기원장이 피란에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다. 그는 가족들을 피란 보낸 후 바로 그들을 따라가지만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도강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신의 판단이 오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가 가족을 보내고도 마지막까지 잔류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집과 병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가 전쟁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나오는 정부의 발표만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당시 서울 시민의 일반적 모습으로 이미 공산주의를 경험한 이북의 피란민들을 제외한 보통의 서울 시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일종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집들을 지키고 있었다.⁸⁾ 그들이 전쟁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피란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인민군이 밀려오고 난 후였다.

“여보, 지금 곧 피난을 가요. 집은 내가 혼자 남아서 볼 테니 저 애들을 데리고 지금 곧 떠나요. 창기 말대로 큰 애가 있는 대전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소.”

“가면 다 같이 가야지 당신은 남아서 뭘 하오.”

아내는 조금 전의 기분이 상기도 풀리지 않은 듯 한마디로 툭 내쫓는다.

“나만은 뒤에 남아서 좀 더 형편을 불라오. 생명도 생명이지만 내 손으로 이룩한 이 병원과 살림을 그대로

8) 유진오, <구름위의 만상>, 일조각, 1992, 29면.

팽개치고 훌쩍 떠나자니 차마 마음이 내키질 않구려. 끝까지 지키는 대로 지키다가 정 안되면 나도 뒤 따라 갈 테니깐 내 걱정은 조금도 말고 어서들 먼저 떠나오.”(위의 책, 203면.)

한강을 건너지 못해 피란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조병기원장은 서울이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된다. 좌익 운동을 한 아들을 둔 어물도가 홍씨의 군인과 정부 비하 발언에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한 반공주의자인 그는 적의 손에 치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것은 정부의 발표를 믿어왔던 서울시민들이 정부의 철수와 한강다리의 폭파를 목격하고 정신적 공황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병기원장의 자살 역시 자신의 판단 오류에 대한 굴욕감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전쟁의 공포감에 의한 것이다.

<목숨>은 ‘지식인으로서 양심’과 ‘의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려했던 주인공이 잔류를 결정하지만 그 결정의 오류를 자각하고 자살하기까지 나흘간의 기록이다. 그가 잔류한 원인은 소박하게도 지식인의 양심과 의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며 정부의 발표를 믿었기 때문으로 그의 잔류에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양심과 자존심에 고뇌하는 지식인의 갈등만이 드러날 뿐이다.

2. 월남 작가의 두 번의 피란

최태웅의 <구각을 떨치고>에서도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인공이 뒤 늦게 피란의 대열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가족과 국군의 도움으로 겨우 도강에 성공하여 수원에 도착하게 된다. 수원에 도착한 후, 그는 그 동안의 행실을 뉘우치기라도 하듯이 열심히 종군 임무를 수행하는데 ‘빠라와 격문을 쓰고, 제작하는 과정’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도강을 하였음에도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흘만 견디어 내면 서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남쪽으로 향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망설임은 전쟁에 대한 낙관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적지인 서울에 버려두고 가장인 자신만이 피란을 왔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머뭇거림’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잔류파에 대한 도강파의 죄책감이기도 하다.

시름시름 거리만 가도 목표만 남쪽으로 정하고 마냥 거르면 안전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던 나도 금방 벗어난 지옥 같은 서울을 고대로 그려볼 줄 알면서도 일보 남쪽으로부터 혼자서 안전지대를 향하여 바쁘게 달려 갈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 혼자서만 열흘이고 한달이고 무기한으로 서울과의 거리를 오백리고 칠백리고 또한 무제한으로 멀리 떠러져 갈수가 없었다.

- 한 사흘만 견디어 보자 -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개 나의 예상과 다름이 없는듯 그 당초에는 모다 가차운 시골에서 며칠씩만 기다리면 서울은 다시 회복되고 적은 물러가고 마는 것으로 치고 있었다.(최태웅, <구각을 떨치고>, 186~187면.)

떠난지 달포만에 강통을 차고 진짜 거지가 되어 나는 무사히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은 허무러 졌으나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것들인 나의 가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견디어 주었다.

두말 할 것 없이 그들을 데리고 사흘만에 두 번째 서울서 벗어나 두달동안 나와 나의 가족들은 소위 백날에 걸친 ‘붉은 난리’를 이겨주었다.(위의 책, 202~203면.)

월남자나 대한민국의 지배층, 우익들의 ‘다급한 피란’⁹⁾에는 잔류와 피란을 선택하는 망설임.

9) 김동춘, 앞의 책, 162면.

“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남하 소식을 듣고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가장 다급하게 피란 간 사람은 경찰, 대한청년단간부, 면서기, 지주 출신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친일 경력을 가진 인사, 미군정 때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

즉 고민의 과정이 생략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 발발 후 사흘 만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작품에는 잔류와 피란을 선택하기까지의 갈등이 주인공의 '머뭇거림'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뿐 아니라 남북한 양 정권에게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한 지식인이나 중간층의 경우 피란과 잔류 사이에 고민하게 되면서 도강의 시기를 놓치고 서울에 잔류하게 된다. 그는 뒤 늦은 도강에 성공했음에도 잔류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중의 서울로 다시 돌아와 가족들을 데리고 두 번째 피란을 떠나는,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 된다. 이 작품의 작가인 최태응은 월남인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검증받기 위해 과잉된 충성과 헌신으로 이승만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자신의 주체위치를 증명하던 '대표적인 친체제, 반공 인사'¹⁰⁾였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안에서조차 잔류한 자에 대한 도강한 자의 죄책감이 구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의 뒤 늦은 도강과 피란 그리고 결국은 서울로 다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피란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형상화된 <구각을 떨치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인공의 '머뭇거림'의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강한 사람들의 적이 아님은 물론 모두 그들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도강파의 죄책감은 국군의 서울 입성과 함께 잔류파에 대한 증오로 변하게 된다. 그들의 희생을 외면해야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잔류파를 증오'¹¹⁾하고, 빨갱이로 처벌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강파의 자기증명은 잔류파 처벌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도강파의 도덕적 부채감이 잔류파를 상대로 이념적 순결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3. 관념적 개인주의자의 부역

곽학송의 <철로>는 철도국 수색 조차장에서 근무하는 통신요원인 현수가 피난을 포기하고 서울 잔류를 결정하면서부터 서울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삼 개월 간의 부역과 그 후의 부역자 처벌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대부분 이 시기 작품들이 분한(分限)의 감정이나 추상적 휴머니즘, 경직된 이데올로기 등에 머무는 반면 <철로>는 드물게 전쟁을 구체화하며 부역과 그 이후의 과정, 즉 '취조와 고문' 등에 대해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현수가 피란을 포기하고 서울 잔류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념에 의한 선택이라기 보다 그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그는 지극히 관념적인 개인주의자이다. 잔류를 결정한 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도 계속 나간다. 그와 그의 일 사이에는 어떠한 사상도, 권력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소극적이고 서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우익운동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청년, 학생들도 서둘러 피란을 갔다.”

10) 공임순, 『빨치산과 월남인 사이, '이승만'의 재현/대표성의 결여와 초과의 기표들』, 『상허학보』27, 2009, 375면. 참조

11) 잔류파를 향한 증오가 드러나는 가장 원색적 비난으로 조영암의 『잔류한 부역문학인에게-보도연맹의 재판을 경고한다』(『문예』, 1950.12. 74~75면.)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월남 작가로서의 이념적 콤플렉스가 반공으로 치환된 대표적 경우이다. “너희는 90일 동안의 총견 노릇……똥주린 이리떼……악마의 화신……백의를 걸친 레닌 스탈린의 후예! 너희는 깎두기를 먹는 스라브의 자손들이다……너희들의 갈 길은 이제 하나 밖에 없다. 참회와 속죄의 기록을 남기라. 거룩한 여류작가, 갈보군상님들은 수녀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연이면 탑골 승방으로 돌아가도 무방하고, 성스런 남류작가 시인군상님들은 따라 가서 함께 동서하시어도 무방무방하실 것이고……또 불연이면 한강철교로나 청산가리로나, 점잖게 자진하여 만고에 남을 누명을 청산해봄직도 하지만, 워낙이 우부우부들이라 그렇게 할 수 없을 터이니, 차라리, 또 우리에게 기류와 같은 추파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들은 너희의 허무하고 가없는 인생을 가상하여 훈1등 공2등 국화대수장을 주는데 인색치 않으리라.”

튼 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통신 약어 사전’ 집필에 몰두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는 편집증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 등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잔류와 출근을 결정한다. 현수는 자신의 궤도만을 달리는 기차와 같다. 그에게 철로통신선은 삶이자 생명이므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이고 반동이다. 현수는 잔류를 결정한 후에는 갈등하지 않고, 묵묵히 부역을 하면서 자신의 일터를 지켜나갔다. 그는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부역이기에 앞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정치적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수는 기수의 ‘유격대 가입’도 강의 ‘공산당 입당’의 권유도 끝까지 거절하며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거부한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표현은 ‘중도파적 인물’¹²⁾의 탄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는 의의가 있지만 남과 북 양측에 모두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는 행위로 그 자신에게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십여년간 지켜 온 서울 문산 간의 철도통신선은 벌써 그의 생명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그가 여기를 떠나서 하루 세 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재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보다 더 그는 여기를 떠난 자기의 생활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는 ‘이것’의 사살상의 주인이다. 어떤 권력이 개입하여도 그를 ‘이것’과 떼어 놓을 수는 없다.(곽학송, <철로>, 339면.)

부역행위에 있어서도 현수는 다른 부역자처럼 천편일률적 고해성사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당위성(當爲性)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 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표면적 반성만으로 용서받기도 하고 도강파에게 반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당시의 부역자 처벌을 비판하기도 한다. 생사가 오고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발 떨어져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는 등 현수는 다소 어눌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의 좀 더 근본적인 존재 의미를 고민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까지 석 달 동안 나는 죄를 범했던 말인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하자. 거기까지 양보하여 죄를 범했다 하고 그런 나의 죄가 이제 짧은 시간의 행동으로 부정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될 성싶은가. 도대체 나는 오늘까지의 나의 생활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석 달 동안의 나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그 석 달 동안의 생활 있게 한 그 전의 나의 생활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위의 책, 377면.)

이 작품에는 부역한 자들의 잔류가 국가의 명령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도 그들을 구제하지도, 그들을 위해 변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처벌하여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면하려는 국가의 이중적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조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역자에 대한 고문과 폭력은 부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역을 취조하는 자들의 부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잔혹함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권력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게 한다. 그러므로 잔혹한 잔류파 처벌은 전쟁 이후 권력 장악과 권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나는 자네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네. 자네의 태도쯤은 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본 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국에서 직장 사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던들 자네나 나나 모두 부산에 피난했으리라는 것을……”(위의 책, 432면.)

잠시 후 현수는 무지막지하게 생긴 두 사내에게 끌려 고문실에 갔다. 그리하여 온갖 방법에 의한 육체적인

12) 정희모, 「역사체험의 회복과 실감 있는 전쟁의 옛보기」, 『민족문학사연구』8, 1995, 275면.

“이쪽 저쪽의 잘못이 크기에 어느쪽도 편들 수 없는 묘한 이방인을 만들어내는 한국적 상황, 예컨대 <광장>의 이명준이나, <시장과 전장>의 석산선생, <지리산>의 박태영, 가깝게는 <태백산맥>의 김범우에 이르기까지 묘한 ‘중도파적 인도주의자’, 또한 ‘중도적 이상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마리를 보여준다.”

타격을 받았다. 야구용 배트같은 곤봉과 고압선 토막들이 번갈아 육체에 몇 번 부딪혔을 때 이미 현수는 맑은 의식이 아니었다. 구두발로 무수히 찬 무릎, 그리고 뒷 전등을 때리는 고압선 토막이 두부(頭部)에 휘감겨 얼굴이 깨지고 하여서도 현수는 별반 아픔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위의 책, 448~449면.)

<철로>에서 주인공 현수가 전쟁의 두려움과 고독함 그리고 잔류 후의 고문과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그의 자발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도나 권력자의 의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생각과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한 의도가 모두 정치적 판단과 이데올로기로 치환되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가치중립적 이데올로기를 지양하는 한 양심적 지식인의 선택과 자유 의지는 개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고통이 되고 만다. 하지만 국기나 국가가 벌인 전쟁이 내세우는 정체성과는 다른 종류의 정체성 실천은 “개인의 특성이 없다면 진정한 문학교, 입 밖에 내어 소중히 간직할 가치가 있는 말도, 보호하고 독려할 만한 인간의 역사나 행위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놀라운 문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³⁾

부역은 양심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 더 나아가 정치적 문제이기에 수많은 양심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죽어갔던 전쟁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결국 양심과 타협하고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목숨>의 조병기 원장은 굴욕을 참지 못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구각을 떨치고>의 주인공은 죄책감으로 남쪽으로 향하던 발길을 되돌려 전쟁 중의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철로>의 현수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된다.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죄책감으로 전쟁 중의 서울로 되돌아왔든 또는 자유의지든 이들은 모두 전쟁 전에는 평범한 서울 시민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닥친 고난은 양심과 도덕적, 지적 판단이 거세되고 오직 정치적 판단과 처세에 의해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는 피란의 현실이 무장한 전장의 전투만큼이나 폭력적이고 비극적임을 보여주게 된다.

III.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

서울로 돌아온 도강파에 의해 자행된 부역자 처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남은 자들끼리 치열한 다툼과 책임 전가뿐이었다. 그러므로 잔류파 사이에서는 조금의 상황적 우위라도 선점하기 위해 위계를 정하려는 치열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물론 잔류파의 위계는 국가에서 이미 정한바 있다. 하지만 똑같은 부역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자발적, 적극적 부역임을 증언하면서 부역자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양측에 모두 충성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횡포에 의해 잔류파의 고통은 더욱 극대화 된다. ‘잔류파의 갈등과 민중의 기회주의’에서는 손소희의 <결심>,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 그리고 최정희의 <정적일순>, 강신재의 <포말>, 곽학송의 <철로> 등을 통해 잔류파 간의 갈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로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 손소희의 <결심>과 최정희의 <정적일순>은 여성과 노파, 강신재의 <포말>은 아내와 그 정부(情夫)에게 이용당하는 사회 부적응자, 곽학송의 <철로>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서툰 인물이다.

13) 에드워드 사이드/김정하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12, 113면.

1. 잔류파의 갈등과 위계

손소희 <결심>의 주인공인 영히는 도강하지 못하고 잔류한다. 잔류한 상태에서 부역을 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잠적하지 않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부역을 하게 된다. 화가인 영히는 ‘쓰딸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리는 똑같은 부역 행위를 했음에도 남성 화가들의 부역행위와 자신의 부역행위를 분리하고 그들의 행위를 타자화하여 비난하고 있다.

영히는 말없이 입을 비죽하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일찍이 애국투사가 되지 못한 그로서 대한민국에 충정을 다하지는 못했을망정 공산주의라고 하면 생리적으로 싫고 거슬리는 그였다. 이번에도 남편이 늑막염으로 앓고 누어 있지만 앉았어도 영히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흘러가려고까지 결심했던 것이다.(손소희, <결심>, 104면)

영히에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자기의 선배요 또 모범이 될 만한 남성 화가들이 묵묵히 이 굴욕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다. 영히는 또 한번
 “못살걸……”하던 정숙의 말이 생각 났다.
 “목숨을 유지 한다는 것은 저렇게도 굴욕이란 말인가?”
 영히는 혼자 속으로 중얼 거렸다.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새삼스레 느꼈다. (위의 책, 105~106면.)

그녀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병으로 잔류했음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역설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고 부역을 합리화하려 한다. 특히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굴욕에 머리를 숙인다며 단지 선배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원래 사상이 불순하여, 자발적으로 잔류하고 부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다. 똑같은 부역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게 유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 위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에서는 내년이면 중학교를 나올 열여섯 소녀, 인임의 생존본능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인임은 전쟁을 통해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빨갱이의 물건을 맡아두다 걸린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부역 죄를 취조하는 치안대에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다. 당시 부역자 심판은 부역의 여부, 경중과 상관없이 변명을 똑똑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태극기를 이동리에서 누구집보다도 제일 먼저 내어달은 원숙어머니다. 그암팡지고 요사스러운 솜씨에 치안대도 넘어갈지 모르고 치안대가 넘어가면 저의는 감쪽같이 빠지고 이편만 덤태기를 쓰고 나설지 모를것이다. 더구나 어수룩한 성실 어머니 내외가 새에 끼였고 성실이 자신은 끝까지 성실히 회사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였으니 성실이네 세식구까지도 그 편을 들어주게 되면 까닭을 분명히 모르는 두 늙은이들만 변명도 똑똑히 못하고 잠시동안이라도 고생을 할것이 걱정이 되어 인임이는 따라나선 것이다.(염상섭, <해방의 아침>, 159면.)

노인은 원숙이 모녀와 젊은애를 놓치지 않은것만 다행해서 얼굴에는 웃음까지 띄우면서 인임이 오빠더러 제식구들을 데리고 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인임네 네식구가 당장으로 풀려 나오게 된것 이지마는, 나오는길에서 인임이 부친은 그래도 이웃간에 살던 원숙이 모녀가 가없어서
 “애, 지금판에 위원장 총살일텐데 싸줄것까지는 없지 마는 그네들 위원장이었다는 말을 한 것은 네입으로 사형선고를 한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고 말을 타일으니까, 인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부친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온 별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럼 저의를 살려주구, 우리가 죽어도 좋을까요?”(위의 책, 164~165면.)

인임의 가족은 인임이 여맹 위원장이었던 원숙어머니를 고발하고, 청년단간부였던 오빠가 나타나면서 부역의 혐의를 벗고 무사히 귀가하게 된다. 원숙어머니의 말솜씨에 속아 넘어갈 뻔한 어수룩한 치안대는 원숙어머니보다 한수 위인 인임의 고발로 그녀가 공장지부 여맹위원장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런데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인임의 아버지는 자신들 대신 총살을 받게 될 원숙어머니에 대해 걱정하는 순박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저의를 살려주구 우리가 죽어도 좋을까요?'라는 인임의 대답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하는 잔류파들의 당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인임의 부모 역시,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 자식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인임도, 원숙 어머니도, 성실이네도 모두 전쟁 전에는 이웃들이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았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들을 부역으로 내몬 것은 굶주림의 공포와 공산군의 총살 위협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역 책임은 국민들을 그러한 현실에 방치하고, 상황을 방조한 국가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오직 부역의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스스로가 인임처럼 자기보다 더 부역의 죄가 무거운 자를 스스로 찾아내서 고발하거나 영히처럼 자신의 처지를 읍소하고 다른 부역자와 자신의 차이를 찾아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인천 상륙에서 서울 탈환까지 2주 동안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진짜 빨갱이, 부역자들은 모두 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자기 방어능력과 현실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녀자와 노인들만이 남아 서로 부역의 위계를 다투고 그 죄를 나눠지게 된 것이다.¹⁴⁾

2. 민중의 기회주의와 횡포

최정희는 잔류파 작가로서 《적화삼삭 9인집》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 부역 문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내용은 잔류파로서 자신의 변명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드러난다. <정적일순>의 시간적 배경은 1·4후퇴 직후로 2차 피란상황이다. 그러므로 마을사람은 모두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되고 노파만이 텅 빈 마을에 남게 된다. 주인공인 노파는 북과 남에 각각의 자식을 두었기에 남한의 자식은 피란 보냈지만,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북의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 잔류를 선택한다. 이러한 노파에게 공산군이 찾아오고, 그들이 떠나자 이번에는 노파의 부역을 심판하겠다고 청년단이 차례로 찾아온다. 그런데 노파를 가장 괴롭히는 '동회 청년'은 대표적 기회주의자로 공산군이 들어오면 공산군의 앞잡이, 국군이 들어오면 청년단의 일원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는다. 도강을 못하고 잔류하게 된 잔류파들 중에는 재빠르게 변신하여 공산주의자로 변신한 이들이 많다.

“아니, 젊은 양반들, 이걸 우리 건데 왜 가져 갈려구 그러시오?”

노파가 이런 말을 해 가며 말리니까 동회 청년이.

“왜 이 늙은이가 이래? 늙은이가 부역행일 했으니까 이것 다 역산이야. 집두 역산이야”했다.

노파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그저 젖은 눈을 껌벅껌벅 하고 있었다.

산더미만한 것과 집더미만한 것을 청년단에서 다 실어갔다. 노파도 끌려가서 진종일 심문을 받았다. 그들

14)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36, 2010, 130면.

국제적십자 대표 비에리와 르니에르의 조사 또는 해외언론 보도는 여성과 어린이를 동반한 어머니인 여성에 관심을 두었고 그녀들이 창문도 없고 담요도 없는 추운 감옥에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죽은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해졌다. 그리고 그 수는 <연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형 언도만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보도는 어느 정도 한국의 실정을 알려준다. 실제로 부역자 또는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까닭으로 학살당하거나 재판받은 여성들이 많았다.

은 노파의 사위가 공산당이란 것도 알고 있고 노파가 공산당이 들어온 뒤에 그들에게 룝색을 만들어 주고 쌀을 꾸어 주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은 것, 그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리운 것 등을 알고 있었다.

동회 청년이 알려준 것이라고 노파는 알고 있었다.

“자네가 그럴 수가 어찌 있느냐. 자네는 공산당의 앞잡이가 아니었더냐? 큰 아들이 피난내려갔다는 것, 우리가 이북에서 월남했다는 것까지도 자네가 고해 바쳐서 날 괴롭히지 않았더냐?”

노파는 속으로 이런 말을 몇 십 번 되풀이하면서도 그냥 힐난을 당했다.(최정희, <정적일순>, 70~71면.)

이들은 북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자신들의 전력을 숨기고 다시 한 번 변신하여 잔류파 심판에 앞장서면서 잔류파들을 더욱 잔인하게 몰아세우는 역할을 자청한다. 이들이 선택한 ‘피란’의 방법은 강을 건너 길을 떠나는 ‘도강’이 아니라 전선의 이동에 따라 양측에 충성하며 남아있는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인 것이다.

Ⅱ장에서 논의한바 있는 곽학송 <철로>에서도 서울이 회복되자 전쟁 중에도 출근했던 현수를 부역 죄로 처벌하겠다고 그의 집으로 철도치안대가 찾아온다. 당시에는 부역자 처벌의 명목으로 각종 사설 치안 조직이 생겨났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많았는데, 먼저 치안 조직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가면 당시 상황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직을 만들어 처벌에 앞장 서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이력이 수상한 사람들도 많았다. 현수를 찾아온 철도치안대도 마찬가지로 그 중 한명은 인공기가 달린 장총을 메고 서울 해방을 외치면서 피난민의 한강 도강을 저지하던 공산당의 자위대원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와 같이 부역을 한 직장동료 순오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약삭빠르고 세상물정에 밝은 순오는 벌써 부역자에서 부역자 처벌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변신한 것이다. 전쟁 중의 세상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러한 면에서 현수는 한 없이 불리하다.

강신재 <포말>에서는 아내가 정부인 다른 사내를 숨기기 위해 남편을 의도적으로 부역으로 내모는 장면이 나온다.

六·二五때 사실 나는 조금 나쁜 짓을 하였다. 그것은 연옥이가 그렇게 안하면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이지만, 하여간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무진 고생이었다고 함이 옳을 게다. 나는 동 위원회의 심부름 같은 걸 하고 돌아다니면서 통문 따위를 돌리기도 하였지만 더 많이 뺏골이 빠지게 노동일을 하였다. 복구 사업이니 탄환 나르기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갔다. 시커먼 수염을 기르고 아주 썬 말씨를 쓰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싫었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는 수가 없었나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강신재, <포말>, 401면.)

아내와 정부 그리고 남편 이들 셋은 모두 잔류하지만 이들 중 동위원에서 목숨을 걸고 부역을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수룩한 남편뿐이다. 아내는 남편을 앞세워 부역을 하게 한 후 주위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정부를 집 안에 숨겨주고 있다. 결국 남편은 전쟁 중에는 아내의 정부를 위해 부역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전쟁 후에는 형사의 취조에 시달리는 등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기회주의자들은 전쟁이라는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는 비인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잔류파의 갈등은 처벌에서 시작되는데 <결심>과 <해방의 아침>에서처럼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계를 정하고 상황적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양측 모두에 충성을 다하는 기회주의자들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느 쪽에든 자신들의 충성과 사상적 순결을 인정받기위해 과도한 충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역자로 몰려 제일 먼저 희생되는 자들이 <정적일순>, <포말> 등의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

들의 고통을 통해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만나면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Ⅳ.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과 그 의미

일제 강점기 때 피식민지의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암암리에 일본이 피식민인에게 가하는 깊은 폭력성을 폭로해 낸 것처럼, 전쟁기 당시의 작가들도 암암리에 현실의 상황에 대한 부당함과 모순을 작품을 통해 표출해내고 있었다. 문학의 연구는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작가가 작품에 남긴 증거를 찾아내 그 의미를 해석해 내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잔류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잔류를 결정했던 시민들의 선택 근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며, 정부의 잘못된 발표였다.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이 져야했으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잔인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했고 묵종할 뿐이었다. 더구나 잔류파 처벌에 앞장섰던 이들은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도강파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피란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잔류파에게 더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도강파와 잔류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도강파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도식적 승리와는 다르게 해석될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잔류파들이 겉으로는 반성하면서 느끼고 있었던 억울함, 도강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영웅화하면서도 느끼고 있던 죄책감은 은연중에 작품 곳곳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체험기, 수난기, 피란기, 종군기 등의 '증언물'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 않게 진행되어 왔지만 '창작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이에 비해 비교적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누락되었던 창작물을 바탕으로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더불어 그 책임의 문제를 논의했다. 잔류파에게는 폭력과 죽음, 그리고 처벌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그들을 위한 사과와 위로는 없었다. 잔류파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침묵했다. 다만 당시 작가들만이 작품 속에서 이를 증언함으로써 그 책임자들을 역사적 증언대에 세우게 된다. 전쟁 승리의 기록은 지배층이 갖고 있다면 전쟁의 피해 기록은 기층민들의 몫이다. 별다른 기록, 자료가 없어도 그들의 삶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문학이 사회과학처럼 현세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가는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이를 규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¹⁵⁾ 그러므로 잔류파의 문학적 증언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전쟁의 발발의 책임은 물어도 그 피해의 책임에는 함구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5) 에드워드 사이드/김정하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12, 114~115면.

“인문학자가 이 세계는 세계를 경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에게 맡기고 텍스트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귀중을 들을 때 정착하지 못하고 오갈 데 없는 추방자들, 이민자들, 떠돌고 있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기록도 적절한 표현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인문학이 침묵과 기억의 세계와 떠돌이들,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배제와 보이지 않는 장소들, 증언같은 것들을 발굴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신재, <포말>, 《한국전쟁문학전집》1, 신구문화사, 1969.
 곽학송, <철로>, 《한국소설문학대계》38, 두산동아, 1996.
 염상섭, <해방 후의 아침>, 『신천지』, 1951.1
 손소희, <결심>, 『적화삼삭 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3
 최인옥, <목숨>, 《최인옥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2.
 최정희, <정적일순>, 《한국전쟁문학전집》1, 신구문화사, 1969.
 최태웅, <구각을 떨치고>, 《전쟁과 소설》, 계몽출판사, 1951.

2. 논저

- 김동춘, 『한국전쟁』, 돌베개, 2009.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비, 2009.
 김재용·오오무라 마쓰오 편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2009,
 문혜윤, 「1950~60년대 전쟁과 젠더-전후 신세대 작가 곽학송 다시 읽기」, 『우리어문연구』통권 44호, 2012.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9, 1990.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20, 2006.
 서동수, 「모운숙의 피난 체험과 도강파의 글쓰기」, 『한국문예비평연구』33, 2010.
 서동수, 「유진오의 글쓰기와 피난의 윤리성」, 『우리 말 글』52, 2011.
 양주동 외, 『적화삼삭 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3
 유진오 외,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11
 이병순, 「한국전쟁기 여성문인들의 반공서사연구-모운숙과 최정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2010.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36, 2010.
 정희모, 「역사체험의 회복과 실감 있는 전쟁의 옛보기-곽학송의 <철로>」, 『민족문학사연구』8, 1995.
 조미숙, 「손소희 초기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6, 2006.
 한홍구,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 한홍구 교수 역사와 책임”, 한겨레 신문, 2014.5.25.
 에드워드 사이드/김정하역, 『저항의 인문학』, 마티, 2012.

<토론문>

윤영옥(전북대)

김미향 선생님의 “잔류파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증언”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문은 18세기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을 대상으로 제주인들의 타자와 자아 인식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탐라문견록』이라는 자료는 당시 동아시아 관계의 문제를 짚어보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본 발표문은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합니다. 본 발표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1. 우선 『탐라문견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을 ‘타자 인식’, ‘관계 인식’, ‘자아 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 셋을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타자 인식, 관계 인식, 자아 인식을 종합한 ‘18세기 제주인의 동아시아 인식’이 어떠한지 제시하고, 이를 다른 시기의 것, 또는 제주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테마가 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탐라문견록』의 기록에 따른 제주인의 타자와 자아 인식을 논할 때, 자발적이지 않은 표류에 의한 것임을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발표문의 서론에서 언급하긴 하였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논의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동적인 표류이다 보니 타자 인식이나 자아 인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일단을 추출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3. 마지막으로 발표문의 결론에서 “제주의 경우, 이런 진취성과 관계성이야말로 해양문화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좋은 정신문화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발표문의 본론에선 이와 다른 점들을 부각하고 있어 다소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라문견록』에 나타난 제주인의 타자와 자아 인식은 그다지 적극적이거나 진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제주인의 진취성과 관계성이란 본질적 속성과 어떻게 결합하여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채호 유고 「백두산도중」과 근대 문학

조경덕(고려대)

<목차>

1. 「패강랭」과 「백두산도중」
2. 나이 사십에 부르는 노래-「백두산도중」
3. 삶의 자리와 이념의 자리
4. 북방으로 가는 길
5. 가난한 노래의 씨

1. 「패강랭」과 「백두산도중」

이태준의 단편 「패강랭(溟江冷)」(『삼천리 문학』 38년 1월)은 나라 잃은 시대에, 있어야 할 것은 점차 사라지고 없어야 할 것이 생겨나고 있는 세태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패강랭」의 초점화자인 현은 소설가로서 서울에 사는 그가 십여 년 만에 평양에 와서 사라진 것과 생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현이 자동차를 타고 평양 시가를 달리다 처음 본 것은 “분묘(墳墓)와 같이된 건축”¹⁾, 즉 경찰서다. 그리고 사라졌다고 깨달은 것은 “「피양내인」들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²⁾던 머릿수건이다. 또한, 비행장, 그 곳을 지키는 총에 창을 꽂아 둔 병정, 째쓰, 판쓰가 생긴 것들이라면 박이 교수(教授)하는 조선어와 한문 수업, 의기 있는 기생, 장고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이다. 생긴 것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것과 근대적 문물이며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 문물이다.

이들에 대한 현의 생각과 느낌은 동일관(東一館)에서 열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현이 함께 술자리를 하는 친구는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과 평양의 부회의원(府會議員) 김이다. 친구들 역시 사라지는 것과 생긴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지한 인물들이다. 이 술자리 중에 한바탕 노래 자락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유의할 대목이 있다.

박은 입을 씻고 씻고 하더니 곡조는 서투르나 그래도 꽤 어울리게 이런 시 한구를 읊어서 소리를 받는다.
 “각하-안-산-진 수궁처…… 임흥정-가고옥-역난위를…….”
 박은 눈물이 글성해 후- 한숨으로 끝을 맺는다.³⁾

기생 영월의 소리에 대한 답가로 박이 한시를 읊는 대목이다. 화자는 “꽤 어울리게 이런 시

1) 李泰俊, 「溟江冷」, 『三千里 文學』 38년 1월, 23면.

2) 李泰俊, 「溟江冷」, 『三千里 文學』 38년 1월, 23면.

3) 위의 책, 27~28면.

한 구”라고 표현하며 박이 읊은 시를 추어주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정작 이 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형태로 보아 7언 한시(漢詩)임은 짐작이 가지만 아무래도 음만으로는 시의 출처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에 대해 주목하고 처음 그 출처를 밝힌 연구자는 이승수다. 그는 평양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와 이태준의 「패강랭」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박이 읊은 시가 신채호의 시, 「白頭山途中」임을 밝혔다.

人生四十太支離 인생 사십 년 지리도 하다
 貧病相隨暫不移 병과 가난과 잠시도 안 떨어지네
 最恨水窮山盡處 한스럽다 산도 물도 다한 곳에서
 任情歌哭亦難爲 내 뜻대로 노래 통곡 그도 어렵네

又 또

南來北走動輕年 남북으로 오가며 세월만 가네
 來亦然去亦然 와도 그러려니 가도 그렇네
 從知萬事須自斷 세상 만사 제 뜻대로 결단해야지
 俯仰隨人最可憐 남 따라 다니는 것 가장 가없네.⁴⁾

즉, 박은 신채호의 위 한시 1연의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의 한자음, “최한수궁산진처 임정가곡역난위”를 노래했다는 것이다. 이승수에 따르면 이 시는 원래 신채호가 망명길에서 백두산을 지나며 읊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태준이 “일제의 탄압이 점차 혹독해지는 와중에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비통한 심정을 몇 소절 노래 가사에” 담아 ‘고도의 방법’으로 깊은 뜻을 표현했다고 평가한다.⁵⁾ 여기서 ‘고도의 방법’은 이태준이 의도적으로 신채호의 시를 술에 취한 작중 인물의 입을 빌어 은밀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이른다.

한만수는 이승수가 말한 이 ‘고도의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을 일본의 검열을 회피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다. 한만수에 의하면 신채호의 이 시는 그가 독립군 양성기지를 백두산에 구축할 것을 생각하고 그 답사를 겸하여 백두산을 등반하고 쓴 작품이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패강랭」의 내용이 조선어 교육 폐지를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는 것과 긴밀하게 호응한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검열관이 이 노래가 신채호의 시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그 시의 내용을 알았다면 검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이 한만수의 주장이다.

또한 한시의 음가 표현을 ‘하-안’ 등으로 늘여 표현한 것, 전문 인용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두 구만 인용한 것, 원시를 조금 바꾸어 놓은 것을 들고 이를 검열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⁷⁾ 또한 그는 이 시구를 작중에 숨어 있는 일종의 암호로도 볼 수 있다고 하며 “이 암호는 검열관을 우회하면서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에 의해 작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⁸⁾

한만수는 이태준이 검열을 우회하고자 하는, 이러한 ‘고도의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던 이유

4) 丹齋申采浩全集 編纂委員會, 『丹齋 申采浩 全集』, 을유문화사, 1972, 466면.

5) 이승수, 「한국 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김시습의 「醉遊浮碧亭記」와 이태준의 「溟江冷」을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33집, 1994, 119~120면.

6) 한만수, 「이태준의 「패강랭」에 나타난 검열 우회에 대하여」, 314~315면.

7) 한만수, 「이태준의 「패강랭」에 나타난 검열 우회에 대하여」, 315면.

8) 덧붙여 한만수는 「패강랭」이 “단순하게 신채호의 작품 하나를 인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재를 강력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쓰인 것으로 판단”한다. 위의 글, 317~321면.

를 몇 가지 제시한다. 우선 이태준은 ‘기자-문인’이었기에 다른 작가보다 검열에 대해 더 예민하였으며 검열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태준은 한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런 만큼 작품 속에 종종 고전을 인용하여 작품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⁹⁾

「패강령」에 숨겨진 신채호의 시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는 고전문학(또는 한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어 연구하는 풍토에 대해 반성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식민지 검열 상황에서 문학 작품으로서 신채호의 한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각별한 흥미를 던져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승수와 한만수가 인용하고 있는 신채호 시의 출처에 관해서다. 오랜 세월 동안 고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의 감옥에서 생을 다한 신채호인지라 그가 쓴 원고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몇 십년이 지난 후에 전집으로 묶여졌다. 우선 신채호의 전집은 1966년, 북한에서 『룡과 룡의 대격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남한에서 1972년에 남한에서 『단재 신채호 전집』이 출간되었다. 위 시 「백두산도중」은 72년에 남한에서 출간된 전집에 수록되었다.¹⁰⁾ 그런데 이 전집에는 「백두산도중」이 언제 창작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전집에 수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절에서는 이 시의 출처에 대해 검토해보려고 한다.

2. 나이 사십에 부르는 노래-「백두산도중」

신채호가 죽은 후 그를 기리는 글들이 실린 『조광』 36년 4월호에는 위 「백두산도중」과 비슷한 시 한 구가 편집자의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상략) 그가 일즉 興京途中에서 詩一首를 써서 故土의 親舊에게 보내니 하였으되
 浮生四十成何事 貧病相隨不暫離
 却恨水窮山盡處 任情歌哭亦難爲
 (大義를 譯 하건댄)
 뜬세상 四十年에 한일이 무엇인고
 잠시도 病과가난 떠난적이 없었고나
 돌아서 恨하노라 山도물도 다한곳에
 찢하고 노래하기 그도마져 어려워라¹¹⁾

편집자는 이 시를 놓고 “그의 一生을 雄辯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노래 한 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910년에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였다가 1928년에 일제에 의해 여순 감옥에 투옥되고 1936년, 그 곳에서 병사한 신채호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시로 이 시를 뽑은 것이다. 이 시는 앞의 「백두산도중」의 1연과 비슷하다. 다만 結句(結句)만 온전히 같을 뿐 다른 구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와 한자의 배열 순서가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시에 발표된 시의 전구(轉句)는 ‘最’가 아니라 ‘却’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패강령」에서 박이 부른 한시는 “각하-안-산-진 수궁처…… 임흥정-가고옥-역난위”이다. 박이 노래로 늘여 발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시는 “각한산진수궁처 임정가곡역난위”가 될 것

9) 위의 글, 311~312면.

10)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병민, 「신채호 문학 창작 유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아시아 문화』 11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김주현, 「단재 신채호 문학과 정전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36호, 2007. 참조.

11) 편집자, 「噫! 不歸의 申丹齋」, 『조광』 36년 4월, 200~201면.

이다. 그에 비해 이승수와 한만수가 인용한 신채호의 한시 구절의 한자음은 “최한수공산진처 임정가곡역난위”였다. 즉, 박이 부른 노래는 ‘각’으로 시작하는데, 인용한 시의 전구(轉句) 첫머리는 ‘최’로 시작한다. 그리고 박은 ‘산진수궁처’라고 불렀는데 인용한 시는 ‘수궁산진처’다. 이승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만수는 이것을 거론하며 이태준이 일부러 검열을 피해 원시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¹²⁾

그런데 첫 음을 ‘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박이 읊은 시는 『조광』지에 발표된 시와 같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참고한 시는 『조광』지에 발표된 시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시는 다른 지면에도 발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하동호가 정리한 「丹齋書誌」에는 이 시가 『동아일보』 1936년 2월 27일자에 실렸다고 되어 있다.¹³⁾ 『조광』 발표분보다는 한 달이 앞선 셈이다. 여기에는 시 앞에 “興京道中作 -甲寅-”이 부기되어 있다. 흥경에 가는 도중에 지었다는 것과 갑인년에 지었다는 정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는 『조광』에도 있는 정보이며 후자는 새로운 정보이다. 갑인년은 1914년이다.

정리하자면, 「패강냉」에 실린 신채호의 한시는 두 개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나는 율시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절구 형태이다. 아마도 신채호는 하나의 시상(詩想)을 두 개의 형태의 시로 발표한 것 같다. 그리고 이태준이 「패강냉」을 쓸 때 참조한 시는 『조광』에 실린 후자다.

아무튼 「패강냉」의 신채호 시를 2년 전 잡지 『조광』에 실렸던 시로 본다면 한만수가 검열과 관련하여 「패강냉」에 의미를 부여한 것에는 그 정도의 측면에서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한만수의 논의에는 당시 ‘신채호’라는 기표는 불온한 것이어서 아예 거론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즉 신채호 사후 암암리에 작가 혹은 지식인 사이에서 신채호의 유고 문헌이 돌았고, 그 중 이태준은 신채호의 한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작품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준이 선택한 시가 이년 전에 잡지에 실린 시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여전히 작가가 검열을 의식했다는 해석은 유효하지만 은밀하게 눈 밝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문학적 수법의 역할의 비중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채호의 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신채호는 모두 14편의 한시를 남겼는데 그 중, 연구자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시는 「백두산도중」이다. 이 시에는 나라를 잃었다는 민족보편적인 슬픔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개인사의 고달픔이 유기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광』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히 기구(起句)의 나이 사십에 이르러 이룬 일이 없다는 탄식은 시적 자아의 인생 여정의 아픔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승구(承句)에서는 가난과 병이 생애에서 떠난 적이 없다며 앞 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구가 신채호의 개인사를 다루고 있다면 다음 두 구는 민족의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한계 상황에서 제 뜻을 살려 노래하기도 어렵고 슬퍼하기도 어렵다며 탄식하는 시적 자아는 그 심급에 민족을 주체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시의 창작 연대에 대해 살펴 보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시가 지어진 해를 1914년이라고 지목한다.¹⁴⁾ 그것은 이 시가 백두산을 답사한 이후 썼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다.

12) 한만수, 앞의 글, 315면.

13) 하동호, 「丹齋書誌」,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丹齋 申采浩와 民族史觀』, 형설출판사, 1980), 685면. 『동아일보』가 마련한 아카이브에서 해당 시를 찾을 수 없다. 아카이브에는 3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시가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종이 신문을 찾아보아야야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14) 심경호는 신채호가 남긴 한시를 연구한 논문에서 「백두산도중」을 맨 첫 자리에 놓았다. 그에 따르면 신채호는 “의지의 표출로서의 문학만이 아니라 ‘사상감정의 유로流露’로서의 문학을 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삶이 순

산도 물도 다하였다는 ‘山盡水窮處’를 백두산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채호의 이력 중에서 백두산을 답사한 때는 그가 환인현에 거주하며 역사 자료를 모으고 있었을 때다. 신채호의 한시 중, 「無題」를 보면 1914년 환인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곳에서 신채호는 1914년에 尹世葦·尹世復 형제의 초청으로 서간도인 奉天省 桓仁縣 興道川으로 가 그곳에서 한 동안 체류하며 윤씨 형제가 세운 동창학교(東昌學校)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역사 연구를 위해 답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백두산도 다녀왔다고 한다. 『조광』에 실린 시에는 ‘興京道中作’이라고 하여 ‘흥경(興京)’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흥경은 요녕성 동부 산간 지역으로서 청나라의 발상지이며 안정복이 『東史綱目』에서 졸본이라고 지목한 지역으로서 환인현과 약 10km 떨어진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흥경도중’이나 ‘백두산도중’은 유사한 여정을 표현한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백두산도중」의 창작 연대를 1914년으로 본다면 시에 나와 있는 ‘나이 40’이 문제가 된다. 신채호는 1880년에 태어났으니 1914년에는 35세였다. 그렇다면 이 시의 창작 연도가 틀렸다고 보아야 하는가. 한편 나이 40을, 시적 허용으로 볼 수도 있다. 40세는 20세, 30세처럼 삶의 한 분기로서 의미를 둘 수 있는 나이이다. 공자는 40일 불혹(不惑)이라고 했거니와, 신채호는 자신의 삶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 위하여 시적 자아의 나이를 40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신채호가 나이 40을 강조한 것은 그의 다른 글에도 등장한다.

저는 前後 十年間을 定處없이 放浪하여 支離한 歲月 지치고 시달리며 鷓鴣같이 깃들이고 ?¹⁵⁾鼠같이 마시면서 苟阻히 衰殘한 목숨을 保存하여 올 뿐이니, 나아가서는 能히 國難을 打開하지 못하고 물러가서는 能히 田野에 밭 갈아 숨은 志士를 벗하지도 못합니다. 才能과 知識이 殘薄한 저는 世上에 何等 寄與 것이 없는 자로서 어려서부터 익힌 것이라곤 時文을 짓고 짓는 잔재주를 배우는 데 不過하였으니 限없이 높고 넓은 하늘땅을 대하여 실로 강개함을 禁할 수 없습니다. / 前日에는 또한 나라 運命의 切迫함을 痛哭하고 忿然히 일어나 붓을 내던지고 몇몇 烈士와 함께 나라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敵과 싸우기를 祈禱하였더니, 벌써 情勢는 더욱 틀려지고, 機會는 더욱 멀어져 안타깝게도 부질없이 머리만 어루만지는 동안 어느덧 賤한 나이 사십을 지났습니다.¹⁶⁾

위 인용문은 신채호가 이대교(李大釗)에게 북경 대학의 도서관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편지글이다. 이대교는 1921년부터 1923년 사이에 북경대학 도서관장을 역임했다고 하니¹⁷⁾ 이 편지는 그 즈음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말미에 어느덧 나이 사십을 지났다는 언급이 있다. 신채호의 나이로 보면 이 편지를 쓸 때야 말로 그가 갓 사십을 넘었을 때다. 도서관 열람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이 편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절실하고 간곡하게 펼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라 잃은 망명객의 가난과 비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편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위 동료에게 꼳꼳하다 못해 그것이 지나쳐 고집불통이라고 여겨졌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 역사 연구를 위한 일념이 낳은 표현이었던 것이다.

수한 열정으로 불났듯이, 그의 문학 특히 한시 장르는 그의 고독한 내면 세계와 자존의 여지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심경호, 「단재 신채호의 한시」, 『국학연구』, 149면.

15) 모르는 한자.

16) 신채호, 「李수상에게 圖書閱覽을 要請하는 便紙」(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 신채호 전집(별집)』, 형설출판사, 1977, 367면.; 이 글은 북한에서 발행한 『룡과 룡의 대격전』에는 국문체로 실려 있다.(몇 개 단어에는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이대교에게 쓴 편지라면 원래 한문체였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 전집에는 국한문체나 국문체로 실렸는지 의문이다.

17) 신채호는 1921년부터 1923년 사이에 베이징 대학 도서관장이었던 이대교(李大釗)의 도움으로 북경 대학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읽었다고 한다. 김병민, 『신채호 문학 연구』, 아침, 1989, 29쪽.

한편 이 편지글에서 작자의 처지와 심정에 관련한 내용은 시, 「백두산도중」을 산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백두산도중」의 창작 연대를 이 편지의 집필 연대와 비슷하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환인현이 백두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백두산을 답사하고 그에 대해 시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기에 가능성으로만 남겨둔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이 40'은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룬 것 없이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분강개라는 공적 주체의 감정과 더불어 개인의 서정을 드러냄으로써 문학적 향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3. 삶의 자리와 이념의 자리

그렇다면, 이태준의 「패강랭」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에서 신채호의 「백두산도중」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소설의 직물은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설가 현과 조선어·한문 선생 박의 한탄, 그리고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회의원(府會議員)이자 실업가인 김의 주장이 부딪치는 술자리의 언어가 그 한 가닥이다. 두 번째 가닥은 박이 부르는 신채호의 한시, 마지막으로 현이 내 뱉는 주역(周易)의 구절 등 한문으로 된 언어가 두 번째 가닥이다.

화자는 세 인물 중, 현을 초점화하여 현의 눈으로 본 평양 시가와 그것에 대한 현의 마음 상태를 중계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주권을 전적으로 현에게 건네지는 않는다. 전통의 아름다움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현의 주장과 “자네들 이제부터 실속채려야하네”라는 김의 주장은 술자리 내내 팽팽하게 부딪친다. 논리의 당위로 보아서는 현의 주장이 옳아 보인다. 하지만 현의 말이, 같은 편인 영월의 말과 섞일 때, 현이 선 자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지없이 폭로된다.

“자네도 그래 탄쓸허나?” “잘 못한답디다” “글세 잘허구 못허구간에?” “어쩍니까?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비월 맞추자니까요” “건 왜?” “돈을 벌어야죠” “건 그리 별기만해 뭘허누?” “기생일수록 제돈이 있어야겠습디다” “어째?” “생각해보시구려”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내헌테 가면 되지 안나?” “돈 많은 사내가 변심않구나 하나만 다리고 사나요?” “그런가”¹⁸⁾

인용문은 현과 기생 영월이 나눈 대화이다. 현의 말은 부회의원 김의 말과 부딪칠 때 비분강개하는 지사이자 예술가의 말이지만 영월의 말에 대꾸할 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도령의 말이다. 현은 영월에게 왜 저속한 서양 취미인 댄스를 배우냐고 묻고, 영월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웠다고 답한다. 현은 묻고, 영월은 대답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현이 돈의 논리에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동일관 술자리의 언어는 옳고 그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세상의 언어이며 현실의 언어이다.

그에 비해 박이 영월의 노래에 대한 답가로 읊는 「백두산도중」과 작품 말미에 현이 중얼거리는 주역의 구절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는 이념(理念)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불편이나 동요없이 작품의 현실을 투시하고 있다. 「백두산도중」의 시상은 현과 박이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견빙지”는 앞으로 그 현실은 더 각박해질 것이라는 예언적 성격

18) 이태준, 위의 글, 28~29면.

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언어는 제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며 세상에 건네는 전언이다. 앞서 말했듯이 「백두산도중」은 쉽게 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숨겨 놓았으며 또한 일의적으로 해석을 재단할 수 없게 “이상견빙지”라는 주역의 한 괘를 제시하였다. 특히 「백두산도중」의 경우는, 그 작자가 현과 박이 굴복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 하였던 신채호라는 점에서 더 의미심장하다. 4년 전에 세상을 달리한 비타협주의자를 조상(弔喪)함으로써 당위로서 기능하는 삶의 선택지를 작중에 표지로서 제시한 것이다.¹⁹⁾

마지막으로 지적해둘 것은 「패강랭」에서 이념의 언어는 한자 체계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자가 뜻을 감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표의문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옛 의기(義氣)를 드러낼 수 있었다. 실제로도 제2차 세계대전이 확산되면서 문인들에게 한글 사용에 대해 압박이 가해졌을 때, 한학(漢學)에 소양이 있는 작가들은 한문의 세계로 나아갔다.

4. 북방으로 가는 길

식민지 시대, 시인 이육사(李陸史)는 신채호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그는 1904년 4월 4일 안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3년, 일본으로 건너가 1년간 수학했으며²⁰⁾ 1925~26년간 중국 북경에서 대학을 다녔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피의자로 피검되어 2년 7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 등을 만났고,²¹⁾ 1932년 남경에서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였다. 그 후, 독립운동과 문필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다.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일장기 앞에 무릎을 꿇던, 1943년 즈음 다시 북경으로 갔다. 가을에 피검되어 1944년 1월 북경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반도와 만주, 북경 등지를 오가면서 조선의 독립을 모색했다는 점, 독립의 방법을 준비론이나 외교론보다 무장 투쟁에서 찾았다는 점 그리고 문필가였다는 점이 신채호와 이육사의 닮은 점이다. 신채호의 성균관 동료였던 위당 정인보를 이육사는 스승으로 두었으니 신채호는 이육사의 스승뻘이다. 삶의 궤적이 비슷해서일까. 이육사의 시편 중에서는 예의 신채호의 「백두산도중」의 정조와 유사한 작품이 있다. 특히 북방(北方)과 관련된 시편들이 그렇다. 한반도에서 볼 때, ‘북방’은 백두산을 둘러싼 고원(高原) 지역을 지나 도달할 수 있는 광야이다. 따라서 ‘북방’이라는 시어는 시적으로 공간의 높이와 넓이를 다 포괄한다. 예컨대 육사의 「절정」이 북방의 높이를 다루고 있는 시라면, 「광야」는 북방의 넓이를 다루고 있다.

絶頂	曠野
매운 季節의 채썬에 같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랴

19) 박의 「백두산도중」의 노래가 끝나고 화자는 “자리는 다시 찬비가 지나간 듯 호젓해진다.”(28면), 현이 “이상견빙지”를 읊은 다음, 화자는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30면)라고 서술한다.

20)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모임인 흑우회(黑友會) 회원으로 활동했던 논의도 있다.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3, 80면.

21) 그 동안 이육사가 의열단 단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지만, 김희곤은 여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육사가 김원봉을 만난 것은 맞지만 김원봉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3, 154~168면.

<p>하늘도 그만 지체 끝난 高原 서리빨 갈날진 그 우에서다</p>	<p>모든 山脉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골을 犯하든 못하였으리라</p>
<p>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p>	<p>끈임없는 光陰을 부지런한 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서 길을 연었다</p>
<p>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²²⁾</p>	<p>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²³⁾</p>

이육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과 「광야」는 한시(漢詩)의 전형적인 형식 즉, '기-승-전-결'의 구도를 지니고 있다.²⁴⁾ 독립에 대한 염원과 일제에 대한 강렬한 응전 의식을 가장 전통적인 시 형식에 담은 것이다. “最恨水窮山盡處”에서 ‘수궁산진처’는 물과 산이 다한 곳으로 「절정」의 “서리빨 갈라진 그 우”와 통한다. 이러한 신채호와 이육사의 표현은 수사(修辭)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표현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즉물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즉 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보았던 자연 경관과 그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오롯이 표현된 것이다.

그들의 시 구절이 시 「절정」 안에서 제 역할 이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표현의 직접성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민족사와 시대사의 지평에서 고유하고도 보편적인 상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어서 「광야」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시인은 북방, 광야의 공간에서 시원(始原)의 시간을 상상한다. 그 과거 시간의 깊이를 생각하면 현재 “지금 눈나리”는 것은 찰나(刹那)에 불과하므로 시인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며 미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되새긴다. 현재 궁핍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불릴 수 없지만 미래에는 그 노래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任情歌哭亦難爲”의 인식을 통렬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점근적인 희망의 언어로 감싸안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채호의 「백두산도중」(1914 혹은 1922~23)에 드러난 시상은 이육사의 「광야」(1941), 「절정」(19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육사가 신채호의 시를 읽고 그 시상을 자신의 시에 담아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인생 여정의 유사함이 비슷한 시상을 시로 담아낼 수 있게 했을 수도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채호 시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제시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려는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육사는 그 공감의 정도가 다른 작가보다는 더 깊었으리라 본다.

신채호와 이육사는 제국(帝國)이 식민지 경영을 하는 데 선의로서 하거나, 보편 윤리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제국에 대처하는 길은 오

22) 박현수,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예음, 2008, 112~113면. 원시는 『문장』 40년 1월호에 발표.

23) 위의 책, 164~165면. 원시는 『자유신문』, 1945년 12월 17일자에 발표.

24) 「절정」은 4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스란히 '기-승-전-결'의 구도를 지니고 있다. 「광야」는 1연과 2연이 '기'를 이루고 있다.

로지 힘뿐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북방을 오가며 일을 도모했고, 결국 중국의 감옥에서 생을 다 하였던 것이다.

5. 가난한 노래의 씨

신채호는 1910년 『대한매일신보』 사를 그만 두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미련없이 고국을 등진 것이다. 그리고 1934년 유골로 돌아와 고향 땅 충청북도 괴래리에 묻혔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조선일보>에 『조선상고사』가 연재되었다. 비록 몸은 영어(囹圄)에 있었지만 그가 쓴 글은 조국의 신문에서 활자화되었다. 그런데 그는 『조선상고사』가 연재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완성인 원고라 고칠 여지가 남았다는 것, 일본 연호가 박힌 지면에 자신의 글이 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원칙주의자였다.

신채호의 작품 중, 작고 후 『조광』 34년 4월에 실린 한시 「백두산도중」은 식민지 시대 작가들의 고단한 처지를 담은 절창(絶唱)이다. 특히 기구와 승구는 꺾꺾했던 원칙주의자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식민지인의 고통을 가감없이 표현함으로써 고통의 공동체로서 한민족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태준은 38년 1월 『삼천리 문학』에 발표한 「패강랭」 작중에 그 「백두산도중」을 은밀하게 실었다. 「패강랭」은 표면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당위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이육사의 북방 시편들 「절정」과 「광야」는 「백두산도중」의 사상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절정」과 「광야」의 시어들은 관념에서 나온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시인의 개별적인 삶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당시 식민 치하 민족의 상황을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절정」과 「광야」는 「백두산도중」의 영향 아래 있다. 신채호가 뿌린 “가난한 노래의 씨”는 이태준에게서, 이육사에게서 그리고 또 다른 식민 치하에서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서 움이 났다.

<토론문>

최성윤(상지대)

조경덕 선생님의 “신채호 유고 「백두산도중」과 근대 문학”에 대한 토론문

조경덕 선생님의 글을 흥미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신채호의 한시 「백두산도중」이 근대 문학 작품에 어떻게 수용되거나 인입되었는지를 고찰한 글입니다. 이태준의 단편 「패강랭」, 이육사의 시 「절정」과 「광야」 등이 「백두산도중」과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 아래 놓여 있는 작품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은 「백두산도중」의 서지적 검토를 통해 「패강랭」의 인용 행위가 가지는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백두산도중」의 창작연대와 배경에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초점은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패강랭」에 「백두산도중」이 은밀하게 인용되어 있다는 점 자체는 이 논문에 우선한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 이미 부인되기 어려운 사실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도중」을 인용한 이태준의 의도나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 논문이 의도하거나 내포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이태준이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판본에 대한 고찰이나 그것에 의한 선행 연구 조명 작업은 흥미로운 바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의해 「패강랭」과 「백두산도중」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백두산도중」의 판본에 대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단재 신채호 전집』에 수록된 텍스트와 다른 『조광』 수록 텍스트 발견이 의미를 획득하려면 두 개의 판본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패강랭」 발표 2년 전 『조광』에 실린 텍스트'라는 발견이 선행 연구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부분적 수정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 이육사의 시 「절정」과 「광야」가 「백두산도중」과 가지는 친연성을 영향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가는 결국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글 내에서 보면 이태준의 「패강랭」에서 시작한 논의를 확장 및 심화시키기보다는 초점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결국 이 논문의 성패는 아직 소략한 진술로 남아 있는 3장 '삶의 자리와 이념의 자리'가 어떻게 보충 강화되느냐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의 분량은 소략하지만 그 수준과 층위는 복잡다단한 것으로 미루어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마련해 둔 복안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

장창영(전북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문화콘텐츠와 체험형 글쓰기의 상관성
3. 체험형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기존의 글쓰기 방식과 달리 사전 단계에서 텍스트 위주의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방을 통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배경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 전, 실제 탐방, 탐방 후 글쓰기 작업과 사후 관리의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글쓰기의 동력 부여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시의성, 개별 요소의 주요 특성, 문화 원형 차원에서 고전작품이나 설화를 분석하거나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산업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개의 연구는 문화콘텐츠를 문화 원형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주된 연구자로는 경산 출신의 원효대사, 설총, 일연스님으로 대표되는 ‘삼성현(三聖賢)’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서동훈(2009), ‘오세암’ 설화의 심층 의미를 분석하고, 설화에서 창작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한 노제운(2010), 벽초 홍명희의 <임궏정>의 창작태도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서사산문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시도한 임완혁(2011), 고전서사문학과 디지털스토리텔링 간의 서사적 차별성에 주목하여, 디지털스토리텔링화의 가능성을 모색한 권도경(2011),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거점 콘텐츠로서 김유정을 접근한 이상진(2011) 등이 있다.

이외에도 특기할 만한 연구자로는 장흥군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요소를 중심으로 MSOU(Multi Source One use)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전 가능성을 살펴본 김미경(2009),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를 검토한 신원선(2010),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확대 재생산의 관점에 관광스토리텔링을 시도한 한강희(2010), 대중가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서정과 서사 가요 중심으로 교육현장에 적용시킨 김경애(2011) 등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글쓰기 연구 경향은 대학 글쓰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교육을 위하여 표출적 담론, 설득적 담론, 지시적 담론, 문학적 담론의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글쓰기 교과과정을 시도한 송팔

성(2007), 성경 구약 『에스더』를 활용한 수업안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방안을 모색한 임춘택(2010), 글쓰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한 박인기(2012), 쓰기 치료를 위한 개인적 서사문 중심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의 의미를 추적한 박영민(2012), 역사교육에서 '글쓰기 수업'의 여러 쟁점을 집중하여 다룬 방지원(2013), '장소를 촉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를 모색한 한희경(2013) 등이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화콘텐츠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거나 대학교육 과정의 글쓰기에 치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실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폐쇄적인 교실과 텍스트 대신에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이야말로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흥미 부여와 기초 실력을 쌓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주변에 산재한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단계화하여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후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보완작업을 제공하여 환경상의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후 후속사업에서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능동적으로 지속하여 작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결과물 제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글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방안을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생의 자기 계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일선 학교나 대안학교, 다문화가정, 실버세대 등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문화콘텐츠와 체험형 글쓰기의 상관성

현재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결코 접하지 못했던 신기술과 미디어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은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고도의 사고 집적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글쓰기 또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전통적인 글쓰기 개념은 와해되고, 청소년들은 언어 파괴 현실과 파편적인 이미지가 넘쳐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 도래가 역설적으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글쓰기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의 창작 글쓰기 문화 또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과 시대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글쓰기 출현을 의미한다. 전업 작가가 아니라도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 소소한 글들이 많은 이들에 의해 주목 받고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소 책을 읽지 않는 독자라 할지라도 메일로 전달되는 <고도원의 아침편지>(www.godowon.com)를 꼬박꼬박 챙겨 읽으며, 위지안¹⁾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세계

1) 위지안은 푸단대학 최연소 교수로,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살 여 된 아들의 엄마로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2009년 말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지안은 힘든 투병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필치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병상 기록을 담은 투병 일기를 남겼다. 이후 그녀의 블로그에는 수백만 명의 방문자들이 다녀가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삶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웠다. 위지안의 사망 이후 그녀의 글은 <차기미완성(此生未完成)>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이 순간적인 감정 토로나 단편적인 단상 제시에 익숙해진 나머지 독자적으로 글을 생산하고 산출할 수 있는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의적 글쓰기의 가치가 글쓰기 주체의 강한 자기 주도성과 글쓰기의 '총체적 감수성'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실천하는 데로 나가는 것²⁾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여러 문제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글쓰기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글쓰기가 '소통'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자아 성찰과 치유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통한 치유는 텍스트 해석이나 교실 내에서의 학습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이나 문화 유산과의 접촉을 유도하면서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진학 부담이 덜한 고등학교 저학년 중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을 선발하여,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체험형 글쓰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체험형 글쓰기는 발표와 토론이 통합된 의사소통적 글쓰기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논증적 글쓰기와 달리 자유연상과 창의성 발현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거부감이 적고 글쓰기 초기 작업을 진행하기가 비교적 쉽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단계별 체험형 글쓰기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언어영역을 확장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을 관조하며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가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기 때문이다.³⁾ 이 과정에서 접근 방식과 대응 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운용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문화콘텐츠의 특성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속성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문화콘텐츠가 단순한 텍스트나 대상이 아니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산재한 문화콘텐츠를 글쓰기 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킨다면 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위주의 지식 확장과 정보 습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창의적인 글쓰기를 확장하여 현장 답사, 탐방, 공동작업 등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글쓰기에 대한 접근과 대응방식은 정량적 지표 평가와 결과 중심의 접근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국어 교육은 학생들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발현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제약하고 구속하는데 일조해왔다. 그 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글쓰기는 기피 1순위로 인식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학교 졸업 이후에도 글쓰기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경'의 영역에 머무르고 마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결합시킴으로써 흔히 범하기 쉬운 텍스트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에서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2) 박인기, 「미래 핵심역량, 창의인성, 그리고 작문교육: 글쓰기의 미래적 가치 -글쓰기의 미래적 효능과 글쓰기 교육의 양태(mode)」, 『작문연구』 20집, 한국작문학회, 2014, 12쪽.

3) 박상환,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의 소통과 가능성」, 『인문과학』 41권,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217쪽.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글쓰기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의 재미와 쓰는 즐거움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동 작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체험형 글쓰기와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단계별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위주의 표현력 학습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와 지도방향은 백일장이나 경연대회, 그리고 학교 성적과 같은 성과물 위주의 결과 중심주의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습방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마음껏 개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글쓰기를 경외시키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무형의 문화콘텐츠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루면서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문화콘텐츠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면성과 개방성이다. 고정 형태의 텍스트 중심의 문학과 달리 문화콘텐츠는 무한한 형태로 접근 가능하며, 개방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관심 유발이 가능하다. 현장 체험형 글쓰기는 글쓰기에서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글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와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수반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글쓰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장르를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의 혼합형 글쓰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텍스트와 달리 문화콘텐츠가 논의와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법 개발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 창작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 작가들은 창작 과정에서 폐쇄적인 형태의 개별 작업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쇄적이고 과도한 몰입 성향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단절을 유발하거나 자기 파멸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의 최종단계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창작과 함께 공동 창작을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생하며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체험형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

커피의 불모지였던 강릉의 화려한 변신과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모할 정도로 우직하게 커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녔던 몇몇 이들 때문이었다.⁴⁾ 강릉이 해마다 커피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달라진 이면에는 커피를 현지화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대 흐름을 읽는 안목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저변에는 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된다는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커피라는 매체를 창의적으로 접근함으로

4) 김현예, “이 사람의 집념…… 강릉 어촌을 커피1번지로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4. 2. 1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846512&cloc=olink|article|def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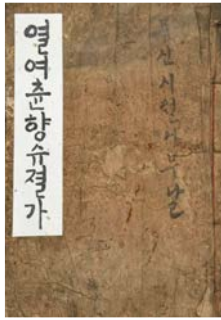
써 사람들에게 강릉을 자연스럽게 커피의 고장으로 연상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글쓰기는 일반인에게 친숙함이나 동경보다는 외경과 경원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인식의 전환과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강릉 커피의 사례처럼 글쓰기에도 발상의 전환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의 경우,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글로 형상화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글쓰기 기술이나 숙련도가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막연한 거부감이나 공포가 자리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소년들이 갖는 선입견과 글쓰기에 대한 경계감을 해제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글쓰기를 방해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에 산재한 문화콘텐츠는 응용하기에 따라 과거의 문화유산 텍스트나 박물관에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엄연한 실체이자 무형의 자산이다.

이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글쓰기는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글쓰기와 달리 자연과 현장 탐방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상생과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치열한 학업에 내몰리고, 일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청소년을 위한 치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 속에 내재한 문제와 직면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인지하며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글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청소년들을 작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악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는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텍스트의 올바른 접근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탐방에 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체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한다. 기존 접근방식이 텍스트 위주였다면 체험형 글쓰기에서는 학생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MSOU(Multi Source One use) 방법론을 시도한다. 교사는 사전에 몇 개의 전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익히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실제 탐방에 앞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관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열린 상태에서 문화콘텐츠와 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별 접근과 모둠 활동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실질적인 위상과 우리 삶에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으며, 콘텐츠가 오늘날 각광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이 사전에 지니고 있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실제 대상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며, 상호 접점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해당한다.



<‘열여춘향슈절가’>



영화 「춘향전」



드라마 「쾌걸 춘향」



「마당놀이 춘향전」

이때 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캐릭터 설정, 스토리 점검, 관광 산업과의 연계,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모색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학생들이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기 이전에 텍스트를 포함한 기초 훈련을 시도함으로써 시야 확장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격적인 글쓰기 훈련에 앞서 대상을 제대로 관조하고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실제 무대인 현장 탐방을 중심으로 글쓰기의 기초 자료 조사와 오감을 동원한 글쓰기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때 학생들은 1단계에서 추출한 문화콘텐츠의 개별 요소를 토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현장의 생생함과 역동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지역 문화로서의 문화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남원 홍부마을 조성지>

<남원 홍부제>

이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문화콘텐츠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 모티프를 캐릭터, 상황별, 사건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그 발생 원인을 추론하거나 텍스트의 행간 채워 넣기 등을 시도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발상 전환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화콘텐츠가 지닌 다양한 문화 층위를 검토하고, 문화콘텐츠의 행간 읽기를 시도하게 하여 의미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그동안 상상하고 추론하였던 문화콘텐츠의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현장 탐방과정에서 인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개인활동과 모둠활동을 병행하는 이 과정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재해석, 상황 재구성, 패러디 작업, 캐릭터 발굴 등이 이루어지며 이후 글쓰기 과정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지역 문화해설사나 향토사학자의 도움을 얻어 지역 전설이나 민담에 대한 해설, 문화 상징 및 이미지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이해, 문화 원형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찾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장에서 문화콘텐츠의 실체를 접하면서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모티프를 추출하고 상상력의 발현과정을 체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교실과 달리 개방성을 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감을 최대한 동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이후 글쓰기의 개요 작업과 구조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가자들은 현장 탐방과정에서 뜻밖에 발생하는 우연성, 의외의 인물과의 조우, 사건의 시발점 찾기 등을 통하여 풍성하고 윤택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표현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3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문화자료 등을 패러디하거나 주요 요소를 해체·재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학생들은 서사의 특성을 문화콘텐츠와 결부시키면서 대립과 갈등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체험형 글쓰기는 오디오 텍스트, 비디오 텍스트, 문자 텍스트가 함께 결합되고 조응되는 멀티미디어 텍스트 글쓰기, 즉 다중적이지 입체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미디어 글쓰기⁶⁾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실제 탐방 체험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 캐릭터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제작이나 다큐멘터리 작업에 참여하거나 각종 공모전 참가 등으로 역량을 확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개인별 스토리보드 작업과 공동 협업용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역량 발휘와 공동체 작업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참가자들 간의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 개별 글쓰기의 한계를 보완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동 작업이 갖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단계 소통 강화와 사후 보완 단계에서는 1, 2단계에 걸쳐 축적한 내용을 참가자가 자기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때 참가자들은 문화콘텐츠를 자신의 생활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전문가와 협조하여 글쓰기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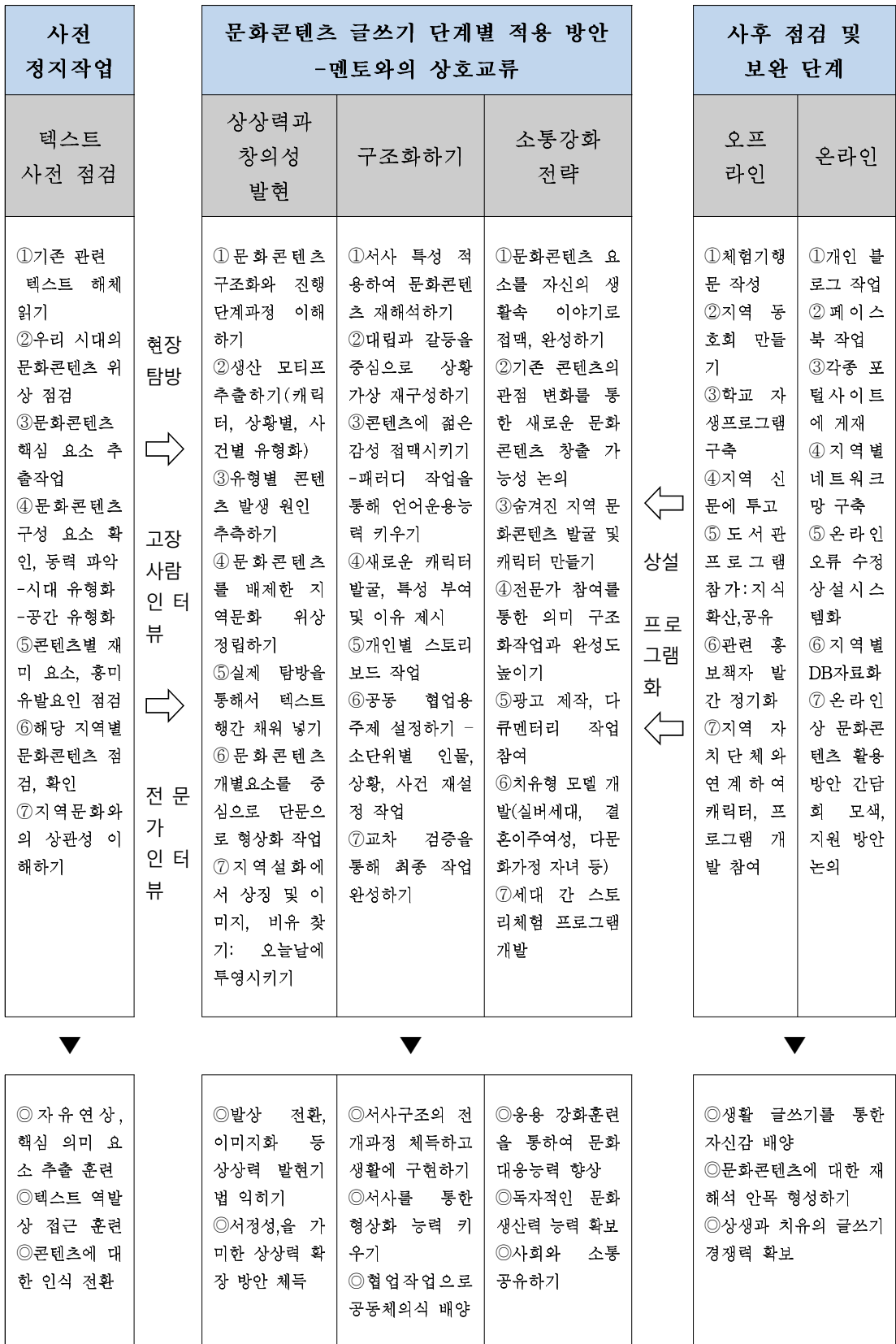
5) http://www.heungbu.or.kr/sub/sub_23.php.

6) 송팔성,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글쓰기 교과과정,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2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07, 114쪽.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투영한 창작 기행문 작성, 지역 문화 지킴 동호회 결성, 학교에 독자적인 형태의 글쓰기 프로그램 구축 제안, 지역 신문 투고,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콘텐츠 관련 홍보 책자의 발간, 참여자 중심의 문화 동아리 결성, 지역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캐릭터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글쓰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문화콘텐츠라는 구체적인 매개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형상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는 외부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또래의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실버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치유형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각종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최종 결과물을 전자책 발간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성취도 또한 커질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체험형 글쓰기는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제안이다. 이것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자신들의 꿈에 대해 언급할 여유조차 차단당해버린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보다 운택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게 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런 점에서 체험형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개인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 문화의 잠재적인 생산자와 수요층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문화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우리 문화 산업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나오는 말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문화콘텐츠를 접근하고 있다. 그 방식도 고전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화 유산과 연계하여 캐릭터의 재해석, 기존 텍스트의 다양한 장르 변용 작업과 같이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탐방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협업작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해 '텍스트 해체와 접근 단계 → 현장 탐방과 글쓰기 기초 작업 → 협업 작업과 공동 창작물 완성'과 같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현장 체험 보고서나 기행문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현상의 다각적 접근, 현장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향상, 표현력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 글쓰기의 자생력을 키우고 잠재적인 언어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에 기반을 둔 3단계의 체험형 글쓰기 전략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변화와 함께 내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연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감을 활용한 글쓰기가 가능하며, 현실과 이론의 괴리에서 오는 간극을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대체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글쓰기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사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과 중심 글쓰기 연구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대상이 고등학교 1~2학년이며, 이들이 학교 수학과정 이후에도 자신만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지원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학생들이 텍스트 위주의 기술이나 요령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유산과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직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화콘텐츠의 토대를 이루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과 직면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 위주의 학습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경직성과 정형화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으며, 창작과정에서 필요한 발상 전환과 시야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실제 그들만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역량을 점검하고, 문화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이 방안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발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한 문화콘텐츠는 우리의 문화자산일 뿐만 아니라 창작의 중요한 소재이자 창작 원천으로서 동력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생생한 현장 탐방을 통하여 문화의 현장을 오감으로 체감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및 집단창작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장에 기반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은 글쓰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우연성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 개념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각 지역별 답사를 통해 축적한 작업을 창작집 형태로 발간하고, 다른 장르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문화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치유의 가치와 의미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연에 자리한 문화콘텐츠를 직접 접촉하고 체험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신을 돌이켜 보고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실 수업

에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사고와 자성의 기회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만의 사유체계를 만들고 지식을 형성해가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글쓰기 본연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생들이 현장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유체계는 평생을 살아가는 자산이자 실력 형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 신장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열정을 토대로 주변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콘텐츠 탐방팀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언어역량의 강화만이 아니라 소통의 중요성,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언어 측면에서의 지역 문화콘텐츠 접근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문화콘텐츠 모임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지고, 다른 연령층으로 점차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모임이 증가한다면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 바로 알기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등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구·김종태·장은석,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적 상상력』, 글누림, 2005.
- 고운기, 「문화원형의 의의와 삼국유사」, 『한문학회』 24권, 우리한문학회, 2011.
- 고은미 외, 『문학, 디지털 시대의 화려한 변신』, 글솜대, 2005.
- 고정민,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에서의 창의성 유형 및 사례」,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16권 3호, 2013.
- 김경숙,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사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치료사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57권,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10.
- 김덕수, 「문화산업으로서의 문학산업」, 『현대문학이론연구』 25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김미경, 「장흥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한국도서연구』 21권 2호, 한국도서(섬)학회, 2009.
- 김수연·강정아, 「읽기부진아를 위한 체험형 독서프로그램 설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권 3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2.
- 김의숙·이창식,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8.
- 김정근·신주영·김순화·김수경, 「체험형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49권 3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08.
- 김종균, 「이야기문화의 현재적 양상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겨레어문학』 42집, 겨레어문학회, 2009.
- 김풍기, 「힐링을 위한 문학교육 1-문학, 힐링, 그리고 문학교육: 전란의 상처와 치유로서의

- 글쓰기 -허균의 <학산초담(鶴山樵談)>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 김현예, “이 사람의 집념…… 강릉 어촌을 커피1번지로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4. 2. 11.
- 류정아,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활성화」, 『유럽연구』 24권, 한국유럽학회, 2006.
- 박기수, 「문화콘텐츠 정전 구성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박상천, 「예술의 변화와 문화콘텐츠의 의의」, 『인문콘텐츠』 2집, 인문콘텐츠학회, 2003.
- 박상환,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의 소통과 가능성」, 『인문과학』 4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박선애, 「한국 근·현대문학의 동·식물 상징 기호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로서의 가능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30권, 우리어문학회, 2008.
- 박영민, 「쓰기 치료를 위한 개인적 서사문 중심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 『한어문교육』 27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 박인기, 「미래 핵심역량, 창의인성, 그리고 작문교육: 글쓰기의 미래적 가치 -글쓰기의 미래적 효능과 글쓰기 교육의 양태(mode)」, 『작문연구』 20집, 한국작문학회, 2014.
- 방지원, 「역사교육에서 '글쓰기 수업'의 실천과 연구 동향」, 『역사교육연구』 17호, 역사교육학회, 2013.
- 백재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콘텐츠 활용현황 연구」, 『조형미디어학』 13권 4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0.
- 서동훈·김효정,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삼성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3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 송명진, 「과정 중심적 글쓰기 교육과 상호텍스트성」, 『교양교육연구』 5(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 송팔성,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글쓰기 교과과정」,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2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07.
- 송현동, 「문화콘텐츠와 한국학」, 『종교연구』 44권, 한국종교학회, 2006.
- 송팔성,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글쓰기 교과과정」,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2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07.
-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 신원선, 「한국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오세정, 「이야기와 문화콘텐츠」, 『시학과 언어학』 11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6.
- 오장근, 「문화콘텐츠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분석 도구 -텍스트-기호학에 기반한 문화연구를 위하여-」, 『언어과학연구』 38권, 언어과학회, 2006.
- 오태헌, 「한일 문화콘텐츠 사업의 지원 정책 현황과 특징」, 『일본연구논총』 25권, 현대일본학회, 2007.
- 유영희, 「현대시 교육콘텐츠의 구축방안과 의미」, 『국어교육』 125호, 한국어교육학회, 2008.
- 윤여수, 「세계 겨냥 '삼국지: 용의 부활...' 해외진출 새 장 열다」, 『스포츠동아』, 2008. 3. 27.

- 윤채근, 「한문 교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 한문소설의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문화교육의 이론적 실천을 위하여-」, 『한문교육연구』 3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이도흠, 「상상력의 열림과 닫힘: 그 생성원리 및 양상」, 『국어국문학』 제146호, 국어국문학회, 2007.
- 이상진, 「문화콘텐츠 ‘김유정’, 다시 이야기하기 -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이순영, 김주환, 「미래 핵심역량, 창의인성, 그리고 작문교육: 대학글쓰기교육과 핵심역량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 연구」, 『작문연구』 20호, 한국작문학회, 2014.
- 이인선, 「표현적 글쓰기가 작업기억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7권 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13.
- 이장우, 「한국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해외진출전략」, 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
- 이재수, 「고려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선학』 30호, 한국선학회, 2011.
- 이지영, 「‘삼국지…’ 이인항 감독 ‘한국 CG 기술 덕에 영화 살았다」, 『동아일보』, 2008. 3. 24.
-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30호, 온지학회, 2012.
- 임완혁, 「조선 후기 서사산문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벽초(碧初) 홍명희(洪命熹)를 통해 배우는」, 『한문학보』 24권, 우리한문학회, 2011.
- 임춘택,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성경 구약의 『에스더』를 활용한 수업안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5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10.
- 장노현, 「인문학적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한민족문화연구』 18권, 한민족문화학회, 2006.
-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장창영 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신아출판사, 2006.
- 장창영,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활용 방안」, 『동아시아문화연구』 44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전방지·심상민,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글누림, 2005.
- 정경운, 「서사물의 디지털콘텐츠 전략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정미영, 「내포제 소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방안」, 『한국학연구』 39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 한강희, 「문화유산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연구 시론: 효율적인 문화유산 안내해설을 위한 방법론적 모색」, 『우리어문연구』 36권, 우리어문학회, 2010.
- 한귀은, 「서간체 글쓰기의 문학치료 및 문학교육적 효과」, 『배달말교육(모국어교육)』 31권, 배달말교육학회, 2010.
- 한희경, 「‘장소를 축매로 한’ 치유의 글쓰기와 지리교육적 함의: ‘나를 키운 장소’를 주제로 한 적용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4), 대한지리학회, 2013.

<토론문>

노용무(호원대)

장창영 선생님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에 대한 토론문

이 연구는 기존의 글쓰기 방식과 달리 사전 단계에서 텍스트 위주의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방을 통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글쓰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글쓰기의 동력 부여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의 배경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 전, 실제 탐방, 탐방 후 글쓰기 작업과 사후 관리의 3단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가 판단하기로 이 글이 지닌 강점은 두 가지다. 먼저, 논구의 대상인 체험형 글쓰기가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제안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에서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논의의 범주에 속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공감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심의 문화 집중은 비단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이 서울 중심이라면, 전라북도도 전주다.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은 케케묵은 이론의 틀거리만은 아닐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 중심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개체는 항상 자신의 삶이 놓인 자리를 타자화할 것이다. 이때 자신을 둘러싼 지역의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잇닿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글쓰기의 모형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를 적극 동조 동감하면서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고민의 여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글쓰기 학습에 대해 논구한다는 점이다. 고3을 앞둔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임을 감안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서 차라리 예비 고3이라 할 터인데, ‘과연’이란 회의적 시각을 숨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학생을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닐까.

둘째, 위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 예를 들면,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자아 성찰과 치유, 치열한 학업에 내몰리고, 일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청소년을 위한 치유 등등.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연구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압박이거나 신중 바이러스처럼 대처 불가능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셋째, 위향을 적서한 이유는 현재의 고교생들이 연구자가 제안한 방식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던 단 시간에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과정을 요구하는 과제일 터, 길게 본다면 한 학기를 바라 볼 수도 있다. 논문에는 단계별 시기나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논의를 개괄적으로 전개하는 바, 사전 정지작업부터 사후 점검 및 보완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나 시기/시간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넷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 그림으로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예시 그림이 일관되지 못

하고 있다. 춘향전과 흥부전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그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연구자가 논구하는 논점과 대비하여 초점화시켜 논의를 이끈다면 좀더 설득력있는 서술이 되지 않을까.

좋은 글, 좋은 방안, 좋은 대안으로 실제 현장 교육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3부 연구윤리 교육

【국어문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국어문학회 학술연구윤리 규정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회원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해 성실, 명예 및 존엄을 안아 행동해 자기의 지식과 기능 및 인격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규범을 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10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차석부회장이 맡는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위반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윤리규정)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가.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나.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2)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나.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나.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회칙은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